

1		00 序說	
2	史記世家曰 孔子 名丘 字仲尼 其先宋人 父叔梁紇 母顏氏 以魯襄公二十二年庚戌之歲 十一月庚子 生孔子於魯昌平鄉陬邑 爲兒嬉戲 常陳俎豆 設禮容 及長爲委吏 料量平 爲司職吏 畜蕃息		《사기(史記)》세가(世家)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공자(孔子)의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 그 조상은 송(宋) 나라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숙양홍(叔梁紇), 어머니는 안씨(顏氏)로 노(魯) 양공(襄公) 22 년(庚戌) 11 월 경자일(庚子日)에 노(魯) 나라 창평향(昌平鄉) 추읍(?邑)에서 공자를 낳았다. 아이 적에 놀 때는 늘 조두(粗豆)를 늘어놓고 예모를 차리고는 하였다. 자라나자 위리(委吏)가 되어서는 회계(會計)가 맞았고 사직리(司職吏)가 되어서는 가축(家畜)이 번식하였다.
3	適周 問禮於老子 既反而弟子益進 昭公二十五年甲申 孔子年三十五 而昭公奔齊魯亂 於是 適齊 爲高昭子家臣 以通乎景公 公欲封以尼谿之田 晏嬰不可 公惑之 孔子遂行 反乎魯		주(周) 나라에 가서 노자(老子)에게 예(禮)를 물었고, 돌아와서는 제자들이 더욱 모여들었다. 소공(昭公) 25 년(甲申) 공자의 나이 35 세 때 소공(昭公)이 제 나라로 망명하여 노(魯) 나라가 혼란해졌다. 그래서 제 나라로 가 고소자(高昭子)의 가신(家臣)이 되어 가지고 경공(景公)에게 통했다. 경공(景公)은 이계(尼谿)의 전지(田地)로 공자를 봉해 주려고 하였는데 안영(晏?)에 넘어갔다. 공자는 그 길로 떠나서 노(魯) 나라로 돌아갔다.
4	定公元年壬辰 孔子年四十三 而季氏强僭 其臣陽虎作亂傳政 故 孔子不仕 而退修詩書禮樂 弟子彌衆 九年庚子 孔子年五十一 公山不狃 以費畔季氏 召孔子 欲往而卒不行 定公 以孔子爲中都宰 一年 四方則之 遂爲司空 又爲大司寇		정공(定公) 원년(元年, 壬辰)에 공자의 나이는 43 세였는데 계씨(季氏)가 강폭(强暴)하고 참월(僭越)하게 굴었고, 그 가신(家臣) 양호(陽虎)가 난동을 일으켜 정사(政事)를 전단(專斷)하였다. 공자는 그 길로 떠나서 노(魯) 나라로 돌아갔다. 정공(定公) 원년(元年, 壬辰)에 공자의 나이는 43 세였는데 계씨(季氏)가 강폭(强暴)하고 참월(僭越)하게 굴었고, 그 가신(家臣) 양호(陽虎)가 난동을 일으켜 정사(政事)를 전단(專斷)하였다.
5	十年辛丑 相定公 會齊侯于夾谷 齊人歸魯侵地 十二年癸卯 使仲由 爲季氏宰 墮三都 收其甲兵		동(同) 10 년(辛丑)에 정공(定公)이 협곡(夾谷)에서 제후(諸侯)를 만나는 것을 보좌하였는데 제 나라 사람들이 침략한 땅을 노(魯) 나라에 반환하였다. 동(同) 12 년(癸卯)에 중유(仲由, 즉 자로(子路))를 계씨(季氏)의 가재(家宰)로 하여 삼도(三都)를 공략시키고 그곳의 무비(武備)를 몰수하였다.

6	孟氏不肯墮成 圍之不克 十四年乙巳 孔子年五十六 攝行相事 誅少正卯 與聞國政 三月 魯國大治 齊人歸女惡以沮之 季桓子受之 郊又不致膳俎於大夫 孔子行	맹씨(孟氏)는 삼도성(三都城)을 함락시키지 않으려고 그곳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동(同) 14년(乙巳), 공자의 나이 56세 때 국상(國相)의 일을 섭행(攝行)하여 소정묘씨(少正卯氏)를 처형(處刑)하였다. 국정(國政)에 참여하자 3개월만에 노(魯) 나라는 매우 잘 다스려졌다. 제 나라 사람들이 여자 악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혼란시키려 하였는데, 계환자(季桓子)가 그 여자 악사들을 받고 교사(郊祀)를 지내고서는 또 대부(大夫)에게 제육(祭肉)을 보내지 않아서 공자는 떠나갔다.
7	適衛 主於子路妻兄顔濁鄒家 適陳 過匡 匡人以爲陽虎而拘之 既解還衛 主蘧伯玉家 見南子 去適宋 司馬桓魋 欲殺之 又去適陳 主司城貞子家 居三歲而反于衛 靈公不能用	위(衛) 나라에 가서 자로(子路)의 동서(同壻)인 안탁추(顔濁鄒)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있었다. 진(陳) 나라로 가는데 광읍(匡邑)을 지나자 광읍의 사람들이 양호(陽虎)라고 생각하고 그를 구금(拘禁)하였다. 구금이 풀리자 위(衛) 나라로 돌아와 거백옥(?伯玉)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있었다. 남자(南子)를 만났다. 거기를 떠나 송(宋) 나라로 갔는데 사마환퇴(司馬桓魋)가 그를 살해하려고 하여 또 거기서 떠나 진(陳) 나라로 가서 사성정자(司城貞子)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있었다. 3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위(衛) 나라로 돌아갔는데, 영공(靈公)은 그를 등용하지 못했다.
8	晉趙氏家臣佛盼 以中牟畔 召孔子 孔子欲往 亦不果 將西見趙簡子 至河而反 又主蘧伯玉家 靈公問陳 不對而行 復如陳 季桓子卒 遺言胃康子 必召孔子 其臣止之 康子乃昭冉求 孔子如蔡及葉 楚昭王 將以書社地 封孔子 令尹子西不可 乃止 又反乎衛	진(晉) 나라의 조씨(趙氏)의 가신(家臣)인 불힐(佛?)이 중모(中牟)를 근거지로 반기(叛旗)를 들고 공자를 불렀다. 공자는 가려고 하였으나 역시 가지 못하고 말았다. 조간자(趙簡子)를 만나려고 황하(黃河)에까지 갔다가는 되돌아 와서 또 거백옥(?伯玉)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있었다. 영공(靈公)이 전진(戰陣)에 관해서 묻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떠나 다시 진(陳) 나라로 갔다. 계환자(季桓子)가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으로 강자(康子)에게 일러 반드시 공자를 부르도록 하라고 하였으나 그의 가신(家臣)이 그것을 말렸다. 강자(康子)는 그래서 염구(?求)를 불렀던 것이다. 공자는 채(蔡)와 엽(葉)으로 갔다. 초(楚) 소왕(昭王)이 서사(書社)의 땅으로 공자를 봉하였으나 영윤(令尹) 자서(子西)가 반대하여 그만두었다. 다시 위(衛) 나라로 되돌아갔다.

9	時 靈公已卒 衛君輒 欲得孔子爲政 而冉求爲季氏將 與齊戰有功 康子乃召孔子 而孔子歸魯 實 哀公之十一年丁巳而孔子年六十八矣 然 魯終不能用孔子 孔子亦不求仕 乃敍書傳禮記 刪詩正樂 序易象繫象說卦 文言 弟子蓋三千焉 身通六藝者七十二人 十四年庚申 魯西狩獲麟 孔子作春秋	그때 영공(靈公)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로 위의 국군(國君) 첩(輒)이 공자를 얻어서 정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염구(?求)가 계씨(季氏)의 장수가 되어 제 나라와 싸워서 공을 세워 강자(康子)가 공자를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노(魯) 나라로 돌아갔다. 그때는 실로 애공(哀公) 11 년(丁巳)이고 공자의 나이는 68 세였다. 그러나 노(魯) 나라에서는 마침내 공자를 등용(登用)하지 못하고 공자 역시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고 《서경(書經)》과 《예기(禮記)》를 편차(編次)하고, 시경(詩經)을 산정(刪定)하고 음악을 바로잡고 《역(易)》의 녹전(?傳)·번사전(繁辭傳)·설괘(說卦) 및 문언(文言)을 서술하였다. 제자가 3 천인이었고 그 중에 자신이 육예에 통호(通曉)했던 자가 72 인이다. 동(同) 14 년(庚申)에 노(魯) 나라에서는 서부(西部)에서 사냥하다가 기린을 잡았다. 공자가 《춘추(春秋)》를 지었다.
10	明年辛酉 子路死於衛 十六年壬戌四月己丑 孔子卒年七十三 葬魯城北泗上 弟子皆服心喪三年而去 惟子貢廬於塚上 凡六年 孔子生鯉 字伯魚 先卒 伯魚生伋 字子思 作中庸 何氏曰 魯論語 二十篇 齊論語別有問王知道 凡二十二篇 其二十篇中章句頗多於魯論	그 이듬해 신유년(辛酉年)에 자로(子路)가 위(衛) 나라에서 죽었다. 동(同) 16 년(壬戌) 4 월 기축일(己丑日)에 공자가 세상을 떠났다. 나이는 73 세였다. 노(魯) 나라의 도성(都城) 북쪽 사수(泗水)가에 장사지냈다. 제자들은 모두 3 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고서는 떠나갔다. 오직 자공(子貢)만은 무덤가 여막(廬幕)에서 거처하기를 무릇 6 년 동안이나하였다. 공자는 리(鯉)를 낳았다. 자(字)는 백어(伯魚), 먼저 세상을 떠났다. 백어(伯魚)는 금(伋)을 낳았다. 그는 《자사(子思)》, 《중용(中庸)》을 지었다. 하씨(何氏)는 이렇게 말했다. 《노논어(魯論語)》는 20 편(篇)이다. 《제논어》는 그밖에 문왕(問王)·지도(知道) 두 편이 더 들어 있어 도합 22 편(篇)이고 장(章)과 구(句)가 노논(魯論)보다 펍 많다.
11	古論出孔氏壁中 分堯曰下章子張問 以爲一篇 有兩子張 凡二十一篇 篇次不與齊魯論同 程子曰 論語之書 成於有子曾子之門人 故 其書獨二子以子稱 程子曰 讀論語 有讀了全然無事者 有讀了後 其中得一兩句喜者 有讀了後 知好之者 有讀了後 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者	《고론(故論)》은 공자 고택(故宅)의 벽 중에서 나왔는데 요왈편(堯曰篇)의 하장(下章) 「자장문(子張問)」 이하를 갈라서 1 편(一篇)으로 독립시켜 자장편(子張篇)이 있어 도합 21 편(篇)이고, 편차(篇次)가 제·노론(魯論)과 같지 않다.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논어》라는 책은 유자(有子)와 증자(曾子)의 문인(門人)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그래서 그 책에는 그 두

			사람만을 자(子)로 호칭한 것이다.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논어》를 읽는데. 다 읽고 나서도 전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다 읽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한두 구(句)를 얻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읽고 나서 그것을 좋아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다 읽고 나서 그냥 손이 덩실거리고 발이 들먹거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12	程子曰 今人 不會讀書 如讀論語 未讀時 是此等人 讀了後 又只是此等人 便是不曾讀 程子曰 願自十七八 讀論語 當時已曉文義 讀之愈久 但覺意味深長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새 사람들은 책을 읽을 줄 모른다. 만약에 《논어》를 읽어서, 읽지 않았을 때에 그러그러한 사람이 다 읽고 나서도 또 단지 그러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읽지 않은 것이다.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17, 18 세부터 《논어》를 읽었는데 그때는 이미 글의 뜻은 알았었다. 그것을 읽는 것이 오래 될수록 그저 의미가 심장(深長)함을 느낀다.
13	01 學而 第一 凡十六章	01 學而 第一	제 01 편. 학이(學而) 16 장. ♣ 학이편은 논어의 서편(緒編)으로 학문의 중요성과 공자의 사상이 깃들여 있다. 편목(篇目)을 구별하기 위해 각편(各篇) 첫 장에서 두 글자씩을 따다가 편명(篇名)으로 삼고 있다. 학이편(學而篇)은 16 장(章), 배우는 사람이 먼저 힘써 해야 할 기본 되는 일이 많이 다루어져 있다.
14	學之爲言 效也 人性皆善 而覺有先後 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 習 鳥數飛也 學之不己 如鳥數飛也 說 喜意也 既學而又時時習之 則所學者熟而中心喜說 其進 自不能已矣 程子曰 習 重習也 時復思繹 浹洽於中 則說也 又曰學者 將以行之也 時習之 則所學者在我 故悅 謝氏曰 時習者 無時而不習 坐如尸 坐時習也 立如齊 立時習也	01-01-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제 때에 그것을 복습하는 것은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15	朋同類也 自遠方來 則近者可知 程子曰 以善及人 以信從者衆 故可樂 又曰 說在心 樂主發散 在外	01-01-2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벗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은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16	慍含怒意 君子成德之名 尹氏曰 學在己 知不知 在人 何慍之有 程子曰 雖樂於及人 不見是而無悶 乃所謂君子 愚謂及人而樂者 順而 不知而不慍者 逆而難 故 惟成德者能之 然德之所以成 亦由學之正 習之熟 說之深而不已焉耳 ○ 程子曰 樂由說而後得 非樂 不足以語君子	01-01-3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남이 자기의 실력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노여워하지 않는 것은 또한 군자(君子)답지 아니하냐.

17	有子孔子弟子名若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弟 犯上謂干犯在上之人 鮮少也 作亂 則爲悖逆爭鬪之事矣 此 言人能孝弟 則其心和順 少好犯上 必不好作亂也	01-02-1 有子曰 其爲人也 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유자(有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됨이 효성 있고 우애스러우면서, 웃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웃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 싫어하면서,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란 여태껏 나와 본 일이 없다.
18	務專力也 本 猶根也 仁者 愛之理 心之德也 爲仁 猶曰行仁 與者 疑辭 謙退不敢質言也 言君子凡事 專用力於根本 根本既立 則其道自生 若上文所謂孝弟 乃是爲仁之本 學者務此 則仁道自此而生也 ○ 程子曰 孝弟 順德也 故 不好犯上 豈復有逆理亂常之事 德有本 本立 則其道充大 孝弟行於家而後 仁愛及於物 所謂親親而仁民也 故爲仁 以孝弟爲本 論性則以仁爲孝弟之本 或問 孝弟爲仁之本 此是由孝弟可以至仁否 曰 非也 謂行仁自孝弟始 孝弟 是仁之一事 謂之行仁之本則可 謂是仁之本則不可 蓋仁 是性也 孝弟 是用也 性中 只有箇仁義禮智四者而已 曷嘗有孝弟來 然 仁主於愛 愛莫大於愛親 故 曰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01-02-2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군자(君子)는 기본 되는 일에 힘쓰거니와 기본이 서야 도가 생겨난다. 효성과 우애란 것은 인을 실천하는 기본일게다.
19	巧 好 令 善也 好其言 善其色 致飾於外 務以悅人 則人欲肆而本心之德 亡矣 聖人 辭不迫切 專言鮮 則絕無可知 學者所當深戒也○ 程子曰 知巧言令色之非仁 則知仁矣	01-03-1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빠른 말과 좋은 듯이 꾸미는 얼굴엔 인이 드물다.
20	曾子 孔子弟子 名參 字子輿 盡己之謂忠 以實之謂信 傳 謂受之於師 習 謂熟之於己 曾子以此三者 日省其身 有則改之 無則加勉 其自治誠切 如此 可謂得爲學之本矣 而三者之序 則又以忠信爲傳習之本也 ○尹氏曰 曾子守約 故 動心求諸身 謝氏曰 諸子之學 皆出於聖人 其後愈遠而愈失其真 獨曾子之學 專用心於內 故 傳之無弊 觀於子思孟子 可見矣 惜乎 其嘉言善行 不盡傳於世也 其幸存而未泯者 學者其可不盡心乎	01-04-1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세 가지로 반성한다. 즉, 남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데 있어 전력을 다하지 않았는지? 벗들과 사귀는데 있어 신용 없이 굴지 않았는지? 가르쳐 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지?

21	道 治也 千乘 諸侯之國 其地可出兵車千乘者也 敬者 主一無適之謂 敬事而信者 敬其事而信於民也 時 謂農隙之時 言治國之要 在此五者 亦務本之意也 ○ 程子曰 此言至淺 然 當時諸侯果能此 亦足以治其國矣 聖人 言雖至近 上下皆通 此三言者 若推其極 堯舜之治 亦不過此 若常人之言 近則淺近而已矣 楊氏曰 上不敬則下慢 不信則下疑 下慢而疑 事不立矣 敬事而信 以身先之也 易曰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 蓋侈用則傷財 傷財 必至於害民 故 愛民 必先於節用 然 使之不以其時 則力本者不獲自盡 雖有愛人之心 而人不被其澤矣 然 此 特論其所存而已 未及爲政也 苟無是心 則雖有政 不行焉 胡氏曰 凡此數者 又皆以敬爲主 愚謂 五者 反復相因 各有次第 讀者宜細推之	01-05-1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매사를 조심해서 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신용 있게 하며, 비용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끼며,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국민을 동원해 쓸 일이다.
22	謹者 行之有常也 信者 言之有實也 汎 廣也 衆 謂衆人 親 近也 仁 謂仁者 餘力 猶言暇日 以 用也 文 謂時書六藝之文 ○ 程子曰 爲弟子之識 力有餘則學文 不修其職而先文 非爲己之學也 尹氏曰 德行 本也 文藝 末也 窮其本末 知所先後 可以入德矣 洪氏曰 未有餘力而學文 則文滅其質 有餘力而不學文 則質勝而野 愚謂 力行而不學文 則無以考聖賢之成法 識事理之當然 而所行 或出於私意 非但失之於野而已	01-06-1 子曰 弟子立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은 집에 들어오면 효성 있게 굴고, 밖에 나가면 우애 있게 굴고, 삼가고 신용 있게 굴고, 널리 여러 사람을 아끼고 인자한 인물을 가까이 하고, 이러한 것을 실천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 남은 힘으로 글을 배운다.
23	子夏 孔子弟子 姓卜名商 賢人之賢而易其好色之心 好善有誠也 致 猶委也 委致其身 謂不有其身也 四者 皆人倫之大者 而行之必盡其誠 學求如是而已 故子夏言有能如是之人 苟非生質之美 必其務學之至 雖或以爲未嘗爲學 我必謂之已學也 ○ 游氏曰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能是四者 則於人倫厚矣 學之爲道何以加此 子夏以文學名而其言如此 則古人之所謂學者 可知矣 故 學而一篇 大抵皆在於務本 吳氏曰 子夏之言 其意善矣 然 詞氣之間 抑楊大(太)過 其流之弊 將或至於廢學 必若上章夫子之言然後 爲無弊也	01-07-1 子夏曰 賢賢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자하(子夏)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능 있는 인물을 존경하고, 여색(女色)을 멀리하고, 부모를 섬기는 데 자기 힘을 다할 수 있고, 임금을 섬기는 데 자기 몸을 바칠 수 있고, 벗들과 사귀는 데 말에 신용이 있다면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24	重 厚重 威 威嚴 固 堅固也 輕乎外者 必不能堅乎內 故 不厚重 則無威嚴 而所學 亦不堅固也	01-08-1 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자중(自重)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학문도 근거(根柢)가 견고해지지 않는다.
25	人不忠信 則事皆無實 爲惡則易 爲善則難 故 學者必以是爲主焉 ○程子曰 人道惟在忠信 不誠則無物 且出入無時 莫如其鄉者 人心也 若無忠信 豈復有物乎	01-08-2 主忠信	충성과 신용을 주로 하고,

26	無 無通 禁止辭也 友 所以輔仁 不如己 則無益而有損 勿 亦禁止辭 憚 畏難也 自治不勇 則惡日長 故 有過則當速改 不可畏難而苟安也 程子曰 學文之道 無他也 知其不善 則速改以從善而已 ○程子曰 君子自修之道 當如是也 游氏曰 君子之道 以威重爲質 而學以成之 學之道 必以忠信爲主 而以勝己者輔之 然 或吝於改過 則終無以入德 而賢者未必樂告以善道 故 以過勿憚改 終焉	01-08-3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고, 과오를 저지르면 그것을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27	愼終者 喪盡其禮 追遠者 祭盡其誠 民德歸厚 謂下民化之 其德亦歸於厚 蓋終者 人之所易忽也 而能謹之 遠者 人之所易忘也 而能追之 厚之道也 故 以此自爲 則其之德厚 下民化之 則其德亦歸於厚也	01-09-1 曾子曰 愼終追遠 民德 歸厚矣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을 신중하게 다루고, 먼 조상을 추모(追慕)하면 국민의 기풍이 후하게 될 것이다.
28	子禽 姓陳 名亢 子貢 姓端木 名賜 皆孔子弟子 或曰 亢 子貢弟子 未知孰是 抑 反語辭	01-10-1 子禽 問於子貢曰 夫子至於是邦也 必問其政 求之與 抑與之與	자공(子禽)이 자공(子貢)에게 묻기를,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사에 참견하시고는 하시는데, 그것은 자진해서 요구하셔서인가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 나라의 임금) 정사에 참여시켜서인가요?
29	溫 和厚也 良 易直也 恭 莊敬也 儉 節制也 讓 謙遜也 五者 夫子之盛德光輝接於人者也 其諸語辭也 人 他人也 言夫子未嘗求之 但其德容如是 故 時君敬信 自以其政就而問之耳 非若他人必求之而後得也 聖人過化存神之妙 未易窺測 然 卽此而觀 則其德盛禮恭而不願乎外 亦可見矣 學者所當潛心而勉學也 ○謝氏曰 學者觀於聖人威儀之間 亦可以進德矣 若子貢 亦可謂善觀聖人矣 亦可謂善言德行矣 今去聖人 千五百年 以此五者 想見其形容 尙能使人興起 而況於親炙之者乎 張敬夫曰 夫子至是邦 必聞其政 而未有能委國而授之以政者 蓋見聖人之儀刑而樂告之者 秉彝好德之良心也 而私欲害之 是以終不能用耳	01-10-2 子貢曰 夫子 溫良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온화·양순·공손·검약·사양 다섯 가지 덕성으로 인격을 이룩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진해서 요구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30	父在 子不得自專 而志則可知 父沒然後其行可見 故 觀此 足以知其人之善惡 然 又必能三年無改於父之道 乃見其孝 不然則所行雖善 亦不得爲孝矣 ○尹氏曰 如其道 雖終身無改 可也 如其非道 何待三年 然則三年無改者 孝子之心 有所不忍故也 游氏曰 三年無改 亦謂在所當改而可以未改者耳	01-11-1 子曰 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 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친이 생존할 때에는 그 뜻을 살피고,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 그 행적을 살펴, 부친이 해오던 방법을 3년 동안 고치지 않는다면 효자라 할 수 있다.

31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和者 從容不迫之意 蓋禮之爲體雖嚴 然 皆出於自然之理 故 其爲用 必從容而不迫 乃爲可貴 先王之道此其所以爲美而小事大事無不由之也	01-12-1 有子曰 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小大由之	유자(有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禮)의 실용적 가치는 조화(調和)에 있다. 고대 성왕(聖王)들의 도리는 그로 (調和라는 점으로) 인해서 아름다웠던 것으로 대소사를 막론하고 다 그것을 지향하여 행하여졌던 것이다.
32	承上文而言 如此而復有所不行者 以其徒知和之爲貴 而一於和 不復以禮節之 則亦非復禮之本然矣 所以流蕩忘反 而亦不可行也 ○ 程子曰 禮勝則離 故 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以斯爲美 而小大由之 樂勝則流 故 有所不行者 知和而和 不以禮節之 亦不可行 范氏曰 凡禮之體 主於敬 而其用則以和爲貴 敬者 禮之所以立也 和者 樂之所由生也 若有子 可謂達禮樂之本矣 愚謂 嚴而泰 和而節 此理之自然 禮之全體也 毫釐有差 則失其中正而各倚於一偏 其不可行 均矣	01-12-2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	조화로 지향하는 데도 일이 순조롭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한갓 조화에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만을 알고 조화를 지향하기만 하기 때문인데, 예로써 조절하지 않는다면, 역시 일이 순조롭게 행하여지지 않게 마련이다.
33	信 約信也 義者 事之宜也 復 踐言也 恭 致敬也 禮 節文也 因 猶依也 宗 猶主也 言約信而合其宜 則言必可踐矣 致恭而中其節 則能遠恥辱矣 所依者不失其可親之人 則亦可以宗而主之矣 此 言人之言行交際 皆當謹之於始而慮其所終 不然 則因仍苟且之間 將有不勝其自失之悔者矣	01-13-1 有子曰 信近於矣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	유자(有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이 정의를 가까우면 그 말은 실행할 수 있다. 공손한 것이 예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면할 수 있다. 의지하는 사람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역시 존경할 만하다.
34	不求安飽者 志有在而不暇及也 敏於事者 勉其所不足 謹於言者 不敢盡其所有餘也 然 猶不敢自是 而必就有道之人 以正其是非 則可謂好學宜 凡言道者 皆謂事物當然之理 人之所共由者也 ○ 尹氏曰 君子之學 能是四者 可謂篤志力行者矣 然 不取正於有道 未免有差 如楊墨學仁義而差者也 其流至於無父無君 謂之好學 可乎	01-14-1 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로서 식사하는 데는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고, 거처하는 데는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고, 일에 민첩하며 말에 조심스럽고,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가 자신을 바로 잡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35	諂 卑屈也 驕 矜肆也 常人 溺於貧富之中 而不知所以自守 故 必有二者之病 無諂無驕 則知自守矣 而未能超乎貧富之外也 凡曰可者 僅可而有所未盡之辭也 樂則心廣體胖 而忘其貧 好禮則安處善 樂循理 亦不自知其富矣 子貢貨殖 蓋先貧後富 而嘗用力於自守者 故 以此爲問 而夫子答之如此 蓋許其所已能 而勉其所未至也	01-15-1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가난하면서도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함이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기는 하나, 가난하면서도 도(道)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禮)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36	時 衛風淇奥之篇 言治骨角者 既切之而復磋之 治玉石者 既琢之而復磨之 治之已精而益求其精也 子貢 自以無諂無驕爲至矣 聞夫子之言 又知義理之無窮 雖有得焉 而未可遽自足也 故 引是時而明之	01-15-2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시(詩)에 「끊은 것 같고 간 것 같고, 쪼은 것 같고 닦은 것 같다」한 것은 이 말씀을 두고 한 것이리이다.

37	往者 其所已言者 來者 其所未言者 ○ 愚按此章問答 其淺深高下固不待辯說而明矣 然不切則蹉無所施 不琢則磨無所措 故學者雖不可安於小成而不求造道之極致 亦不可驚於虛遠而不察切己之實病也	01-15-3 子曰 賜也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賜)야말로 함께 시(詩)를 논할 만하다. 지난날의 일을 일러주었는데 앞으로 할 일을 이해하는구나.
38	尹氏曰 君子 求在我者 故 不患人之不己知 不知人則是非邪正 或不能辨 故 以爲患也	01-16-1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게 아니라,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근심할 것이다.
39	02 爲政 第二 凡二十四章	02 爲政 第二	제 02 편. 위정(爲政) 24 장. ♣ 정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수록하였다. 위정편(爲政編)은 24 장.
40	政之爲言 正也 所以正人之不正也 德之爲言 得也 行道而有得於心也 北辰 北極 天之樞也 居其所不動也 共 向也 言衆星四面旋繞而歸向之也 爲政以德 則無爲而天下歸之 其象如此 ○ 程子曰 爲政以德然後 無爲 范氏曰 爲政以德 則不動而化 不言而信 無爲而成 所守者至簡而能御煩 所處者至靜而能制動 所務者至寡而能服衆	02-01-1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 共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德)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北極星)이 제 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그것을 향하여 도는 것과 같다.
41	詩 三百十一篇 言三百者 舉大數也 蔽 猶蓋也 思無邪 魯頌駉篇之辭 凡詩之言 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 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歸於使人得情性之正而已 然 其言微婉 且或各因一事而發 求其直指全體 則未有若此之明且盡者 故 夫子言詩三百篇 而惟此一言 足以盡蓋其義 其示人之意亦深切矣 ○ 程子曰 思無邪者 誠也 范氏曰 學者 必務知要 知要則能守約 守約則足以盡博矣 經禮三百 曲禮三百 亦可以一言而蔽之 曰 毋不敬	02-02-1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詩) 삼백편(三百篇)은 한 마디로 말해서 나타난 생각에 사악(邪惡)함이 없다.
42	道 猶引導 謂先之也 政 謂法制禁令也 齊 所以一之也 道之而不從者 有刑以一之也 免而無恥 謂苟免刑罰而無所羞愧 蓋雖不敢爲惡 而爲惡之心未嘗亡也	02-03-1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제(法制)로 이끌고 형벌(刑罰)로 다스리면 국민들은 형벌은 모면하나 수치심이 없게 되고,
43	禮 謂制度品節也 格 至也 言躬行以率之 則民固有所觀感而興起矣 而其淺深厚薄之不一者 又有禮以一之 則民恥於不善而又有以至於善也 一說 格 正也 書曰格其非心 ○ 愚謂 政者 爲治之具 刑者 輔治之法 德禮則所以出治之本 而德又禮之本也 此其相爲終始 雖不可以偏廢 然 政刑 能使民遠罪而已 德禮之效 則有以使民日遷善而不自知 故 治民者 不可徒恃其末 又當深探其本也	02-03-2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덕(德)으로 이끌고 예(禮)로 다스리면 수치심을 갖게 되고 또 올바르게 된다.
44	古者 十五而入大學 心之所之 謂之志 此所謂學 卽大學之道也 志乎此 則念念在此而爲之不厭矣	02-04-1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15 세가 되어서 학문에 뜻을 두었고,

45	有以自立 則守之固而無所事志矣	02-04-2 三十而立	30 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46	於事物之所當然 皆無所疑 則知之明而無所事守矣	02-04-3 四十而不惑	40 세가 되어서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47	天命 卽天道之流行而賦於物者 乃事物所以當然之故也 知此則知極其精 而不惑 又不足言矣	02-04-4 五十而知天命	50 세가 되어서는 천명(天命)을 알았고,
48	聲入心通 無所違逆 知之之至 不思而得也	02-04-5 六十而耳順	60 세가 되어서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
49	從 隨也 矩 法度之器 所以爲方者也 隨其心之所欲 而自不過於法度 安而行之 不勉而中也 ○ 程子曰 孔子 生而知者也 言亦由學而至 所以勉進後入也 入 能自立於斯道也 不惑 則武所疑矣 知天命 窮理盡性也 耳順 所以皆通也 從心所欲不踰矩 則不勉而中矣 又曰 孔子自言其進德之序如此者 聖人 未必然 但爲學者立法 使之盈科而後進 成章而後達耳 胡氏曰 成人之教亦多術 然 其要 使人不失其本心而已 欲得此心者 惟志乎聖人所示之學 循其序而進焉 至於一疵不存 萬里明盡之後 則其日用之間 本心瑩然 隨所意欲 莫非至理 蓋心卽體 欲卽用 體卽道 用卽義 聲爲律而身爲度矣 又曰 聖人言此 一以示學者 當優游涵泳 不可躐等而進 二以示學者 當日就月將 不可半途而廢也 愚謂 聖人 生知安行 固無積累之漸 然 其心 未嘗自謂己至此也 是其日用之間 必有獨覺其進 而人不及知者 故 因其近似以自明 慾學者 以是爲則而自勉 非心實自聖 而姑爲是退託也 後凡言謙辭之屬 意皆放此	02-04-6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70 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 대로 하여도 법도(法度)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50	孟懿子 魯大夫仲孫氏 名何忌 無違 謂不背於理	02-05-1 孟懿子 問孝 子曰 無違	맹의자(孟懿子)가 효(孝)에 관해서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라.
51	樊遲 孔子弟子 名須 御 爲孔子御車也 孟孫 卽仲孫也 父子以懿子未達而不能問 恐其失指 而以從親之令 爲孝 故 語樊遲以發之	02-05-2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 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번지(樊遲)가 선생님을 수레로 모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손(孟孫)이 나에게 효를 묻기에 내가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라.하고 대답하였다고 하셨다.
52	生事葬祭 事親之始終 具矣 禮 卽理之節文也 人之事親 自始至終 一於禮而不苟 其尊親也至矣 是時 三家僭禮 故 父子以是警之 然 語意渾然 又若不專爲三家發者 所以爲聖人之言也 ○胡氏曰 人之欲孝其親 心雖無窮 而分則有限 得爲而不爲 與不得爲而爲之 均於不孝 所謂以禮者 爲其所得爲者而已矣	02-05-3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번지(樊遲)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하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 있을 적에는 예로써 섬기고, 죽으면 예로써 장사지내고, 예로써 제사지낸다.

53	武伯 懿子之子 名戔 言父母愛子之心 無所不至 唯恐其有疾病 常以爲憂也 人子禮此而以父母之心 爲心 則凡所以守其身者自不容於不謹矣 豈不可以爲孝乎 舊說 人子能使父母 不以其陷於不義 爲憂 而獨以其疾 爲憂 乃可爲孝 亦通	02-06-1 孟無伯 問孝 子曰 父母 唯其疾之憂	맹무백(孟武伯)이 효(孝)에 관해서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근심하느니라.
54	子游 孔子弟子 姓言 名偃 養 謂飲食供奉也 犬馬 待人而食 亦若養然 言人畜犬馬 皆能有以養之 若能養其親而敬不至 則與養犬馬者 何異 甚言不敬之罪 所以甚警之夜 ○ 胡氏曰 世俗事親 能養 足矣 狎恩恃愛 而不知其漸流於不敬 則非小失也 子游 聖門高弟 未必至此 聖人直恐其愛踰於敬 故 以是深警發之也	02-07-1 子游 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자유(子遊)가 효(孝)에 관해서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에는 효(孝)라고 하면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와 말까지도 다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느냐.
55	色難 謂事親之際 惟色爲難也 食 飯也 先生 父兄也 饌 飲食之也 曾 猶嘗也 蓋孝子之有深愛者 必有和氣 有和氣者 必有愉色 有愉色者 必有婉容 故 事親之際 惟色爲難耳 服勞奉養 未足爲孝也 舊說 承順父母之色 爲難 亦通 ○ 程子曰 告懿子 告衆人者也 告武伯者 以其人 多可憂之事 子游 能養而或失於敬 子夏 能直義而或少溫潤之色 各因其材之高下 與其所失而告之 故 不同也	02-08-1 子夏問孝 子曰 色難 有事 弟子 服其勞 有酒食 先生饌 曾是以爲孝乎	자하(子夏)가 효(孝)에 관해서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안색으로 부모를 섬기기가 어렵다. 일이 생기면 자제들이 그 수고를 맡아보고, 술과 음식이 생기면 부형이 먹고 하는 것을 효(孝)라고 여기는가?
56	回 孔子弟子 姓顏 字子淵 不違者 意不相背 有聽受而無問難也 私 謂燕居獨處 非進見請問之時 發 謂發明所言之理 愚聞之師 曰 顏子深潛純粹 其於聖人 體段已具 其聞父子之言 默識心融 觸處洞然 自有條理 故 終日言 但見其不違如愚人而已 及退省其私 則見其日用動靜語默之間 皆足以發明父子之道 坦然由之而無疑 然後知其不愚也	02-09-1 子曰 吾與回 言終日 不違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 不愚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회(回)와 종일토록 이야기하여도 못난이 같이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 그를 내보낸 후에 그의 개인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또 내 말의 대의(大意)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니 회(回)는 못난이가 아니다.
57	以 爲也 爲善者爲君子 爲惡者爲小人	02-10-1 子曰 視其所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
58	觀 比視爲詳矣 由 從也 事雖爲善 而意之所從來者有未善焉 則亦不得爲君子矣 或曰 由 行也 謂所以行其所爲者也	02-10-2 觀其所由	그 동기를 살피고,
59	察 則又加詳矣 安 所樂也 所由雖善 而心之所樂者不在於是 則亦僞耳 豈能久而不變哉	02-10-3 察其所安	그가 만족하는 바를 관찰하면,
60	焉 何也 廋 匿也 重言以深明之 ○ 程子曰 在己者 能知言窮理 則能以此察人 如聖人也	02-10-4 人焉廋哉 人焉廋哉	그의 사람됨을 어찌 감추겠는가. 그의 사람됨을 어찌 감추겠는가?
61	溫 尋繹也 故者 舊所聞 新者 今所得 言學能時習舊聞而每有新得 則所學在我而其應不窮 故 可以爲人師 若夫記問之學 則無得於心 而所知有限 故 學記 譏其不足以爲人師 正與此意	02-11-1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배운 것을 익숙하도록 복습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남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互相發也		
62	器者 各適其用 而不能相通 成德之士 體無不具 故用無不周 非特爲一才一藝而已	02-12-1 子曰 君子不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한 가지 그릇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63	周氏曰 先行其言者 行之於未言之前 而後從之者 言之於既行之後○ 范氏曰 子貢之患 非言之艱 而行之艱 故 告之以此	02-13-1 子貢問 君子 子曰 先行其言 而後從之	자공(子貢)이 군자(君子)에 관해서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할 말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그것을 말하느니라.
64	周 普遍也 比 偏黨也 皆與人親厚之意 但周公而比私爾 ○ 君子小人 所爲不同 如陰陽晝夜 每每相反 然 究其所以分 則在公私之際毫釐之差耳 故 聖人 於周比和同驕泰之屬 常對舉而互言之 欲學者察乎兩間 而審其取舍之幾也	02-14-1 子曰 君子 周而不比 小人 比而不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보편적(普遍的)이고 편당적(偏黨的)이 아니다. 소인(小人)은 편당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
65	不求諸心 故 昏而無得 不習其事 故 危而不安 ○ 程子曰 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五者 廢其一 非學也	02-15-1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종잡을 데가 없어지고,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
66	范氏曰 攻 專治也 故 治木石金玉之工曰攻 異端 非聖人之道而別爲一端 如楊墨 是也 其率天下 至於無父無君 專治而欲精之 爲害甚矣 ○ 程子曰 佛氏之言 非之楊墨 尤爲近理 所以其害爲尤甚 學者 當如淫聲美色以遠之 不爾 則駸駸然入於其中矣	02-16-1 子曰 攻乎異端 斯害也已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단(異端)을 전공한다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67	由 孔子弟子 姓仲 字子路 子路好勇 蓋有強其所不知以爲知者 故 夫子告之曰 我教女以知之之道乎 但所知者則以爲知 所不知者則以爲不知 如此則雖或不能盡知 而無自欺之蔽 亦不害其爲知矣 況由此而求之 又有可知之理乎	02-17-1 子曰 由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由)야.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주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68	子張 孔子弟子 姓顓孫 名師 干 求也 祿 仕者之奉(俸)也	02-18-1 子張 學干祿	자장(子張)이 간록장(干祿章)을 배우자
69	呂氏曰 疑者 所未信 殆者 所未安 程子曰 尤 罪自外至者也 悔理自內出者也 愚謂 多聞見者 學之博 闕疑殆者 擇之精 謹言行者 守之約 凡言在其中者 皆不求而自至之辭 言此以救子張之失而進之也 ○ 程子曰 修天爵則人爵至 君子言行能謹 得祿之道也 子張學干祿 故 告之以此 使定其心 而不爲利祿動 若顏閔則無此問矣 或 疑如此 亦有不得祿者 孔子蓋曰 耕也 餒在其中 惟理可爲者 爲之而已矣	02-18-2 子曰 多問闕疑 慎言其餘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문으로 남겨 두었던 일을 많이 들어 알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의문된 일은 말하기를 삼가면, 과오(過誤)가 적을 것이고, 위험하다고 남겨 두었던 일을 많이 보아서 알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위험된 일은 행하기를 삼가면, 후회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말에 과오(過誤)가 적고, 행동에 후회되는 일이 적으면, 녹(祿)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70	哀公 魯君 名蔣 凡君問 皆稱孔子對曰者 尊君也 錯 捨置也 諸 衆也 程子曰 舉錯得義 則人心服 ○ 謝氏曰 好直而惡枉 天下之至情也 順之則服 逆之則去 必然之理也 然 或無道以照之 則以直爲枉 以枉爲直者多矣 是以 君子 大居敬而貴窮理也	02-19-1 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對曰 舉直錯諸枉則民服 舉枉錯諸直則民不服	애공(哀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국민이 심복(心服)하게 되니까?하고 물으시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곧은 사람을 등용(登用)해서 곧지 않은 사람들 위에 놓으면 국민이 심복하고, 곧지 않은 사람을 등용해서 곧은 사람들 위에 놓으면 국민이 심복하지 않습니다.
71	季康子 魯大夫季孫氏 明肥 莊 謂容貌端嚴也 臨民以莊 則民 敬於己 孝於親 慈於衆 則民 忠於己 善者 舉之 而不能者教之 則民 有所勸而樂於爲善 ○ 張敬夫曰 此皆在我所當爲 非爲欲使民敬忠以勸而爲之也 然 能如是 則其應 蓋有不期然而然者矣	02-20-1 季康子 問使民敬忠以勸 如之何 子曰 臨之以莊則敬 孝慈則忠 舉善而教不能則勸	계강자(季康子)가, 국민들을 공경스러워지고 충성스러워지고 선행(善行)에 힘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하고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에게 장중한 태도로 임하면 공경스러워지고, 효성 있고 자애스럽게 굴면 충성스러워지고, 선한 사람을 등용하여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면 선행(善行)에 힘쓰게 됩니다.
72	定公初年 孔子不仕 故 或人疑其不爲政也	02-21-1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	어떤 사람이 공자께, 선생님께서 왜 정치를 하시지 않으십니까?하고 묻자,
73	書 周書君陳篇 書云孝乎者 言書之言孝如此也 善兄弟曰友 書言 君陳 能孝於親 友於兄弟 又能推廣此心 以爲一家之政 孔子引之 言如此 則是亦爲政矣 何必居位 乃爲爲政乎 蓋孔子之不仕 有難以語或人者 故 託此以告之 要之 至理亦不外是	02-21-2 子曰 書云孝乎 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경(書經)》에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그리고 형제에게 우애 있게 하라 하였거니와, 이것을 행하는 데에 정치하는 도리가 들어 있으니, 이 역시 정치하는 것이라, 일부러 정치한다고 나서서 무엇하겠소?
74	大車 謂平地任載之車 輓 輓端橫木 縛輓以駕牛者 小車 謂田車 兵車 乘車 軌 輓端上曲 鉤衡以駕馬者 車無此二者 則不可以行 人而無信 亦猶是也	02-22-1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 小車無軌 其何以行之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쓸 만한 데가 없다. 큰 수레에 멍에 채잡이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 채받이가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가게 하겠는가?
75	陸氏曰 也 一作乎 王者易姓受命 爲一世 子張問 自此以後 十世之事 可前知乎	02-23-1 子張問 十世 可知也	자장(子張)이 10 대(十代) 후의 예(禮)를 알 수 있을까요.하고 여쭙어 보자,
76	馬氏曰 所因 謂三綱五常 所損益 謂文質三通 愚按 三綱 謂郡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妻綱 五常 謂仁義禮智信 文質 謂夏尚忠 商尚質 周尚文 三通 謂何正建寅 爲人通 商正建丑 爲地通 周正建子 爲天通 三綱五常 禮之大體 三代相繼 蓋因之而不能變 其所損益 不過文章制度 小過不及之間 而其已然之迹 今皆可見 則自今以往 或有繼周而王者 雖百世之遠 所因所革 亦不過此 豈但十世而已乎 聖人所以知來者蓋如此 非若後世讖緯術數之學也 ○ 胡氏曰 子張之問 蓋欲知來 而聖人 言其既往者以明之也 夫自修身 以至於爲天下 不可一日而無禮 天敍天秩 人所共由 禮之本也 商不能改乎夏 周不能改乎商 所謂天地之常經也 若乃制度文爲 或太過則當損	02-23-2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 可知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殷) 나라는 하(夏) 나라의 예(禮)에 따랐으니, 하(夏)를 가감(加減)·조절(調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周) 나라 은(殷) 나라의 예(禮)에 따랐으니, 은(殷)를 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周) 나라의 뒤를 이어 일어나는 나라가 혹 있다면, 백대(百代) 후의 예(禮)라 할지라도 알 수 있다.

	或不足則當益 益之損之 與時宜之 而所因者不壞 是古今之通義也 因往推來 雖百世之遠 不過如此而已矣		
77	非其鬼 謂非其所當然之鬼 諂 求媚也	02-24-1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귀신이 아닌데, 그것을 제사하는 것은 아침이다.
78	知而不爲 是無勇也	02-24-2 見義不爲 無勇也	옳은 일임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79	03 八佾 第三 凡二十六章	03 八佾 第三	제 03 편. 팔일(八佾) 26 장. ♣ 무악(舞樂)의 이름인 팔일을 편명으로 삼아 예악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았다. 팔일편(八佾編)은 26 장(章).
80	季氏 魯大夫季孫氏也 佾 舞列也 天子八 諸侯六 大夫四 士二 每佾人數 如其佾數 或曰 每佾八人 未詳孰是 季氏 以大夫 而僭用天子之禮樂 孔子言其此事 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 或曰 因 容忍也 蓋深疾之之辭○ 范氏曰 樂舞之數 自上而下 降殺以兩而已 故 兩之間 不可以毫髮僭差也 孔子爲政 先正禮樂 則季氏之罪 不容誅矣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 不敢須臾處 不忍故也 而季氏忍此矣 則雖弑父與君 亦何所憚而不爲乎	03-01-1 孔子謂季氏 八佾 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공자께서, 계손씨(季孫氏)가 자기 집 마당에서 팔열(八列)의 대무(隊舞)를 상연(上演)하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짓을 감히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 저지르겠는가 하셨다.
81	三家 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 雍 周頌篇名 徹 祭畢而收其俎也 天子宗廟之祭 則歌雍以徹 是時 三家僭而用之 相 助也 辟公 諸侯也 穆穆 深遠之意 天子之容也 此 雍詩之辭 孔子引之 言三家之堂 非有此事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 譏其無知妄作 以取僭竊之罪○ 程子曰 周公之功 固大矣 皆臣子之分所當爲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 伯禽之受 皆非也 其因襲之弊 遂使季氏 僭八佾 三家 僭雍徹 故 仲尼譏之	03-02-1 三家者 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삼 대부가(三大夫家)에서 웅가(雍歌)로 제사를 끝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에 있어) 제후(諸侯)들의 도움을 받는 천자(天子)는 대단히 아름다워라」하는 노래가 삼대부(三大夫)의 집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82	游氏曰 人而不仁 則人心亡矣 其如禮樂 何哉 言誰欲用之 而禮樂不爲之用也○ 程子曰 仁者 天下之正理 失正理則無序而不和 季氏曰 禮樂 待人而後行 苟非其人 則雖玉帛交錯 種鼓鏗鏘 亦將如之何哉 然 記者序此於八佾雍徹之後 疑其爲僭禮樂者發也	03-03-1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인자하지 않으면 예(禮)는 해서 무엇할 거며, 사람으로 인자하지 않으면 음악은 해서 무엇하랴.
83	林放 魯人 見世之爲禮者 專事繁文 而疑其本之不在是也 故 以爲問	03-04-1 林放問 禮之本	임방(林放)이 예(禮)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묻자,
84	孔子以時方逐末 而放 獨有志於本 故 大其問 蓋得其本 則禮之全體無不在其中矣	03-04-2 子曰 大哉問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단한 질문이요.
85	易 治也 孟子曰 易其田疇 在喪禮則節文習熟而無哀痛慘怛之實者也 戚 則一於哀而文不足耳 禮貴得中 奢易則過於文 儉戚則不及而質 二者皆未合禮 然 凡物之理 必先有質而後有文 則質乃禮之本也○ 范氏曰 夫祭 與其敬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 喪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禮失之奢 喪失之易 皆不能反本而隨其末故也 禮奢而備 不若儉而不備之愈也 喪易而文 不若戚而不文之愈也 儉者 物之質 戚者 心之誠 故 爲禮之本 楊氏曰 禮 始諸飲食 故 污尊而杯飲 爲之簠簋籩豆壘爵之飾 所以文之也 則其本 儉而已 喪 不可以徑情而直行 爲之衰麻哭踊之數 所以節之也 則其本戚而已 周衰 世方以文滅質 而林放獨能問禮之本 故 夫子大之而告之以此	03-04-3 禮 與其奢也 寧儉 喪 與其易也 寧戚	예(禮)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사(喪事)는 정연(整然)하기보다는 차라리 슬퍼야 하요.
86	吳氏曰 亡 古無字通用 程子曰 夷狄 且有君長 不如諸夏之僭亂 反無上下之分也○ 尹氏曰 孔子傷時之亂而歎之也 無 非實無也 雖有之 不能盡其道爾	03-05-1 子曰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개한 족속들이 군장(君長)을 받드는 것이 중국에서 임금을 무시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87	旅 祭名 泰山 山名 在魯地 禮 諸侯祭封內山川 季氏祭之 僭也 冉有 孔子弟子 名求 時 爲季氏宰 救 謂救其陷於僭竊之罪 嗚呼 歎辭 言神不享非禮 欲季氏知其無益而自止 又進林放以廣冉有也○ 范氏曰 冉有從季氏 夫子豈不知其不可告也 然而聖人不輕絕人 盡己之心 安知冉有之不能救 季氏之不可諫也 旣不能正 則美林放 以明泰山之不可誣 是亦教誨之道也	03-06-1 季氏 旅於泰山 子謂冉有曰 女不能救與 對曰 不能 子曰 嗚呼 曾謂泰山 不如林放乎	계손씨(季孫氏)가 태산(泰山)에서 여제(旅祭)를 지내려 하였다. 선생님께서 염유(冉由)에게, 너는 (그 사람을 참월(僭越)한 죄에서) 구해낼 수 없느냐? 하시니, 구해낼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그대 태산이 임방(林放)만 못하단 말인가.
88	揖讓而升者 大射之禮 耦進三揖而後升堂也 下而飲 謂射畢揖降 以俟衆耦皆降 勝者乃揖 不勝者 取觶立飲也 言君子恭遜 不與人爭 惟於射而後有爭 然 其爭也雍容揖遜 乃如此 則其爭也君子 而非若小人之爭也	03-07-1 子曰 君子 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활 쏘는 데만은 예외다. (그렇기는 하지만 활 쏘는 데 있어서도) 활 쏘는 곳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술 마시고 할 때에는 서로 읍(揖)하고 사양하고 하니, 활 쏘는 데 다투는 것은 군자(君子)답다.

89	此逸詩也 倩好口輔也 盼目黑白分也 素粉地 畫之質也 綯采色 畫之飾也 言人有此倩盼之美質 而又加以華采之飾 如有素地而加采色也 子夏疑其反謂以素爲飾 故問之	03-08-1 子夏問 巧笑倩兮 未目盼兮 素以爲綯兮 何謂也	자하(子夏)가, 귀엽게 웃는 입술 붉기도 하며, 아름다운 눈들 까맣고 희기도 하네. 흰 바탕에 채색 베풀 것이로세.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90	繪事 繪畫之事也 後素 後於素也 考工記曰 繪畫之事後素功 謂先以粉地爲質 而後施五采 猶人有美質然後可加文飾	03-08-2 子曰 繪事後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후에 온다는 말이다.
91	禮 必以忠信爲質 猶繪事必以粉素爲先 起 猶發也 起予 言能起發我之志意 謝氏曰 子貢 因論學而知詩 子夏 因論詩而知學 故 皆可與言詩○ 楊氏曰 甘受和 白受采 忠信之人 可以學禮 苟無其質 禮不虛行 此繪事後素之說也 孔子曰 繪事後素 而子夏曰 禮後乎 可謂能繼其志矣 非得之言意之表者 能之乎 商賜可與言詩者 以此 若夫玩心於章句之末 則其爲詩也固而已矣 所謂起予 則亦相長之義也	03-08-3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	예(禮)는 후에 온다는 말씀이십니까?하고 말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일깨워 주는 사람은 상(商)이로다. 이제야 함께 시(詩)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
92	杞夏之後 宋殷之後 徵證也 文典籍也 獻賢也 言二代之禮 我能言之 而二國 不足取以爲證 以其文獻不足故也 文獻若足 則我能取之 以證吾言矣	03-09-1 子曰 夏禮 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 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 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夏)의 예(禮)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杞)는 충분히 증명할 수 없으니라. 은나라의 예를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의 일은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을 증험(證驗)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이 넉넉하다면 내가 그것들을 증험할 수 있다.
93	趙伯循曰 禘王者之大祭也 王者既立始祖之廟 又推始祖所自出之帝 祀之於始祖之廟 而以始祖 配之也 成王以周公 有大勳勞 賜魯重祭 故 得禘於周公之廟 以文王 爲所出之帝而周公配之 然 非禮矣 灌者 方祭之始 用鬱鬯之酒 灌地以降神也 魯之君臣 當此之時 誠意未散 猶有可觀 自此以後 則浸以懈怠而無足觀矣 蓋魯祭非禮 孔子本不欲觀 至此而失禮之中 又失禮焉 故發此歎也○ 謝氏曰 夫子嘗曰 我欲觀夏道 是故之杞而不足證也 我欲觀商道 是故之宋而不足證也 又曰 我觀周道 幽厲傷之 吾舍魯何適矣 魯之郊禘 非禮也 周公其衰矣 考之杞宋 已如彼 考之當今 又如此 孔子所以深歎也	03-10-1 子曰 禘自既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제(禘祭)에 있어 술을 부어 강신(降神)한 이후의 절차를 나는 보고 싶지 않다.
94	先王報本追遠之意 莫深於禘 非仁孝誠敬之至 不足以與此 非或人之所及也 而不王不禘之法 又魯之所當諱者 故 以不知答之 示 與視同 指其掌 弟子記夫子言此而自指其掌 言其明且易也 蓋知禘之說 則理無不明 誠無不格 而治天下不難矣 聖人於此 豈真有所不知也哉	03-11-1 或問禘之說 子曰 不知也 知其說者之於天下也 其如示諸斯乎 指其掌	어떤 사람이 체제(禘祭)의 설명을 구하자, 선생님께서, 모릅니다. 그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천하의 일을 다루는 것은, 이것을 보는 것 같이 쉬운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95	程子曰 祭 祭先祖也 祭神 祭外神也 祭先 主於孝 祭神 主於敬 愚謂 此 門人記孔子祭祀之誠意	03-12-1 祭如在 祭神如神在	조상을 제사하는 데는 조상이 있는 것 같이 할 것이고, 신(神)을 제사하는 데는 신(神)이 있는 것 같이 할 것이다.
96	又記孔子之言以明之 言己當祭之時 或有故不得與而使他人攝之 則不得致其如在之誠 故雖已祭而此心缺然 如未嘗祭也○ 范氏曰 君子之祭七日戒 三日齋 必見所祭者 誠之至也 是故郊則天神格 廟則人鬼享 皆由己以致之也 有其誠則有其神 無其誠則無其神 可不謹乎 吾不與祭 如不祭 誠爲實 禮爲虛也	03-12-2 子曰 吾不與祭 如不祭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몸소 제사에 참례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같다.
97	王孫賈 衛大夫 媚 親順也 室西南隅爲奧 竈者五祀之一 夏所祭也 凡祭五祀 皆先設主而祭於其所 然後迎尸而祭於奧 略如祭宗廟之儀 如祀竈則設主於竈陴 祭畢而更設饌於奧 以迎尸也 故時俗之語 因以奧有常尊 而非祭之主 竈雖卑踐而當時用事 喻自結於君 不如阿附權臣也 賈衛之權臣 故以此諷孔子	03-13-1 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 寧媚於竈 何謂也	왕손가(王孫賈)가, 방 속에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뚜막에 잘 보이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하고 묻자,
98	天 卽理也 其尊無對 非奧竈之可比也 逆理則獲罪於天矣 豈媚於奧竈 所能禱而免乎 言但當順理 非特不當媚竈 亦不可媚於奧也○ 謝氏曰 聖人之言 遜而不迫 使王孫賈而知此意 不爲無益 使其不知 亦非所以取禍	03-13-2 子曰 不然 獲罪於天 無所禱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옳지 않소이다. 하늘에 잘못을 저지르면 벌 곳이 없소이다.
99	監 視也 二代 夏商也 言其視二代之禮而損益之 郁郁 文盛貌○ 尹氏曰 三代之禮 至周大備 夫子美其文而從之	03-14-1 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周)나라는 두 대(代)를 참고할 수 있어, 그 문화는 대단히 찬란하다. 나는 주(周)나라에 따르겠다.
100	大廟 魯周公廟 此 蓋孔子始仕之時 入而助祭也 鄆魯邑名 孔子父叔梁紇 嘗爲其邑大夫 孔子自少以知禮聞 故或人因此而譏之 孔子言是禮者 敬謹之至 乃所以爲禮也○ 尹氏曰 禮者 敬而已矣 雖知 亦問 謹之至也 其爲敬 莫大於此 謂之不知禮者 豈足以知孔子哉	03-15-1 子入大廟 每事問 或曰 孰謂鄆人之子 知禮乎 入大廟 每事問 子聞之曰 是禮也	선생님께서 대묘(大廟)에 들어가시면 매사를 묻곤 하셨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추(鄆) 사람의 아들이 예(禮)를 안다고 하였는가. 대묘에 들어가면 매사를 묻곤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예(禮)다.
101	射不主皮 鄉射禮文 爲力不同科 孔子解禮之意如此也 皮 革也 布侯而棲革於其中以爲的 所謂鵠也 科 等也 古者 射以觀德 但主於中 而不主於貫革 蓋以人之力量有強弱不同等也 記曰 武王克商 散軍郊射 而貫革之射息 正謂此也 周衰 禮廢 列國兵爭 復尚貫革 故 孔子歎之○ 楊氏曰 中可以學而能 力 不可以強而至 聖人言古之道 所以正今之失	03-16-1 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활 쏘는 데는 과녁 뚫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람의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옛날의 활 쏘는 방법이었다.
102	告朔之禮 古者 天子常以季冬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 諸侯受而藏之祖廟 月朔則以特羊 告廟 請而行之 飭 生牲也 魯自文公	03-17-1 子貢 欲去告朔之餼羊	자공(子貢)이 새 달을 고하는데 바치는 희생용(犧牲用)의 양(羊)을 없애려 하자,

	始不視朔 而有司猶供此羊 故 子貢欲去之		
103	受 猶惜也 子貢 蓋惜其無實而妄費 然 禮雖廢 羊存 猶得以識之而可復焉 若併去其羊 則此禮遂亡矣 孔子所以惜之○ 楊氏曰 告朔 諸侯所以稟命於君親 禮之大者 魯不視朔矣 然 羊存則告朔之名 未泯 而其實因可舉 此夫子所以惜之也	03-17-2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양을 아끼지만 나는 그 예(禮)를 아낀다.
104	黃氏曰 孔子於事君之禮 非有所加也 如是而後盡爾 時人不能 反以爲諂 故 孔子言之 以明禮之當然也○ 程子曰 聖人事君盡禮 當時以爲諂 若他人言之 必曰我事君盡禮 小人以爲諂 而孔子之言 止於如此 聖人道大德宏 此亦可見	03-18-1 子曰 事君盡禮 人以爲諂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데 예(禮)를 다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첨이라고 생각한다.
105	定公 魯君 名宋 二者 皆理之當然 各欲自盡而已○ 呂氏曰 使臣 不患其不忠 患禮之不至 事君 不患其無禮 患忠之不足	03-19-1 定公 問君使臣 臣使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정공(定公)께서,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시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임금은 예(禮)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깁니다.
106	關雎 周南國風 詩之首篇也 淫者 樂之過而失其正者也 傷者 哀之過而害於和者也 關雎之詩 言后妃之德 宜配君子 求之未得 則不能無寤寐反側之憂 求而得之 則宜其有琴瑟種鼓之樂 蓋其憂雖深 而不害於和 其樂雖盛 而不失其正 故 夫子稱之如此 欲學者玩其辭 審其音 而有以識其性情之正也	03-20-1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저시(關雎詩)는 즐거워하나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나 몸을 상하기에는 이르지 않는다.
107	宰我 孔子弟子 名予 三代之社不同者 古者立社 各樹其土之所宜木 以爲主也 戰栗 恐懼貌 宰我又言周所以用栗之意如此 豈以古者 戮人於社 故附會其說與	03-21-1 哀公 問使於宰我 宰我 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 曰使民戰栗	애공(哀公)이 재아(宰我)에게 사수(社樹)를 물으셨다. 재아가, 하후씨(夏后氏)는 소나무를 썼습니다. 은(殷) 나라 사람은 전나무를 썼습니다. 주(周) 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썼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이어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무서워 떨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108	遂事 謂事雖未成 已勢不能已者 孔子以宰我所對非立社之本意 又啓時君殺伐之心 而其言已出 不可復救 故 歷言此 以深責之 欲使謹其後也○ 尹氏曰 古者 各以所宜木 名其社 非取義於木也 宰我不知而妄對 故 夫子責之	03-21-2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既往不咎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되어버린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일은 간(諫)하지 않는 것이고,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 것이다.
109	管仲 齊大夫 名夷吾 相桓公 霸諸侯 器小 言其不知聖賢大學之道 故 局量褊淺 規模卑狹 不能正身修德以致主於王道	03-22-1 子曰 管仲之器小哉	선생님께서, 관중(管仲)의 그릇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110	或人 蓋疑器小之爲儉 三歸 臺名 事見說苑 攝兼也 家臣不能具官 一人常兼數事 管仲 不然 皆言其侈	03-22-2 或曰 管仲儉乎 曰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	어떤 사람이 관중은 검소하였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관씨(管氏)가 세 소실 집을 가졌고, 부하(部下) 관원(官員)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겸한 사람이 없었으니, 어찌 검소할 수 있었겠소?
111	或人 又疑不儉爲知禮 屏 謂之樹 塞 猶蔽也 設屏於門 以蔽內外 好 謂好會 坵 在兩楹之間 獻酬飲畢 則反爵於其上 此皆諸侯之禮 而管仲僭之 不知禮也○ 愚謂 孔子譏管仲之器小 其旨深矣 或人不知而疑其儉 故 斥其奢 以明其非儉 或又疑其知禮 故 又斥其僭 以明其不知禮 蓋雖不復明言小器之所以然 而其所以小者 於此亦可見矣 故 程子曰 奢而犯禮 其器之小 可知 蓋器大 則自知禮而無此失矣 此言 當深味也 蘇氏曰 自修身正家 以及於國 則其本深 其及者遠 是謂大器 揚雄所謂大器 猶規矩準繩 先自治而後治人者是也 管仲 三歸反坵 桓公 內嬖六人而霸天下 其本 固已淺矣 管仲死 桓公薨 天下不復宗齊 楊氏曰 夫子大管仲之功而小其器 蓋非王佐之才 雖能合諸侯正天下 其器不足稱也 道學不明 而王霸之略 混爲一途 故 聞管仲之器小 則疑其爲儉 以不儉告之 則又疑其知禮 蓋世方以詭遇爲功 而不知爲之範 則不悟其小 宜矣	03-22-3 然則管仲 知禮乎 曰邦君 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 爲兩君之好 有反坵 管氏亦有反坵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그러면 관중(管仲)은 예(禮)를 알았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나무를 세워 문을 가리면, 관씨(管氏) 역시 나무를 세워 문을 가렸고, 임금이 다른 임금과 수호(修好)하기 위해서 술잔 돌려놓는 자리를 마련하면, 관씨(管氏) 역시 술잔 돌려놓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관씨(管氏)가 예(禮)를 알았다고 한다면 누가 예(禮)를 몰랐겠소?
112	語 告也 大師 樂官名 時音樂廢缺 故 孔子教之 翕 合也 從 放也 純 和也 皦 明也 繹 相續不絕也 成 樂之一終也○ 謝氏曰 五音六律不具 不足以音樂 翕如 言其合也 五音合矣 清濁高下如五味之相濟而後和 故 曰純如 合而和矣 欲其無相奪倫 故 曰皦如 然 豈宮自宮而商自商乎 不相反而相連 如貫珠可也 故 曰繹如也以成	03-23-1 子語魯大師樂曰 樂其可知也 始作 翕如也 從之 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成	선생님께서 노(魯) 나라의 태사(太師)에게 다음과 같이 음악에 관해 말씀하셨다. 음악이란 알 수 있는 것이요. 처음 시작할 때는 (五音이) 일제히 합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본 가락으로 들어가면, 조화를 이루어 하나 같이 되고, 절주(節奏)가 뚜렷하여지고, 그 상태로 계속하여, 한 단락이 끝나는 거요.
113	儀 衛邑 封人 掌封疆之官 蓋賢而隱於下位者也 君子 謂當時賢者 至此 皆得見之 自言其乎日 不見絕於賢者 而求以自通也 見之 謂通使得見 喪 謂失位去國 禮曰 喪欲速貧 是也 木鐸 金口木舌 施政教時 所振以警衆者也 言亂極當治 天必將使夫子得位設教 不久失位也 封人 一見夫子而據以是稱之 其得於觀感之間者深矣 或曰 木鐸 所以徇于道路 言天使夫子失位 周流四方 以行其教 如木鐸之徇于道路也	03-24-1 儀封人 請見曰 君子之至於斯也 吾未嘗不得見也 從者見之 出曰 二三子何患於喪乎 天下之無道也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	의(儀)의 봉인(封人)이 면회를 청하고, 군자(君子)들이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보지 못한 적이 없었소. 하고 말하여, 시종하는 사람이 선생님을 뵈게 하여 주었다.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왜 (선생님의) 실패에 낙망하고들 계십니까? 세상이 무도(無道)해진지가 오래 되었으니, 하늘은 선생님을 (이 세상을 정도로 이끄는) 목탁(木鐸)으로 삼을 것이요.

114	韶 舜樂 武 武王樂 美者 聲容之盛 善者 美之實也 舜 紹堯致治 武王 伐紂救民 其功一也 故 其樂皆盡美 然 舜之德 性之也 又以揖遜而有天下 武王之德 反之也 又而征誅而得天下 故 其實有不同者 ○ 程子曰 成湯放桀 惟有慙德 武王亦然 故 未盡善 堯舜湯武 其揆一也 征伐 非其所欲 所遇之時 然爾	03-25-1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선생님의 말씀이 소(韶)는 미(美)를 다 갖추었고, 선(善)을 다 갖추었는데, 무(武)는 미(美)를 다 갖추었으나, 선(善)은 다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셨다.
115	居上 主於愛人 故 以寬爲本 爲禮 以敬爲本 臨喪 以哀爲本 既無其本 則以何者 而觀其所行之得失哉	03-26-1 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臨喪不哀 吾何以觀之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웃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禮)의를 차리는 데 공경스럽지 않고, 상사(喪事)를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을 가지고 그의 사람됨을 살피랴.
116	04 里仁 第四 凡二十六章	04 里仁 第四	제 04 편. 이인(里仁) 26 장. ♣ 인덕(仁德)에 대한 말을 많이 수록하였음. 이인편(里仁編)은 26 장(章).
117	里有仁厚之俗 爲美 擇里而不居於是焉 則失其是非之本心 而不得爲知矣	04-01-1 子曰 里仁 爲未 擇不處仁 焉得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는 고장은 인후한 것이 좋다. 사는 집을 택하는 데 있어 인후한 곳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118	約 窮困也 利 猶貪也 蓋深知篤好而必欲得之也 不仁之人 失其本心 久約必濫 久樂必淫 惟仁者 則安其仁而無適不然 知者則利於仁而不易所守 蓋雖深淺之不同 然 皆非外物所能奪矣○ 謝氏曰 仁者 心無內外遠近精粗之間 非有所存而自不亡 非有所理而自不亂 如目視而耳聽 手持而足行也 知者 謂之有所見則可 謂之有所得則未可 有所存 斯不亡 有所理 斯不亂 未能無意也 安仁則一 利仁則二 安仁者 非顏閔以上去聖人爲不遠 不知此味也 諸子雖有卓越之才 謂之見道不惑則可 然 未免於利之也	04-02-1 子曰 不仁者 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仁者 安仁 知者 利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仁慈)하지 않은 사람은 곤궁 속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즐거운 가운데도 오래 있지 못하느니라. 인자한 사람은 인자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한 것을 이롭게 여긴다.
119	惟之爲言 獨也 蓋無私心然後 好惡當於理 程子所謂得其公正 是也○ 游氏曰 好善而惡惡 天下之同情 然 人每失其正者 心有所繫而不能自克也 惟仁者 無私心 所以能好惡也	04-03-1 子曰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인자한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120	苟 盛也 知者 心之所之也 其心盛在於仁 則必無爲惡之事矣○ 楊氏曰 苟志於仁 未必無過舉也 然而爲惡則無矣	04-04-1 子曰 苟志於仁矣 無惡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인자함에 뜻을 두기만 하면 악(惡)한 일은 없다.
121	不以其道得之 謂不當得而得之 然 於富貴則不處 於貧賤則不去 君子之審富貴而安貧賤也如此	04-05-1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 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 得之 不去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富)와 귀(貴)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는 하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빈(貧)과 천(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기는 하나, 정당한 방법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떠나가지 않는다.

122	言君子所以爲君子 以其仁也 若貪富貴而厭貧賤 則是自離其仁 而無君子之實矣 何所成其名乎	04-05-2 君子 去仁 惡乎成名	군자(君子)가 인자함을 버리면 어떻게 명예를 이룩할 것인가?
123	終食者 一飯之頃 造次 急遽苟且之時 顛沛 傾覆流離之際 蓋君子之不去乎仁 如此 不但富貴貧賤取舍之間而已也○ 言君子爲仁 自富貴貧賤取舍之間 以至於終食造次顛沛之頃 無時無處而不用其力也 然 取舍之分 明然後 存養之功密 存養之功密 則其取舍之分益明矣	04-05-3 君子 無終食之間 違仁 造次 必於是 顛沛 必於是	군자(君子)는 식사를 끝내는 동안에도 인자함을 어기는 일이 없는 것으로, 황급할 때에도 반드시 그것을 유지하고, 곤경에 처해서도 반드시 그것을 유지한다.
124	夫子自言 未見好仁者 惡不仁者 蓋好仁者 眞知仁之可好 故 天下之物 無以加之 惡不仁者 眞知不仁之可惡 故 其所以爲仁者必能絕去不仁之事 而不使少有及於其身 此皆成德之事 故 難得而見之也	04-06-1 子曰 我未見好仁者 惡不仁者 好仁者 無以尙之 惡不仁者 其爲仁矣 不使不仁者 加乎其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까지 인자함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자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인자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인자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자함을 실천하는 데 있어 인자하지 않은 것이 자기 몸에 붙지 못하게 한다.
125	言好仁惡不仁者 雖不可見 然 或有人果能一旦奮然用力於仁 則我又未見其力有不足者 蓋爲仁在己 欲之則是 而志之所至 氣必至焉 故 仁雖難能 而至之亦易也	04-06-2 有能一日 用其力於仁矣乎 我未見力不足者	하루 동안의 시간을 인자함을 위해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데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126	蓋 疑辭 有之 謂有用力而力不足者 蓋人之氣質不同 故 疑亦容或有此昏弱之甚 欲進而不能者 但我偶未之見耳 蓋不敢終以爲易 而又歎人之莫肯用力於仁也○ 此章 言仁之成德 雖難其人 然 學者苟能實用其力 則亦無不可至之理 但用力而不至者 今亦未見其人焉 此夫子所以反覆而歎息之也	04-06-3 蓋有之矣 我未之見也	아마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나, 나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
127	黨 類也 程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類 君子 常失於厚 小人 常失於薄 君子 過於愛 小人 過於忍 尹氏曰 於此觀之 則人之仁不仁 可知矣○ 吳氏曰 後漢吳祐 謂掾以親故 受污辱之名 所謂觀過知仁 是也 愚按 此亦但言人雖有過 猶可卽此而知其厚薄 非謂必俟其有過而後賢否可知也	04-07-1 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허물은 각각 그 부류에 따라 다르다. 허물을 살펴보면 인자한가의 여부를 알게 될 것이다.
128	道者 事物當然之理 苟得聞之 則生順死安 無復遺恨矣 朝夕所以甚言其時之近○ 程子曰 言人不可以不知道 苟得聞道 雖死 可也 又曰 皆實理也 人知而信者爲難 死生亦大矣 非誠有所得 豈以夕死爲可乎	04-08-1 子曰 朝聞道 夕死 可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道)를 깨달아 알게 되면, 저녁에 죽는다 해도 좋다.
129	心欲求道 而以口體之奉不若人 爲恥 其識趣之卑陋甚矣 何足與議於道哉○ 程子曰 志於道而心役乎外 何足與議也	04-09-1 子曰 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도(道)에다 뜻을 두고도, 험한 옷과 험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는 함께 의견을 교환할 여지도 없다.

130	適 專主也 春秋傳曰 吾誰適從 是也 莫 不肯也 比從也 ○ 謝氏曰 適 可也 莫 不可也 無可 無不可 苟無道以主之 不幾於猖狂自恣乎 此佛老之學 所以自謂心無所住而能應變 而卒得罪於聖人也 聖人之學 不然 於無可無不可之間 有義存焉 然則君子之心 果有所倚乎	04-10-1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에게는 이 세상에서 적당하고 적당하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正義)에 의지해 살아 나간다.
140	遠遊 則去親遠而爲日久 定省曠而音問疎 不惟己之思親不置 亦恐親之念我不忘也 遊必有方 如已告云之東 則不敢更適西 欲親必知己之所在而無憂 召己則必至而無失也 范氏曰 子能以父母之心爲心 則孝矣	04-10-1 子曰 父母在不遠遊 遊必有方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멀리 나가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간다고 한 곳에 가 있어야 한다.
131	懷 思念也 懷德 謂存其固有之善 懷土 謂溺其所處之安 懷刑 畏法 懷惠 謂貪利 君子小人趣向不同 公私之間而已矣○ 尹氏曰 樂善 惡不善 所以爲君子 苟安 務得 所以爲小人	04-11-1 子曰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덕(德)을 생각하는데 소인(小人)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君子)는 형(刑)을 생각하는데 소인(小人)은 특혜(特惠)를 생각한다.
132	孔氏曰 放 依也 多怨 謂多取怨○ 程子曰 欲利於己 必害於人 故 多怨	04-12-1 子曰 放於利而行 多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산다.
133	讓者 禮之實 何有 言不難也 言有禮之實以爲國 則何難之有 不然 則其禮文雖具 亦且無如之何矣 而況於爲國乎	04-13-1 子曰 能以禮讓 爲國乎 何有 不能以禮讓 爲國 如禮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법과 겸양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법과 겸양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禮)는 해서 무엇하겠는가?
134	所以立 謂所以立乎其位者 可知 謂可以見知之實○ 程子曰 君子 求其在己者而已矣	04-14-1 子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벼슬자리가 없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벼슬자리에 설 능력을 근심할 것이고, 자기가 알려지지 않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알려질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135	參乎者 呼曾子之名而告之 貫 通也 唯者 應之速而無疑者也 聖人之心 渾然一理而泛應曲當 用各不同 曾子於其用處 蓋已隨事精察而力行之 但未知其體之一爾 夫子知其真積力久 將有所得 是以 呼而告之 曾子果能默契其指 卽應之速而無疑也	04-15-1 子曰 參乎 吾道 一以貫之 曾子曰唯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參)아, 내가 받드는 도(道)는 하나로써 관철되어 있다. 증자(曾子)께서는, 예(禮)하고 대답하셨다.

136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而已矣者 竭盡而無餘之辭也 夫子之一理渾然而泛應曲當 譬則天地之至誠無息而萬物各得其所也 自此之外 固無餘法 而亦無待於推矣 曾子有見於此 而難言之 故 借學者盡己推己之目 以著明之 欲人之易曉也 蓋至誠無息者 道之體也 萬殊之所以一本也 萬物 各得其所者 道之用也 一本之所以萬殊也 以此觀之 一以貫之之實 可見矣 或曰 中心爲忠 如心爲恕 於義亦通○ 程子曰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 違道不遠 是也 忠恕一以貫之 忠者 天道 恕者 人道 忠者 無妄 恕者 所以行乎忠也 忠者體 恕者用 大本達道也 此與違道不遠 異者 動以天爾 又曰 維天之命 於穆不已 忠也 乾道變化 各正性命 恕也 又曰 聖人教人 各因其才 吾道一以貫之 惟曾子爲能達此 孔子所以告之也 曾子告門人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亦猶夫子之告曾子也 中庸所謂忠恕違道不遠 斯乃下學上達之義	04-15-2 子出 門人 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선생님께서 밖에 나가시자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묻자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의 도(道)는 충서(忠恕)일 따름이다.
137	喻 猶曉也 義者 天理之所宜 利者 人情之所欲○ 程子曰 君子之於義 猶小人之於利也 惟其深喻 是以篤好 楊氏曰 君子有舍生而取義者 以利言之 則人之所欲無甚於生 所惡無甚於死 孰肯舍生而取義哉 其所喻者義而已 不知利之爲利故也 小人 反是	04-16-1 子曰 君子 喻於義 小人 喻於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사를) 군자(君子)는 정의(正義)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소인(小人)은 이익에 입각해서 이해한다.
138	思齊者 冀己亦有是善 內自省者 恐己亦有是惡○ 胡氏曰 見人之善惡不同而無不反諸身者 則不徒羨人而甘自棄 不徒責人而忘自責矣	04-17-1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善)한 사람을 보고는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악(惡)한 사람을 보고서는 안으로 자기를 돌아볼 것이다.
139	此章 與內則之言相表裏 幾微也 微諫 所謂父母有過 下氣怡色柔聲以諫也 見志不從 又敬不違 所謂諫若不入 起敬起孝 悅則復諫也 勞而不怨 所謂與其得罪於鄉黨州閭 寧孰諫 父母怒不悅而撻之流血 不敢疾怨 起敬起孝也	04-18-1 子曰 事父母 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부드럽게 간(諫)하여, 부모의 뜻이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음을 알게 되면, 또 공경스럽게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괴로울 것이나, 원망하지는 않을 일이다.
141	胡氏曰 己見首篇 此蓋複出而逸其半也	04-20-1 子曰 三年 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년상(三年喪)의 기간 중 부친이 해 오던 방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효자라 할 수 있다.
142	知 猶記憶也 常知父母之年 則既喜其壽 又懼其衰 而於愛日之誠 自有不能己者	04-21-1 子曰 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연세는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기뻐지고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두려워진다.
143	言古者 以見今之不然 逮 及也 行不及言 可恥之甚 古者 所以不出其言 爲此故也○ 范氏曰 君子之於言也 不得已後出之 非言之難 而行之難也 人惟其不行也 是以輕言之 言之 如其所行 行之	04-22-1 子曰 古者 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말은 앞세우지 않았으니, 그것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 하여서였다.

	如其所言 則出諸其口 必不易矣		
144	謝氏曰 不侈然以自放之謂約 尹氏曰 凡事約則鮮失 非止謂儉約也	04-23-1 子曰 以約失之者 鮮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사를) 단속함으로 해서 실수한 사람은 드물다.
145	謝氏曰 放言易 故 欲訥 力行難 故 欲敏○ 胡氏曰 自吾道一貫 至此十章 疑皆曾子門人所記也	04-24-1 子曰 君子 欲訥於言而敏於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말에는 더디고, 실천에는 민첩하고자 한다.
146	隣 猶親也 德不孤立 必以類應 故 有德者 必有其類從之 如居之有隣也	04-25-1 子曰 德不孤 必有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德)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147	程子曰 數 煩數也 胡氏曰 事君 諫 不行則當去 導友 善 不納則當止 至於煩瀆 則言者輕 聽者厭矣 是以 求榮而反辱 求親而反疏也 范氏曰 君臣朋友 皆以義合 故 其事同也	04-26-1 子游曰 事君數斯辱矣 朋友數 斯疏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 간언(諫言)이 잦으면 욕을 보게 되고, 친구와 사귀는 데 있어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148	05 公冶長 第五 此篇 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蓋格物窮理之一端也 凡二十七章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	05 公冶長 第五	제 05 편. 공야장(公冶長) 27 장. ♣ 제자들과 고금의 인물을 평한 것으로 주로 자공의 언행이 많이 기술 되어 있다. 공야장편(公冶長編)은 27 장(章).
149	公冶長 孔子弟子 妻 爲之妻也 縲 黑索也 綆 攀也 古者獄中 以黑索拘攀罪人 長之爲人 無所考 而夫子稱其可妻 其必有以取之矣 又言其人雖嘗陷於縲綆之中 而非其罪 則固無害於可妻也 夫有罪無罪 在我而已 豈以自外至者 爲榮辱哉	05-01-1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綆之中 非其罪也 以其子 妻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위로 삼을 만한 사람이고, 그가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기 죄(罪)는 아니라고 하시고, 자기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셨다.
150	南容 孔子弟子 居南宮 名縉 又名适 字子容 諡敬叔 孟懿子之兄也 不廢 言必見用也 以其謹於言行 故 能見用於治朝 免禍於亂世也 事又見第十一篇○ 或曰 公冶長之賢 不及南容 故 聖人 以其子妻長 而以兄子妻容 蓋厚於兄而薄於己也 程子曰 此 以己之私心 窺聖人也 凡人避嫌者 皆內不足也 聖人自至公 何避嫌之有 況嫁女 必量其才而求配 尤不當有所避也 若孔子之事 則其年之長幼 時之先後 皆不可知 惟以爲避嫌 則大不可 避嫌之事 賢者且不爲 況聖人乎	05-01-2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 妻之	선생님께서 남용(南容)을 말씀하시어, 나라가 정도(正道)에 의해 다스려지는 경우에는 버림을 받지 않고, 나라가 정도(正道)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刑罰)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고, 자기 형의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셨다.
151	子賤 孔子弟子 姓宓 名不齊 上斯斯 此人 不斯斯 此德 子賤 蓋能尊賢取友 以成其德者 故 夫子既歎其賢 而又言若魯無君子 則此人 何所取以成此德乎 因以見魯之多賢也○ 蘇氏曰 稱人之善 必本其父兄師友 厚之至也	05-02-1 子謂子賤 君子哉 若人 魯無君子者 斯焉取斯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군자(君子)로다! 노(魯) 나라에 군자(君子)들이 없었다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인격을 갖게 되었겠는가!

152	器者 有用之成材 夏曰瑚 商曰璊 周曰簠簋 皆宗廟盛黍稷之器而飾以玉 器之貴重而華美者也 子貢見孔子以君子許子賤 故 以己爲問 而孔子告之以此 然則子貢 雖未至於不器 其亦器之貴者歟	05-03-1 子貢問曰 賜也 何如 子曰 女器也 曰何器也 曰瑚璉也	자공(子貢)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이다. 하셨다.무슨 그릇입니까?하니, 호련(瑚璉)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53	雍 孔子弟子 姓冉 字仲弓 佞 口才也 仲弓 爲人 重厚簡默而時人以佞爲賢 故 美其優於德而病其短於才也	05-04-1 或曰 雍也 仁而不佞	어떤 사람이 옹(雍)은 인자하기는 하나 말재주가 없다.고 하자,
154	禦 當也 猶應答也 給 辯也 憎 惡也 言何用佞乎 佞人所以應答人者 但以口取辯而無情實 徒多爲人所憎惡爾 我雖未知仲弓之仁 然其不佞 乃所以爲賢 不足以爲病也 再言焉用佞 所以深曉之 ○ 或疑仲弓之賢 而夫子不許其仁 何也 曰 仁道至大 非全體而不息者 不足以當之 如顏子亞聖 猶不能無違於三月之後 況仲弓雖賢 未及顏子 聖人固不得而輕許之	05-04-2 子曰 焉用佞 禦人以口給 屢憎於人 不知其仁 焉用佞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과 말로 따져서 응답하게 되면 남에게 자주 미움을 산다. 그가 인자한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55	漆雕開孔子弟子 字子若 斯指此理而言 信謂真知其如此而無毫髮之疑也 開自言未能如此 未可以治人 故夫子說其篤志 ○ 程子曰 漆雕開已見大意 故夫子說之 又曰古人見道分明 故其言如此 謝氏曰開之學 無可考 然聖人使之仕 必其材可以仕矣 至於心術之微 則一毫不自得 不害其爲未信 此聖人所不能知 而開自知之 其材可以仕 而其器不安於小成 他日所就 其可量乎 夫子所以說之也	05-05-1 子使漆雕開仕 對曰 吾斯之未能信 子說	선생님께서 칠조개(漆雕開)에게 벼슬을 사라고 시키시자, 그가, 제가 벼슬살이를 감당해낼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셨다.
156	桴筏也 程子曰浮海之歎傷天下之無賢君也 子路勇於義 故謂其能從己 皆假設之言耳 子路以爲實然 而喜夫子之與己 故夫子美其勇 而譏其不能裁度事理以適於義也	05-06-1 子曰 道不行 乘桴 浮于海 從我者 其由與 子路 聞之喜 子曰 由也 好勇過我 無所取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道)가 행하여지지 않아서 때를 타고 바다로 떠나가게 되면, 나를 따라온 사람은 유(由)일 게다. 자로(子路)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由)는 용맹한 것을 좋아하기는 나보다 낫지만, 사리(事理)를 분간할 줄 모른다.
157	子路之於仁 蓋日月至焉者 或在或亡 不能必其有無 故以不知告之	05-07-1 孟無伯問 子路仁乎 子曰 不知也	맹무백(孟武伯)이 자로(子路)는 인자합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겠다.고 하셨다.
158	賦兵也 古者以田賦出兵 故謂兵爲賦 春秋傳所謂悉索駟賦 是也 言子路之才可見者如此 仁則不能知也	05-07-2 又問 子曰 由也 千乘之國 可使治其賦也 不知其仁也	또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由)는 천승(千乘)을 거느리는 제후국(諸侯國)에서 군무(軍務)를 맡아보도록 할 수는 있으나, 그가 인자한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
159	千室大邑 百乘卿大夫之家 宰邑長家臣之通號	05-07-3 求也 何如 子曰 求也 千室之邑 百乘之可	구(求)는 어떠합니까? 하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求)는 천호(千戶)되는 읍(邑)이나 백승(百乘)을 거느리는 경대부(卿大夫)의 집에서 읍장(邑長)이나 가재(家宰) 노릇을 하도록 할 수는

		可使爲之宰也 不知其仁也	있으나, 그가 인자한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
160	赤 孔子弟子 姓公西 字子華	05-07-4 赤也 何如 子曰 赤也 束帶立於朝 可使與賓客言也 不知其仁也	적(赤)은 어떠한니까? 하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赤)은 띠끈을 매고 조정(朝廷)에 나르면 빈객(賓客)들과 대담을 하도록 시킬 수는 있으나, 그가 인자한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
161	愈 勝也	05-08-1 子謂子貢曰 女與回也 孰愈	선생님께서 자공(子貢)에게, 너와 회는 어느 쪽이 우수하냐?고 말씀하시자.
162	一數之始 十數之終 二者一之對也 顏子明睿所照卽始而見終 子貢推測而知 因此而識彼 無所不說告往知來 是其驗矣	05-08-2 對曰 賜也 何敢望回 回也 聞一以知十 賜也 聞一以知二	제가 어떻게 감히 회(回)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회(回)는 하나를 듣고서 열을 하는데, 저는 하나를 듣고서 둘을 압니다. 하고 대답하니,
163	與 許也 ○ 胡氏日子貢方人 夫子既語以不暇 又問其與回孰愈 以觀其自知之如何 聞一知十 上知之資 生知之亞也 聞一知二 中人以上之資 學而知之之才也 子貢平日 以己方回 見其不可企及 故愈之如此 夫子以其自知之明而又不難於自屈 故既然之 又重許之 此其所以終聞性與天道 不特聞一知二而已也	05-08-3 子曰 弗如也 吾與女 弗如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 못하다. 나와 너는 그만 못하다.
164	晝寢 謂當晝而寐 朽腐也 雕刻晝也 朽鏹也 言其志氣昏惰 教無所施也 與 語辭 誅 責也 言不足責 乃所以深責之	05-09-1 宰予晝寢 子曰 朽木 不可雕也 糞土之牆 不可朽也 於予與 何誅	재여(宰予)가 낮에 잠을 잤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彫刻)을 베풀 수 없고, 더러운 흙담은 흠손으로 고를 수 없다. 내가 나무라서 무엇하랴?
165	宰予能言而行不逮 故孔子自言於予之事而改此失 亦以重警之也 胡氏曰 子曰 疑衍文 不然 則非一日之言也 ○ 范氏曰 君子之於學惟日孜孜 斃而後已 惟恐其不及也 宰予晝寢 自棄孰甚焉 故夫子責之 胡氏曰 宰予不能以志師氣 居然而倦 是宴安之氣勝 儆戒之志惰也 古之聖賢 未嘗不以懈惰荒寧爲懼 勤勵不息自強 此孔子所以深責宰予也 聽言觀行 聖人不待是而後能 亦非緣此而盡疑學者 特因此立教 以警群弟子 使謹於言而敏於行耳	05-09-2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 改是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내가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가 하는 일을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는 말을 듣고서도 그 행실을 살피게 되었으니 (재여(宰予)의 까닭으로), 나는 이 점을 고치게 되었다.
166	剛 堅強不屈之意 最人所難能者 故夫子歎其未見 申枨弟子姓名慾 多嗜慾也 多嗜慾則不得爲剛矣 ○ 程子曰 人有慾則無剛 剛則不屈於慾 謝氏曰 剛與慾 正相反 能勝物之謂剛 故常伸於萬物之上 爲物撓之謂慾 故常屈於萬物之下 自古有志者少 無志者多 宜夫子之未見也 枨之慾不可知 其爲人得非悻悻自好者乎 故或者疑以爲剛	05-10-1 子曰 吾未見剛者 或對曰 申枨 子曰 枨也慾 焉得剛	선생님께서, 나는 여지껏 곳곳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시어 어떤 사람이, 신정(申枨)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枨)은 욕심이 있으니 어찌 곳곳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

	然不知此其所以爲愆耳		
167	子貢言我所不欲人加於我之事 我亦不欲以此加之於人 此仁者之事 不待勉強 故夫子以爲非子貢所及 ○ 程子曰 我不欲人之加諸我 吾亦欲無加諸人 仁也 始諸己而不願 亦勿始於人恕也 恕則子貢或能勉之 仁則非所及矣 愚謂無者 自然而然 勿者禁止之謂 此所以爲仁恕之別	05-11-1 子貢曰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 子曰 賜也 非爾所及也	자공(子貢)이, 내가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나도 남에게 그것을 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자, 선생님께서는, 사(賜)야. 네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168	文章德之見乎外者 威儀文辭皆是也 性者人所受之天理 天道者天理自然之本體 其實一理也 言夫子之文章 日見乎外 固學者所共聞 至於性與天道 則夫子罕言之 而學者有不得聞者 蓋聖門教不躐等 子貢至是 始得聞之 而歎其美也 ○ 程子曰 此子貢聞夫子之至論而歎美之言也	05-12-1 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화에 관한 견해는 들어볼 수 있었으나, 선생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169	前所聞者 既未及行 故恐復有所聞而行之不給也 ○ 范氏曰 子路聞善 勇於必行 門人自以爲弗及也 故著之 若子路可謂能用其勇矣	05-13-1 子路 有聞 未之能行 唯恐有聞	자로(子路)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가르침을 또 받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170	孔文子 衛大夫 名圉 凡人性敏者 多不好學 位高者 多恥下問 故諡法有以勤學好問爲文者 蓋亦人所難也 孔圉得諡爲文 以此而已 ○ 蘇氏曰 孔文子使太叔疾出其妻而妻之 疾痛於初妻之娣 文子怒 將攻之 訪於仲尼 仲尼不對 命駕而行 疾奔宋 文子使疾弟遺 室孔姑 其爲人如此 而諡曰文 此子貢之所以疑而問也 孔子不沒其善 言能如此 亦足以爲文矣 非經天緯地之文也	05-14-1 子貢 問曰 公文子 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	자공(子貢)이, 공문자(孔文子)는 무엇 때문에 문(文)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이 빠르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아랫사람에게 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文)이라고 부른 것이다.
171	子產 鄭大夫公孫僑 恭謙遜也 敬謹恪也 惠愛利也 使民義 如都鄙有章 上下有服 田有封洫 廬井有伍之類 ○ 吳氏曰 數其事而責之者 其所善者多也 臧文仲不仁者三 不知者三 是也 數其事而稱之者 猶有所未至也 子產有君子之道四焉 是也 今或以一言蓋一人 一事蓋一時 皆非也	05-15-1 子謂子產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矣	선생님께서 자산(子產)을 말씀하시기를, 그는 군자(君子)의 도(道)를 네 가지 지니고 있었으니, 개인 행동은 공손하였고, 윗사람을 섬기는 데는 공경스러웠고, 백성의 생활을 돌봐주는 데는 은혜로왔고, 백성을 부리는 데는 올바른 길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다.
172	晏平仲 齊大夫 明嬰 程子曰人交久則敬衰 久而能敬所以爲善	05-16-1 子曰 晏平仲 善與人交 久而敬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평중(晏平仲)은 남과 사귀는 일을 잘 하였으니, 오래 되어도 상대방을 존경하였다.

173	臧文仲 魯大夫臧孫氏 名辰 居猶藏也 蔡大龜也 節柱頭斗栱也 藻水草名 절梁上短柱也 蓋爲藏龜之室而刻山於節畫藻於桷也 當時以文仲爲知 孔子言其不務民義而諂瀆鬼神如此 安得爲知 春秋傳所謂作虛器 卽此事也 ○ 張子曰 山節藻梲 爲藏龜之室 祀爰居之義 同歸於不知 宜矣	05-17-1 子曰 臧文仲 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중(臧文仲)이 기둥 꼭대기에 산을 아로새기고, 대들보의 지주(支柱)에 물풀 무늬를 그린 방에 채(蔡) 땅의 큰 거북을 두었으니, 그가 지혜롭다는게 어떤 말인가?
174	令尹官名 楚上卿執政者也 子文姓鬬 名穀於菟 其爲人也喜怒不形物我無間 知有其國而不知有其身 其忠盛矣 故子張疑其仁 然其所以三仕三已而告新令尹者 未知其皆出於天理而無人欲之私也 是以夫子但許其忠而未許其仁也	05-18-1 子張問曰 令尹子文 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瑣色 舊令尹之政必以告新令 尹 何如 子曰 忠矣 曰仁矣乎 曰未知 焉得仁	자장(子張)이, 영윤(令尹) 자문(子文)은 세 차례 벼슬을 살아 영윤(令尹) 노릇을 하였는데 기쁜 기색이 없었고, 세차례 그 벼슬에서 물러났는데 성내는 기색이 없었으며, 전임(前任) 영윤(令尹)이 한 정적(政績)을 반드시 신임(信任) 영윤(令尹)에게 일러주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스럽다.고 하셨다. 인자합니까? 모르기는 하겠으나 어찌 인자할 수야 있었겠느냐?
175	崔子齊大夫名棼 齊君莊公 名光 陳文子 亦齊大夫 名須無 十乘四十匹也 違去也 文子潔身去亂 可謂清矣 然未知其心果見義理之當然 而能脫然無所累乎 抑不得已於利害之私 而猶未免於怨悔也 故夫子特許其清而不許其仁 愚聞之師 曰當理而無私心 則仁矣 今以是而觀二子之事 雖其制行之高 若不可及 然 皆未有以見其必當於理而眞無私心也 子張未識仁禮 而悅於苟難 遂以小者 信其大者 夫子之不許也宜哉 讀者於此更以上章不知其仁 後篇仁則吾不知之語 并與三仁夷齊之事觀之 則彼此交盡 而仁之爲義 可識矣 今以他書考之 子文之相楚 所謀者無非僭王猾夏之事 文子之仕齊 既失正君討賊之義 又不數歲而復反於齊焉 則其不仁 亦可見矣	05-18-2 崔子 弑齊君 陳文子 有馬十乘 棄而違之 至於他邦 則曰猶吾大夫崔子也 違之 之一邦 則又曰 猶吾大夫崔子也 違之 何如 子曰 清矣 曰仁矣乎 曰未知 焉得仁	최자(崔子)가 제 나라의 임금을 죽이자, 진문자(陳文子)는 천승(千乘)의 땅을 가졌던 것을 버리고 떠나가, 다른 나라에 가서는, 우리 나라 대부(大夫) 최자(崔子)와 같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떠나갔고, 한 나라에 가서는, 또 우리나라의 대부(大夫) 최자(崔子)와 같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떠나갔으니,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다. 인자합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모르기는 하겠으나 어찌 인자할 수야 있었겠느냐? 하셨다.
176	季文子 魯大夫 名行父 每事必三思而後行 若使晉而求遭喪之禮以行 亦其一事也 斯語辭 程子曰 爲惡之人 未嘗知有思 有思則爲善矣 然至於再則已甚 三則私意起而反感矣 故夫子譏之 ○ 愚按 季文子慮事如此 可謂詳審而宜無過舉矣 以宣公篡立 文子乃不能討 反爲之使齊而納賂焉 豈非程子所謂私意起而反感之驗歟 是以 君子務窮理而貴果斷 不徒多思之爲尙	05-19-1 季文子 三思而後行 子聞之 曰再思可矣	계문자(季文子)는 세 번 생각 후 행하였다. 선생님이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길, 두 번 생각하면 된다.

177	甯武子 衛大夫 名俞 按春秋傳 武子仕衛 當文公成公之時 文公有道 而武子無事可見 此其知之可及也 成公無道 至於失國 而武子周旋其間 盡心竭力 不避艱險 凡其所處 皆智巧之士所深避而不肯爲者 而能卒保其身 以齊其君 此其愚之不可及也 ○ 程子曰 邦無道 能沈晦以免患 故曰不可及也 亦有不當愚者 比干是也	05-20-1 子曰 寧無子 邦有道則知 邦無道則于 其知 可及也 其愚 不可及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甯武子)는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해지면 지혜롭고,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해지지 않으면 우둔(愚鈍)했다. 그의 지혜로운 점은 따라가 내겠으나, 그의 우둔(愚鈍)한 점은 따라가 내지 못하겠다.
178	此孔子周流四方 道不行而思歸之歎也 吾黨小子 指門人之在魯者 狂簡志大而略於事也 斐文貌 成章言其文理成就 有可觀者 裁割正也 夫子初心 欲行其道於天下 至是而知其終不用也 於是 始欲成就後學 以傳道於來世 又不得中行之士 而思其次 以爲狂士志意高遠 猶或可與進於道也 但恐其過中失正而或陷於異端耳 故欲歸而裁之也	05-21-1 子在陳 曰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	선생님께서 진(陳) 나라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야 하겠다, 돌아가야 하겠다. 내 고향에 젊은이들은 포부는 원대(遠大)하나 면밀하지 못하고, 찬란하게 문채(文彩)는 이루었으나 그것을 (올바로) 재량할 줄을 모르고 있다.
179	伯夷叔齊 孤竹君之二子 孟子稱其不立於惡人之朝 不與惡人言 與鄉人立 其冠不正 望望然去之 若將浼焉 其介如此 宜若無所容矣 然其所惡之人 能改卽止 故人亦不甚怨之也 ○ 程子曰 不念舊惡 此清者之量 又曰 二子之心非夫子 孰能知之	05-22-1 子曰 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지난날의 나쁜 일 생각하지 않았고,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
180	微生姓 高名 魯人 素有直名者 醯醢也 人來乞時 其家無有 故乞諸隣家以與之 夫子言此 譏其曲意循物 掠美市恩 不得爲直也 ○ 程子曰 微生高所枉雖小 害直爲大 范氏曰 是曰是 非曰非 有謂有 無謂無 曰直 聖人觀人於其一介之取予 而千駟萬鐘 從可知焉 故以微事斷之 所以教人不可不謹也	05-23-1 子曰 孰謂微生高直 或乞醯焉 乞諸其隣而與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微生高)를 곧은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초를 얻으러 오자 그것을 그의 이웃에서 얻어다가 주었다.
181	足過也 程子曰 左丘明 古之聞人也 謝氏曰二者之可恥 有甚於穿窬也 左丘明恥之 其所養可知矣 夫子自言丘亦恥之 蓋竊比老彭之意 又以深戒學者 使察乎此而立心以直也	05-24-1 子曰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빠른 말, 좋은 듯이 꾸미는 얼굴, 환심을 사기 위한 공손(恭遜)을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러워하거나 나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원망하는 정(情)을 감추고 원망하는 사람과 교우(交友)하는 것을,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러워하거나 나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182	盖何不也	05-25-1 顏淵季路侍 子曰 盖各言爾志	안연(顏淵)과 계로(季路)가 모시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너희들의 포부를 각각 말해 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183	衣服之也 裘皮服 敝壞 憾恨也	05-25-2 子路曰 願車馬衣輕裘 與朋友共 敝之而無憾	자로(子路)는, 수레와 말을 타게 되고, 가벼운 가죽 옷을 입게 되어서, 벗들과 그러한 재물(財物)을 같이 쓰다가, 헐어져 버려도 섭섭해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184	伐誇也 善謂有能 施亦張大之意 勞謂有功 易曰 勞而不伐 是也 或曰勞勞事也 勞事 非己所欲 故亦不欲施之於人 亦通	05-25-3 顏淵曰 願無伐善 無施勞	안연(顏淵)은, 내 좋은 점을 자랑함이 없고, 자기의 공로를 대수롭게 늘어놓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185	老者養之以安 朋友與之以信 少者懷之以恩 一說安之安我也 信之信我也 懷之懷我也 亦通 ○ 程子曰 夫子安仁 顏淵不違仁 子路求仁 又日子路顏淵孔子之志 皆與物共者也 但有小大之差爾 又日子路勇於義者 觀其志 豈可以勢利拘之哉 亞於浴沂者也 顏子 不自私己 故無伐善 知同於人 故無施勞 其志可謂大矣 然未免於有意也 至於夫子 則如天地之化工 付與萬物而已不勞焉 此聖人之所爲也 今夫羈勒以御馬 而不以制牛 人皆知羈勒之作在乎人 而不知羈勒之生由於馬 聖人之化亦猶是也 先觀二子之言 後觀聖人之言 分明天地氣象 凡看論語 非但欲理會文字 須要識得聖賢氣象	05-25-4 子路曰 願聞子之志 子曰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자로(子路)가, 선생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여쭙자, 선생님께서는, 늙은이들은 편안하게 하여 주고, 벗들은 신용 있게 대하도록 하여 주고, 젊은이들은 따르게 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86	已矣乎者 恐其終不得見而歎之也 內自訟者 口不言而心自咎也 人有過而能自知者鮮矣 知過而能內自訟者 爲尤鮮 能內自訟 則其悔悟深切而能改 必矣 夫子自恐終不得見而歎之 其警學者深矣	05-26-1 子曰已矣乎 吾未能見其過而內自 訟者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되었나보다. 나는 여지껏 자기의 과오를 알아 가지고, 내심(內心)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니.
187	十室小邑也 忠信如聖人 生質之美者也 夫子生知而未嘗不好學 故言此以勉人 言美質易得 至道難聞 學之至則可以爲聖人 不學則不免爲鄉人而已 可不勉哉	05-27-1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 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호(十戶)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성되고 신용 있기가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나,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할 것이다.
188	06 雍也 第六 凡二十八章 篇內第十四章以前 大意與前篇同	06 雍也 第六	제 06 편. 웅야(雍也) 28 장. ♣ 이 편의 앞쪽은 인물평이 많고 뒤쪽은 인(仁)과 지(知)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다. 웅야편(雍也篇)은 28 장(章).
189	南面者 人君聽治之位 言仲弓寬弘簡重 有人君之度也	06-01-1 子曰 雍也 可使南面	선생님께서, 웅(雍)은 남면(南面)하여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여줄 만하다.라고 말씀하셨다.
190	子桑伯子魯人 胡氏以爲疑卽莊周所稱子桑戶者是也 仲弓以夫子許己南面 故問伯子如何 可者僅可而有所未盡之辭 簡者不煩之謂	06-01-2 仲弓 問子桑伯子 子曰 可也簡	중궁(仲弓)이 자상백자(子桑伯子)는 어떠합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괜찮으나 사람이 소탈하다고 말씀하셨다.
191	言自處以敬 則中有主而自治嚴 如是而行簡以臨民 則事不煩而民不擾 所以爲可 若先自處以簡 則中無主而自治疎矣 而所行又簡 豈不失之太簡而無法度之可守乎吳 家語記伯子不衣冠而處 夫子譏其欲同人道於牛馬 然則伯子蓋太簡者 而仲弓疑夫子之過許與	06-01-3 仲弓曰 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 居簡而行簡 無乃大簡乎	중궁(仲弓)이, 자처하는 것이 조심스럽고서, 국민을 대하는 데만 소탈하게 군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자처하는 것이 소탈하면서 국민을 대하는 데도 소탈하게 군다면, 지나치게 소탈하지 않겠습니까?하고 말씀드리자,

192	仲弓蓋未喻夫子可字之意 而其所言之理有默契焉者 故夫子然之 ○ 程子曰子桑伯子之簡 雖可取而未盡善 故夫子云可也 仲弓因言內主於敬而簡 則爲要直 內存乎簡而簡 則爲疏略 可謂得其旨矣 又曰居敬則心中無物 故所行自簡 居簡則先有心於簡 而多一簡字矣 故曰太簡	06-01-4 子曰 雍之言然	선생님께서, 웅(雍)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3	遷移也 貳復也 怒於甲者 不移於乙 過於前者 不復於後 顏子克己之功 至於如此 可謂真好學矣 短命者 顏子三十二而卒也 既云今也則亡 又言未聞好學者 蓋深惜之 又以見真好學者之難得也 ○ 程子曰 顏子之怒在物不在己 故不遷有不善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 不貳過也 又曰喜怒在事 則理之當喜怒者也 不在血氣 則不遷 若舜之誅四凶也 可怒在彼 己何與焉 如鑑之照物妍媸在彼 隨物應之而已 何遷之有 又曰如顏子地位豈有不善 所謂不善 只是微有差失 纔差失 便能知之 纔知之 便更不萌作 張子曰慊於己者不使萌於再 或曰時書六藝 七十子非不習而通也 而夫子獨稱顏子爲好學 顏子之所好 果何學歟 程子曰學以至乎聖人之道也 學之道奈何 曰天地儲精 得五行之秀者爲人 其本也眞而靜 其未發也 五性具焉 曰仁義禮智信 形既生矣 外物觸其形而動於中矣 其中動而七情出焉 曰喜怒哀懼愛惡欲 情既熾而益蕩 其性鑿矣 故學者約其情 使合於中 正其心養其性而已 然必先明諸心 知所往 然後力行以求至焉 若顏子之非禮物視聽言動 不遷怒貳過者 則其好之篤而學之得其道也 然其未至於聖人者 守之也 非化之也 假之以年 則不日而化矣 今人乃謂聖本生知 非學可至 而所以爲學者不過記通文辭之間 其亦異乎顏子之學矣	06-02-1 哀公 問弟子 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	애공(哀公)께서 제자들 중에는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가를 물으셨다. 공자께서, 안회(顏回)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하여,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고, 과오(過誤)를 되풀이하지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단명(短命)하여 죽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194	子華公西赤也 使爲孔子使也 釜六斗四升 庾十六斗 秉十六斛	06-03-1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 子曰 與之釜 請益 曰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	자화(子華)가 사명을 띠고 제 나라에 보내졌다. 염자(冉子)께서 자화(子華)의 모친을 위해 곡식을 주기를 요청하였다. 선생님께서, 옛 말 너 되를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주기를 요청하자, 열 여섯 말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자(冉子)께서는 여든 섬을 주셨다.
195	乘肥馬 衣輕裘 言其富也 急窮迫也 周者補不足 繼者續有餘	06-03-2 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 吾聞之也 君子	선생님께서, 적(赤)이 제 나라에 가 있는 데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털옷을 입고 지낸다. 내가 듣건대 군자(君子)는 궁박한 것을 보충하지

		周急 不繼富	부유한 데에 더 보태지는 않는다더라.하고 말씀하셨다.
196	原思孔子弟子 名憲 孔子爲魯司寇時 以思爲宰 粟宰之祿也 九百不言其量 不可考	06-03-3 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辭	원사가 공자의 가신이 되었다. 곡식 구백 말을 주시니 사양하거늘,
197	母禁止辭 五家爲隣 二十五家爲里 萬二千五百家爲鄉 五百家爲黨 言常祿不當辭 有餘自可推之 以周貧乏 蓋隣里鄉黨 有相周之義 ○ 程子曰夫子之使子華 子華之爲夫子使 義也 而冉有乃爲之請 聖人寬容 不欲直拒人 故與之少 所以示不當與也 請益而與之亦少 所以示不當益也 求未達而自與之多 則已過矣 故夫子非之 蓋亦苟至乏 則夫子必自周之 不待請矣 原思爲宰 則有常祿 思辭其多 故又教以分諸隣里之貧者 蓋亦莫非義也 張子曰 於斯二者 可見聖人之用財矣	06-03-4 子曰 毋以與爾隣理鄉黨乎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양하지 말라, 너의 이웃과 마을과 향당에 나누어주어라. 고 하셨다.
198	犁雜文 駢赤色 周人尙赤 牲用駢 角角周正中犧牲也 用用以祭也 山川山川之神也 言人雖不用神必不舍也 仲弓父賤而行惡 故夫子以此譬之言父之惡不能廢其子之善 如仲弓之賢 自當見用於世也 然此論仲弓云爾 非與仲弓言也 ○ 范氏日以鼓睡爲父而有舜 以絛爲父而有禹 古之聖賢 不係於世類 尙矣 子能改父之過 變惡以爲美 則可謂孝矣	06-04-1 子謂仲弓曰 犁牛之子 駢且角 雖欲勿用 山川 其舍諸	선생님께서 중궁(仲弓)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룩소의 새끼가, 털빛이 붉고 뿔이 단정하다면, 희생의 제물(祭物)로 쓰지 않으려 할지라도, 산천(山川)의 신(神)이야 그것을 거절하겠느냐?
199	三月言其久 仁者 心之德 心不偉仁者 無私欲而有其德也 日月至焉者 或日一至焉 或月一至焉 能造其域而不能久也 ○ 程子曰 三月天道小變之節 言其久也 過此則聖人矣 不違仁 只是無纖毫私欲 少有私欲 便是不仁 尹氏曰 此顏子於聖人 未達一間者也 若聖人則渾然無間斷矣 張子曰 始學之要 當知三月不違 與日月至焉 內外賓主之辨 使心意勉勉循循而不能已 過此 幾非在我者	06-05-1 子曰 回也 其心 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回)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을 인자한 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하루 또는 한 달을 지속하는 데 그친다.
200	從政 謂爲大夫 果有決斷 達通事理 藝多才能 ○ 程子曰 季康子問三子之才可以從政乎 夫子答以各有所長 非惟三子 人各有所長 能取其長 皆可用也	06-06-1 季康子問 仲由 可使從政也 子曰 由也果 於從政何有 曰賜也 可使從政也與 曰賜也達 於從政何有 曰求也 可使從政也 曰求也藝 於從政乎何有	계강자(季康子)가, 중유(仲由)는 정치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선생님께서, 유(由)는 과감합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다.사(賜)는 정치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사(賜)는 사리(事理)에 통달합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다.구(求)는 정치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구(求)는 재능이 많습니다. 정치에 종사해서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201	閔子騫孔子弟子 名損 費季氏邑 汶水名 在齊南魯北竟上 閔子不欲臣季氏 令使者善爲己辭 言若再來召我 則當去之齊 ○ 程子曰 仲尼之門 能不仕大夫之家者 閔子曾子數人而已 謝氏曰 學者能少知內外之分 皆可以樂道而忘人之勢 況閔子得聖人爲之依歸 彼其視季氏不義之富貴 不啻犬彘 又從而臣之 豈其心哉 在聖人則有不然者 蓋居亂邦 見惡人 在聖人則可 自聖人以下 剛則必取禍 柔則必取辱 閔子豈不能早見而豫待之乎 如由也不得其死 求也爲季氏附益 夫豈其本心哉 蓋既無先見之知 又無克亂之才故也 然則閔子其賢乎	06-07-1 季氏使閔子騫 爲費宰 閔子騫曰 善爲我辭焉 如有復我者 則吾必在汶上矣	계씨(季氏)가 민자건(閔子騫)을 비(費)의 읍재(邑宰)를 시키려 하였더니, 민자건(閔子騫)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 그것을 잘 거절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또 나를 부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문수(汶水) 가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202	伯牛 孔子弟子 姓冉 名耕 有疾 先儒以爲癰也 牖 南牖也 禮 病者居北牖下 君視之 則遷於南牖下 使君得以南面視己 時 伯牛家以此禮尊孔子 孔子不敢當 故 不入其室 而自牖執其手 蓋與之泳訣也 命 謂天命 言此人不應有此疾 而今乃有之是乃天之所命也 然則非其不能謹疾而有以致之 亦可見矣 ○ 侯氏曰 伯牛以德行稱 亞於顏閔 故 其將死也 孔子尤痛惜之	06-08-1 伯牛有疾 子問之 自牖 執其手曰 亡之 命矣夫 斯人也而有斯疾也 斯人也而有斯疾也	백우(伯牛)가 병이 나, 선생님께서 문병(問病)을 가셔서, 창문으로 해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없다. 운명이다. 이런 사람한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이런 사람한테 이런 병이 생기다니.
203	簞 竹器 食 飯也 瓢 瓠也 顏子之貧如此 而處之泰然 不以害其樂 故夫子再言賢哉回也 以深嘆美之 ○ 程子曰 顏子之樂 非樂簞瓢陋巷也 不以貧累其心而改其所樂也 故 夫子稱其賢 又曰 簞瓢陋巷 非可樂 蓋自有其樂爾 其字當玩味 自有深意 又曰 昔受學於周茂叔 每令尋仲尼顏子樂處 所樂何事 愚按程子之言 引而不發 蓋欲學者深思而自得之 今亦不敢妄爲之說 學者但當從事於博文約禮之誨 以至於欲罷不能而竭其才 則庶乎有以得之矣	06-09-1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도다, 회(回)는. 한 그릇의 밥, 한 쪽박의 물로 빈촌(貧村)에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 내지 못하는데, 회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의 즐거움이 변하지 않는다. 훌륭하도다. 회(回)는.
204	力不足者 欲進而不能 畫者 能進而不欲 謂之畫者 如畫地以自限也 ○ 胡氏曰 夫子稱顏回不改其樂 冉求聞之 故有是言 然 使求說夫子之道 誠如口之說芻豢 則必將盡力以求之 何患力之不足哉 畫而不進 則日退而已矣 此冉求之所以局於藝也	06-10-1 冉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劃	염구(冉求)가, 선생님의 도(道)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옵니다마는 모자랍니다. 하고 여쭙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도중에서 그만두고 말게 마련이지만, 지금 너는 선을 굽고 머물러 있는 것이다.
205	儒 學者之稱 程子曰 君子儒 爲己 小人儒 爲人 ○ 謝氏曰 君子小人之分 義與利之間而已 然 所謂利者 豈必殖貨財之謂 以私滅公 適己自便 凡可以害天理者 皆利也 子夏文學雖有餘 然意其遠者大者或昧焉 故夫子語之以此	06-11-1 子謂子夏曰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	선생님께서 자하(子夏)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자(君子) 선비가 될 것이지, 소인(小人) 선비는 되지 말아라.

206	武城 魯下邑 澹臺 姓 滅明名 字子羽 徑路之小而捷者 公事 如飲射讀法之類 不由徑則動必以正而無見小欲速之意 可知 非公事不見邑宰 則其有以自守 而無枉己循人之私 可見矣 ○ 楊氏曰 爲政 以人才爲先 故孔子以得人爲問 如滅明者 觀其二事之小 而其正大之情 可見矣 後世有不由徑者 人必以爲迂 不至其室 人必以爲簡 非孔氏之徒 其孰能知而取之 愚謂 持身以滅明爲法 則無苟賤之羞 取人 以子游爲法 則無邪媚之惑	06-12-1 子游爲武城宰 子曰 女得人焉爾乎 曰有澹臺滅明者 行不由徑 非工事 未嘗至於偃之室也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읍재(邑宰)가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너는 인재(人材)를 얻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자유(子游)가 여쭙기를, 담대멸명(澹臺滅明)이라는 사람이 있사운데, 이 사람은 행동이 구차하지 않사오며, 공무(公務)가 아니면 제 방에 온 일이 없습니다.
207	孟之反 魯大夫 名側 胡氏曰 反 卽莊周所稱孟子反者是也 伐誇功也 奔敗走也 君後曰殿 策鞭也 戰敗而還 以後爲功 反奔而殿 故以此言 自揜其功也 事在哀公十一年 ○ 謝氏曰 人能操無欲上人之心 則人欲日消 天理日明 而凡可以矜己誇人者 皆無足道矣 然不知學者 欲上人之心 無時而忘也 若孟之反 可以爲法矣	06-13-1 子曰 孟之反 不伐 奔而殿 將入門 策其馬 曰非敢後也 馬不進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지반(孟之反)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후퇴하면서 혼자서 뒤에 처져 오고는, 성문(城門)에 들어갈 무렵에, 자기 말들을 채찍질하며, 감히 뒤에 처져 오자는 것은 아니었다. 말들이 느렸다고 말하였다.
208	祝 宗廟之官 鮒 衛大夫 字子魚 有口才 朝 宋公子 有美色 言衰世好諛悅色 非此難色 蓋傷之也	06-14-1 子曰 不有祝鮒之佞 而有宋朝之美 難乎免於今之世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타(祝鮒) 같은 말재간과 송조(宋朝) 같은 미색(美色)이 없으면, 이마적에 해(害)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구나.
209	言人不能出不由戶 何故 乃不由此道耶 怪而歎之之辭 ○ 洪氏曰 人知出必由戶 而不知行必由道 非道遠人 人自遠爾	06-15-1 子曰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늘 왜 이 도(道)를 따르지 않는건가?
210	野 野人 言鄙略也 史 掌文書 多聞習事而誠或不足也 彬彬 猶斑斑 物相雜而適均之貌 言學者當損有餘 補不足 至於成德 則不期然而然矣 ○ 楊氏曰 文質 不可以相勝 然質之勝文 猶之甘可以受和白可以受采也 文勝而至於滅質 則其本亡矣 雖有文 將安施乎 然則與其史也 寧野	06-16-1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 君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實質)이 문식(文飾)을 압도하면 야비한 사람이고, 문식(文飾)이 실질(實質)을 압도하면 서사(書士)이고, 문식(文飾)과 실질(實質)이 섞여서 조화를 이룬 연후(然後)라야 군자(君子)다.
211	程子曰 生理本直 罔 不直也 而亦生者 幸而免耳	06-17-1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정직하게 마련이다. 정직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요행히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212	尹氏曰 知之者 知有此道也 好之者 好而未得也 樂之者 有所得而樂之也 ○ 張敬夫曰 譬之五穀 知者 知其可食者也 好者 食而嗜之者也 樂者 嗜之而飽者也 知而不能好 則是知之未至也 好之而未及於樂 則是好之未至也 此古之學者所以自強而不息者與	06-18-1 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은 못하다.

213	語 告也 言教人者當隨其高下而告語之 則其言易入而無躐等之弊也 ○ 張敬夫曰 聖人之道精粗雖無二致 但其施教 則必因其材而篤焉 蓋中人以下之質 驟而語之太高 非惟不能以入 且將妄意躐等 而有不切於身之弊 亦終於下而已矣 故就其所及而語之 是乃所以使之切問近思 而漸進於高遠也	06-19-1 子曰 中人以上 可以語上也 中人以下 不可以語上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등 이상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높은 지식을 알려주어도 좋다. 중등 이하의 사람에게는 높은 지식을 알려줄 게 못된다.
214	民 亦人也 獲 謂得也 專用力於人道之所宜而不惑於鬼神之不可知 知者之事也 先其事之所難而後其效之所得 仁者之心也 此 必因樊遲之失而告之 ○ 程子曰 人多信鬼神 惑也 而不信者 又不能敬 能敬能遠 可謂知矣 又曰 先難克己也 以所難爲先而不計所獲 仁也 呂氏曰 當務爲急 不求所難知 力行所知 不憚所難爲	06-20-1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問仁 曰仁者 先難而後獲 可謂仁矣	번지(樊遲)가 지혜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이 따를 정의를 살리기에 힘쓰고, 귀신들을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 한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인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이라는 것은 먼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얻게 되는 것으로, 그래야 인이라고 할 수 있다.
215	樂喜好也 知者 達於事理而周流無滯 有似於水 故樂水 仁者 安於義理而厚重不遷 有似於山 故樂山 動靜 以體言 樂壽 以效言也 動而不括故 樂靜而有常故 壽 ○ 程子曰 非禮仁知之深者 不能如此形容之	06-21-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인자한 사람은 조용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자한 사람은 장수(長壽)한다.
216	孔子之時 齊俗急功利 喜夸詐 乃霸政之餘習 魯則重禮教 崇信義 猶有先王之遺風焉 但人亡政息 不能無廢墜耳 道則先王之道也 言二國之政 俗有美惡 故 其變而之道 有難易 ○ 程子曰 夫子之時 齊強魯弱 孰不以爲齊勝魯也 然 魯猶存周公之法制 齊由桓公之霸 爲從簡尚功之治 太公之遺法 變易盡矣 故一變乃能至魯 魯則修舉廢墜而已 一變則至於先王之道也 愚謂 二國之俗 惟夫子爲能變之而不得試 然因其言以考之 則其施爲緩急之序 亦略可見矣	06-22-1 子曰 齊一變 至於魯 魯一變 至於道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齊) 나라가 일변(一變)하면 노(魯) 나라의 정도(正道)에 도달하게 되고, 노(魯) 나라가 일변(一變)하면 유도(有道)한 나라로 될 것이다.
217	觚 稜也 或曰 酒器 或曰 木簡 皆器之有稜者也 不觚者 蓋當時失其制而不爲稜也 觚哉觚哉 言不得爲觚也 ○ 程子曰 觚而失其形制 則非觚也 舉一器 而天下之物 莫不皆然 故君而失其君之道 則爲不君 臣而失其臣之職 則爲虛位 范氏曰 人而不仁 則非人 國而不治 則不國矣	06-23-1 子曰 觚不觚 觚哉觚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觚)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觚)라고 하겠는가, 고(觚)라고 하겠는가
218	劉聘君曰 有仁之仁 當作人 今從之 從 謂隨之於井而救之也 宰我信道不篤 而憂爲仁之陷害 故 有此問 逝 謂使之往救 陷 謂陷之於井 欺 謂誑之以理之所有 罔 謂昧之以理之所無 蓋身在井上 乃可以救井中之人 若從之於井 則不復能救之矣 此理甚明 人所易曉 仁者雖切於救人而不私其身 然不應如此之愚也	06-24-1 宰我 問曰 仁者雖告之曰 井有仁焉 其從之也 子曰 何爲其然也 君子 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	재아(宰我)가, 인자한 사람은 그에게 거짓으로 '우물 속에 인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우물 속으로) 따라 들어갈 것입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 하러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군자(君子)는 우물 있는 데까지 가기는 할 것이나, 우물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를 속일 수는 있을 것이나,

			사리(事理)에 어둡게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219	約 要也 畔 背也 君子 學欲其博故 於文無不考 守欲其要故 其動必以禮 如此則可以不背於道矣 ○ 程子曰 博學於文而不約之以禮 必至於汗漫 博學矣 又能守禮而由於規矩 則亦可以不畔道矣	06-25-1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不畔矣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로서 글을 널리 배우고, 그것을 예(禮)로써 요약(要約)한다면, 또한 정도(正道)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20	南子 衛靈公之夫人 有淫行 孔子至衛 南子請見 孔子辭謝 不得已而見之 蓋古者 仕於其國 有見其小君之禮 而子路以夫子見此淫亂之人爲辱 故 不悅 矢 誓也 所 誓辭也 如云所不與崔慶者之類 否謂不合於禮不由其道也 厭棄絕也 聖人道大德全 無可不可 其見惡人 固謂在我有可見之禮 則彼之不善 我何與焉 然此豈子路所能測哉 故重言以誓之 欲其姑信此而深思以得之也	06-26-1 子見南子 子路不說 夫子矢之曰 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	선생님께서 남자(南子)를 만나보셨는데, 자로(子路)가 좋지 않아 했다. 선생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예(禮)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이 있다면, 하늘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하늘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221	中者 無過不及之名也 庸 平常也 至 極也 鮮 少也 言民少此德 今已久矣 ○ 程子曰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中者 天下之正道 庸者 天下之定理 自世教衰 民不興於行 少有此德 久矣	06-27-1 子曰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中庸)의 힘은 대단하기도 하다. 사람들이 중용(中庸)을 오래 지키고 있는 일이 적으니.
222	博 廣也 仁 以理言 通乎上下 聖 以地言 則造其極之名也 乎者 疑而未定之辭 病 心有所不足也 言此何止於仁 必也聖人能之乎 則雖堯舜之聖 其心猶有所不足於此也 以是求仁 愈難而愈遠矣	06-28-1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 其猶病諸	자공(子貢)이 만약에 국민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을 환난(患難)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인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인자한 데서 그치겠느냐. 틀림없이 성인(聖人)일 게다. 요순(堯舜)도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다.
223	以己及人 仁者之心也 於此觀之 可以見天理之周流而無間矣 狀仁之體 莫切於此	06-28-2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인자한 사람은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남을 내세워 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발전시켜 준다.

224	譬喻也 方術也 近取諸身 以己所欲 譬之他人 知其所欲亦猶是也 然後推其所欲 以及於人 則恕之事而仁之術也 於此勉焉 則有以勝其人欲之私而全其天理之公矣 ○ 程子曰 醫書 以手足痿痺 爲不仁 此言 最善名狀 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認得爲己 何所不至 若不屬己 自與己不相干 如手足之不仁 氣已不貫 皆不屬己 故博施濟衆 乃聖人之功用 仁至難言 故止曰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欲令如是觀仁 可以得仁之體 又曰論語 言堯舜其猶病諸者二 夫博施者豈非聖人之所欲 然必五十乃衣帛 七十乃食肉 聖人之心 非不欲少者亦衣帛食肉也 顧其養有所不贍爾 此病其施之不博也 濟衆者豈非聖人之所欲 然 治不過九州 聖人非不欲四海之外亦兼濟也 顧其治有所不及爾 此病其濟之不衆也 推此以求 修己以安百姓 則爲病可知 苟以吾治已足 則便不是聖人 呂氏曰 子貢有志於仁 徒事高遠 未知其方 孔子教以於己取之 庶近而可入 是乃爲仁之方 雖博施濟衆 亦由此進	06-28-3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가까운 자기를 가지고 남의 입장에서 비겨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인의 올바른 방향이라 하겠다.
225	07 述而 第七 此篇 多記聖人謙己誨人之辭 及其容貌行事之實 凡三十七章	07 述而 第七	제 07 편. 술이(述而) 36 장. ♣ 공자 자신의 일과 공자의 용모, 태도, 행동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논어 전편중 가장 뛰어난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이 편은 성인이 자기를 겸손하고 사람을 가르친 말 및 그 거동과 일을 행하는 실재를 많이 기록했으니, 무릇 37 장이라. 곧 이 편은 공자의 一動一靜을 기록한 글이다.
226	術 傳舊而已 作 則創始也 故 作非聖人 不能而術則賢者可及 竊比 尊之之辭 我 親之之辭 老彭 商賢大夫 見大戴禮 蓋信古而傳術者也 孔子刪時書 定禮樂 贊周易 修春秋 皆傳先王之舊 而未嘗有所作也 故其自言如此 蓋不惟不敢當作者之聖 而亦不敢顯然自附於古之賢人 蓋其德愈盛而心愈下 不自知其辭之謙也 然 當是時 作者略備 夫子蓋集群聖之大成而折衷之 其事雖術 而功則倍於作矣 此又不可不知也	07-01-1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공자 말씀하시기를, 옛 것을 풀이하고 창작하지 아니하며, 믿어서 옛 것을 좋아하는 것을, 그윽히 우리 노팽에게 비유할 것이다. 고 하셨다.
227	識 記也 默識 謂不言而存諸心也 一說 識 知也 不言而心解也 前說 近是 何有於我 言何者能有於我也 三者 已非聖人之極至 而猶不敢當 則謙而又謙之辭也	07-02-1 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공자 말씀하시기를, 묵묵히 진리를 알아내며, 배워서 싫어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나에게 있겠느냐. 고 하셨다.

228	尹氏曰 德必修而後成 學必講而後明 見善能徙 改過不吝 此四者 日新之要也 苟未能之 聖人猶憂 況學者乎	07-03-1 子曰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공자 말씀하시기를, 덕을 닦지 못하는 것과, 배움을 강하지 못하는 것과, 의를 듣고 능히 옮기지 못하며, 착하지 않은 것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고 하셨다.
229	燕居 閒暇無事之時 楊氏曰 申申 其容舒也 夭夭 其色愉也 ○ 程子曰 此弟子善形容聖人處也 爲申申字說不盡 故更著夭夭字 今人 燕居之時 不怠惰放肆 必太嚴厲 嚴厲時著此四字不得 怠惰放肆時亦著此四字不得 惟聖人 便自有中和之氣	07-04-1 子之燕居 申申如也 夭夭如也	공자께서 한가히 거하시니, 그 모습은 편안하시고 얼굴빛은 기뻐하셨다.
230	孔子盛時 志欲行周公之道 故 夢寐之間 如或見之 至其老而不能行也 則無復是心而亦無復是夢矣 故 因此而自歎其衰之甚也 ○ 程子曰 孔子盛時 寤寐常存行周公之道 及其老也 則志慮衰而不可以有爲矣 蓋存道者心 無老少之異 而行道者身 老則衰也	07-05-1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공자 말씀하시기를, 심하다 나의 쇠약함이여, 오래되었구나 내가 다시 꿈에 주공을 다시 뵈지 못했도다. 고 하셨다.
231	志者 心之所之之謂 道 則人倫日用之間所當行者是也 知此而心必之焉 則所適者正 而無他岐之惑矣	07-06-1 子曰 志於道	공자 말씀하시기를, 도에 뜻을 두며,
232	據者 執守之意 德 則行道而有得於心者也 得之於心而守之不失 則終始惟一 而有日新之功矣	07-06-2 據於德	덕에 의거하며,
233	依者 不違之謂 仁 則私欲盡去而心德之全也 工夫至此而無終食之違 則存養之熟 無適而非天理之流行矣	07-06-3 依於仁	어진 것에 의지하며,
234	游者 玩物適情之謂 藝 則禮樂之文 射御書數之法 皆至理所寓而日用之不可闕者也 朝夕游焉 以博其義理之趣 則應務有餘 而心亦無所放矣 ○ 此章 言人之爲學 當如是也 蓋學莫先於立志 志道則心存於正而不他 據德則道得於心而不失 依仁則德性常用而物欲不行 游藝則小物不遺而動息有養 學者於此 有以不失其先後之序 輕重之倫焉 則本末兼該 內外交養 日用之間 無少間隙而涵泳從容 忽不自知其入於聖賢之域矣	07-06-4 游於藝	예에서 노닐어야 할 것이다. 고 하셨다.
235	脩 脯也 十脰爲束 古者相見 必執贄以位禮 束脩 其至薄者 蓋人之有生 同具此理 故聖人之於人 無不欲其入於善 但不知來學 則無往教之禮 故 苟以禮來 則無不有以教之也	07-07-1 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공자 말씀하시기를, 마른 고기 한 묶음 이상의 예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내가 일찍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고 하셨다.

236	憤者 心求通而未得之意 悱者 口欲言而未能之貌 啓 謂開其意 發 謂達其辭 物之有四隅者 舉一 可知其三 反者 還以相證之義 復 再告也 上章已言聖人誨人不倦之意 因并記此 欲學者勉於用力以爲受教之地也 ○ 程子曰 憤悱 誠意之見於色辭者也 待其誠至而後告之 既告之 又必待其自得 乃復告爾 又曰 不待憤悱而發 則知之不能堅固 待其憤悱而後發 則沛然矣	07-08-1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공자 말씀하시기를, 배우는 사람이 발분하지 않으면 그를 열어주지 않고, 깨달은 이치를 표현하기를 애쓰지 않으면 그를 발하게 해주지 아니하며, 한 구석을 들어서 세 모퉁이를 돌이키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주지 않는다. 고 하셨다.
237	臨喪哀 不能甘也	07-09-1 子食於有喪者之側 未嘗飽也	공자께서 상주 곁에 계시면서는 일찍이 배불리 먹지 아니하시고,
238	哭 謂弔哭 一日之內 餘哀未忘 自不能歌也 ○ 謝氏曰 學者於此二者 可見聖人情性之正也 能識聖人之情性然後 可以學道	07-09-2 子於是日 哭則不歌	공자께서 이 날에 곡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지 아니 하셨다.
239	尹氏曰 用舍 無與於己 行藏 安於所遇 命不足道也 顏子幾於聖人 故 亦能之	07-10-1 子謂顏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	공자께서 안연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등용하면 행하고 버리고, 등용하지 않으면 재주를 간직할 이는 나와 너가 있을 뿐이다. 고 하셨다.
240	萬二千五百人爲軍 大國三軍 子路見孔子獨美顏淵 自負其勇 意夫子若行三軍 必與己同	07-10-2 子路曰 子行三軍則誰與	자로가 말하시기를, 선생님께서 삼군을 다스린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고 하니,
241	暴虎 徒搏 馮河 徒涉 懼 謂敬其事 成 謂成其謀 言此 皆以抑其勇而教之 然 行師之要實不外此 子路蓋不知也 ○ 謝氏曰 聖人於行藏之間 無意無必 其行非貪位 其藏非獨善也 若有欲心 則不用而求行 舍之而不藏矣 是以 惟顏子爲可以與於此 子路 雖非有欲心者 然 未能無固必也 至以行三軍爲問 則其論益卑矣 夫子之言 蓋因其失而教之 夫不謀無成 不懼必敗 小事尚然 而況於行三軍乎	07-10-3 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	공자 말씀하시기를, 범을 맨손으로 잡으며, 하수를 걸어서 건너다가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를 같이 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루는 이를 좋아한다. 고 하셨다.
242	執鞭 賤者之事 設言富若可求 則雖身爲賤役以求之 亦所不辭 然 有命焉 非求之可得也 則安於義理而已矣 何必徒取辱哉 ○ 蘇氏曰 聖人 未嘗有意於求富也 豈問其可不可哉 爲此語者 特以明其決不可求爾 楊氏曰 君子非惡富貴而不求 以其在天 無可求之道也	07-11-1 子曰 富而可究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공자 말씀하시기를, 부유하게 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비록 말채찍을 잡는 일꾼이라도 나는 그러한 일을 하겠고, 만일 구하지 못할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리라. 고 하셨다.
243	齊之爲言 齊也 將祭而齊其思慮之不齊者 以交於神明也 誠之至與不至 神之享與不享 皆決於此 戰 則衆之死生 國之存亡繫焉 疾 又吾身之所以死生存亡者 皆不可以不謹也 ○ 尹氏曰 夫子無所不謹 弟子記其大者耳	07-12-1 子之所慎 齊戰疾	공자가 조심하는 것에는 제사와 전쟁과 질병이었다.

244	史記 三月上 有學之二字 不知肉味 蓋心一於是而不及乎他也 曰 不意舜之作樂至於如此之美 則有以極其情文之備 而不覺其歎息之深也 蓋非聖人 不足以及此 ○ 范氏曰 韶 盡美又盡善 樂之無以加此也 故 學之三月 不知肉味 而歎美之如此 誠之至 感之深也	07-13-1 子在齊聞韶 三月 不知肉味 曰不圖爲樂之至於斯也	공자가 제나라에 있으면서 <소>를 들으시고, 3개월간을 고기 맛을 알지 못하시고, 풍류가 이 경지에 이른 줄을 알지 못했다. 고 하셨다.
245	爲 猶助也 衛君 出公輒也 靈公逐其世子蒯聵 公薨 而國人立蒯聵之子輒 於是 晉納蒯聵而輒拒之 時孔子居衛 衛人以蒯聵得罪於父 而輒嫡孫當立 故 冉有疑而問之 諾 應辭也	07-14-1 冉有曰 夫子爲衛君乎 子貢曰諾 吾將問之	염유가 이르기를, 선생님께서 위나라 임금을 위하시겠는가. 하니, 자공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장차 여쭙어 보겠다. 고 하고,
246	伯夷叔齊 孤竹君之二子 其父將死 遺命立叔齊 父卒 叔齊遜伯夷 伯夷曰父命也 遂逃去 叔齊亦不立而逃之 國人立其中子 其後武王伐紂 夷齊扣馬而諫 武王滅商 夷齊恥食周粟 去隱于首陽山 遂餓而死 怨猶悔也 君子居是邦 不非其大夫 況其君乎 故子貢不斥衛君 而以夷齊爲問 夫子故之如此 則其不爲衛君 可知矣 蓋伯夷以父命爲尊 叔齊以天倫爲重 其遜國也 皆求所以合乎天理之正而卽乎人心之安 既而各得其志焉 則視棄其國 猶敝蹤爾 何怨之有 若衛輒之據國拒父而唯怨失之 其不可同年而語 明矣 ○ 程子曰 伯夷叔齊遜國而逃 諫伐而餓 終無怨悔 夫子以爲賢 故 知其不與輒也	07-14-2 入曰 伯夷叔齊 何人也 曰古之賢人也 曰怨乎 曰求仁而得仁 又何怨 出曰 夫子不爲也	들어가서 말하기를,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옛날의 어진 사람이니라. 고 하셨습니다.염유가 말하기를, 원망하였습니까?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어진 것을 구하여 어진 것을 얻었으니, 또 무엇을 원망했겠는가. 라 하셨습니다.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돕지 아니할 것이다. 고 했다.
247	飯 食之也 疏食 麤飯也 聖人之心 渾然天理 雖處困極 而樂亦無不在焉 其視不義之富貴 如浮雲之無有 漠然無所動於其中也 ○ 程子曰 非樂疏食飲水也 雖疏食飲水 不能改其樂也 不義之富貴 視之輕如浮雲然 又曰 須知所樂者何事	07-15-1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 如浮雲	공자 말씀하시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자더라도 즐거움이 그 중에 있도다.의롭지 아니하고서 부유하게 되고 귀하게 된 것은, 나에게는 뜬 구름과 같으니라. 고 하셨습니다.
248	劉聘君 見元城劉忠定公 自言 嘗讀他論 加作假 五十作卒 蓋加假 聲相近而誤讀 卒與五十 字相似而誤分也 愚按 此章之言 史記 作假我數年 若是 我於易則彬彬矣 加正作假 而無五十字 蓋是時 孔子年已幾七十矣 五十字誤 無疑也 學易則明乎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 故 可以無大過 蓋聖人深見易道之無窮 而言此以教人 使知其不可不學 而又不可以易而學也	07-16-1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몇 년이 더 주어진다면, 나이 오십에 주역을 배워, 큰 허물을 없앨 수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249	雅 常也 執 守也 詩以理情性 書以道政事 禮以謹節文 皆切於日用之實 故 常言之 禮獨言執者 以人所執守而言 非徒通說而已也 ○ 程子曰 孔子雅素之言 止於如此 若性與天道	07-17-1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공자 말씀 하신 바, 아언은 시서와 집예이시니 모두가 아언이다.

	則有不可得而聞者 要在默而識之也 謝氏曰 此因學易之語而類記之		
250	葉公 楚葉縣尹沈諸梁 字子高 僭稱公也 葉公 不知孔子 必有非所問而問者 故 子路不對 抑亦以聖人之德 實有未易名言者與	07-18-1 葉公 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	성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서 물으니, 자로는 대답하지 못했다.
251	未得則發憤而忘食 已得則樂之而忘憂 以是二者 俛焉日有孳孳 而不知年數之不足 但自言其好學之篤爾 然 深味之 則見其全體至極 純亦不已之妙 有非聖人不能及者 蓋凡夫子之自言 類如此 學者宜致思焉	07-18-2 子曰 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공자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그 사람의 사람됨이 배움을 좋아하고, 분발하여 먹는 일도 잊으며, 즐거워 근심도 잊고, 늙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고 말하지 않았느냐. 고 말씀하셨다.
252	生而知之者 氣質清明 義理昭著 不待學而知也 敏 速也 謂汲汲也 ○ 尹氏曰 孔子以生知之聖 每云好學者 非惟勉人也 蓋生而可知者 義理爾 若夫禮樂名物古今事變 亦必待學而後有以驗其實也	07-19-1 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구하는 사람이다. 고 하셨다.
253	怪異 用力 悖亂之事 非理之正 固聖人所不語 鬼神 造化之迹 雖非不正 然 非窮理之至 有未易明者 故 亦不輕以語人也 ○ 謝氏曰 聖人 語常而不語怪 語德而不語力 語治而不語亂 語人而不語神	07-20-1 子不語怪力亂神	공자는, 괴이함과, 완력과, 어지러움과, 귀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다.
254	三人同行 其一 我也 彼二人者一善一惡 則我從其善而改其惡焉 是二人者皆我師也 ○ 尹氏曰 見賢思齊 見不賢而內自省 則善惡皆我之師 進善 其有窮乎	07-21-1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공자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행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나니, 그 중 착한 자를 가려서 쫓고, 그 중 선하지 아니한 자로 나의 허물을 고친다. 고 하셨다.
255	桓魋 宋司馬向魋也 出於桓公 故 又稱桓氏 魋欲害孔子 孔子言天既賦我以如是之德 則桓魋其奈我何 言必不能違天害己	07-22-1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何	공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덕을 나에게 주셨으니, 환퇴가 나를 어찌 할 것인가? 고 하셨다.
256	諸弟子以夫子之道高深 不可幾及 故 疑其有隱 而不知聖人作止語默無非教也 故 夫子以此言曉之 與 猶示也 ○ 程子曰 聖人之道猶天然 門弟子親炙而冀及之然後 知其高且遠也 使誠以爲不可及 則趨向之心 不幾於怠乎 故 聖人之教 常俯而就之如此 非獨使資質庸下者勉思企及 而才氣高邁者亦不敢躐易而進也 呂氏曰 聖人體道無隱 與天象昭然 莫非至教 常以示人 而人自不察	07-23-1 子曰 二三者 以我爲隱乎 吾無隱乎爾 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 是丘也	공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숨긴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행하고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나 공구이다. 고 하셨다.
257	程子曰 教人以學文修行而存忠信也 忠信 本也	07-24-1 子以四教 文行忠信	공자께서 네 가지 일로써 가르치시니, 문과 행과 충과 신이었다.

258	聖人 神明不測之號 君子 才德出衆之名	07-25-1 子曰 聖人 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 斯可矣	공자 말씀하시기를, 성인을 직접 만나 그를 볼 수 없으니, 군자를 만나 볼 수 있다면 좋겠도다. 고 하셨다.
259	子曰字 疑衍文 恒 常久之意 張子曰 有恒者 不二其心 善人者 志於仁而無惡	07-25-2 子曰 善人 吾不得而見之矣 得見有恒者 斯可矣	공자 말씀하시기를, 착한 사람을 내가 만나 보지 못할진대, 몇몇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260	三者 皆虛夸之事 凡若此者 必不能守其常也 ○ 張敬夫曰 聖人君子 以學言 善人有恒者 以質言 愚謂 有恒者之與聖人 高下固懸絕矣 然 未有不自有恒而能至於聖者也 故 章末 申言有恒之義 其示人入德之門 可謂深切而著明矣	07-25-3 亡而爲有 虛而爲盈 約而爲泰 難乎有恒矣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비었으면서 찼다고 하며, 간략하면서 크다고 하면, 몇몇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다. 고 하셨다.
261	網 以大繩屬網 絕流而漁者也 弋 以生絲繫矢而射也 宿 宿鳥 ○ 洪氏曰 孔子少貧賤 爲養與祭 或不得已而釣弋 如獵較是也 然 盡物取之 出其不意 亦不爲也 此可見仁人之本心矣 待物如此 待人可知 小者如此 大者可知	07-26-1 子釣而不網 弋不射宿	공자께서 낚시질은 하시나 그물질은 하지 않으시며, 주살을 하시되 잠자는 새를 쏘지는 않으셨다.
262	不知而作 不知其理而妄作也 孔子自言未嘗妄作 蓋亦謙辭 然 亦可見其無所不知也 識 記也 所從 不可不擇 記則善惡 皆當存之 以備參考 如此者 雖未能實知其理 亦可以次於知之者也	07-27-1 子曰 蓋有不知而作之者 我無是也 多聞 擇其善者而從之 多見而識之 知之次也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치를 알지 못하고 저술하는 이가 있을까, 나는 이런 일이 없다. 많이 들어서 그 착한 것을 택하여 따르고, 많이 보아서 기록하면 지혜의 다음은 되리라. 고 하셨다.
263	互鄉 鄉名 其人 習於不善 難與言善 惑者 疑夫子不當見之也	07-28-1 互鄉 難與言 童子見 門人惑	호향 땅 사람들은 같이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마을 동자를 만나주니, 문인들이 의심스러워했다.
264	疑此章有錯簡 人潔至往也十四字 當在與其進也之前 潔 修治也 與 許也 往 前日也 言人潔己而來 但許其能自潔耳 固不能保其前日所爲之善惡也 但許其進而來見耳 非許其既退而爲不善也 蓋不追其既往 不逆其將來 以是心至 斯受之耳 唯字上下 疑又有闕文 大抵亦不爲已甚之意 ○ 程子曰 聖人待物之洪 如此	07-28-2 子曰 與其進也 不與其退也 唯何甚 人潔己以進 與其潔也 不保其往也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의 선으로 나음을 허락한 것이지, 그의 악으로의 물러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거절하는 것은) 어찌 심하지 않은가?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씻고 나오면, 그 결백함을 허락하고, 지난 날의 잘못을 간직하지 않는다. 고 하셨다.
265	仁者 心之德 非在外也 放而不求 故 有以爲遠者 反而求之 則卽此而在矣 夫豈遠哉 ○ 程子曰 爲仁由己 欲之則至 何遠之有	07-29-1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공자 말씀하시기를, 인에 이르는 길이 먼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은 곧 이르는 것이다. 고 하셨다.
266	陳 國名 司敗 官名 卽司寇也 昭公 魯君 名稠 習於威儀之節 當時以爲知禮 故 司敗以爲問 而孔子答之如此	07-30-1 陳司敗 問昭公 知禮乎 孔子曰 知禮	진나라 새패가 문기를, 소공이 예를 압니까?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예를 아신다. 고 하셨다.

267	巫馬 姓 期 字 孔子弟子 名施 司敗揖而進之也 相助匿非曰黨 禮 不取同姓 而魯與吳皆姬姓 謂之吳孟子者 諱之 使若宋女子姓者然	07-30-2 孔子退 揖巫馬期而進之曰 吾聞君子 不黨 君子 亦黨乎 君取於吳 爲同姓 謂之吳孟子 君而知禮 孰不知禮	공자가 물러나시니, 무마기에게 읊하고 그에게 가니, 무마기가 말하기를, 군자는 편당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군자는 또한 편당하십니까. 소공이 같은 성씨의 오나라에 장가를 들어, 같은 성씨가 되었는데, 이를 <오맹자>라고 하니, 그 임금이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습니까? 고 했다.
268	孔子不可自謂諱君之惡 又不可以取同姓爲知禮 故 受以爲過而不辭 ○ 吳氏曰 魯 蓋夫子父母之國 昭公 魯之先君也 司敗又未嘗顯言其事 而遽以知禮爲問 其對之宜如此也 及司敗以爲有黨 而夫子受以爲過 蓋夫子之盛德 無所不可也 然 其受以爲過也 亦不正言其所以過 初若不知孟子之事者 可以爲萬世之法矣	07-30-3 巫馬期以告 子曰 丘也幸 苟有過 人必知之	무마기가 이를 고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 공구는 참으로 다행이로다. 진실로 허물이 있으면, 남들이 반드시 이를 아는 구나. 고 하셨다.
269	反 復也 必使復歌者 欲得其詳而取其善也 而後和之者 喜得其詳而與其善也 此見聖人氣象從容 誠意懇至 而其謙遜審密 不掩人善 又如此 蓋一事之微 而衆善之集 有不可勝既者焉 讀者宜詳味之	07-31-1 子與人歌而善 必使反之 而後和之	공자께서 사람과 더불어 노래를 하고, 잘하면 반드시 다시하라 하시고, 뒤에 화답하셨다.
270	莫 疑辭 猶人 言不能過人而尙可以及人 未之有得則全未有得 皆自謙之辭 而足以見言之難易緩急 欲人之勉其實也 ○ 謝氏曰 文 雖聖人 無不與人同 故 不遜 能躬行君子 斯可以入聖 故 不居 猶言君子道者三 我無能焉	07-32-1 子曰 文莫吾猶人也 躬行君子 則吾未之有得	공자 말씀하시기를, 문은 나도 다른 사람과 같으나, 군자의 도를 몸소 행하는 것은 내가 일찍이 하지 못하였다. 고 하셨다.
271	此亦夫子之謙辭 聖者 大而化之 仁 則心德之全而人道之備也 爲之 謂爲仁聖之道 誨人 亦謂以此教人也 然 不厭不倦 非己有之 則不能 所以弟子不能學也 ○ 晁氏曰 當時 有稱夫子聖且仁者 以故 夫子辭之 苟辭之而已焉 則無以進天下之材 率天下之善 將使聖與仁爲虛器 而人終莫能至矣 故 夫子雖不居仁聖 而必以爲之不厭 誨人不倦 自處也 可謂云爾已矣者 無他之辭也 公西華仰而歎之 其亦深知夫子之意矣	07-33-1 子曰 若聖與仁 則吾豈敢 抑爲之不厭 誨人不倦 則可謂云爾已矣 公西華曰 正唯弟子 不能學也	공자 말씀하시기를, 성인과 인자 같은 존재야 내가 어찌 감히 될 수 있겠는가? 다만 배우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말 할 수 있을 뿐이니라. 공서화가 말하기를, 참으로 제자가 능히 배우지 못할 바입니다. 고 했다.
272	禱 謂禱於鬼神 有諸 問有此理否 誅者 哀死而述其行之辭也 上下 謂天地 天曰神 地曰祇 禱者 悔過遷善 以祈神之佑也 無其理 則不必禱 既日有之 則聖人未嘗有過 無善可遷 其素行 固已合於神明 故 曰丘之禱久矣 又士喪禮 疾病 行禱五祀 蓋臣子迫切之至情 有不能自己者 初不請於病者而後禱也 故 孔子之於子路 不直拒之 而但告以無所事禱之意	07-34-1 子疾病 子路請禱 子曰有諸 子路對曰有之 誅曰 禱爾于上下神祇 子曰 丘之禱久矣	공자가 병이 심하거늘, 자로가 빌기를 청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고 하니, 자로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고 했다. <뇌>에 이르기를, 너를 도와 달라고 천지시명에게 빈다. 고 하였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한 기도를 한 지는 오래 되었도다. 고 하셨다.

273	孫 順也 固 陋也 奢儉俱失中 而奢之害大 ○ 晁氏曰 不得已而救時之弊也	07-35-1 子曰 奢則不孫 儉則固 與其不孫也 寧固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치하면 겸손치 못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다. 그러나 그 겸손치 아니함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좋다. 고 하셨다.
274	坦 平也 蕩蕩 寬廣貌 程子曰 君子循理 故 常舒泰 小人役於物 故 多憂戚 ○ 程子曰 君子坦蕩蕩 心廣體胖	07-36-1 子曰 君子 坦蕩蕩 小人 長戚戚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마음은 편안하고 소인의 마음은 항상 근심과 걱정을 한다. 고 하셨다.
275	厲 嚴肅也 人之德性 本無不備 而氣質所賦 鮮有不偏 惟聖人 全體渾然 陰陽合德 故 其中和之氣見於容貌之間者如此 門人熟察而詳記之 亦可見其用心之密矣 抑非知足以知聖人而善言德行者 不能記 故 程子以爲曾子之言 學者所宜反復而玩心也	07-37-1 子溫而厲 戚而不猛 恭而安	공자는 온화하시면서 엄숙하시고, 위엄이 있으면서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시면서도 마음이 편하셨다.
276	08 泰伯 第八 凡二十一章	08 泰伯 第八	제 08 편. 태백(泰伯) 21 장. ♣ 고대의 성왕들과 현인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다. 태백편(泰伯編)은 21 장(章).
277	泰伯 周大王之長子 至德 謂德之至極 無以復加者也 三讓 謂固遜也 無得而稱 其遜隱微 無迹可見也 蓋大王三子 長 泰伯 次 仲雍 次 季歷 大王之時 商道浸衰 而周日疆大 季歷 又生子昌 有聖德 大王因有翦商之志 而泰伯不從 大王遂欲傳位季歷 以及昌 泰伯知之 卽與仲雍 逃之荊蠻 於是 大王乃立季歷 傳國至昌 而三分天下 有其二 是爲文王 文王崩 子發立 遂克商而有天下 是爲武王 夫以泰伯之德 當商周之際 固足以朝諸侯有天下矣 乃棄不取 而又泯其迹焉 則其德之至極 爲如何哉 蓋其心 卽夷齊扣馬之心 而事之難處 有甚焉者 宜夫子之歎息而讚美之也 泰伯不從 事見春秋傳	08-01-1 子曰 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백(泰伯)은 지극한 덕(德)을 지녔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세 차례나 천하(天下)를 사양하였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덕(德)을 들어 칭찬할 기연(機緣)을 갖지 못하였으니.
278	慙 畏懼貌 絞 急切也 無禮則無節文 故 有四者之弊	08-02-1 子曰 恭而無禮則勞 慎而無禮則慙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손하면서 예(禮)가 없으면 힘이 들고, 신중하면서 예(禮)가 없으면 두려워지고, 용맹스러우면서 예(禮)가 없으면 난동을 저지르게 되고, 곧으면서 예(禮)가 없으면 박절하여진다.
279	君子 謂在上之人也 興 起也 偷 薄也 ○ 張子曰 人道 知所先後 則恭不勞 慎不慙 勇不亂 直不絞 民化而德厚矣 ○ 吳氏曰 君子以下 當自爲一章 乃曾子之言也 愚按 此一節 與上文不相蒙 而與首篇謹終追遠之意 相類 吳說近是	08-02-2 君子 篤於親則民興於仁 故舊不遺則民不偷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가 친척들에게 후하게 하여주면, 국민들 사이에 인자한 기풍이 일어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박해지지 않는다.

280	啓 開也 曾子平日 以爲身體受於父母 不敢毀傷 故於此 使弟子開其衾而視之 詩小旻之篇 戰戰 恐懼兢兢 戒謹 臨淵 恐墜 履冰 恐陷也 曾子以其所保之全 示門人 而言其所以保之之難如此 至於將死而後知其得免於毀傷也 小子 門人也 語畢而又呼之以致反復丁寧之意 其警之也深矣 ○ 程子曰 君子曰終 小人曰死 君子保其身以沒 爲終其事也 故 曾子以全歸爲免矣 尹氏曰 父母全而生之子全而歸之 曾子臨終而啓手足 爲是故也 非有得於道 能如是乎 范氏曰 身體 猶不可虧也 況虧其行 以辱其親乎	08-03-1 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증자(曾子)께서 병환이 나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발을 펴고 내 손을 펴라. 시(詩)에, 두려워하고 조심함이, 깊은 물가에 나서 있는 것과도 같고, 얇은 얼음을 밟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데서 해방되게 되었음을 알겠다. 애들아.
281	孟敬子 魯大夫仲孫氏 名捷 問之者 問其疾也	08-04-1 曾子有疾 孟敬子問之	증자(曾子)께서 병환이 나서서, 맹경자(孟敬子)가 문병을 갔는데,
282	言 自言也 鳥畏死 故 鳴哀 人窮反本 故 言善 此曾子謙辭 欲敬子知其所言之善而識之也	08-04-2 曾子言曰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증자(曾子)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새가 죽을 때는 그 우는 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가 하는 말이 선하오.
283	貴 猶重也 容貌 舉一身而言 暴 粗厲 慢 放肆也 信 實也 正顏色而近信 則非色莊也 辭 言語 氣聲氣也 鄙 凡陋也 倍 與背同 謂背理也 籩 竹豆 豆 木豆 言道雖無所不在 然 君子所重者 在此三事而已 是皆修身之要 爲政之本 學者所當操存省察 而不可有造次顛沛之違者也 若夫籩豆之事 器數之末 道之全體固無不該 然其分則有司之守 而非君子之所重矣 程子曰 動容貌 舉一身而言也 周旋中體 暴慢斯遠矣 正顏色 則不妄 斯近信矣 出辭氣 正由中出 斯遠鄙倍 三者正身而不外求 故 曰籩豆之事則有司存 尹氏曰 養於中 則見於外 曾子蓋以修己爲爲政之本 若乃器用事物之細 則有司存焉	08-04-3 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 斯遠暴慢矣 正顏色 斯近信矣 出辭氣 斯遠鄙倍矣 籩豆之事則有司存	군자(君子)가 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 귀중하게 여기는 일이 세 가지가 있소.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난폭하거나 오만(傲慢)한 태를 없애야 하고, 정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함을 보여 주어야 하고, 말을 입밖에 내는 데 있어서는 비루(鄙陋)하고 사리(事理)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하오. 제기(祭器)를 다루는 일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284	校 計校也 友 馬氏以爲顏淵 是也 顏子之心 惟知義理之無窮 不見物我之有間 故 能如此 ○ 謝氏曰 不知有餘在己 不足在人 不必得爲在己 失爲在人 非幾於無我者 不能也	08-05-1 曾子曰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昔者吾友 嘗從事於斯矣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능하면서 무능한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천재성(天才性)이 풍부하면서도 천재성(天才性)이 적은 사람에게도 물어보며, 가졌는데도 없는 것 같고, 차 있는데도 비어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 잘못하여도 따지지 않는, 이러한 일을 지난날 내 친구 하나가 실천한 바 있었다.
285	其才可以轉幼君 攝國政 其節 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 可謂君子矣 與 疑辭 也 決辭 設爲問答 所以深著其必然也 ○ 程子曰 節操如是 可謂君子矣	08-06-1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있고, 백리(百里)되는 나라 운명을 맡길 수 있으며, 중대한 비상사태(非常事態)에 임해서도 동요하는 일이 없다면, 군자(君子)다운 사람일까? 군자(君子)다운 사람이라.

286	弘 寬廣也 毅 強忍也 非弘 不能勝其重 非毅 無以致其遠	08-07-1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는 도량(度量)이 넓고 곳곳까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소임(所任)은 중대하고 갈 길은 멀다.
287	仁者 人心之全德 而必欲以身體而力行之 可謂重矣 一息尚存 此志不容少懈 可謂遠矣 ○ 程子曰 弘而不毅 則無規矩而亂立 毅而不弘 則隘陋而無以居之 又曰 弘大剛毅然後 能勝重任而遠到	08-07-2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인자함을 이룩하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하니, 또한 중대하지 아니한가. 죽은 후에야 끝나니, 또한 갈 길이 멀지 아니한가.
288	興 既也 詩本性情 有邪有正 其爲言 既易知 而吟詠之間 抑揚反覆 其感人 又易入 故 學者之初 所以興起其好善惡惡之心而不能自己者 必於此而得之	08-08-1 子曰 興於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詩)로써 감흥(感興)을 갖고,
289	禮 以恭敬辭遜爲本 而有節文度數之詳 可以固人肌膚之會 筋骸之束 故 學者之中 所以能卓然自立而不爲事物之所搖奪者 必於此而得之	08-08-2 立於禮	예(禮)로써 자립(自立)하고,
290	樂有五聲十二律 更唱迭和 以爲歌舞八音之節 可以養人之性情 而蕩滌其邪穢 消融其渣滓 故 學者之終 所以至於義精仁熟而自和順於道德者 必於此而得之 是學之成也 ○ 按內則 十歲 學幼儀 十三 學樂誦詩 二十而後 學禮 則此三者 非小學傳授之次 乃大學終身所得之難易先後淺深也 程子曰 天下之英才 不爲少矣 特以道學不明 故 不得有所成就 夫古人之詩 如今之歌曲 雖閭里童稚 皆習聞之而知其說 故 能興起 今 雖老師宿儒 尙不能曉其義 況學者乎 是不得興於詩也 古人自灑掃應對 以至冠婚喪祭 莫不有禮 今皆廢壞 是以 人倫不明 治家無法 是不得立於禮也 古人之樂 聲音所以養其耳 采色所以養其目 歌詠所以養其性情 舞蹈所以養其血脈 今皆無之 是不得成於樂也 是以 古之成材也 易 今之成材也 難	08-08-3 成於樂	음악으로 완성한다.
291	民 可使之由於是理之當然 而不能使之知其所以然也 ○ 程子曰 聖人設教 非不欲人家喻而戶曉也 然 不能使之知 但能使之由之爾 若曰聖人不使民知 則是後世朝四暮三之術也 豈聖人之心乎	08-09-1 子曰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이란, (당연한 이치에) 따라서 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 이치를 이루다) 이해 시킬 수는 없다.
292	好勇而不安分 則必作亂 惡不仁之人 而使之無所容 則必致亂 二者之心 善惡雖殊 然 其生亂則一也	08-10-1 子曰 好勇疾貧 亂也 人而不仁 疾之已甚 亂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맹한 것을 좋아하고 가난을 미워함은 난동(亂動)을 일으킬 징조다. 사람이 인자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미워함은 난동(亂動)을 초래할 징조다.

293	才美 謂智能技藝之美 驕 矜夸 吝 鄙嗇也 ○ 程子曰 此 甚言驕吝之不可也 蓋有周公之德 則自無驕吝 若但有周公之才而驕吝焉 亦不足觀矣 又曰 驕 氣盈 吝氣歉 愚按 驕吝 雖有盈歉之殊 然 其歲常相因 蓋驕者 吝之枝葉 吝者 驕之本根 故 嘗驗之天下之人 未有驕而不吝 吝而不驕者也	08-11-1 子曰 如有周公之才之美 使驕且吝 其餘 不足觀也已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주공(周公)에 못지 않은 아름다운 재능을 지녔으나,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게 없다.
294	穀 祿也 至 疑當作志 爲學之久而不求祿 如此之人 不易得也 ○ 楊氏曰 雖子張之賢 猶以干祿爲問 況其下者乎 然則三年學而不至於穀 宜不易得也	08-12-1 子曰 三年學 不至於穀 不易得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년(三年) 동안이나 학문에 종사하고서도, 녹(祿)을 받을 생각에 이르지 않기란,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295	篤 厚而力也 不篤信 則不能好學 然 篤信而不好學 則所信 或非其正 不守死 則不能以善其道 然 守死而不足以善其道 則亦徒死而已 蓋守死者 篤信之效 善道者 好學之功	08-13-1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굳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음으로 좋은 도(道)를 지키라.
296	君子見危授命 則仕危邦者 無可去之義 在外則不入 可也 亂邦 未危而刑政紀綱紊矣 故 潔其身而去之 天下 舉一世而言 無道則隱其身而不見也 此 惟篤信好學 守死善道者 能之	08-13-2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혼란한 나라에는 살지 말라. 세상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숨는 거라.
297	世治而無可行之道 世亂而無能守之節 碌碌庸人 不足以爲士矣 可恥之甚也 ○ 晁氏曰 有學有守而去就之義潔 出處之分明 然後 爲君子之全德也	08-13-3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는데 빈천(貧賤)하게 산다는 것은 수치(羞恥)다. 나라에 정도가 행하여지지 않는데 부귀를 누리는 것을 수치(羞恥)다.
298	程子曰 不在其位 則不任其事也 若君大夫問而告者 則有矣	08-14-1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직위(職位)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직무(職務)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다.
299	師摯 魯樂師 名摯也 亂 樂之卒章也 史記曰 關雎之亂 以爲風始 洋洋 美盛意 孔子自衛反魯而正樂 適師摯在官之初 故 樂之美盛 如此	08-15-1 子曰 師摯之始 關雎之亂 洋洋乎盈耳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사(大師) 지(摯)가 처음 임관하였을 때, 관저(關雎)의 종장(終章)의 음악 소리는 성대하게 귀에 가득 차 있다.
300	侗 無知貌 愿 謹厚也 慥慥 無能貌 吾不知之者 甚絕之之辭 亦不屑之教誨也 ○ 蘇氏曰 天之生物 氣質不齊 其中材以下 有是德 則有是病 有是病 必有是德 故 馬之蹄齧者 必善走 其不善者 必馴 有是病而無是德 則天下之棄才也	08-16-1 子曰 狂而不直 侗而不愿 慥慥而不信 吾不知之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기(狂氣)를 띠면서도 고지식하지 않고, 멍청하면서도 충후(忠厚)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신용이 없는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301	言人之爲學 既如有所不及矣 而其心猶竦然 惟恐其或失之 警學者當如是也 ○ 程子曰 學如不及 猶恐失之 不得放過 才設姑待明日 便不可也	08-17-1 子曰 學如不及 猶恐失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는 데는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라.
302	巍巍 高大之貌 不與 猶言不相關 言其不以位爲樂也	08-18-1 子曰 巍巍乎 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 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대하도다. 순(舜)과 우(禹)는 천하(天下)를 차지하고서도, 그것에 집착(執着)하지 아니하였으니.

303	唯 猶獨也 則 猶準也 蕩蕩 廣遠之稱也 言物之高大莫有過於天者 而獨堯之德 能與之準 故 其德之廣遠 亦如天之不可以言語形容也	08-19-1 子曰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唯天 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단하도다. 요(堯)의 임금됨이여. 위대하도다, 오직 하늘만이 크다고 하지마는 요(堯)의 덕(德)만은 그것에 맞가니.
304	成功 事業也 煥 光明之貌 文章 禮樂法度也 堯之德 不可名 其可見者此爾 ○ 尹氏曰 天道之大 無爲而成 唯堯則之 以治天下 故 民無得而名焉 所可名者 其功業文章 巍然煥然而已	08-19-2 巍巍乎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	끝없이 넓도다, (요(堯)의 덕(德)은). 국민들은 그것을 무엇이라 이름짓지 못하였으니. 위대하도다, 그가 이룩한 공적이며, 빛나도다, 그가 성취한 문화여.
305	五人 禹稷契皋陶伯益	08-20-1 舜有臣五人而天下治	순(舜)은 신하(臣下) 다섯 사람을 가졌는데 천하(天下)가 다스려졌다.
306	書泰誓之辭 馬氏曰 亂 治也 十人 謂周公旦 召公奭 太公望 畢公 榮公 太顛 閎夭 散宜生 南宮适 其一人 謂文母 劉侍讀 以爲子無臣母之義 蓋邑姜也 九人 治外 邑姜 治內 或曰 亂 本作亂 古治字也	08-20-2 武王曰 予有亂臣十人	무왕(武王)은, 나는 유능한 신하(臣下) 열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307	稱孔子者 上係武王 君臣之際 記者謹之 才難 蓋古語而孔子然之也 才者 德之用也 唐虞 堯舜有天下之號 際 交會之間 言周室人才之多 惟唐虞之際 乃盛於此 降自夏商 皆不能及 然 猶但有此數人爾 是才之難得也	08-20-3 孔子曰 才亂 不其然乎 唐虞之際 於斯爲盛 有婦人焉 九人而已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재(人材)란 구하기 어렵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당우(唐虞) 교체기에는 이만 인재(人材)로 태평성세(太平盛世)를 이루었고, (무왕(武王)의 신하 중에는) 부인이 하나 들어 있으니 아홉 사람뿐이었다.
308	春秋傳曰 文王率商之畔國 以事紂 蓋天下 歸文王者六州 荊梁雍豫徐揚也 惟青兗冀尙屬紂耳 范氏曰 文王之德 足以代商 天與之 人歸之 乃不敢而服事焉 所以爲至德也 孔子因武王之言 而及文王之德 且與泰伯 皆以至德稱之 其指微矣 或曰 宜斷三分以下 別以孔子日起之 而自爲一章	08-20-4 三分天下 有其二 以服事殷 周之德 其可謂至德也已矣	(주(周) 나라는) 천하(天下)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서 은(殷) 나라에 복종하였었으니, 주(周) 나라의 덕(德)은 그야말로 지극한 덕(德)이라 하겠다.
309	間 罅隙也 謂指其罅隙而非議之也 菲 薄也 致孝鬼神 謂享祀豐潔 衣服 常服 黻 蔽膝也 以韋爲之 冕 冠也 皆祭服也 溝洫 田間水道 以正疆界 備旱潦者也 或豐或儉 各適其宜 所以無罅隙之可議也 故 再言以深美之 ○ 楊氏曰 薄於自奉 而所勤者 民之事 所致飾者 宗廟朝廷之禮 所謂有天下而不與也 夫何間然之有	08-21-1 子曰 禹吾無間然矣 菲飲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吾無間然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禹)에 관해서는 나로서는 비판할 데가 없다. 자기의 음식은 간략한 것을 먹으면서, 귀신에게는 풍부한 제물(祭物)을 드렸고, 평시의 의복을 거친 것을 입으면서, 제례(祭禮)에 쓰는 슬갑과 면류관은 아름답게 하였고, 거처하는 궁실(宮室)은 허술하게 하고 살면서, 붓도랑을 내는 데는 힘을 다하였으니, 우(禹)에 관해서는 나로서는 비판할 데가 없다.
310	09 子罕 第九 凡 三十章	09 子罕 第九	제 09 편. 자한(子罕) 30 장. ♣ 공자의 언행에 대한 기록과 공자의 출처진퇴(出處進退)에 대한 기록이 많음. 자한편(子罕篇)은 30 장(章).
311	罕 少也 程子曰 計利則害義 命之理微 仁之道大 皆夫子所罕言也	09-01-1 子罕言利與命與仁	선생님께서 이익과 운명과 인자함에 관해서는 말씀하시는 일이 드무셨다.

312	達巷 黨名 其人姓名 不傳 博學而無所成名 蓋美其學之博而惜其不成一藝之名也	09-02-1 達巷黨人曰 大哉 孔子 博學而無所成名	달항당(達巷黨)의 사람이 위대하도다, 공자여. 박학(博學)하시면서도 그것으로 명성을 이루신 바 없으시니. 하고 말하였다.
313	執 專執也 射御 皆一藝 而御爲人僕 所執尤卑 言欲使我何所執以成名乎 然則吾將執御矣 聞人譽己 承之以謙也 ○ 尹氏曰 聖人 道全而德備 不可以偏長目之也 達巷黨人 見孔子之大 意其所學者博 而惜其不二一善得名於世 蓋慕聖人而不知者也 故 孔子欲使我何所執而得爲名乎 然則吾將執御矣	09-02-2 子聞之 謂門弟子曰 吾何執 執御乎 執射乎 吾執御矣	선생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겠니? 궁술(弓術)을 가지고 할까? 수레 모는 기술을 가지고 할까? 나는 수레 모는 기술이나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314	麻冕 緇布冠也 純 絲也 儉 謂省約 緇布冠 以三十升布爲之 升八十縷 則其經二千四百縷矣 細密難成 不如用絲之省約	09-03-1 子曰 麻冕禮也 今也純 儉 吾從衆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실로 만든 관면(冠冕)이 예법(禮法)에 맞는 것인데, 지금 명주실을 쓰는 것은 절약하기 위해서이므로, 나는 여러 사람들을 따르겠다.
315	臣與君行禮 當拜於堂下 君辭之 乃升成拜 泰 驕慢也 ○ 程子曰 君子處世 事之無害於義者 從俗可也 害於義 則不可從也	09-03-2 拜下 禮也 今拜乎上 泰也 雖違衆 吾從下	당하(堂下)에서 임금께 배례하는 것이 예법(禮法)에 맞는 것인데, 지금 당상(堂上)에서 배례하는 것은 교만한 짓이므로, 나는 당하(堂下)에서 배례하는 데 따르겠다.
316	絕 無之盡者 母 史記 作無 是也 意 私意也 必 期必也 固 執滯也 我 私己也 四者相爲終始 起於意 遂於必 留於固 而成於我也 蓋意必 常在事前 固我 常在事後 至於我又生意 則物欲牽引 循環不窮矣 ○ 程子曰 此母字 非禁止辭 聖人絕此四者 何用禁止 張子曰 四者 有一焉 則與天地不相似 楊氏曰 非知足以知聖人 詳視而默識之 不足以記此	09-04-1 子絕四 母意 母必 母固 母我	선생님께서는 전혀 안 하시는 일이 네 가지가 있으셨다. 즉, 억측(臆測)하시는 일이 없으셨고, 장담하시는 일이 없으셨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시는 일이 없으셨고, 이기적인 일이 없으셨다.
317	畏者 有戒心之謂 匡 地名 史記云陽虎曾暴於匡 夫子貌似陽虎 故 匡人圍之	09-05-1 子畏於匡	선생님께서 광(匡)에서 위험 속에 빠지셨을 때,
318	道之顯者 謂之文 蓋禮樂制度之謂 不曰道而曰文 亦謙辭也 茲 此也 孔子自謂	09-05-2 曰文王 既沒 文不在茲乎	말씀하시기를, 문왕(文王)이 돌아가 버리고 나서는, (그가 이룩한) 문화가 나한테 전하여져 있지 않으나?
319	馬氏曰 文王既沒 故 孔子自謂後死者 言天若欲喪此文 則必不使我得與於此文 今我既得與於此文 則是天未欲喪此文也 天既未欲喪此文 則匡人其奈我何 言必不能違天害己也	09-05-3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 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 其如予何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버리려 하였다면, (나 같은) 뒤에 죽을 사람들이 이 문화에 관계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광(匡)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겠느냐?
320	孔氏曰 大宰 官名 或吳或宋 未可知也 與者 疑辭 大宰蓋以多能爲聖也	09-06-1 大宰問於子貢曰 夫子聖者與 何其多能也	대재(大宰)가 자공(子貢)에게 물었다. 당신의 선생님이 성인(聖人)이시요? 그렇다면 어찌 그리할 줄 아는 것이 많으시요?

321	縱 猶肆也 言不爲限量也 將 殆也 謙若不敢知之辭 聖無不通 多能 乃其餘事 故 言又以兼之	09-06-2 子貢曰 固天縱之將聖 又多能也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정말 하늘이 내놓은 큰 성인(聖人)이시고, 또 할 줄 아는 것이 많으십니다. 하였다.
322	言由少賤 故 多能 已所能者鄙事爾 非以聖而無不通也 且多能 非所以率人 故 又言君子不必多能以曉之	09-06-3 子聞之曰大宰知我乎 吾少也賤故多能鄙事 君子多乎哉 不多也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대재(大宰)가 나를 바로 아는가보다. 내가 젊었을 때에 미천(微賤)하였으므로, 대단치 않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자(君子)야 할 줄 아는 일이 많겠느냐, 많지 않느니라.
323	牢孔子弟子 姓琴 字子開 一字子張 試用也 言由不爲世用 故 得以習於藝而通之 ○ 吳氏曰 弟子記夫子此言之時 子牢因言昔之所聞有如此者 其意相近 故并記之	09-06-4 牢曰 子云吾不試故藝	금노(琴牢)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선 내가 등용(登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가 많아서) 잔재주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324	孔子謙言 己無知識 但其告人 雖於至愚 不敢不盡耳 叩 發動也 兩端 猶言兩頭 言終始本末上下精粗 無所不盡 ○ 程子曰 聖人之教人 俯就之若此 猶恐衆人以爲高遠而不親也 聖人之道必降而自卑 不如此則人不親 賢人之言 則引而自高 不如此則道不尊 觀於孔子孟子 可見矣 尹氏曰 聖人之言 上下兼盡 卽其近 衆人皆可與知 極其至 則雖聖人 亦無以加焉 是之謂兩端 如答樊遲之問仁智 兩端竭盡 無餘蘊矣 若夫語上而遺下 語理而遺物 則豈聖人之言哉	09-07-1 子曰 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兩端而竭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혜가 있겠는가? 지혜는 없다. 그러나 비천한 사나이가 나에게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구명(究明)하여 주기는 한다.
325	鳳 靈鳥 舜時來儀 文王時鳴於岐山 河圖 河中龍馬負圖 伏羲時出 皆聖王之瑞也 已 止也 ○ 張子曰 鳳至圖出 文明之祥 伏羲舜文之瑞不至 則夫子之文章 知其已矣	09-08-1 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봉(鳳)이 오지 않고, 황하(黃河)에서 도판(圖版)이 나오지 않으니, 나는 다 틀렸나보다.
326	涕衰 喪服 冕 冠也 衣 上服 裳 下服 冕而衣裳 貴者之盛服也 瞽 無目者 作 起也 趨 疾行也 或曰 少 當作坐 ○ 范氏曰 聖人之心 哀有喪 尊有爵 矜不成人 其作與趨蓋有不期然而然者 尹氏曰 此 聖人之誠心 內外一者也	09-09-1 子見齊衰者 冕衣裳者 與瞽者 見之 雖少必作 過之 必趨	선생님께서 상복(喪服)을 입은 사람과, 면복(冕服)을 입은 사람과, 눈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만나시게 되면 이들이 연소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시고, 이들을 지나가시게 되면 반드시 걸음을 빨리 옮기신다.
327	喟 歎聲 仰彌高 不可及 鑽彌堅 不可入 在前在後 恍惚不可爲象 此 顏淵深知夫子之道無窮盡 無方體 而歎之也	09-10-1 顏淵 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안연(顏淵)이 깊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道)는) 우러러보면 볼수록 더욱 높이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면 갈수록 더욱 굳어져 들어가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어느 틈에 뒤에 와 있다.
328	循循 有次序貌 誘 引進也 博文約禮 教之序也 言夫子道雖高妙 而教人有序也 ○ 侯氏曰 博我以文 致知格物也 約我以禮 克己復禮 程子曰 此 顏子稱聖人最切當處 聖人教人 唯此二事而已	09-10-2 夫子 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선생님께서 사람을 차근차근 잘 유도하십니다. 글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예(禮)로 나의 행위를 단속하여 주십니다.

329	卓立貌 末無也 此顏子自言其學之所至也 蓋悅之深而力之盡 所見益親 而又無所用其力也 吳氏曰 所謂卓爾 亦在乎日用行事之間 非所謂窈冥昏默者 程子曰 到此地位 工夫尤難 直是峻絕 又大段著力不得 楊氏曰 自可欲之謂善 充而至於大 力行之積也 大而化之 則非力行所及矣 此顏子所以未達一間也 ○ 程子曰 此 顏子所以爲深知孔子而善學之者也 胡氏曰 無上事而喟然歎 此顏子學既有得 故述其先難之故 後得之由 而歸功於聖人也 高堅前後語道體也 仰鑽瞻忽 未領其要也 惟夫子循循善誘 先博我以文 使我知古今 達事變 然後約我以禮 使我尊所聞 行所知 如行者之赴家 食者之求飽 是以 欲罷而不能 盡心盡力 不少休廢 然後 見夫子所立之卓然 雖欲從之 末由也已 是 蓋不怠所從 必求至乎卓立之地也 抑斯歎也 其在請事斯語之後 三月不違之時乎	09-10-3 欲罷不能 既競吾才 如有所立 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내가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어, 내 재주가 다해 버리기에 이르러도,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마는, 따라갈 길이 없다.
330	夫子時已去位 無家臣 子路欲以家臣治其喪 其意實尊聖人 而未知所以尊也	09-11-1 子疾病 子路使門人爲臣	선생님께서 몹시 편찮으시자, 자로(子路)가 제자들을 시켜 가신(家臣)이라는 방법으로 시종(侍從)하게 하였다.
331	病間 少差也 病時不知 既差 乃知其事 故 言我之不當有家臣 人皆知之 不可欺也 而爲有臣 則是欺天而已 人而欺天 莫大之罪 引以自咎 其責子路深矣	09-11-2 病間曰 久矣哉 由之行詐也 無臣而爲有臣 吾誰欺 欺天乎	병환이 좀 좋아지시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래 되었구나. 유(由)가 거짓을 행한 지가. 가신(家臣)이 없는데 가신(家臣)이 있는 것으로 한다면, 나는 누구를 속이자는 것이냐? 하늘을 속이자는 것이냐?
332	無寧 寧也 大葬 謂君臣禮葬 死於道路 謂棄而不葬 又曉之以不必然之故 ○ 范氏曰 曾子將死 起而易簣曰 吾得正而斃焉 斯已矣 子路欲尊夫子 而不知無臣之不可爲有臣 是以陷於行詐 罪至欺天 君子之於言動 雖微 不可不謹 夫子深懲子路 所以警學者也 楊氏曰 非知至而意誠 則用智自私 不知行其所無事 往往自陷於行詐欺天而莫之知也 其子路之謂乎	09-11-3 且予與其死於臣之手也 無寧死於二三子之手乎 且予縱不得大葬 予死於道路乎	또 나는 가신(家臣)의 손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너희들 제자들의 손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 내가 대규모(大規模)의 장례(葬禮)를 받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길에서야 죽겠느냐.
333	韞 藏也 匱 匱也 沽 賣也 子貢 以孔子有道不仕 故設此二端以問也 孔子言固當賣之 但當待賈 而不當求之耳 ○ 范氏曰 君子未嘗不欲仕也 又惡不由其道 士之待禮 猶玉之待賈也 若伊尹之耕於野 伯夷太公之居於海濱 世無成湯文王 則終焉而已 必不枉道以從人 銜玉而求售也	09-12-1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匱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	자공(子貢)이, 이제 아름다운 옥(玉)이 여기에 있다면, 궤 속에 넣어서 감춰둘 것입니까? 값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팔 것입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팔아야 하구 말구, 팔아야 하구 말구. 나는 값을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334	東方之夷有九鍾 欲居之者 亦乘桴浮海之意	09-13-1 子欲居九夷	선생님께서 동방(東方)의 여러 종족(種族) 사이에 사시기를 원하셨다.

335	君子所居則化 何陋之有	09-13-2 或曰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어떤 사람이 누추할 터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가 사는데 무슨 누추한 게 있겠는가?
336	魯哀公十一年冬 孔子自衛反魯 是時 周禮在魯 然時樂 亦頗殘缺失次 孔子周流四方 參互考訂 以知其說 晚知道終不行 故 歸而正之	09-14-1 子曰 吾自衛反魯然後 樂正 雅頌 各得其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위(衛) 나라에서 노(魯) 나라로 돌아온 후에, 음악이 바로잡혔고, 아(雅)와 송(頌)이 올바르게 정리되었다.
337	說見第七篇 然 此則其事愈卑而意愈切矣	09-15-1 子曰 出則事公卿 入則事父兄 喪事 不敢不勉 不爲酒困 何有於我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면 공경(公卿)을 섬기고, 들어오면 부형(父兄)을 섬기고, 상사(喪事)에는 감히 게을리 굴지 못하고, 술로 말미암아 난잡해지지 않는 데는, 나는 자신이 있다.
338	天地之化 往者過 來者續 無一息之停 乃道體之本然也 然 其可指而易見者 莫如川流 故於此 發以示人 欲學者時時省察 而無毫髮之間斷也 ○ 程子曰 此道體也 天運而不已 日往則月來 寒往則暑來 水流而不息 物生而不窮 皆與道爲體 運乎晝夜 未嘗已也 是以 君子法之 自強不息 及其至也 純亦不已焉 又曰 自漢以來 儒者皆不識此義 此見聖人之心 純亦不已也 純亦不已 乃天德也 有天德 便可語王道 其要只在謹獨 愚按 自此至終篇 皆勉人進學不已之辭	09-16-1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선생님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 밤낮없이 멎지 않는다.
339	謝氏曰 好好色 惡惡臭 誠也 好德如好色 斯誠好德矣 然 民鮮能之 ○ 史記 孔子居衛 靈公與夫人同車 使孔子爲次乘 招搖市過之 孔子醜之 故 有是言	09-17-1 子曰 吾未見好德 如好色者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지껏 덕(德)을 닦기 좋아하는 것을,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구경하지 못하였다.
340	簣 土籠也 書曰 爲山九仞 功虧一簣 夫子之言 蓋出於此 言山成而但少一簣 其止者 吾自止耳 平地而方覆一簣 其進者 吾自往耳 蓋學者自強不息 則積少成多 中道而止 則前功盡棄 其止其往 皆在我而不在人也	09-18-1 子曰 譬如爲山 未成一簣 止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吾往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테면 산(山)을 쌓아 올리는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일을 그만두었으면, 자기가 그만둔 것이다. 이를테면 고르는데, 한 삼태기의 흙을 부어 놓았다 하여도, 그 일을 진척시켰으면, 그것은 자기가 진척시킨 것이다.
341	惰 懈怠也 范氏曰 顏子聞夫子之言 而心解力行 造次顛沛 未嘗違之 如萬物得時雨之潤 發榮滋長 何有於惰 此群弟子所不及也	09-19-1 子曰 語之而不惰者 其回也與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러주어서 그것을 받들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은, 회(回)일게다.
342	進止二字 設見上章 顏子既死 而孔子惜之言 其方進而未已也	09-20-1 子謂顏淵曰 惜乎 吾見其進也 未見其止也	선생님께서 안연(顏淵)을 말씀하시기를, 아깝다. 나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지, 그가 멎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343	穀之始生日苗 吐華日秀 成穀日實 蓋學而不至於成 有如此者 是以 君子貴自勉也	09-21-1 子曰 苗而不秀者 有矣夫 秀而不實者 有矣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싹이 돋고서 꽃을 피워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꽃을 피워 내고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다.

344	孔子言 後生 年富力彊 足以積學而有待 其勢可畏 安知其將來不如我之今日乎 然 或不能自勉 至於老而無聞 則不足畏矣 言此以警人 使及時勉學也 曾子曰 五十而不以善聞 則不聞矣 蓋述此意 尹氏曰 少而不勉 老而無聞 則亦已矣 自少而進者 安知其不至於極乎 是可畏也	09-22-1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람들은 무섭다. 앞날이 지금만 못하리라고야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사십(四十)-오십(五十)이 되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또 무서울 게 없다.
345	法語者 正言之也 巽言者 婉而導之也 繹 尋其緒也 法言 人所敬憚 故必從 然 不改則面從而已 巽言 無所乖忤 故必說 然不繹則又不足以知其微意之所在也 ○ 楊氏曰 法言 若孟子論行王政之類是也 巽言 若其論好貨好色之類是也 語之而不達 拒之而不受 猶之可也 其或喻焉 則尚庶幾其能改繹矣 從且說矣 而不改繹焉 則是終不改繹也已 雖聖人 其如之何哉	09-23-1 子曰 法語之言 能無從乎 改之爲貴 巽與之言 能無說乎 繹之爲貴 說而不繹 吾未如之何也已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라마는, 그 말에 따라 그릇된 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라마는, 그 말의 참뜻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뻐하면서도 참뜻을 찾아내지 않고, 따르면서도 그릇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그러한 사람을 어찌해 볼 수 없다.
346	重出而逸其半	09-24-1 子曰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과 신용을 주로 하고,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고, 과오(過誤)를 저지르면 그것을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347	侯氏曰 三軍之勇 在人 匹夫之志 在己 故 帥可奪 而志不可奪 如可奪 則亦不足謂之志矣	09-25-1 子曰 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군(三軍)에서 그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을 것이나, 한 사나이한테서 그 지조(志操)를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348	敝 壞也 縕 臬著也 袍 衣有著者也 蓋疑之賤者 狐貉 以狐貉之皮爲裘 衣之貴者 子路之志如此 則能不以貧富動其心 而可以進於道矣 故 夫子稱之	09-26-1 子曰 衣敝縕袍 與衣狐貉者 立而不恥者 其由也與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진 베 부스러기를 두어 만든 두루마기를 입고서, 여우나 담비 털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서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유(由)일게다.
349	伎害也 求貪也 臧善也 言能不伎不求 則何爲不善乎 此 衛風雄雉之詩 孔子引之以美子路也 呂氏曰 貧與富交 彊者必伎 弱者必求	09-26-2 不伎不求 何用不臧	해치지도 않고 탐내어 달라지도 않거니, 무엇 때문에 나쁘다는 건가?
350	終身誦之 則自喜其能 而不復求進於道矣 故夫子復言此以警之 ○ 謝氏曰 恥惡衣惡食 學者之大病 善心不存 蓋由於此 子路之志如此 其過人遠矣 然 以衆人而能此 則可以爲善矣 子路之賢 宜不止此 而終身誦之 則非所以進於日新也 故 激而進之	09-26-3 子路 終身誦之 子曰 是道也 何足以臧	자로가 이 말씀을 항상 외웠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도리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어찌 족히 좋다고 하겠는가. 고 하셨다.
351	范氏曰 小人之在治世 或與君子無異 惟臨利害 遇事變然後 君子之所守 可見也 ○ 謝氏曰 士窮 見節義 世亂 識忠臣 欲學者心周于德	09-27-1 子曰 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더디 조락(凋落)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352	明足以燭理故 不惑 理足以勝私故 不憂 氣足以配道義故 不懼 此 學之序也	09-28-1 子曰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인자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353	可與者 言其可與共爲此事也 程子曰 可與共學 知所以求之也 可與適道 知所往也 可與立者 篤志固執而不變也 權稱錘也 所以稱物而知輕重者也 可與權 謂能權輕重 使合義也 ○ 楊氏曰 知爲己 則可與共學矣 學足以明善然後可與適道 信道篤然後可與立 知時措之宜然後可與權 洪氏曰 易九卦 終於巽以行權 權者聖人之大用 未能立而言權 猶人未能立而欲行 鮮不仆矣 程子曰 漢儒以反經合道爲權 故 有權變權術之論 皆非也 權 只是經也 自漢以下 無人識權字 愚按 先儒誤以此章 連下文偏其反 而爲一章 故有反經合道之說 程子非之是矣 然 以孟子嫂溺援之以手之義推之 則權與經 亦當有辨	09-29-1 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한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함께 도(道)를 지향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함께 도(道)를 지향해 나갈 수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함께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함께 서 나갈 수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함께 일의 경중에 따라 임기응변(臨機應變)하여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354	唐棣 郁李也 偏 晉書作翩 然則反亦當與翩同 言華之搖動也 而 助語也 此 逸詩也 於六義屬興 上兩句 無意義 但以起下兩句之辭耳 其所謂爾 亦不知其何所指也	09-30-1 唐棣之華 偏其反而 豈不爾思 室是遠而	산 앵두나무의 꽃은 그냥 되돌아가기만 한다. 어찌 그대를 생각하지 않겠소마는, 그대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소이다.
355	夫子此言而反之 蓋前篇仁遠乎哉之意 ○ 程子曰 聖人 未嘗言易以驕人之志 亦未嘗言難以阻人之進 但曰 未之思也 夫何遠之有 此言 極有涵蓄 意思深遠	09-30-2 子曰 未之思也 夫何遠之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먼데가 어디 있겠는가.
356	10 鄉黨 第十 楊氏曰 聖人之所謂道者 不離乎日用之間也 故夫子之平日 一動一靜門人皆審視而詳記之 尹氏曰甚矣 孔門諸子之嗜學也 於聖人之容色言動 無不謹書而備錄之 以貽後世 今讀其書卽其事宛然如聖人之在目也 雖然聖人豈拘拘而爲之者哉 蓋盛德之至 動容周旋自中乎禮耳 學者欲潛心於聖人 宜於此求焉 舊說凡一章今分爲十七	10 鄉黨 第十	제 10 편. 향당(鄉黨) 19 장. ♣ 향당은 공자님의 용모, 음성, 의식주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공자님의 생활태도를 기록한 편이다. 향당편(鄉黨篇)은 19 장(章). 공자의 행동거지를 기록한 것인데 기록자(記錄者)의 관찰이 경탄할 만큼 세밀하다.
357	恂恂 信實之貌 似不能言者 謙卑遜順不以賢知先人也 鄉黨 父母兄宗族之所在 故孔子居之 其容貌辭氣如此	10-01-1 孔子於鄉黨 恂恂如也 似不能言者	공자께서 향리(鄉里)에 계실 적에는, 공손하셔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같으셨고,
358	便便 辯也 宗廟禮法之所在 朝廷政事之所出 言不可以不明辯 故必詳問而極言之 但謹而不放爾 ○ 此一節 記孔子在鄉黨宗廟朝廷言貌之不同	10-01-2 其在宗廟朝廷 便便言 唯謹爾	종묘(宗廟)와 조정(朝廷)에 계실 적에는, 잘 따져서 말씀하셨으나, 다만 조심하시기는 하셨다.
359	此君未視朝時也 王制 諸侯上大夫卿 下大夫五人 許氏說文 侃侃剛直也 誾誾 和悅而諍也	10-02-1 朝與下大夫言 侃侃如也 與上大夫言 誾誾如也	조회(朝會) 때에 하대부(下大夫)와 말씀하시는 것은, 화락(和樂)하였고, 상대부(上大夫)와 말씀하시는 것은, 고지식하셨다.

360	君在視朝也 蹏蹏恭敬不寧之貌 與與威儀中適之貌 張子曰與與不忘向君也 亦通 ○ 此一節 記孔子在朝廷事上接下之不同也	10-02-2 君在 蹏蹏如也 與與如也	임금님이 계시면, 태도가 공경스러우셨으며, 급속하게 굴지 않으셨다.
361	擯主國之君 所使出接賓者 勃變色貌 躡盤辟貌 皆敬君命故也	10-03-1 君召使擯 色勃如也 足躡如也	임금님이 부르셔서 내빈(來賓)의 접대(接待)를 명하시면, 얼굴빛이 달라지시고 발걸음이 빨라지셨다.
362	所與立謂同爲擯者也 擯用命數之半 如上公九命 則用五人 以次傳命 揖左人則左其手 揖右人則右其手 襜 整貌	10-03-2 揖所與立 左右手 衣前後 襜如也	함께 서 있는 내빈에게 읍(揖)하실 적에는, (왼쪽에 있는 주빈(主賓)의 수행원(隨行員)에게는) 손을 왼쪽으로 돌리셔서 하시고, (바른쪽에 있는 주빈(主賓)에게는) 바른쪽으로 돌리셔서 하셨는데, 조복(朝服)의 앞 뒷자락이 가지런히 움직였다.
363	疾趨而進 張拱端好 如鳥舒翼	10-03-3 趨進 翼如也	중중걸음으로 나가실 적에는 동작이 단정하셨다.
364	紓君敬也 ○ 此一節 記孔子爲君擯相之容	10-03-4 賓退 必復命曰 賓不顧矣	내빈(來賓)이 물러가면 반드시, 손님은 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복명(復命)하셨다.
365	鞠躬曲身也 公門高大 而若不容 敬之至也	10-04-1 入公門 鞠躬如也 如不容	대궐 문을 들어가실 적에는 몸을 굽히시는 것이 마치 문이 작아서 그러시는 것 같으셨고,
366	中門中於門也 謂當棖闥之間 君出入處也 闥門限也 禮士大夫出入公門 由闥右 不踐闥 謝氏曰 立中門則當尊 行履闥則不恪	10-04-2 立不中門 行不履闥	멋으실 경우에는 문 가운데는 피하셨고, 가실 적에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367	位君之虛位 謂門屏之間 人君佇立之處 所謂佇也 君雖不在 過之必敬 不敢以虛位而慢之也 言似不足 不敢肆也	10-04-3 過位 色勃如也 足躡如也 其言 似不足者	임금님이 나와서 서시는 자리를 지나가실 적에는 얼굴빛이 달라지시고, 발걸음이 빨라지시고, 말씀은 마치 말씀이 모자라시는 것 같이 하셨다.
368	攝衽也 齊衣下縫也 禮將升堂 兩手摳衣 使去地尺 恐躡之而傾跌失容也 屏藏也 息鼻出入者也 近至尊 氣容肅也	10-04-4 攝齊升堂 鞠躬如也 屏氣 似不息者	옷자락을 잡으시고 대청에 오르시는데, 몸을 굽히시고 숨은 쉬지 않으시는 것 같이 멈추셨다.
369	陸氏曰 趨下本無進字 俗本有之 誤也 ○ 等階之級也 逞放也 漸遠所尊 舒氣解顏 怡怡和悅也 沒階下盡階也 趨走就位也 復位蹏蹏敬之餘也 ○ 此一節 記孔子在朝之容	10-04-5 出降一等 逞顏色 怡怡如也 沒階 趨進翼如也 復其位 蹏蹏如也	나오시어 섬돌 한 층계를 내려서는, 얼굴빛을 푸시고 온화하고 기뻐하시며, 층계를 다 내려서서는 빨리 나아가시되 날개를 편 듯하시며, 그 자리에 돌아와서는 황송해 하셨다.
370	圭 諸侯命圭 聘問隣國 則使大夫執以通信 如不勝 執圭器 執輕如不克 敬謹之至也 上如揖 下如授 謂執圭平衡 手與心齊 高不過揖 卑不過授也 戰色戰而色懼也 蹢躅 舉足促挾也 如有循 記所謂舉前曳踵 言行不離 地如緣物也	10-05-1 執圭 鞠躬如也 如不勝 上如揖 下如授 勃如戰色 足蹢躅如有循	규(圭)를 잡고 계시면 몸을 굽히시어 그것을 못 이기시는 것 같이 하셨다. 그것을 올리시는 것은 읍(揖)하시는 정도로 하시고, 내리실 때에는 물건을 내주실 때 정도로 하시는데,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 얼굴빛으로 변하시고, 발은 뒤꿈치로 옮겨가시는데 무엇인가를 더듬어 가시는 것 같이 하셨다.
371	享獻也 既聘而享 用圭璧 有廷實 有容色和也 儀禮曰發氣滿容	10-05-2 享禮有容色	정식 연회석상(宴會席上)에서는 점잖은 기색(氣色)을,

372	私覲以私禮見也 愉愉則又和矣 ○ 此一節 記孔子爲君聘於隣國之禮也 晁氏曰 孔子定公九年 仕魯 至十三年 適齊 其間絕無朝聘往來之事 疑使擯執圭兩條 但孔子嘗言其禮當如此爾	10-05-3 私覲 愉愉如也	사적(私的)인 면회엔 즐거운 기색을 보이었다.
373	君子謂孔子 紺深青楊赤色 齊服也 緇絳色三年之喪以飾練服也 飾領緣也	10-06-1 君子 不以紺緇飾	군자(君子)는 곤색과 주홍빛으로는 것을 달지 않고,
382	喪主素 吉主玄 弔必變服所以哀死	10-06-10 羔裘玄冠 不以弔	검정 염소 가죽에 검정 갓으로는 적상(弔喪) 가지 않는다.
383	吉月月朔也 孔子在魯致仕時如此 ○ 此一節 記孔子衣服之制 蘇氏曰 此孔氏遺書 雜記曲禮 非特孔子事也	10-06-11 吉月 必朝服而朝	매달 초하룻날에는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고 조회에 나간다.
374	紅紫間色不正 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 褻服私居服也 言此則不以爲朝祭之服可知	10-06-2 紅紫 不以爲褻服	붉은빛과 자주빛으로는 평복(平服)을 만들지 않는다.
375	衫單也 葛之精者曰絺 麤者曰絺 表而出之謂先著裏衣 表絺絺而出之於外 欲其不見體也 詩所謂蒙彼絺綌是也	10-06-3 當暑 衫絺絺 必表而出之	더운 철에는 가는 갈포(葛布)의 홑옷을 반드시 맨 위에 입는다.
376	緇黑色 羔裘用黑羊皮 麤鹿子 色白 狐色黃 衣以裼裘欲其相稱	10-06-4 緇衣 羔裘 素衣 麤裘 黃衣 狐裘	검정 옷에는 (검정) 염소 가죽이고, 흰옷에는 어린 사슴 가죽이고, 누런 옷에는 여우 가죽이다.
377	長欲其溫 短右袂所以便作事	10-06-5 褻裘長 短右袂	평소에 입는 갓옷은 긴데, 오른쪽 소매를 짧게 만든다.
378	齊主於敬 不可解衣而寢 又不可著明衣而寢 故別有寢衣 其半蓋以覆足 程子曰 此錯簡當 在齊必有明衣布之下 愚謂 如此則條與明衣變食既得以類相從 而褻裘狐貉 亦得以類相從矣	10-06-6 必有寢衣 長一身有半	반드시 잠자리 옷을 갖는데, 그 길이가 키의 한 배 반이다.
379	狐貉毛深溫厚 私居取其適體	10-06-7 狐貉之厚以居	여우와 담비의 두꺼운 털옷은 집에서 입는다.
380	君子無故 玉不去身 觿礪之屬亦皆佩也	10-06-8 去喪無所不佩	상(喪)을 벗으면 무슨 패옥(佩玉)이나 다 찬다.
381	朝祭之服 裳用正幅 如帷要有襜褕而旁無殺縫 其餘若深衣 要半下 齊倍要 則無襜褕而有殺縫矣	10-06-9 非帷裳 必殺之	조회(朝會)나 제사 때에 입는 것이 아니면, 아래옷(치마)은 (주름을 잡지 않고) 엇잘라서 해 입는다.
384	齊必沐浴 浴竟即著明衣 所以明潔其體也 以布爲之 此下脫前章寢衣一簡	10-07-1 齊必有明衣 布	재계(齋戒)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욕옷을 가지셨는데, 갈포(葛布)로 만드셨다.
385	變食 謂不飲酒 不茹荤 遷坐易常處也 ○ 此一節 記孔子謹齊之事 楊氏曰 齊所以交神 故致潔變常 以盡敬	10-07-2 齊必變食 居必遷坐	재계(齋戒)하실 때에는 반드시 음식은 평소의 것과는 달리 하시고, 앉으시는 자리도 바꾸셨다.
386	食飯也 精鑿也 牛羊與魚之腥 轟而切之爲膾 食精則能養人 膾炙則能害人 不厭言以是爲善 非謂必欲如是也	10-08-1 食不厭精 膾炙不厭細	밥은 부드러운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395	陸氏曰 魯論 爪作必 ○ 古人飲食 每種各出少許 置之豆間之地 以祭先代始爲飲食之人 不忘本也 齊嚴敬貌 孔子雖薄物 必祭 其祭必敬聖人之誠也 ○ 此一節 記孔子飲食之節 謝氏曰 聖人飲食如此 非極口腹之欲 蓋養氣體 不以傷生 當如此 然聖人之所不食 窮口腹者 或反食之欲心勝而不暇擇也	10-08-10 雖疏食菜羹 瓜齊 必齊如也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곡신에게 드렸는데, 반드시 공경히 하였다.
387	饅飯傷熱濕也 餲味變也 魚爛曰餲 肉腐曰敗 色惡臭惡未敗而色臭變也 飪烹調生熟之節也 不時五穀不成 果實未熟之類 此數者皆足以傷人 故不食	10-08-2 食饅而餲 魚餲而肉敗 不食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밥이 쉬어서 맛과 빛이 변한 것, 생선이 문그러지고 고기가 썩은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고, 빛깔이 나쁜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고, 냄새가 나쁜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고, 알맞게 익혀지지 않은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고, 제 철의 과일이 아니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388	割肉不方正者不食 造次不離於正也 漢陸績之母切肉 未嘗不方 斷葱 以寸爲度 蓋其質美 如此暗合也 食肉用醬 各有所宜 不得則不食 惡其不備也 此二者 無害於人 但不以嗜味而苟食耳	10-08-3 割不正不食 不得其醬不食	고기 썬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맞는 장(醬)이 없으면 잡수시지 않으셨다.
389	食以穀爲主 故不使肉勝食氣 酒以爲人合歡 故不爲量 但以醉爲節而不及亂耳 程子曰 不及亂者 非唯不使亂志 雖血氣亦不可使亂 但浹洽而已 可也	10-08-4 肉雖多 不使勝食氣 唯酒無量 不及亂	고기를 많이 잡수신다 하더라도, 밥 기운을 누르도록 까지는 잡수시지 않으셨다. 오직 술은 얼마든지 자시더라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으셨다.
390	沽市皆買也 恐不精潔 或傷人也 與不啗康子之藥同意	10-08-5 沽酒市脯 不食	파는 술과 저자의 포를 먹지 않으셨다.
391	薑 通神明 去穢惡 故不撤	10-08-6 不撤薑食	생강 자시는 것을 끊지 아니하시었다.
392	適可而止 無貪心也	10-08-7 不多食	밥은 많이 자시지 아니하셨다.
393	助祭於公 所得胙肉 歸卽頒賜 不俟經宿者 不留神惠也 家之祭肉 則不過三日 皆以分賜 蓋過三日則肉必敗而人不食之 是褻鬼神之餘也 但比君所賜少 可少緩耳	10-08-8 祭於公 不宿肉 祭肉 不出三日 出三日 不食之矣	나라에 제사지낼 때 받은 고기는 밤을 재우지 않으시며, 제사지낸 고기는 삼일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삼일이 지나면 먹지 않으셨다.
394	答述曰語 自言曰言 范氏曰聖人存心不他 當食而食 當寢而寢 言語非其時也 楊氏曰 肺爲氣主而聲出焉 寢食則氣窒而不通 語言恐傷之也 亦通	10-08-9 食不語 寢不言	자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면서 말하지 않으셨다.
396	謝氏曰 聖人心安於正 故於位之不正者雖小 不處	10-09-1 席不正 不坐	자리가 바로 깔려 있지 않으면 앉으시지 않으셨다.
397	杖者老人也 六十杖於鄉 未出不敢先 既出不敢後	10-10-1 鄉人飲酒 杖者出 斯出矣	향리(鄉里)의 사람들과 술을 드실 때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가면 그제서야 나가셨다.
398	儺所以逐疫 周禮方相氏掌之 阼階東階也 儺雖古禮而近於戲 亦朝服而臨之者 無所不用其誠敬也 或曰 恐其驚先祖五祀之神 欲其依己而安也○ 此一節 記孔子居鄉之事	10-10-2 鄉人儺 朝服而立於阼階	향리(鄉里)의 사람들이 나례(儺禮)를 지내면, 조복(朝服)을 입으시고 동쪽 층계에 서셨다.
399	拜送使者 如親見之 敬也	10-11-1 問人於他邦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때에는, 가는 사람에게 두 번

		再拜而送之	엎드려 절하고 보내섰다.
400	范氏曰 凡賜食必嘗以拜 藥未達則不敢嘗 受而不食 則虛人之賜 故告之如此 然則可飲而飲 不可飲而不飲皆在其中矣 楊氏曰 大夫有賜拜而受之禮也 未達不敢嘗謹疾也 必告之直也 ○ 此一節 記孔子與人交之誠意	10-11-2 康子饋藥 拜而受之曰 丘未達 不敢嘗	강자(康子)가 약(藥)을 내리자,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받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는 모르겠으므로, 감히 맛을 볼 수 없습니다.
401	非不愛馬 然恐傷人之意多 故未暇問 蓋貴人賤畜 理當如此	10-12-1 廐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마굿간에 불이 났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다쳤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말은 물어보지 않으셨다.
402	食恐或餽餘 故不以薦 正席先嘗 如對君也 言先嘗則餘當以頒賜矣 腥生肉 熟而薦之祖考 榮君賜也 畜之者 仁君之惠 無故 不敢殺也	10-13-1 君賜食 必正席先嘗之 君賜腥 必熟而薦之 君賜生 必畜之	임금님께서 음식을 내리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 깔고 먼저 그 맛을 보셨다. 임금님께서 날고기를 내리시면, 반드시 그것을 익혀서 제물로 올렸다. 임금이 산 짐승을 주시면, 반드시 기르시었다.
403	周禮 王日一舉 膳夫授祭品嘗食 王乃食 故侍食者君祭 則己不祭而先飯 若爲君嘗食然 不敢當客禮也	10-13-2 侍食於君 君祭 先飯	임금님께서 제식(祭食)하는 동안 먼저 진지를 드셨다.
404	東首以受生氣也 病臥不能著衣束帶 又不可以褻服見君 故加朝服於身 又引大帶於上也	10-13-3 疾君視之 東首 加朝服拖紳	병환(病患) 중에 임금님께서 문병(問病)을 오시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시고 조복(朝服)을 덮으시고 띠 자락을 늘어놓으셨다.
405	急趨君命 行出而駕車隨之 ○ 此一節 記孔子事君之禮	10-13-4 君命召 不俟駕行矣	임금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시면, 수레가 준비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떠나셨다.
406	重出	10-13-5 入太廟 每事問	대묘(大廟)에 들어가서서는, 매사(每事)를 묻곤 하셨다.
407	朋友以義合 死無所歸 不得不殯	10-14-1 朋友死 無所歸 曰於我殯	벗이 죽었는데 그를 치워 줄 친척이 없으면, 내 집에서 염을 해야지. 하고 말씀하셨다.
408	朋友有通財之義 故雖車馬之重 不拜 祭肉則拜者 敬其祖考 同於己親也 ○ 此一節 記孔子交朋友之義	10-14-2 朋友之饋 雖車馬 非祭肉 不拜	벗들이 보내주는 물건은 그것이 수레나 말이라 할지라도, 제사에 썼던 고기 이외에는 엎드려 절하지지 않으셨다.
409	尸謂偃臥似死人也 居居家 容容儀 范氏曰 寢不尸 非惡其類於死也 惰慢之氣 不設於身體 雖舒布其四體 而亦未嘗肆耳 居不容非惰也 但不若奉祭祀見賓客而已 申申夭夭是也	10-15-1 寢不尸 居不容	주무실 적에는 시체 같이 누우시지 않으셨고, 댁에 계실 적에는 엄숙한 얼굴을 짓지 않으셨다.
410	狎謂素親狎 褻謂燕見 貌謂禮貌 餘見前篇	10-15-2 見齊衰者 雖狎必變 見冕者與瞽者 雖褻必以貌	복(服)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비록 친밀하신 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색하시고 대하셨다. 면복(冕服)을 입은 사람과 앞 못보는 사람을 만나시면, 비록 자주 만나시는 처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모(禮貌)를 갖추시고 대하셨다.

411	式車前橫木 有所敬則俯而憑之 負版持邦國圖籍者 式此二者哀有喪 重民數也 人惟萬物之靈 而王者之所天也 故周禮獻民數於王 王拜受之 況其下者敢不敬乎	10-15-3 凶服者 式之 式負版者	거상(居喪)을 입은 사람에게는 상반신(上半身)을 굽히었다. 도판(圖版)을 진 사람에게는 상반신(上半身)을 굽히었다.
412	敬主人之禮 非以其饌也	10-15-4 有盛饌 必變色而作	성찬(盛饌)이 나오면, 반드시 변색하시고 일어서셨다.
413	迅病也 烈猛也 必變者所以敬天之怒 記曰 若有疾風迅雷甚雨 則必變 雖夜 必興 衣服冠而坐 ○ 此一節 記孔子容貌之變	10-15-5 迅雷風烈 必變	급작스럽게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반드시 변색하였다.
414	綏挽以上車之索也 范氏曰 正立執綏則心體無不正 而誠意肅恭矣 蓋君子莊敬無所不在 升車則見於此也	10-16-1 升車 必正立執綏	수레에 오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똑바로 서서서 손잡이를 잡으셨다.
415	內顧回視也 禮曰 顧不過轂 三者皆失容 且惑人 ○ 此一節 記孔子升車之容	10-16-2 車中 不內顧 不疾言 不親指	수레 안에서는 뒤를 돌아다보시지 않으셨고, 말씀을 빨리 하시지 않으셨고, 직접 손가락질하시는 일이 없으셨다.
416	言鳥見人之顏色不善 則飛去 回去回翔審視而後下止 人之見幾而作 審擇所處亦當如此 然此上下必有闕文矣	10-17-1 色斯舉矣 翔而後集	평이 기색이 험한 것을 보고 이내 날아올라가 빙빙 돌다가 내려앉았다.
417	邢氏曰 梁橋也 時哉言雉之飲啄得其時 子路不達 以爲時物而共具之 孔子不食 三嗅其氣而起 晁氏曰 石經嗅作憂 謂雉鳴也 劉聘君曰嗅當作臭古闕反 張兩翅也 見爾雅 愚按 如後兩說則共字當爲拱執之義 然此必有闕文 不可強爲之說 姑記所聞以俟知者	10-17-2 日山梁雌雉 時哉時哉 子路共之 三嗅而作	산(山)의 다리뭇 까투리는 때를 아는구나, 때를 아는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자로(子路)가 함께 구경을 하자, 평은 세 번 냄새를 맡아보고는 날아가 버렸다.
418	11 先進 第十一 此篇 多評弟子賢否 凡二十五章 胡氏曰 此篇 記閔子騫言行者四而其一 直稱閔子 疑閔氏門人所記也	11 先進 第十一	제 11 편. 선진(先進) 25 장. ♣ 문인들과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한 평이 많고 논어 전권을 선진을 기준으로 상, 하로 나누는 경계로 삼았다. 선진편(先進篇)은 25 장(章).
419	先進後進 猶言前輩後輩 野人 謂郊外之民 君子 謂賢士大夫也 程子曰 先進 於禮樂 文質得宜 今反謂之質朴 而以爲野人 後進之於禮樂 文過其質 今反謂之彬彬 而以爲君子 蓋周末文勝 故 時人之言如此 不自知其過於文也	11-01-1 子曰 先進 於禮樂 野人也 後進 於禮樂 君子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禮)와 악(樂)을 베풀하기 전에 먼저 습득하는 것은 평민들이고, 예(禮)와 악(樂)을 베풀을 얻은 후에 습득하는 것은 군자(君子)들이라고 하지만,
420	用之 謂用禮樂 孔子既述時人之言 又自言其如此 蓋欲損過以就中也	11-01-2 如用之則吾從先進	만약에 인물을 등용(登用)한다면 예약을 먼저 습득(習得)하는 쪽에 따르겠다.
421	孔子嘗厄於陳蔡之間 弟子多從之者 此時皆不在門 故 孔子思之 蓋不忘其相從於患難之中也	11-02-1 子曰 從我於陳蔡者 皆不及門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陳) 나라와 채(蔡) 나라에서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다 베풀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422	弟子因孔子之言 記此十人 而并目其所長 分爲四科 孔子教人 各因其材 於此可見 ○ 程子曰 四科 乃從夫子於陳蔡者爾 門人之賢者固不止此 曾子傳道而不與焉 故 知十哲世俗論也	11-02-2 德行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덕행(德行)으로 뛰어났던 제자들은 안연(顏淵)·미자건(微子)·염백우(冉伯牛)) 및 중궁(仲弓)이었고, 언어(言語)로 뛰어났던 제자들은 재아(宰我)와 자궁(子貢)이었고, 정사(政事)로 뛰어난

		子游子夏	제자들은 염유(冉由)와 계로(季路)였고, 문학으로 뛰어났던 제자들은 자유(子遊)와 자하(子夏)였다.
423	助我 若子夏之起予 因疑問而有以相長也 顏子於聖人之言 默識心通 無所疑問 故 夫子云然 其辭若有憾焉 其實 內深喜之 ○ 胡氏曰 夫子之於回 豈真以助我望之 蓋聖人之謙德 又以深贊顏氏云爾	11-03-1 子曰 回也 非助我者也 於吾言 無所不說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回)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한말 치고 기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는 없었으니.
424	胡氏曰 父母兄弟稱其孝友 人皆信之 無異辭者 蓋其孝友之實 有以積於中而著於外 故 夫子嘆而美之	11-04-1 子曰 孝哉 閔子騫 人不間於其父母昆弟之 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성스럽도다, 민자건(閔子騫)이여.라고 하니, 남이 그의 부모와 형제의 말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425	時大雅抑之篇曰 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 南容 一日三復此言 事見家語 蓋深有意於謹言也 此 邦有道 所以不廢 邦無道 所以免禍 故 孔子以兄子妻之 ○ 范氏曰 言者 行之表 行者 言之實 未有易其言而能謹於行者 南容 欲謹其言如此 則必能謹其行矣	11-05-1 南容三復白圭 孔子 以其兄之子妻之	남용(南容)이 백규장(白圭章)을 되풀이 외우자, 공자께서는 자기 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셨다.
426	范氏曰 哀公康子問同而對有詳略者 臣之告君 不可不盡 若康子者 必待其能問 乃告之 此教誨之道也	11-06-1 季康子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 好學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계강자(季康子)가 제자들 중에서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가를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안회(顏回)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배우기를 좋아하셨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427	鞍路 淵之父 名無繇 少孔子六歲 孔子始教而受學焉 槨 外棺也 請爲槨 欲賣車以買槨也	11-07-1 顏淵死 顏路請子之車 以謂之槨	안연(顏淵)이 죽자 안로(顏路)가 선생님의 수레로 덧관을 마련하자고 청하니,
428	鯉 孔子之子伯魚也 先孔子卒 言鯉之才雖不及顏淵 然 已與顏路以父視之 則皆子也 孔子時已致仕 尚從大夫之列 言後 謙辭 ○ 胡氏曰 孔子遇舊館人之喪 嘗脫駟以賻之矣 今乃不許顏路之請 何耶 葬可以無槨 駟可以脫而復求 大夫不可以徒行 命車不可以與人而鬻諸市也 且爲所識窮乏者得我 而勉強以副其意 豈誠心與直道哉 或者以爲君子行禮 視吾之有無而已 夫君子之用材 視義之可否 豈獨視有無而已哉	11-07-2 子曰 才不才 亦各言其子也 鯉也死 有棺而無槨 吾不徒行 以謂之槨 以吾從大夫之後 不可徒行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났건 못났건 간에 각각 자기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마는, 이(鯉)가 죽어서는 관만 쓰고 덧관은 쓰지 않았소이다. 나는 걸어가고 수레로 덧관을 마련하지는 않겠소이다. 나는 대부(大夫)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걸어갈 수는 없소이다.
429	噫 傷通聲 悼道無傳 若天喪己也	11-08-1 顏淵死 子曰噫 天喪予 天喪予	안연(顏淵)이 죽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아, 하늘이 나를 없애는 거다. 하늘이 나를 없애는 거야!.
430	慟 哀過也	11-09-1 顏淵死 子哭之慟 從者曰	안연(顏淵)이 죽자 선생님께서 통곡하셨다. 따라갔던 사람이 선생님께서 통곡하셨습니다. 하고

		子慟矣	말씀드렸다.
431	哀傷之至 不自知也	11-09-2 日有慟乎	내가 통곡했던가?
432	夫人 謂顏淵 言其死可惜 哭之宜慟 非他人之比也 ○ 胡氏曰 慟惜之至 施當其可 皆情性之正也	11-09-3 非夫人之爲慟 而誰爲	그 사람을 통곡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통곡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33	喪具 稱家之有無 貧而厚葬 不循理也 故夫子止之	11-10-1 顏淵死 門人欲厚葬之 子曰不可	안연(顏淵)이 죽자, 문인(門人)들이 그를 성대하게 장사지내주려고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434	蓋顏路聽之	11-10-2 門人 厚葬之	그러나 문인(門人)들이 그를 성대하게 장사지내 주었다.
435	嘆不得如葬鯉之得宜 以責門人也	11-10-3 子曰 回也 視予猶父也 予不得視猶子也 非我也 夫二三子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回)는 나를 자기 부친같이 대하였는데, 나는 그를 내 자식 같이 대접하지를 못하였구나. 그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436	問事鬼神 蓋求所以奉祭祀之意 而死者 人之所必有 不可不知 皆切問也 然 非誠敬足以事人 則必不能事神 非原始而知所以生 則必不能反終而知所以死 蓋幽明始終 初無二理 但學之有序 不可躐等 故 夫子告之如此 ○ 程子曰 晝夜者 死生之道也 知生之道 則知死之道 盡事人之道 則盡事鬼之道 死生人鬼 一而二 二而一者也 或言夫子不告子路 不知此乃所以深告之也	11-11-1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자로(子路)가 귀신 섬기는 일을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서야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죽음에 관해서 여쭙어 보아도 좋겠습니까? 삶을 모르고 서야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37	行行 剛強之貌 子樂者 樂得英才而教育之	11-12-1 閔子侍側 闔闔如也 子路行行如也 冉有子貢侃侃如也 子樂	민자건(閔子騫)이 선생님 곁에 모시고 있을 적에는 그 태도가 공손하였고, 자로(子路)는 강직(剛直)하였고, 염유(冉有)와 자공(子貢)은 화락(和樂)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즐거워하셨다.
438	尹氏曰 子路剛強 有不得其死之理 故 因以戒之 其後 子路卒死於衛孔悝之難 洪氏曰 漢書 引此句 上有曰字 或云 上文樂字 卽曰字之誤	11-12-2 若由也 不得其死然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由) 같은 사람은 제 죽음을 못할 것이다.
439	長府 藏名 藏貨財曰府 爲 蓋改作之	11-13-1 魯人爲長府	노(魯) 나라 사람들이 장부(長府)를 만들자,
440	仍 因也 貫 事也 王氏曰 改作 勞民傷財 在於得已 則不如仍舊貫之善	11-13-2 閔子騫 曰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	민자건(閔子騫)이, 본래 하던 대로하면 어떤가? 무엇 하려 다시 만드는건가? 하고 말했다.
441	言不妄發 發必當理 惟有德者能之	11-13-3 子曰 夫人 不言 言必有中	선생님께서,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의 핵심(核心)을 찌른다.고 말씀하셨다.
442	程子曰 言其聲之不和 與己不同也 家語云 子路鼓瑟 有北鄙殺伐之聲 蓋其氣質剛勇而不足於中和 故 其發於聲者如此	11-14-1 子曰 由之瑟 奚爲於丘之門	선생님께서, 유(由)는 25 현금(絃琴)을 왜 내 집에서 타는 거냐? 하고 말씀하셔서

443	門人 以夫子之言 遂不敬子路 故 夫子釋之 升堂入室 喻入道之次第 言子路之學 已造乎正大高明之域 特未深入精微之奧耳 未可以一事之失而遽忽之也	11-14-2 門人 不敬子路 子曰 由也 升堂矣 未入於室也	제자들이 자로(子路)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由)는 대청에는 올라섰고, 방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446	賊 害也 言子羔質美而未學 遽使治民 適以害之	11-14-2 子曰 賊夫人之子	선생님께서 남의 자식을 해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444	子張 才高意廣而好爲苟難 故 常過中 子夏篤信謹守而規模狹隘 故 常不及	11-15-1 子貢問師與商也 孰賢 子曰 師也過 商也 不及	자공(子貢)이 사(師)와 상(商) 어느 쪽이 더 똑똑한가를 여쭙어 보았는데, 선생님께서, 사(師)는 지나치고 상(商)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다.
445	愈猶勝也	11-15-2 曰然則師愈與	그러면 사(師)가 낫습니까? 하니,
446	道以中庸爲至 賢知之過 雖若勝於愚不肖之不及 然 其失中則一也 ○ 尹氏曰 中庸之爲德也其至矣乎 夫過與不及 均也 差之毫釐 畧以千里 故 聖人之教 抑其過 引其不及 歸於中道而已	11-15-3 子曰 過猶不及	선생님께서,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다.
447	周公 以王室至親 有大功 位忝宰 其富宜矣 季氏 以諸侯之卿 而富過之 非攘奪其君 刻剝其民 何以得此 罔求爲季氏宰 又爲之急賦稅以益其富	11-16-1 季氏富於周公 而求也 爲之聚斂而附益之	계씨(季氏)는 주공(周公)보다도 부유한데, 구(求)는 그를 위해 부세(賦稅)를 거둬 모아다가 재산을 더 늘려 주었다.
448	非吾徒 絕之也 小子鳴鼓而攻之 使門人聲其罪以責之也 聖人之惡黨惡而害民也如此 然 師嚴而友親 故 已絕之 而猶使門人正之 又見其愛人之無已也 ○ 范氏曰 冉有以政事之才 施於季氏 故 爲不善 至於如此 由其心術不明 不能反求諸身 而以仕爲急故也	11-16-2 子曰 非吾徒也 小子 鳴鼓而攻之 可也	선생님께서, 그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북을 울려가며 그를 성토(聲討)하여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449	柴 孔子弟子 姓高 字子羔 愚者 知不足而厚有餘 家語 記其足不履影 啓蟄不殺 方長不折 執親之喪 泣血三年 未嘗見齒 避難而行 不徑不竇 可以見其爲人矣	11-17-1 柴也愚	시(柴)는 지더리고,
450	魯 鈍也 程子曰 參也 竟以魯得之 又曰 曾子之學 誠篤而已 聖門學者 聰明才辨 不爲不多 而卒傳其道 乃質魯之人爾 故 學以誠實爲貴也 尹氏曰 曾子之才魯 故 其學也確 所以能深造乎道也	11-17-2 參也魯	삼(參)은 둔하고,
451	辟便辟也 謂習於容止 少誠實也	11-17-3 師也辟	사(師)는 형식적이고, 유(由)는 거칠다.
452	嘖粗俗也 傳稱嘖者謂俗論也 ○ 楊氏曰 四者性之偏 語之 使知自勵也 吳氏曰 此章之首 脫子曰二字 或疑下章字曰 當在此章之首 而通爲一章	11-17-4 由也嘖	유(由)는 거칠다.
453	庶近也 言近道也 屢空 數至空匱也 不以貧구動心而求富 故 屢至於空匱也 言其近道 又能安貧也	11-18-1 子曰 回也其庶乎屢空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回)는 거의 도(道)에 통달하였다고 하겠는데, 끼니를 못 잇는 일이 많다.

454	命謂天命 貨殖 貨財生殖也 億意度也 言子貢不如顏子之安貧樂道 然 其才識之明 亦能料事而多中也 程子曰 子貢之貨殖 非若後人之豐財 但此心未忘耳 然 此亦子貢少時事 至間性與天道 則不爲此矣 ○ 范氏曰 屢空者簞食瓢飲 屢絕而不改其樂也 天下之物 豈有可動其中者哉 貧富在天 而子貢以貨殖爲心 則是不能安受天命矣 其言而多中者 億而已 非窮理樂天者也 夫子嘗曰 賜不幸言而中 是使賜多言也 聖人之不貴言也如是	11-18-2 賜不受命而貨殖焉 億則屢中	사(賜)는 운명을 감수하지 않고 재물을 늘렸는데, 그가 억측하는 것이 자주 적중한다.
455	善人 質美而未學者也 程子曰 踐迹 如言循途守轍 善人 雖不必踐舊迹 而自不爲惡 然 亦不能入聖人之室也 ○ 張子曰 善人 欲仁而未志於學者也 欲仁故 雖不踐成法 亦不蹈於惡 有諸己也 由不學故 無自而入聖人之室也	11-19-1 子張問善人之道 子曰 不踐迹 亦不入於室	자장(子張)이 선인(善人)이 지녀야 할 도리를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취를 밟지 않으면 역시방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456	言但以其言論篤實而與之 則未知爲君子者乎 爲色莊者乎 言不可以言貌取人也	11-20-1 子曰 論篤 是與 君子者乎 色壯者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론(言論)이 독실하면 그 편을 들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군자(君子)다운 사람일는지, 또는 외모만 공손한 사람일는지 알 수 없다.
457	兼人謂勝人也 張敬夫曰 聞義 固當勇爲 然 有父兄在 則有不可得而專者 若不稟命而行 則反傷於義矣 子路 有聞 未之能行 惟恐有聞 則於所當爲 不患其不能爲矣 特患爲之之意或過而於所當稟命者有闕耳 若冉求之資稟 失之弱 不患其不稟命也 患其於所當爲者 逡巡畏縮而爲之不勇耳 聖人一進之一退之 所以約之於義理之中 而使之無過不及之患也	11-21-1 子路問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冉有問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公西華曰 由也問聞斯行諸 子曰 父兄在 求也問聞斯行諸 子曰聞斯行之 赤也惑 敢問 子曰 求也退故進之 由也 兼人故退之	자로(子路)가 의(義)로운 일을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할 것인가를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부형이 계시는데 어떻게 의(義)로운 일을 들었다고 곧 그것을 행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염유(冉有)가 의(義)로운 일을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할 것인가를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 의(義)로운 일을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공서화(公西華)가, 유(由)가 의(義)로운 일을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할 것인가를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는 부형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구(求)가 의(義)로운 일을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할 것인가를 여쭙어 보자, 선생님께서는, 의(義)로운 일을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으므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감히 여쭙어 보는 바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求)는 뒤로 물러서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내 주었고, 유(由)는 기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게 하여준 것이다.

458	後謂相失在後 何敢死 謂不赴鬪而必死也 胡氏曰 先王之制 民生於三 事之如一 惟其所在 則致死焉 況顏淵之於孔子 恩義兼盡 又非他人之爲師弟子者而已 卽夫子不幸而遇難 回必捐生以赴之矣 捐生以赴之 幸而不死 則必上告天子 下告方伯 請討以復讐 不但己也 夫子而在 則回何爲而不愛其死 以犯匡人之鋒乎	11-22-1 子畏於匡 顏淵後 子曰 吾以女爲死矣 曰子在 回何敢死	선생님이 광(匡)에서 위험 속에 빠지셨을 때 안연(顏淵)은 뒤에 처저였다. 선생님께서 나는 네가 죽을 줄 알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안연(顏淵)은 선생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459	子然季氏子弟 自多其家得臣二子 故 問之	11-23-1 季子然 問仲由冉求 可謂大臣與	계자연(季子然)이 중유(仲由)와 염구(冉求)는 훌륭한 신하(臣下)라 할 수 있습니까?
460	異非常也 曾猶乃也 輕二子 以抑季然也	11-23-2 子曰吾以子爲異之問 曾由與求之問	나는 당신이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유(由)와 구(求)를 물어보시는 정도입니까?
461	以道事君者 不從君之欲 不可則止者 必行己之志	11-23-3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이른바 훌륭한 대신(大臣)이라는 것은, 정도(正道)로 임금을 섬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만둡니다.
462	具臣 謂備臣數而已	11-23-4 今由與求 可謂具臣矣	이제 유(由)와 구(求)는 신하(臣下)의 수(數)나 채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63	意二子既非大臣 則從季氏之所爲而已	11-23-5 曰然則從之者與	그러면 임금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하고 물었다.
464	言二子雖不足於大臣之道 然 君臣之義則聞之熟矣 弑逆大故 必不從之 蓋深許二子以死難不可奪之節 而又以陰折季氏不臣之心也 ○ 尹氏曰 季氏專權僭竊 二子仕其家而不能正也 知其不可而不能止也 可謂具臣矣 是時 季氏已有無君之心 故 自多其得人 意其可使從己也 故曰 弑父與君 亦不從也 其庶乎二子可免矣	11-23-6 子曰 殺父與君 亦不從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이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465	子路爲季氏宰而舉之也	11-24-1 子路使子羔 爲費宰	자로(子路)가 자고(子羔)를 시켜 비(費)의 읍재(邑宰)를 살게 했다.
467	言治民事神 蓋所以爲學	11-24-3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然後 爲學	자로(子路)가, 그곳에는 백성들이 있고 사직(社稷)이 있습니다. 하필 책을 읽은 연후에만 공부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468	治民事神 固學者事 然 必學之已成然後 可仕以行其學 若初未嘗學而使之卽仕以爲學 其不至於慢神而虐民者幾希矣 子路之言 非其本意 但理屈詞窮 而取辨於口以禦人耳 故 夫子不斥其非 而特惡其佞也 ○ 范氏曰 古者 學而後入政 未聞以政學者也 蓋道之本在於修身 而後及於治人 其說具於方冊 讀而知之然後能行 何可以不讀書也 子路乃欲使子羔以政爲學 失先後本末之序矣 不知其過 而以口給禦人 故 夫子惡其佞也	11-24-4 子曰 是故惡夫佞者	그렇기 때문에 말 잘 둘러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469	皙曾參父 名點	11-25-1 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자로(子路)가 증절(曾皙)과 염유(冉有)와 공서화(公西華)가 선생님을 모시고 앉아 있었다.
478	曾點以冉求亦欲爲國 而不見哂 故 微問之 而夫子之答 無貶詞 蓋亦許之	11-25-10 唯求則非邦也與 安見方六七十 如五六十而非邦也者	구(求)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사방 60~70 리(里)나 50~60 리(里)가 나라가 아닐 수 있겠느냐?
479	此亦曾皙問而夫子答也 孰能爲之大 言無能出其右者 亦許之之詞 ○ 程子曰 古之學者 優柔厭飫 有先後之序 如子路冉有公西赤 言志如此 夫子許之亦以此 自是實事 後之學者 好高 如人游心千里之外 然 自身 却只在此 又曰 孔子與點 蓋與聖人之志同 便是堯舜氣象也 誠異三子之撰 特行有不掩焉耳 此所謂狂也 子路等 所見者小 子路只爲不達爲國以禮道理 是以哂之 若達却便是這氣象也 又曰 三子 皆欲得國而治之 故 夫子不取 曾點 狂者也 未必能爲聖人之事 而能知夫子之志 故 曰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言樂而得其所也 孔子之志 在於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使萬物莫不遂其性 曾點知之 故 孔子喟然嘆曰 吾與點也 又曰 曾點漆雕開 已見大意	11-25-11 唯赤則非邦也與 宗廟會同 非諸侯而何 赤也爲之小 孰能爲之大	적(赤)의 경우라 하더라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종묘(宗廟)와 회합이면, 제후(諸侯)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적(赤)이 대수롭지 않은 부분을 다룬다면 누가 주요한 부분을 다룰 수 있겠느냐?
470	言我雖年少長於女 然 汝勿以我長而難言 蓋誘之盡言 以觀其志 而聖人和氣謙德 於此亦可見矣	11-25-2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지만 나를 염두에 둘 것 없다.
471	言女平居則言人不知我 如或有人知女 則女將何以爲用也	11-25-3 居則曰 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너희들이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고들 말하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너희들의 실력을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72	率爾 輕遽之貌 攝 管束也 二千五百人 爲師 五百人 爲旅 因仍也 穀不熟曰饑 菜不熟曰饑 方向也 謂向義也 民向義 則能親其上 死其長矣 哂微笑也	11-25-4 子路 率爾而對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也 爲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 夫子哂之	자로(子路)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천승(千乘)의 나라로, 큰 나라를 틈에 끼여서, 대군이 침범을 받고, 거기다 기근(饑饉)까지 덮쳐 있다 하여도, 제가 그 나라를 다스려서 3 년만 되오면 그 나라 사람들을 용감하게 만들고, 또 (定義의) 방향을 알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웃으셨다.
473	求爾何如 孔子問也 下放此 方六七十里 小國也 如猶或也 五六十里則又小矣 足富足也 俊君子言非己所能 冉有謙退 又以子路見哂 故 其辭益遜	11-25-5 求爾 何如 對曰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比及三年 可使足民 如其禮樂 以俟君子	구(求)야, 너는 어떠하냐? 하고 말씀하시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방 60~70 리(里)나 50~60 리되는 곳을 제가 다스려서 3 년만 되오면 그 고장의 백성들이 부족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고장의 예악(禮樂)에 관해 서는 다른

			군자(君子)의 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474	公西華志於禮樂之事 嫌以君子自居 故將言己志而先爲遜辭 言未能而願學也 宗廟之事 謂祭祀 諸侯時見曰會 衆規曰同 端玄端服 章甫禮冠 相贊君之禮者 言小亦謙辭	11-25-6 赤爾何如 對曰 非曰能之 願學焉 宗廟之事 如會同 端章甫 願爲小相焉	적(赤)아, 너는 어떠하냐? 하고 말씀하시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싶습니다. 종묘(宗廟)의 제사와 (제후(諸侯)들의) 회합 같은 데에, 헌단(玄端)과 장보관(章甫冠)을 착용하고 의식을 거행할 때에 그 대수롭지 않은 부분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475	四子侍坐 以齒爲序 則點當次對 以方鼓瑟 故孔子先問求赤而後及點也 希間歇也 作起也 撰具也 莫春 和煦之時 春服 單袷之衣 浴 盥濯也 今上巳祓除是也 沂 水名 在魯城南 地志以爲有溫泉焉 理或然也 風 乘涼也 舞雩 祭天禱雨之處 有壇墠樹木也 詠 歌也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少欠闕 故 其動靜之際 從容如此 而其言志則又不過卽其所居之位 樂其日用之常 初無舍己爲人之意 而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 視三子規規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 故 夫子歎息而深許之 而門人記其本末 獨加詳焉 蓋亦有以識此矣	11-25-7 點爾 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者 春服 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	점(點)아, 너는 어떠하냐?하고 말씀하시자, 점(點)은 25 현금(玄琴) 타던 속도를 늦춰서 멈추고, 25 현금(玄琴)을 밀어 내놓고 일어나서 저는 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더라도 각각 자기 지망을 말하는 것인데. 하고 말씀하셨다. 늦은 봄에 봄옷이 다 되어서, 성인(成人) 5~6 명과 아이들 6~7 명이 기수(沂水)에서 몸을 씻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쏘이고서 읊조리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점(點)의 편을 들겠다.
476	點以子路之志 乃所優爲而夫子哂之 故 請其說	11-25-8 三子者出 曾皙 後 曾皙 曰 夫三子者之言 何如 子曰 亦各言其志已矣 曰 夫子何哂由也	세 사람이 나가고 증절(曾皙)이 뒤에 남아 있었다. 증절(曾皙)이 그런데 세 사람이 한 말은 어떠하옵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그런 대로 각각 자기의 지망을 만한 것일 따름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왜 유(由)를 웃으셨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477	夫子蓋許其能 特哂其不遜	11-25-9 曰 爲國以禮 其言 不讓 是故 哂之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예(禮)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말이 사양하는 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웃는 것이다.
480	12 顏淵 第十二 凡二十四章	12 顏淵 第十二	제 12 편. 안연(顏淵) 24 장. ♣ 안연편은 공자와 제자, 제후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주로 정치쪽으로 많이 기록이 되었으며 바름(正)과 술신을 이상형으로 삼았다. 안연편(顏淵篇)은 24 장(章).

481	仁者 本心之全德 克 勝也 己 謂身之私欲也 復反也 禮者 天理之節文也 爲仁者所以全其心之德也 蓋心之全德 莫非天理而亦不能不壞於人欲 故爲仁者必有以勝私欲而復於禮 則事皆天理而本心之德 復全於我矣 歸 猶與也 又言一日克己復禮則天下之人 皆與其仁 極言其效之甚速而至大也 又言爲仁由己而非他人所能預 又見其機之在我而無難也 日日克己之 不以爲難 則私欲淨盡 天理流行而仁不可勝用矣 程子曰 非禮處便是私意 既是私意如何得仁 須是克盡己私 皆歸於禮 方始是仁 又曰克己復禮則事事皆仁故 曰 天下歸仁 謝氏曰 克己 須從性偏難克處 克將去	12-01-1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而由人乎哉	안연(顏淵)이 인(仁)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어느 날이건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게 되면, 온 천하가 인(仁)에 따르게 될 것이다. 인(仁)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지 남으로부터 시작되지야 하겠느냐?
482	目 條件也 顏淵聞夫子之言 則於天理人欲之際 已判然矣 故 不復有所疑問而直請其條目也 非禮者 己之私也 勿者 禁止之辭 是人心之所以爲主而勝私復禮之機也 私勝則動容周旋 無不中禮 而日用之間 莫非天理之流行矣 事如事事之事 請事斯語 顏淵 默識其理 又自知其力有以勝之 故 直以爲己任而不疑也 ○程子曰 顏淵 問克己於復禮之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四者 身之用也由乎中而應乎外 制於外 所以養其中也 顏淵事斯語所以進於聖人 後之學聖人者 宜服膺而勿失也 因箴以自警 其視箴 曰 心兮本虛 膺勿無迹 操之有要 是爲之則 蔽交於前 其中則遷 制之於外以安其內 克己復禮 久而誠矣 其聽箴 曰 人有秉彝 本乎天性 知誘物化 遂亡其正 卓彼先學 知止有定 閑邪存誠 非禮勿聽 其言箴 曰 人心之動 因言以宣 發禁躁妄 內邪靜專 是樞機 興戎出好 吉凶榮辱 惟其所召 傷易則誕 傷煩則支 己肆勿 出悖來違 非法不道 欽哉訓辭 其動箴 曰 哲人知幾 誠之於思 志士勵行 守之於爲 順理則裕 從欲惟危 造次克念 戰兢自持 習與性成 聖賢同歸 愚按 此章問答 乃傳授心法切要之言 非至明 不能察其幾 非至健 不能致其決 故 惟顏子得聞之 而凡學者亦不可以不勉也 程子之箴 發明親切 學者尤宜深玩	12-01-2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안연(顏淵)이, 그 세목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선생님께서,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禮)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안연(顏淵)이, 제가 불민하기는 하옵니다마는 이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기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483	敬以持己 恕以及物 則私意無所容而心德 全矣 內外無怨 亦以其效 言之 使以自考也 ○ 程子曰 孔子言仁 只說出門如見大賓使民如承大祭 看其氣象 便須心廣體胖 動容周旋中體 唯謹獨 便是守之之法 或問出 使民之時 如此可也 未出門使民之時 如之何 曰此儼若思時也 有諸中而後 見於外 觀其出門使民之時 其敬 如此則前乎此者 敬可知矣 非因出門使民然後 有此敬也 愚按 克己復禮 乾道也 主敬行恕 坤道也 顏呂之學 其高下淺深 於此可見 然學者誠能從事於敬恕之間而有得焉 亦將無己之可克矣	12-02-1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 仲弓曰 雍雖不敏 請事斯語矣	중궁(仲弓)이 인(仁)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만나는 것 같이 하고, 국민들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것 같이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일을 해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집에서 일을 해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중궁(仲弓)이, 제가 불민하기는 하옵니다마는 이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기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484	司馬牛 孔子弟子 名犁 向魋之弟	12-03-1 司馬牛問仁	사마우(司馬牛)가 인(仁)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485	詎 忍也 難也 仁者 心存而不放 故 其言 若有所忍而不易發 蓋其德之一端也 夫子以牛多言而躁故 告之以此 使其於此而謹之則所以爲仁之方 不外是矣	12-03-2 子曰 仁者 其言也詎	선생님께서, 인자(仁慈)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더듬거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6	牛意仁道至大 不但如夫子之所言 故 夫子又告之以此 蓋心常存故 事不苟 事不苟故 其言 自有不得而易者 非強閉之而不出也 楊氏曰 觀此及下章再問之語 牛之易其言 可知 ○ 程子曰 雖爲司馬牛多言故 及此 然聖人之言 亦止此爲是 愚謂 牛之爲人 如此 若不告之以其病之所切 而泛以爲仁之大概 語之 則以彼之躁 必不能深思以去其病 而終無自以入德矣 故 其告之如此 蓋聖人之言 雖有高下大小之不同 然其切於學者之身 而蓋爲入德之要則又初不異也 讀者其致思焉	12-03-3 曰其言也詎 斯謂之仁矣乎 子曰 爲之難 言之得無詎乎	말하는 것이 더듬거리면 곧 인자(仁慈)하다는 것입니까?하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 인(仁)을 실천하기가 힘드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더듬거리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87	向魋作亂 牛常憂懼故 夫子告之以此	12-04-1 司馬牛 問君子 子曰 君子 不憂不懼	사마우(司馬牛)가 군자(君子)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군자(君子)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488	牛之再問 猶前章之意故 復告之以此 疚 病也 言由其平日所爲無愧於心故 能內省不疚 而自無憂懼 未可遽以爲易而忽之也 ○ 晁氏曰 不憂不懼 由乎德全而無疵故 無入而不自得 非實有憂懼而強排遣之也	12-04-2 曰不憂不懼 斯謂之君子矣乎 子曰 內省不疚 夫何憂何懼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군자(君子)라는 것입니까? 하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흠잡을 데가 없으면, 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489	牛有兄弟而云然者 憂其爲亂而將死也	12-05-1 司馬牛憂曰 人皆有兄弟 我獨亡	사마우(司馬牛)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남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나만 없다고 말했다.
490	蓋聞之夫子	12-05-2 子夏曰 商聞之矣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이지만,
491	命稟於有生之初 非今所能移 天莫之爲而爲	12-05-3 死生有命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고, 부자가 되고 귀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소.

	非我所能必 但當順受而已	富貴在天	
492	既安於命 又當修其在己者故 又言苟能持己以敬而不間斷 接人以恭而有節文 則天下之人 蓋愛敬之 如兄弟矣 蓋子夏欲以寬牛之憂 而爲是不得已之辭 讀者不以辭害意可也 ○ 胡氏曰 子夏四海皆兄弟之言 特以廣司馬牛之意 意圖而語滯者也 唯聖人則無此病矣 且子夏知此而以哭子喪明則以蔽於愛而昧於理 是以不能踐其言爾	12-05-4 君子敬而無失 與人恭而有禮 四海之內 皆兄弟也 君子何患乎無兄弟也	군자(君子)가 조심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고, 남과 접촉하는데 공손하고 예의(禮儀)가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형제들이요. 군자(君子)가 어찌 형제 없는 것을 근심하겠소?
493	浸潤 如水之浸灌滋潤 漸漬而不驟也 讚 毀人之行也 膚受 謂肌膚所受 利害切身 如易所謂剝床以膚 切近災者也 愬 愬己之冤也 毀人者漸漬而不驟 則聽者不覺其入而身之深矣 愬冤者急迫而切身則聽者不及致詳而發之暴矣 二者 難察而能察之則可見其心之明而不蔽於近矣 此亦必因子張之失而告之 故 其辭繁而不殺 以致丁寧之意云 ○ 楊氏曰 驟而語之 與利害不切於身者 不行焉 有不待明者 能之也 故 浸潤之譖 膚受之愬不行然後 謂之明而又謂之遠 遠則明之至也 書 視遠惟明	12-06-1 子張問明 子曰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 可謂明也已矣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 可謂遠也已矣	자장(子張)이 명철한 것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연중에 스며들어오는 참소(讒訴)와 자신에게 직접 자극을 주는 탄원(歎願)을 그대로 받아들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명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은연중에 스며들어오는 참소와 자신(自身)에게 직접 자극을 주는 탄원을 그대로 받아들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94	言倉稟實而武備修然後 教化行而民信於我 不離叛也	12-07-1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자공(子貢)이 정치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식량을 충분하게 마련하고, 무기를 충분하게 마련하고, 국민들이 위정자(爲政者)를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495	言食足而信孚 則無兵而守固矣	12-07-2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去兵	자공(子貢)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무기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셨다.
496	民無食必死 然死者 人之所必不免 無信則雖生 而無以自立 不若死之爲安 故 寧死而不失信於民 使民亦寧死而不失信於我也 ○ 程子曰 孔門弟子善問 直窮到底如此章者 非子貢 不能問 非聖人 不能答也 愚謂 以人情而言 則兵食足而後 吾之信 可以孚於民 以民德而言 則信 本人之所固有 非兵食 所得而先也 是以 爲政者當身率其民 而以死守之 不以危急而可棄也	12-07-3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자공(子貢)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남은 두 가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식량을 버려라. 옛날부터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왔다. 국민들이 위정자(爲政者)를 믿지 않으면 정치를 해나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497	棘子成 衛大夫 疾時人文勝故 爲此言	12-08-1 棘子成曰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극자성(棘子成)이, 군자(君子)는 질(質)이면 되었지 문(文)은 해서 무엇하오?라고 말했는데,
498	言子成之言 乃君子之意 然言出於舌則駟馬 不能追之 又惜其失言也	12-08-2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 君子也	자공(子貢)이, 가석(可惜)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군자(君子)의

		駟不及舌	말씀입니다. 네 필 말의 수레로도 허는 따라가 내지 못합니다.
499	鞞皮去毛者也 言文質等耳 不可相無 若必盡去其文而獨存其質 則君子小人 無以辨矣 夫棘子成矯當時之弊 固失之過 而子貢 矯子成之弊 又無本末輕重之差 胥失之矣	12-08-3 文猶質也 質猶文也 虎豹之鞞猶犬羊之鞞	문(文)도 질(質) 같이 중요하고, 질(質)도 문(文) 같이 중요합니다. 범이나 표범의 털 뽑은 가죽이라면 개나 양의 털 뽑은 가죽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500	稱有若者 君臣之詞 用 謂國用 公意 蓋欲加賦以足用也	12-09-1 哀公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 如之何	애공(哀公)께서 유약(有若)에게, 흉년이 들어서 세입(歲入)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오?라고 물으셨다.
501	徹 通也 均也 周制 一夫受田百畝 而與同溝共井之人 通力合作 計畝均收 大率民得其九 公取其一故 謂之徹 魯自宣公 稅畝 又遂畝什取其一 則爲什而取二矣 故 有若 請但專行徹法 欲公 節用以厚民也	12-09-2 有若對曰 盍徹乎	유약(有若)이, 왜 십일조(十一租)를 거두시지 않으십니까?라고 대답하였다.
502	二 卽所謂什二也 公 以有若 不喻其旨 故 言此 以示加賦之意	12-09-3 曰 二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십분의 이로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십일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소?라고 말씀하셨다.
503	民富則君不至獨貧 民貧則君不能獨富 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 以止公之厚斂 爲人上者所宜深念也 ○ 楊氏曰 人政 必自境界始 境界正而後 正地均 穀祿 平而軍國之須皆量是以爲出焉 故一徹而百度舉矣 上下寧憂不足乎 以二猶不足 而教之徹 疑若迂矣 然什一 天下之中正 多則桀 寡則桀 不可改也 後世 不究其本 而唯末之圖故 征斂無藝 費出無經 而上下困矣 又惡知蓋徹之當務 而不爲迂乎	12-09-4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백성들이 풍족하게 지내면 임금이 누구와 부족하게 지내겠습니까?
504	主忠信則本立 徙義則日新	12-10-1 子張問 崇德辨惑 子曰 主忠信 徙矣 崇德也	자장(子張)이 덕(德)을 숭상(崇尚)하는 것과 모순됨을 가려내는 것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忠誠)과 신용을 주로 하고, 의(義)로운 데로 옮겨가는 것이 덕(德)을 숭상하는 것이다.
505	愛惡人之常情也 然人之生死有命 非可得而欲也 以愛惡而欲其生死 則惑矣 既欲其生 又欲其死 則惑之甚也	12-10-2 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既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	사랑할 때에는 살기를 바라다가 미워할 때에는 죽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살기를 바란 데다 또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 모순이다.
506	此 詩小雅行其野之詞也 舊說 夫子引之以明欲其生死者不能使之生死如此詩所言 不足以致富 而適足以取異也 程子曰 此錯簡 當在第十六篇 齊景公有馬千駟之上 因此下文亦有齊景公字而誤也 ○ 楊氏曰 堂堂乎張也 難與竝爲仁矣則非誠善補過 不蔽於私者 故 告之如此	12-10-3 誠不以富 亦祇以異	진실로 재물(財物) 많기 때문이 아니고, 역시 단순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507	齊景公 名杵臼 魯昭公末年 孔子適齊	12-11-1 齊景公問政於孔子	제(齊) 경공(景公)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508	此人道之大經 政事之根本也 是時 景公失政而大夫陳氏 厚施於國 景公 又多內嬖而不立太子 其君臣父子之間 皆失其道 故夫子告之以此	12-11-2 孔子對曰 君君臣臣父父子子	공자께서, 임금은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다.
509	景公 善孔子之言而不能用 其後 果以繼嗣不定 啓陳氏弑君篡國之禍 ○ 楊氏曰 君之所以君 臣之所以臣 父之所以父 子之所以子 是必有道矣 景公 知善夫子之言而不知反求其所以然 蓋悅而不繹者 齊之所以卒於亂也	12-11-3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공(公)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이요. 정말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지 않고, 신하(臣下)가 신하(臣下) 노릇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곡식이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소?
510	片言半言 折 斷也 子路 忠信明決故言出而人信服之 不待其辭之畢也	12-12-1 子曰 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디로 송사(訟事)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유(由)일 게다.
511	宿 留也 猶宿怨之宿 急於踐言 不留其諾也 記者因夫子之言而記此 以見子路之所以取信於人者由其養之有素也 ○ 尹氏曰 小邾射 以句繹 奔魯 曰 使子路 要我 吾無盟矣 千乘之國 不信其盟而 而信子路之一言 其見信於人 可知矣 一言而折獄者 信在言前 人自信之故也 不留諾所以全其信也	12-12-2 子路 無宿諾	자로(子路)는 약속을 묵혀두는 일이 없었다.
512	范氏曰 聽訟者 治其末 塞其流也 正其本 清其源 則無訟矣 ○ 楊氏曰 子路片言 可以折獄 而不知以禮遜爲國則未能使民 無訟者也 故又記孔子之言 以見聖人 不以聽訟 爲難 而以使民無訟 爲貴	12-13-1 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사(訟事)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만 하지마는, 반드시 송사(訟事)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513	居 謂存諸心 無倦則始終如一 行 謂發於事 以忠則表裏如一 ○ 程子曰 子張 少仁無誠心 愛民則必倦而不盡心 故 告之以此	12-14-1 子張問政 子曰 居之無倦 行之以忠	자장(子張)이 정치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을 적에는 (마음 속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생각을) 게을리하지 말고, 실제로 정사(政事)를 다룰 적에는 충성스럽게 하여라.
514	重出	12-15-1 子曰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로서 글을 널리 배우고, 그것을 예(禮)로써 요약(要約)한다면, 또한 정도(正道)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515	成者 誘掖獎勸 以成其事也 君子小人 所存既有厚薄之殊 而其所好 又有善惡之異故 其用心不同 如此	12-16-1 子曰 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 反是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남의 좋은 점을 발전시켜주고, 남의 나쁜 점은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 소인(小人)은 이와 반대다.
516	范氏曰 未有己不正而能正人者 ○ 胡氏曰 魯自中葉 政由大夫 家臣 效尤 據邑背叛 不正甚矣 故 孔子以是告之 欲康子 以正自克 而改三家之故 惜乎 康子之溺於利欲而不能也	12-17-1 季康子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 子帥以正	계강자(季康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일입니다. 선생께서 바로 거느리시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굴겠습니까?

		孰敢不正	
517	言子不貪慾 則雖賞民使之爲盜 民亦知恥而不竊 ○ 胡氏曰 季氏竊柄 康子奪嫡 民之爲盜 固其所也 蓋亦反其本邪 孔子以不欲 啓之 其旨深矣 奪嫡事 見春秋傳	12-18-1 季康子 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 苟子之不欲 雖賞之 不竊	계강자(季康子)가 도둑에 시달려 공자에게 그 대책을 물었다. 공자에게서 대답하시기를, 선생께서 물건을 탐내시지 않으신다면, 상을 준다 하더라도 훔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518	爲政者 民所視效 何以殺爲 欲善則民善矣 上一作尙 加也 偃仆也 ○ 尹氏曰 殺之爲言 豈爲人上之語哉 以身教者 從 以言教者 訟 而況於殺乎	12-19-1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孔子對曰爲政焉用殺 子欲善而民善矣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必偃	계강자(季康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으며, 무도(無道)한 자들을 죽여서 올바른 길을 이룩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공자에게서 대답하시기를, 선생께서는 정치를 하실 것이지 죽이는 일은 해서 무엇하시렵니까? 선생께서 선(善)을 원하신다면 백성들은 선(善)해집니다. 군자(君子)의 덕(德)은 바람이라 하겠고, 소인(小人)의 덕(德)은 풀이라 하겠습니다. 풀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눕습니다.
519	達者 德孚於人 而行無不得之謂	12-20-1 子張問士何如 斯可謂之達矣	자장(子張)이 선비는 어떻게 되면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여쭙어 보았다.
520	子張 務外 夫子蓋已知其發問之意 故 反詰之 將以發其病而藥之也	12-20-2 子曰 何哉 爾所謂達者	선생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네가 통달했다고 하는 것은? 하고 말씀하셨다.
521	言名譽著聞也	12-20-3 子張對曰 在邦必聞 在家必聞	자장(子張)이, 나라 일을 하게 되어도 반드시 명성(名聲)이 나고, 대신의 집일을 하게 되어도 반드시 명성이 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522	聞與達 相似而不同 乃誠僞之所以分 學者不可不審也 故 夫子既明辨之 下文 又詳言之	12-20-4 子曰 是聞也 非達也	그것은 명성이 나는 것이지 통달한 것은 아니다.
523	內主忠信 而所行 合宜 審於接物 而卑以自牧 皆自修於內 不求人知之事 然 德修於己 而人信之則所行 自無窒礙矣	12-20-5 夫達也者 質直而好義 察言而觀色 慮以下人 在邦必達 在家必達	통달했다는 것은 고지식하고 정의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헤아리며, 남에게 검허하기를 생각하는 것이어서, 나라 일을 하게 되어도 반드시 통달하고 대신의 집일을 하게 되어도 반드시 통달하게 되는 것이다.
524	善其顏色 以取於仁 而行實背之 又自以爲是而無所忌憚 此 不務實而專務求名者 故 虛譽雖隆 而實德則病矣 ○ 程子曰 學者須是務實 不要近名 有意近名 大本已失 更學 何事 爲名而學則是 僞也 今之學者 大抵爲名 爲名與爲利雖清濁 不同 然其利心則一也 尹氏曰 子張之學 病在乎不務實 故 孔子告之皆篤實之事 充乎內而發乎外者也 當時門人 親受聖人之教	12-20-6 夫聞也者 色取仁而行違 居之不疑 在邦必聞 在家必聞	들림이라는 것은 안색으로 인을 취하여, 행실이 어긋나고, 살아가며 의심하지 아니함이니, 나라에 있어도 반드시 들리며, 집에 있어도 반드시 들리는 것일다. 고 하셨다.

	而差失 有如此者 況後世乎		
525	胡氏曰 慝之字從心從匿 蓋惡之匿於心者 修者治而去之	12-21-1 樊遲從遊於舞雩之下 曰敢問崇德修慝辨惑	번지(樊遲)가 무우(舞雩) 밑에서 노닐 때에, 덕(德)을 숭상하는 것, 사특(邪慝)한 것을 바로잡는 것, 모순(矛盾)됨을 가려내는 것을 감히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526	善其切於爲己	12-21-2 子曰 善哉問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질문이다.
527	先事後得 猶言先難後獲也 爲所當爲 而不計其功 則德日積而不自知矣 專於治己 而不責人 則己之惡無所匿矣 知一朝之忿 爲甚微 而禍及其親 爲甚大 則有以辨惑而懲其忿矣 樊遲羈鄙近利 故 告之以此三者 皆所以救其失也 ○ 范氏曰 先事後得上義而下利也 人惟有利欲之心 故 德不崇 惟不自省己過 而知人之過故 慝不修 惑物而易動者莫如忿 忘其身 以及其親 惑之甚者也 惑之甚者 必起於細微 能辨之早 則不至於大惑矣 故 懲忿 所以辨惑也	12-21-3 先事後得 非崇德與 攻其惡 無攻人之惡 非修慝與 一朝之忿 忘其身 以及其親 非惑與	일은 먼저 하고 소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덕(德)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의 악(惡)을 공격하고 남의 악(惡)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사특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의 분노로 그 몸을 잊어서, 그 어버이에게 미치는 것이 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 하셨다.
528	愛人 仁之施 知人 知之務	12-22-1 樊遲問仁 子曰 愛人 問知 子曰 知人	번지(樊遲)가 인(仁)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것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529	曾氏曰 遲之意 蓋以愛 欲其周 而知 有所擇 故疑二者之相悖耳	12-22-2 樊遲未達	번지(樊遲)가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530	舉直錯枉者 知也 使枉者直 則仁矣 如此則二者不惟不相悖 而反相爲用矣	12-22-3 子曰 舉直錯諸枉 能使枉者直	선생님께서, 곧은 사람을 등용(登用)하여 굽은 사람들 위에 놓으면 못된 사람들을 곧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531	遲以夫子之言 專爲知者之事 又未達所以能使枉者直之理	12-22-4 樊遲退 見子夏曰 鄉也 吾見於夫子而問知 子曰 舉直錯諸枉 能使枉者直 何謂也	번지(樊遲)가 물리나와 자하(子夏)를 만나서, 아까 내가 선생님을 뵈옵고 지혜로운 것에 관해서 여쭙어 보니까, 선생님께서 곧은 사람을 등용(登用)하여 굽은 사람들 위에 놓으면 못된 사람들을 곧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요? 하고 물었다.
532	歎其所包者廣 不止言知	12-22-5 子夏曰 富哉言乎	자하(子夏)가 대답하기를, 그 말씀은 정말 넓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533	伊尹 湯之相也 不仁者遠 言人皆化而爲仁 不見有不仁者若其遠去爾 所謂使枉者直也 子夏 蓋有以知夫子之兼仁知而言矣 ○ 程子曰 聖人之語 因人而變化 雖若有淺近者 而其包含 無所不盡 觀於 此章 可見矣 非若他人之言 語近則遠遠 語遠則不知近也 尹氏曰 學者之問也 不獨欲聞其說 又必欲知其方 不獨欲之其方 又必欲爲其事 如樊遲之問仁知也 夫子告之盡矣 樊遲未達 故 又問焉 而猶未知其何以爲之也 及退而問諸子夏然後 有以知之 使其未喻則必將復問矣 既問於師 又辨於友 當時學者之務實也 如是	12-22-6 舜有天下 選於衆 舉皐陶 不仁者 遠矣 湯有天下 選於衆 舉伊尹 不仁者 遠矣	순(舜) 임금이 천하(天下)를 차지하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 가지고 고요(皐陶)를 등용(登用)하였는데, 인자(仁慈)하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물러나 버렸고, 탕(湯) 임금이 천하(天下)를 차지하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 가지고 이윤(伊尹)을 등용(登用)하였는데, 인자(仁慈)하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물러나 버렸소.
534	友 所以補仁故 盡其心以告之 善其說以道之 然以義合者也 故 不可則止 若以數而見疏則自辱矣	12-23-1 子貢問友 子曰 忠告而善道之 不可則止 無自辱焉	자공(子貢)이 벗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실하게 일러주어서 잘 이끌어 주되,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두고, 자기가 욕을 보도록까지는 하지 말 것이다.
535	講學以會友則道益明 取善以輔仁則德日進	12-24-1 曾子曰 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글을 가지고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하여 인(仁)의 향상을 도모한다.
536	13 子路 第十三 凡三十章	13 子路 第十三	제 13 편. 자로(子路) 30 장. ♣ 앞쪽은 정치에 대한 기록이 많으며 뒤쪽은 성인 군자에 대한 문답으로 이루어짐. 자로편(子路篇)은 30 장(章).
537	蘇氏曰 凡民之行 以身先之 則不令而行 凡民之事 以身勞之 則雖勤不怨	13-01-1 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자로(子路)가 정치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서서 하고 힘들여 일하라고 하셨다.
538	吳氏曰 勇者 喜於有爲而不能持久 故 以此告之 ○ 程子曰 子路問政 孔子既告之矣 及請益 則曰無倦而已 未嘗復有所告 姑使之深思也	13-01-2 請益 曰無倦	더 말씀해주시기를 청하자, 지쳐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다.
539	有司 衆職也 宰兼衆職 然 事必先之於彼而後 考其成功 則己不勞而事畢舉矣 過 失誤也 大者 於事或有所害 不得不懲 小者赦之 則刑不濫而人心悅矣 賢 有德者 才 有能者 舉而用之 則有司皆得其人 而政益修矣	13-02-1 仲弓 爲季氏宰 問政 子曰 先有司 赦小過 舉賢才	중궁(仲弓)이 계씨(季氏)의 가재(家宰)가 되어 가지고 정치에 관해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먼저 유사(有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작은 잘못은 용서해주고, 좋은 인재(人材)를 등용(登用)하여라.라고 말씀드렸다.
540	仲弓慮無以盡知一時之賢才 故 孔子告之以此 程子曰 人各親其親 然後 不獨親其親 仲弓曰 焉知賢才而舉之 子曰 舉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便見仲弓舉聖人用心之大小 推此義 則一心可以興邦 一心可以喪邦 只在公私之間爾 ○ 范氏曰 不先有司 則君行臣職矣 不赦小過 則下無全人矣 不舉賢才 則百職廢矣 失此三者 不可以爲季氏宰 況天下乎	13-02-2 曰焉知賢才而舉之 曰舉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어떻게 좋은 인재(人材)를 알아 가지고 등용(登用)합니까?하고 말씀드리자, 네가 아는 사람을 등용(登用)하여라. 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버려 두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541	衛君 謂出公輒也 是時 魯哀公之十年 孔子自楚反乎衛	13-03-1 子路曰衛君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자로(子路)가, 위(衛) 나라의 임금이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542	是時 出公 不父其父而禰其祖 名實紊矣 故孔子以正名爲先 謝氏曰 正名 雖爲衛君而言 然爲政之道 皆當以此爲先	13-03-2 子曰 必也正名乎	선생님께서,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을 계다.라고 말씀하셨다.
543	迂 謂遠於事情 言非今日之急務也	13-03-3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자로(子路)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일에 뜨십니다. 이름을 바로잡아서 무엇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544	野 謂鄙俗 責其不能闕疑而率爾妄對也	13-03-4 子曰 野哉 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비하구나, 유(由)는. 군자(君子)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관해서는 보류(保留)하여 두는 법이다.
545	楊氏曰 名不當其實 則言不順 言不順 則無以考實而事不成	13-03-5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맞지 않고, 말이 맞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546	楊氏曰 事得其序之謂禮 物得其和之謂樂 事不成 則無序而不和 故 禮樂不興 禮樂不興 則施之政事 皆失其道 故 刑罰不中	13-03-6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禮)와 악(樂)이 성행하지 않는다. 예(禮)와 악(樂)이 성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바로 가해지지 않는다. 형벌이 바로 가해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손발을 둘 데가 없어진다.
547	程子曰 名實相須 一事苟 則其餘皆苟矣 ○ 胡氏曰 衛世子蒯聵恥其母南子之淫亂 欲殺之 不果而出奔 靈公欲立公子郢 郢辭 公卒 夫人立之 又辭 乃立蒯聵之子輒 以拒蒯聵 夫蒯聵 欲殺母 得罪於父 而輒 據國以拒父 皆無父之人也 其不可有國也明矣 夫子爲政 而以正名爲先 必將具其事之本末 告諸天王 請于方伯 命公子郢而立之 則人倫正 天理得 名正言順而事成矣 夫子告之之詳如此 而子路終不喻也 故 事輒不去 卒死其難 徒知食焉不避其難之爲義 而不知食輒之食爲非義也	13-03-7 故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已矣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게 되고, 말하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자(君子)는 자기의 말에 구차한 점이 없을 따름이다.
548	種五穀曰稼 種蔬菜曰圃	13-04-1 樊遲請學稼 子曰 吾不如老農 請學爲圃 曰 吾不如老圃	번지(樊遲)가 곡식 농사에 관해서 가르쳐주시기를 청했다. 선생님께서,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고 말씀하셨다. 채소 농사에 관해서 가르쳐주시기를 청했다. 선생님께서, 나는 늙은 채소붙이는 사람만 못하다고 말씀하셨다.
549	小人 謂細民 孟子所爲小人之事者也	13-04-2 樊遲出 子曰 小人哉 樊須也	번지(樊遲)가 나가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小人)이로다, 번순(樊順)은.

550	禮義信 大人之事也 好義則事合宜 情 誠實也 敬復用情 蓋各以其類而應也 襁 織縷爲之 以約小兒於背者 ○ 楊氏曰 樊須遊聖人之門而問稼圃 志則陋矣 辭而闕之可也 待其出而後 言其非 何也 蓋於其問也 自謂農圃之不如 則拒之者至矣 須之學 衣不及此 而不能問 不能以三隅反矣 故 不復 及其既出 則懼其終不喻也 求老農老圃而學焉 則其失愈遠矣 故 復言之 使知前所言者意有在也	13-04-3 上好禮則民莫敢不敬 上好義則民莫敢不服 上好信則民莫敢不用情 夫如是則四方之民 襁負其子而至矣 焉用稼	웃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불경(不敬)하게 굴지 못할 것이고, 웃사람이 정의(定義)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웃사람이 신용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사실을 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방의 백성들이 자식들을 싸 업고 모여들 것이다. 농사는 해서 무엇하자는 거냐? 이렇게 한다면 사방의 백성들이 자식들을 싸 업고 모여들 것이다. 농사는 해서 무엇하자는 거냐?
551	專 獨也 詩本人情 該物理 可以驗風俗之盛衰 見政治之得失 其言 溫厚和平 長於風諭 故 誦之者必達於政而能言也 ○ 程子曰 窮經 將以致用也 世之誦詩者果能從政而專對乎 然則其所學者 章句之末耳 此 學者之大患也	13-05-1 子曰 頌詩三百 授之以政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詩) 300 편(篇)을 외우면서, 정사(政事)를 말해도 처리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절로 내보내져도 재량해서 응대하지 못한다면, 많은들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552	#	13-06-1 子曰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정자(爲政者) 자신이 올바르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잘 되어 나가고,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린다 하여도 복종하지 않는다.
553	魯 周公之後 衛 康叔之後 本兄弟之國 而是時衰亂 政亦相似 故 孔子嘆之	13-07-1 子曰 魯衛之政兄弟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魯) 나라와 위(衛) 나라의 정치는 형제다.
554	公子荊 衛大夫 苟 聊且粗略之意 合 聚也 完 備也 言其循序而有節 不以欲速盡美累其心 ○ 楊氏曰 務爲全美 則累物而驕吝之心生 公子荊 皆曰苟而已 則不以外物爲心 其欲 易足故也	13-08-1 子謂衛公子荊 善居室 始有 曰苟合矣 少有 曰苟完矣 富有 曰苟美矣	선생님께서 위(衛) 나라의 공자(公子) 형(荊)이 집안을 잘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다. 살림이 잘 되기 시작하자 그는 그러저런 어울리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살림이 좀 늘자 그는 그러저런 갖추어지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살림이 부유해지자 그는 그러저런 좋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555	僕 御車也	13-09-1 子適衛 冉有僕	선생님께서 위(衛) 나라에 가실 때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았다.
556	庶 衆也	13-09-2 子曰 庶矣哉	선생님께서, 사람들이 많구나.하고 말씀하셨다.
557	庶而不富 則民生不遂 故 制田里 薄賦斂以富之	13-09-3 冉有曰 既庶矣 又何加焉 曰富之	염유(冉有)가, 사람들이 많으면 또 무엇을 보태야 합니까?하고 말씀드렸다. 부유(富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558	富而不教 則近於禽獸 故 必立學校 明禮義以教之 ○ 胡氏曰 天生斯民 立之司牧 而寄以三事 然 自三代之後 能學此職者百無一二 漢之文明 唐之太宗 亦云庶且富矣 西京之教無聞焉 明帝 尊師重傳 臨雍拜老 宗戚子弟莫不受學 唐太宗 大召名儒 增廣生員 教亦至矣 然而未知所以教也 三代之教 天子公卿 躬行於上 言行政事皆可師法 彼二君者其能然乎	13-09-4 曰既富矣 又何加焉 曰教之	사람들이 부유하면 또 무엇을 더 해야합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559	朞月 謂周一歲之月也 可者 僅辭 言紀綱布也 有成治功成也 ○ 尹氏曰 孔子歎當時莫能用己也 故云然 愚按 史記此蓋爲衛靈公不能用而發	13-10-1 子曰 苟有用我者 朞月而已可也 三年 有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등용(登用)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 일년이 되면 벌써 관창(官倉)이 오를 것이고, 3년이 되면 치적(治績)이 오를 것이다.
560	爲邦百年 言相繼而久也 勝殘 化殘暴之人 使不爲惡也 去殺 謂民化於善 可以不用刑殺也 蓋古有是言 而夫子稱之 程子曰 漢自高惠 至於文景 黎民醇厚 幾致刑措 庶乎其近之矣 ○ 尹氏曰 勝殘去殺 不爲惡而已 善人之功如是 若夫聖人 則不待百年 其化亦不止此	13-11-1 子曰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善)한 사람이 백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면, 또한 잔인한 것을 극복하고 살륙(殺戮)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참 잘한 말이다.
561	王者 謂聖人受命而興也 三十年爲一世 仁 謂教化浹也 程子曰 周自文武 至於成王而後 禮樂興 卽其效也 ○ 或問 三年必世遲速不同 何也 程子曰 三年有成 謂法度紀綱有成而化行也 漸民以仁 摩民以義 使之浹於肌膚 淪於骨髓 而禮樂可興 所謂仁也 此非積久 何以能致	13-12-1 子曰 如有王者 必世而後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자(王子)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한 세대 이후에는 세상이 인자해진다.
562	#	13-13-1 子曰 苟正其身矣 於從政乎 何有 不能正其身 如正人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몸을 바로 갖는다면 정치에 종사하는 데 무슨 힘든 일이 있겠는가? 자기 몸을 바로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바로잡겠는가?
563	冉有時爲季氏宰 朝季氏之私朝也 晏晚也 政國政事家事 以用也 禮 大夫雖不治事 猶得與聞國政 是時 季氏專魯 其於國政 蓋有不與同列議於公朝 而獨與家臣謀於私室者 故 夫子爲不知者而言 此必季氏之家事耳 若是國政 我嘗爲大夫 雖不見用 猶當與聞 今既不聞 則是非國政也 語意與魏徵獻陵之對略相似 其所以正名分 抑季氏而教冉有之意 深矣	13-14-1 冉子 退朝 子曰 何晏也 對曰 有政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염유(冉有)가 조회(朝會)에서 물러 나오자,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늦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나라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계씨(季氏)의 개인 일이었을 게다. 나라 일이 있었다면 내가 등용(登用)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나도 그 일을 들었을 것이다.
564	幾 期也 時曰 如幾如式 言一言之間 未可以如此而必期其效	13-15-1 定公 問一言而可以興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정공(定公)께서 한 마디로 나라를 잘 되게 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물으셨다. 공자께서, 말은 그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565	當時有此言也	13-15-2 人之言 曰爲君難 爲臣不易	그와 가까운 것으로는, 사람들의 말에 임금 노릇하기는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566	因此言而知爲君之難 則必戰戰兢兢 臨深履薄 而無一事之敢忽 然則此言也豈不可以必期於興邦乎 爲定公言 故 不及臣也	13-15-3 如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	임금 노릇 하는 것의 어려움을 안다면 한 마디로 나라를 잘 되게 하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셨다.
567	言他無所樂 惟樂此耳	13-15-4 曰一言而喪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한 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다. 공자께서, 말은 그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것으로는, 사람들의 말에, 나는 임금 노릇 하는 데에 다른 낙(樂)은 없고, 다만 말을 하면 나를 어기지 못한다는

		人之言 曰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也	것이 약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568	范氏曰 如不善而莫之違 則忠言不至於耳 君日驕而臣日諂 未有不喪邦者也 ○ 謝氏曰 知爲君之難 則必敬謹以持之 唯其言而莫予違 則讒諂面諛之人 至矣 邦未必遽興喪也 而興喪之源 分於此 然 此非識微之君子 何足以知之	13-15-5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如不善而莫之違也 不幾乎一言而喪邦乎	만약에 좋은 말을 어기지 못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는, 좋지 않은 말을 어기지 못한다면 한 마디로 나라를 망치게 하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569	音義竝見第七篇	13-16-1 葉公問政 子曰 近者說 遠者來	섭공(葉公)이 정치에 관해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데서는 기뻐하고 먼 데서는 오는 것입니다.
570	被其澤則說 聞其風則來 然 必近者說而後 遠者來	13-17-1 子夏爲莒父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자하(子夏)가 거부(莒父)의 읍宰(邑宰)로 있을 때에 정치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속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아라. 속히 하려고 들면 철저해지지 않고, 작은 이익을 돌보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71	直躬 直身而行者 有因而盜曰攘	13-18-1 葉公語孔子曰 吾黨 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섭공(葉公)이 공자께, 우리 사람들 가운데 몸을 곧게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자식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572	父子相隱 天理人情之至也 故 不求爲直 而直在其中 ○ 謝氏曰 順理爲直 父不爲子隱 子不爲父隱 於理順耶 瞽瞍殺人 舜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當是時 愛親之心勝 其於直不直 何暇計哉	13-18-2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곧은 사람은 그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숨기면, 곧은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573	恭主容 敬主事 恭見於外 敬主乎中 之夷狄不可棄 勉其固守而勿失也 ○ 程子曰 此是徹上徹下語 聖人 初無二語也 充之 則晬面盎背 推而達之 則篤恭而天下平矣 胡氏曰 樊遲問仁者三 此最先 先難次之 愛人其最後乎	13-19-1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번지(樊遲)가 인(仁)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 거처하는 데 공손히 하고, 공사를 처리하는 데 조심 있게 하고, 남과 사귀는 데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미개인(未開人)들 틈에 간다 하더라도 버릴 수 없다.
574	此 其志有所不爲而其材足以有爲者也 子貢能言 故 以使事告之 蓋爲使之難 不獨貴於能言而已	13-20-1 子貢問曰 何如 斯可謂之士矣 子曰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자공(子貢)이, 어떻게 해야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의 행동에 있어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고, 외국에 사신(使臣)으로 파견되어 임금이 준 사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575	此 本立而材不足者 故 爲其次	13-20-2 曰敢問其次 曰宗族稱孝焉 鄉黨稱弟焉	감히 그 다음가는 것을 여쭙어 볼까요? 하자, 친척들이 효성 있다고 칭찬하고, 한 마을 사람들이 우애스럽다고 칭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576	果必行也 硜小石之堅確者 小人言其識量之淺狹也 此 其本末皆無足觀 然 亦不害其爲自守也 故 聖人猶有取焉 下此則市井之人 不復可爲士矣	13-20-3 曰敢問其次 曰言必信 行必果 硜硜然小人哉 抑亦可以爲次矣	감히 그 다음가는 것을 여쭙어 볼까요?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하는 일은 반드시 다 해치우는 것은, 완고한 소인이기는 하나, 그래도 역시 그 다음은 될 수 있다.
577	今之從政者 蓋如魯三家之屬 噫 心不平聲 斗量名 容十升 筭竹器 容斗二升 斗筭之人 言鄙細也 算數也 子貢之問每下 故 夫子以是警之 ○ 程子曰 子貢之意 蓋欲爲皎皎之行 聞於人者 夫子告之 皆篤實自得之事	13-20-4 曰今之從政者 何如 子曰 噫斗筭之人 何足算也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아, 째째한 인간들이니 측에 끼울 것도 못된다.
578	行道也 狂者 志極高而行不掩 狷者 知未及而守有餘 蓋聖人本欲得中道之人而教之 然既不可得 而徒得謹厚之人 則未必能自振拔而有爲也 故 不若得此狂狷之人 猶可因其志節而激厲裁抑之 以進於道 非與其終於此而已也 ○ 孟子曰 孔子豈不欲中道哉 不可必得 故 思其次也 如琴張曾皙牧皮者 孔子之所謂狂也 其志嚶嚶然曰 古之人 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 狂者 又不可得 欲得不屑不潔之士而與之 是狷也 是又其次也	13-21-1 子曰 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狷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爲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도(中道)를 가는 사람을 얻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는 반드시 과격한 사람과 고집센 사람을 택할 것이다. 과격한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집 센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579	南人 南國之人 恒 常久也 巫 所以交鬼神 醫所以寄死生 故 雖賤役 而尤不可以無常 孔子稱其言而善之	13-22-1 子曰 南人有言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善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쪽 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꾸준한 점이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당과 의원 노릇을 시킬 수가 없다.고. 잘한 말이다.
580	此 易恒卦九三爻辭 承進也	13-22-2 不恒其德 或承之羞	자기의 덕(德)을 꾸준히 지켜 나가지 않으면 모욕을 당하는 수 가 있다.
581	復加子曰 以別易文也 其義未詳 楊氏曰 君子於易 苟玩其占 則知無常之取羞矣 其爲無常也 蓋亦不占而已矣 意亦略通	13-22-3 子曰 不占而已矣	선생님께서, 점(占)이 되지 않을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582	和者 無乖戾之心 同者 有阿此之意 ○ 尹氏曰 君子 尚義故 有不同 小人 尚利 安得而和	13-23-1 子曰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화합하기는 하나 뇌동(雷同)하지는 않고, 소인(小人)은 뇌동(雷同)하기는 하나 화합(和合)하지는 않는다.
583	一鄉之人 宜有公論矣 然 其間 亦各以類自爲好惡也 故善者好之 而惡者不惡 則必其有苟合之行 惡者惡之 而善者不好 則必其無可好之實	13-24-1 子貢問曰 鄉人 皆好之 何如 子曰 未可也 鄉人 皆惡之 何如 子曰 未可也 不如鄉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 惡之	자공(子貢)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다 좋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안 된다. 동네 사람들 중의 선(善)한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느니만 못하다.

584	器之 謂隨其材器而使之也 君子之心 公而恕 小人之心 私而刻 天理人欲之間 每相反而已矣	13-25-1 子曰 君子 易事而難說也 說之不以道 不說也 及其使人也 器之 小人 難事而易說也 說之雖不以道 說也 及其使人也 求備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섬기기는 쉬우나 기뻐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를 기뻐하게 하는데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사람을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의 재능을 살려서 한다. 소인(小人)을 섬기기는 어려우나 기뻐하게 하기는 쉽다. 그를 기뻐하게 하는데 비록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기뻐한다. 그가 사람을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이 갖은 짓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585	君子 循理故 安舒而不矜肆 小人逞欲故 反是	13-26-1 子曰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태연하나 교만하지는 않다. 소인(小人)은 교만하나 태연하지는 않다.
586	程子曰 木者 質樸 訥者 遲鈍 四者 質之近乎仁者也 楊氏曰 剛毅則不屈於物欲 木訥則不至於外馳 故 近仁	13-27-1 子曰 剛毅木訥 近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직(剛直)하고, 과감하고, 질박(質朴)하고, 어눌(語訥)하면 인(仁)에 가깝다.
587	胡氏曰 切切懇到也 惓惓詳勉也 怡怡 和悅也 皆子路所不足 故 告之 又恐其混於所施 則兄弟有賊恩之禍 朋友有善柔之損 故 又別而言之	13-28-1 子路 問曰 何如 斯可謂之士矣 子曰 切切惓惓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 切切惓惓 兄弟怡怡	자로(子路)가, 어떻게 해야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실하고 자상하면서 화락(和樂)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벗들과 절실하고 자상하며 형제들과는 화락(和樂)하게 된다.
588	教民者 教之以孝弟忠信之行 務農講武之法 卽 就也 戎 兵也 民知親其上死其長 故 可以卽戎 ○ 程子曰 七年云者 聖人度(탁)其時可矣 如云朞月三年百年一世大國五年小國七年之類 皆當思其作爲如何 乃有益	13-29-1 子曰 善人 教民七年 亦可以卽戎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善)한 사람이 국민을 7년 동안 가르친다면, 역시 그 국민을 가지고 전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589	以 用也 言用不教之民以戰 必有敗亡之禍 是棄其民也	13-30-1 子曰 以不教民戰 是謂棄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지 않은 국민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버려버리는 것이다.
590	14 憲問 第十四 胡氏曰 此篇 疑原憲所記 凡四十七章	14 憲問 第十四	제 14 편. 헌문(憲問) 47 장. ♣ 이 편은 여러나라의 사대부의 말을 기록하였으며 원헌(原憲)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문편(憲問篇)은 47 장(章).
591	憲 原思名 穀 綠也 邦有道 不能有爲 邦無道 不能獨善 而但知食綠 皆可恥也 憲之狷介 其於邦無道穀之可恥 固知之矣 至於邦有道穀之可恥 則未必知也 故 夫子因其問而并言之 以廣其志 使知所以自勉而進於有爲也	14-01-1 憲問恥 子曰 邦有道穀 邦無道穀 恥也	내가(憲이) 수치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정도(正道)에 의해 다스려지면 녹(祿)을 받을 것이나, 나라가 정도(正道)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데 녹(祿)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592	此亦原憲以其所能而問也 克好勝 伐自矜 怨忿恨 慾貪慾	14-02-1 克伐怨欲 不行焉 可以爲仁矣	기승한 짓, 뽐내는 일, 원한을 품는 일, 욕심부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인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93	有是四者而能制之 使不得行 可謂難矣 仁則天理渾然 自無四者之累 不行 不足以言之也○ 程子曰 人而無克伐怨慾 惟仁者能之 有之而能制其情 使不行 斯亦難能也 謂之仁則未也 此聖人開示之深 惜乎 憲之不能再問也 或曰 四者不行 固不得爲仁矣 然 亦豈非所謂克己之事 求仁之方乎 曰 克去己私 以復乎禮 則私慾不留而天理之本然者得矣 若但制而不行 則是未有拔去病根之意 而容其潛藏隱伏於胸中也 豈克己求仁之謂哉 學者察於二者之間 則其所以求仁之功 益親切而無滲漏矣	14-02-1 子曰 可以爲難矣 仁則吾不知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인자한지는 나는 모르겠다.
594	居 謂意所便安處也	14-03-1 子曰 士而懷居 不足以爲士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로서 편안히 있기만을 생각한다면 선비랄 게 못된다.
595	危高峻也 孫卑順也 尹氏曰 君子之持身不可變也 至於言 則有時而不敢盡 以避禍也 然則爲國者使士言孫 豈不殆哉	14-04-1 子曰 邦有道 危言危行 邦無道 危行言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해질 때에는 대담하게 말하고, 대담하게 행동할 것이고,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대담하게 행동할 것이나, 말은 부드러워야 한다.
596	有德者 和順積中 英華發外 能言者 或便佞口給而已 仁者 心無私累 見義必爲 勇者 或血氣之強而已○ 尹氏曰 有德者 必有言 徒能言者 未必有德也 仁者志必勇 徒能勇者 未必有仁也	14-05-1 子曰 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有德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德)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장할 말이 있을 것이다, 주장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덕(德)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자(仁慈)한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을 것이나,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자(仁慈)한 것은 아니다.
597	南宮适 卽南容也 羿有窮之君 善射 滅夏后相而篡其位 其臣寒浞 又殺羿而伐之 梟春秋傳作澆 浞之子也 力能陸地行舟 後爲夏后少康所誅 禹平水土 暨稷播種 身親稼穡之事 禹受舜禪而有天下 稷之後 至周武王 亦有天下 适之意 蓋以羿稷比當世之有權力者 而以禹稷比孔子也 故 公子不答 然适之言如此 可謂君子之人而有尙德之心矣 不可以不與 故俟其出而贊美之	14-06-1 南宮适 問於孔子曰 羿善射 羿盪舟 俱不得其死 然禹稷 躬稼而有天下 夫子 不答 南宮适出 子曰 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	남궁괄(南宮适)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예(羿)는 활을 잘 쏘았고, 오(羿)는 배를 잘 뒤집어 었었으나, 다 올바른 죽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禹)와 직(稷)은 몸소 농사를 지었는데 천하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자께서 대답치 아니하시더니, 남궁괄이 나가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로구나. 이와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구나, 이와 같은 사람이여. 라고 하셨습니다.
598	謝氏曰 君子志於仁矣 然 豪忽之間 心不在焉 則未免爲不仁也	14-07-1 子曰 君子而不仁者 有矣夫 未有小人而仁者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이면서 인자하지 않은 사람은 있었지만은 소인(小人)이면서 인자한 사람은 있는 적이 없다.
599	蘇氏曰 愛而勿勞 禽犢之愛也 忠而勿誨 婦寺之忠也 愛而池勞之 則其爲愛也深矣 忠而知誨之 則其爲忠也大矣	14-08-1 子曰 愛之 能勿勞乎 忠焉 能勿悔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면서 애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충성을 바치면서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600	裨諲以下四人 皆鄭大夫 草略也 創造也 謂造爲草藁也 世叔 游吉也 春秋傳 作子大叔 討 尋究也 論 講議也 行人 掌使之官 子羽 公孫揮也 修飾 謂增損之 東里 地名 子產所居也 潤色 謂加以文采也 鄭國之爲辭命 必更此四賢之手而成 詳審精密 各盡所長 是以 應對諸侯 鮮有敗事 孔子言此 蓋善之也	14-09-1 子曰 爲命 裨諲 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 修飾之 東里子產 潤色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鄭)나라에서) 외교문서(外交文書)를 만들 때에는 비심(裨諲)이 초안(草案)을 작성하였고, 세숙(世叔)이 그것을 검토·수정하였고, 행인(行人) 자우(子羽)가 수식(修飾)을 가했고, 동리(東里)의 자산(子產)이 그것을 윤색(潤色)하였다.
601	子產之政 不專於寬 然 其心則一以愛人爲主 故 孔子以爲惠人 蓋舉其重而言也	14-10-1 或問子產 子曰 惠人也	어떤 사람이 자산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아끼는 사람이다.
602	子西 楚公子申 能遜楚國 立昭王 而改紀其政 亦賢大夫也 然 不能革其僭王之號 昭王欲用孔子 又沮止之 其後 卒召白公 以致禍亂 則其爲人可知矣 彼哉者 外之之詞	14-10-2 問子西 曰彼哉彼哉	자서(子西)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그 사람, 그 사람! 하고 말씀하셨다.
603	人也 猶言此人也 伯氏 齊大夫 駢邑地名 齒年也 蓋桓公奪伯氏之邑 以與管仲 伯氏自知己罪而心服管仲之功 故窮約以終身 而無怨言 苟卿所謂與之書社三百而富人莫之敢拒者 則此事也○ 或問管仲子產孰優 曰管仲之德 不勝其才 子產之才 不勝其德 然於聖人之學 則概乎其未有聞也	14-10-3 問管仲 曰人也 奪伯氏 駢邑三百 飯疏食沒齒 無怨言	관중(管仲)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더니, 인물이다. 그가 백씨(伯氏)의 병읍(駢邑) 3 백호(戶)를 빼앗아 거친 음식을 먹기에까지 만들었으나 백씨(伯氏)는 평생토록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604	處貧難 處富易 人之常情 然人當勉其難 而不可忽其易也	14-11-1 子曰 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빈한(貧寒)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없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게 구는 일이 없기는 쉽다.
605	公綽魯大夫 趙魏晉卿之家 老家臣之長 大家勢重而無諸侯之事 家老望尊而無官守之責 優有餘也 滕薛二國名 大夫任國政者 滕薛國小政繁 大夫位高責重 然則公綽 蓋廉靜寡欲而短於才者也○ 楊氏曰 知之不豫 枉其才而用之 則爲棄人矣 此君子所以患不知人也 言此則孔子之用人 可知矣	14-12-1 子曰孟公綽 爲趙魏老則優 不可以爲滕薛大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공작(孟公綽)은 조씨(趙氏)나 위씨(魏氏)의 가로(家老) 노릇을 하기엔 넉넉하지마는, 등(滕) 나라나 설(薛) 나라의 대부(大夫) 노릇을 할 수는 없다.
606	成人 猶言全人 武仲 魯大夫 名紇 莊子魯卞邑大夫 言兼此四子之長 則知足以窮理 廉足以養心 勇足以力行 禮足以泛應 而又節之以禮 和之以樂 使德成於內而文見乎外 則材全德備 渾然不見一善成名之迹 中正和樂 粹然無復偏倚駁雜之蔽 而其爲人也亦成矣 然 亦之爲言 非其至者 蓋就子路之所可及而語之也 若論其至 則非聖人之盡人道 不足以語此	14-13-1 子路問成人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자로(子路)가 완성된 인간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장무중(臧武仲)의 지혜와, 맹공작(孟公綽)의 과욕(寡欲)과, 변색(卞色)의 장자(莊子)의 용기와, 염구(冉求)의 재주에다가, 예(禮)와 악(樂)으로 윤색(潤色)을 한다면, 또한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607	復加曰字者 既答而復言也 授命 言不愛其生 持以與人也 久要 舊約也 平生 平日也 有是忠信之實 則雖其才知禮樂 有所未備 亦可以爲成人之次也○ 程子曰 知之明 信之篤 行之果 天下之達德也 若孔子所謂成人 亦不出此三者 武仲 知也 公綽 仁也 卞莊子 勇也 冉求 藝也 須是合此四人之能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然而論其大成 則不止於此 若今之成人 有忠信而不及於禮樂 則又其次者也 又曰 藏武仲之知 非正也 若文之以禮樂 則無不正矣 又曰語成人之名 非成人 孰能之 孟子曰 唯聖人然後可以踐形 如此 方可以稱成人之名 胡氏曰 今之成人以下 乃子路之言 蓋不復聞斯行之之勇 而有終身誦之之固矣 未詳是否	14-13-2 曰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 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완성된 인간이야 뭐 그러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이를 볼 기회를 당면하여서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義)로운가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진 것을 보고는 목숨을 내놓고, 오래 된 약속에 대하여 지난날의 말을 잊지 않는다면 또한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608	公叔文子 衛大夫公孫枝也 公明姓 賈名 亦衛人 文子爲人 其詳不可知 然 必廉靜之士 故當時 以三者稱之	14-14-1 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 曰 信乎夫子 不言不笑不取乎	선생님께서 공명가(公明賈)에게 공숙문자(公叔文子)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입니까? 그 분은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물건을 받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609	厭者 苦其多而惡之之辭 事適其可 則人不厭而不覺其有是矣 是以 稱之或過 而以爲不言不笑不取也 然 此言也 非禮義充溢於中 得時措之宜者 不能 文子雖賢 疑未及此 但君子與人爲善 不欲正言其非也 故 曰 其然 豈其然乎 蓋疑之也	14-14-2 公明賈對曰 以告者過也 夫子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樂然後笑 人不厭其笑 義然後取 人不厭其取 子曰其然 豈其然乎	공명가(公明賈)가 대답하기를, 전한 사람이 지나치게 말한 탓입니다. 그 분은 해야 할 때가 된 후에 말하므로 사람들이 그 분의 말을 싫어하지 않고, 즐거워진 후에 웃음을 웃어 사람들이 그 분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고, 의(義)로와야 물건을 받으므로 사람들이 그가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어찌 그럴 수 있겠나요?
610	防 地名 武仲所封邑也 要 有挾而求也 武仲 得罪奔邾 自邾如防 使請立後而避邑 以示若不得請 則將據邑以叛 是要君也○ 范氏曰 要君者 無上 罪之大者也 武仲之邑 受之於君 得罪出奔 則立後在君 非己所得專也 而據邑以請 由其好知而不好學也 楊氏曰 武仲 卑辭請後 其跡 非要君者 而意實要之 夫子之言 亦春秋誅意之法也	14-15-1 子曰 臧武仲 以防 求爲後於魯 雖曰不要君 吾不信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무중(臧武仲)이 방읍(防邑)의 힘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후계자(後繼者)를 세워 주기를 노(魯) 나라에 요구하였으니, 임금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611	晉文公 名重耳 齊桓公 名小白 譎 詭也 二公 皆諸侯盟主 攘夷狄以尊周室者也 雖其以力假仁 心皆不正 然 桓公伐楚 仗義執言 不由詭道 猶爲彼善於此 文公則伐衛以致楚 而陰謀以取勝 其譎甚矣 二君他事亦多類此 故 夫子言此 以發其隱	14-16-1 子曰 晉文公譎而不正 齊桓公 正而不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晉) 문공(文公)은 임기웅변(臨機雄辯)으로 꾸며 나갔으나 올바른 법도(法度)에 의하지는 못하였고, 제(齊) 환공(桓公)은 올바른 법도(法度)에 의해서 해나갔으므로 임기웅변(臨機雄辯)으로 꾸며 나가지는 못했다.

612	按春秋傳 齊襄公無道 鮑叔牙奉公子小白奔莒 及無知弑襄公 管夷吾召忽 奉公子糾奔魯 魯人納之未克 而小白入 是爲桓公 使魯殺子糾而請管召 召忽 死之 管仲 請囚 鮑叔牙言於桓公 以爲相 子路疑管仲忘君事讐 忍心害理 不得爲仁也	14-17-1 子路曰 桓公殺公子糾 召忽死之 管仲不死 曰未仁乎	자로(子路)가, 환공(桓公)이 공자(公子) 규(糾)를 죽이자, 소홀(召忽)은 규(糾)를 위해 죽었는데, 관중(管仲)은 죽지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인자하지는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613	九 春秋傳作糾 督也 古字通用 不以兵車 言不假威力也 如其仁 言雖如其仁者 又再言以深許之 蓋管仲雖未得爲仁人 而其利澤及人 則有仁之功矣	14-17-2 子曰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공(桓公)이 제후(諸侯)들을 규합하는데, 전차(戰車)를 쓰지 않고 한 것은 관중(管仲)의 힘이다. 그의 인자함만 하기란, 그의 인자함만 하기란 (쉽지 않다).
614	子貢意不死猶可 相之則已甚矣	14-18-1 子貢曰 管仲 非仁者與 桓公 殺公子糾 不能死 又相之	자공(子貢)이 관중(管仲)은 인자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환공(桓公)이 공자(公子) 규(糾)를 죽였는데, 규(糾)를 위해 죽지 못하고, 또 환공(桓公)의 재상 노릇을 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615	霸 與伯同 長也 匡 正也 尊周室 攘夷狄 皆所以正天下也 微 無也 衽 衣衿也 被髮左衽 夷狄之俗也	14-18-2 子曰 管仲相桓公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 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管仲)이 환공(桓公)의 재상이 되어, 환공(桓公)은 제후를 거느려 천하(天下)를 통일하고, 바로잡아 놓아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입고 있다. 관중(管仲)이 없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살 뻔했다.
616	諒小信也 經綏也 莫之知 人不知也 後漢書引此文 莫字上 有人字○ 程子曰 桓公 兄也 子糾 弟也 仲私於所事 輔之以爭國 非義也 桓公殺之雖過 而糾之死實當 仲始與之同謀 遂與之同死可也 知輔之爭爲不義 將自免以圖後功 亦可也 故 聖人不責其死而稱其功 若使桓弟而糾兄 管仲所輔者正 桓奪其國而殺之 則管仲之與桓 不可同世之讐也 若計其後功而與其事桓 聖人之言 無乃害義之甚 啓萬世反復不忠之亂乎 如唐之王珪魏徵不死建成之難 而從太宗 可謂害於義矣 後雖有功 何足贖哉 愚謂管仲 有功而無罪 故 聖人獨稱其功 王魏 先有罪以後有功 則不以相掩 可也	14-18-3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	어찌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자자한 신의(信義)를 지키는 것과 같겠느냐? 개천에서 제 손으로 목매어 죽어도 알아줄 사람은 없다.
617	臣家臣 公公朝 謂薦之與己同進 爲公朝之臣也	14-19-1 公叔文子之臣大夫僕 與文子 同升諸公	공숙문자(公叔文子)의 가신(家臣)이었던 대부(大夫) 선(僕)은 문자(文子)와 함께 위공(衛公)의 조정에 나가 벼슬을 살았다.
618	文者 順理而成章之謂 諡法 亦有所謂錫民爵位日文者○ 洪氏曰 家臣之賤而引之 使與己竝 有三善焉 知人 一也 忘己 二也 事君 三也	14-19-2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시호(諡號)를) 문(文)이라고 할 만하다.

619	喪 失位也	14-20-1 子言衛靈公之無道也 康子曰 夫如是 奚而不喪	선생님께서 위 영공(靈公)의 무도(無道)함을 말씀하시자, 계강자(季康子)가, 대체 그러하면서 왜 국군(國君)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나요?하고 말했다.
620	仲叔圉 則孔文子也 三人 皆衛臣 雖未必賢 而其才可用 靈公用之 又各當其才○ 尹氏曰 衛靈公之無道 宜喪也 而能用此三人 猶足以保其國 而況有道之君 能用天下之賢才者乎 時曰 無競維人 四方其訓之	14-20-2 孔子曰 仲叔圉 治賓客 祝駝治宗廟 王孫賈 治軍旅 夫如是 奚其喪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숙어(仲叔圉)가 빈객(賓客)을 맡아보고, 축타(祝駝)가 종묘 일을 맡아보고, 왕손가(王孫賈)가 군대를 맡아봅니다. 이 같이 하는데 왜 국군(國君)의 자리를 잃겠습니까?
621	大言不慙 則無必爲之志 而自不度其能否矣 欲踐其言 豈不難哉	14-21-1 子曰 其言之不作 則爲之也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앞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힘이 든다.
622	成子 齊大夫 名恒 簡公 齊君 名壬 事在春秋哀公十四年	14-22-1 陳成子弑簡公	진성자(陳成子)가 제(齊) 나라의 간공(簡公)을 살해하였다.
623	是時 孔子致仕居魯 沐浴齊戒以告君 重其事而不敢忽也 臣弑其君 人倫之大變 天理所不容 人人得而誅之 況隣國乎 故 夫子雖已告老 而猶請哀公討之	14-22-2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 曰陳恒弑其君 請討之	공자께서는 목욕을 하시고 조정에 나가셔서 애공(哀公)께, 진항(陳恒)이 그의 임금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를 토벌(討伐)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624	三子三家也 時政在三家哀公不得自專 故使孔子告之	14-22-3 公曰 告夫三子	공(公)이, 그것을 삼자(三子)에게 말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625	孔子出而自言如此 意謂弑君之賊法所必討 大夫謀國義所當告 君乃不能自命三子而使我告之邪	14-22-4 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 君曰告夫三子者	공자께서, 대부(大夫)의 말석(末席)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626	以君命往告 而三子 魯之強臣 素有無君之心 實與陳氏聲勢相倚 故沮其謀而夫子復以此應之 其所以警之者甚矣 ○ 程子曰 左氏記孔子之言曰 陳恒弑其君 民之不予者半 以魯之衆 加齊之半 可克也 此非孔子之言 誠若此言 是以力 不以義也 若孔子之志必將正名其罪 上告天子 下告方伯 而率與國以討之 至於所以勝齊者 孔子之餘事也 豈計魯人之衆寡哉 當是時 天下之亂 極矣 因是足以正之 周室其復興乎 魯之君臣終不從之 可勝惜哉 胡氏曰春秋之法弑君之賊 人得而討之 仲尼此舉 先發後聞 可也	14-22-5 之三子告 不可 孔子曰 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	삼자(三子)에게 가서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자 공자께서, 제가 대부(大夫)의 말석(末席)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627	犯謂犯顏諫爭 ○ 范氏曰犯非子路之所難也 而以不欺爲難 故夫子告以先勿欺而後犯也	14-23-1 子路問事君 子曰 勿欺也 而犯之	자로(子路)가 임금 섬기는 데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만하지 말고 임금 앞에서 간쟁(諫諍)하여라.
628	君子循天理故日進乎高明 小人徇人欲故日究乎污下	14-24-1 子曰 君子上達 小人下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위로 올라가고, 소인은 밑으로 내려간다.

629	程子曰爲己欲得之於己也 爲人欲見知於人也 ○ 程子曰古之學者爲己其終至於成物 今之學者 爲人其從至於喪己 愚按聖賢論學者用心得失之際 其說多矣 然未有如此言之切而要者 於此明辨而日省之 則度乎其不昧於所從矣	14-25-1 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하였고,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때문에 한다.
630	蘧伯玉衛大夫 名瑗 孔子巨衛嘗主於其家 既而反魯 故伯玉使人來也	14-26-1 蘧伯玉 使人於孔子	거백옥(蘧伯玉)이 공자에게 사람을 보내와,
631	與之坐敬其主以及其使也 夫子指伯玉也 言其但欲寡過而猶未能 則其省身克己 常若不及之意可見矣 使者之言 猶自卑約 而其主之賢益彰 亦可謂深知君子之心而善於詞令者矣 故夫子再言使乎 以重美之 按莊周稱伯玉行年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 又曰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 蓋其進德之功 老而不倦 是以踐履篤實 光輝宣著 不惟使者知之 而夫子亦信之也	14-26-2 孔子與之坐而問焉曰 夫子何爲 對曰 夫子欲寡其過而未能也 使者出 子曰使乎使乎	공자에게서 그와 함께 앉으셔서, 선생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오? 하고 물으셨다.저의 선생께서는 자기의 허물을 덜게 하려 하시지만 진전이 없으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심부름 온 사람이 나가자 선생님께서, (훌륭한) 심부름꾼이다, (훌륭한) 심부름꾼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632	重出	14-27-1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직위(職位)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직무(職務)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다.
633	此 艮卦之象事也 曾子蓋嘗稱之 記者因上章之語而類記之也 ○ 范氏曰 物各止其所 而天下之理得矣 故君子所思不出其位 而君臣上下大小皆得其職也	14-28-1 曾子曰 君子思不出其位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벼슬자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634	恥者不敢盡之意 過者欲有餘之辭	14-29-1 子曰 君子恥其言而過其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실행하는 것보다 지나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635	自責以勉人也	14-30-1 子曰 君子道者三 我無能焉 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의 도(道)는 셋인데,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인자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에 빠지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636	道言也 自道猶云謙辭 ○ 尹氏曰 成德以仁爲先 進學以知爲先 故夫子之言其序有不同者以此	14-30-2 子貢曰 夫子自道也	자공(子貢)이, 선생님께서 자겸(自謙)하신 말씀이시다.라고 말했다.
637	方比也 乎哉疑辭 比方人物而較其短長 雖亦窮理之事 然專務爲此則心馳於外 而所以自治者疎矣 故褒之而疑其辭 復自貶以深抑之 ○ 謝氏曰 聖人責人 辭不迫切而意已獨至如此	14-31-1 子貢方人 子曰 賜也 賢乎哉 夫我則不暇	자공(子貢)이 남을 비교 논평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賜)는 (나보다) 나은가 보다. 대체로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여가가 없었다.
638	凡章 指同而文不異者 一言而重出也 文小異者 屢言而各出也 此章凡四見而文皆有異 則聖人於此一事蓋屢言之 其丁寧之意亦可見矣	14-32-1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게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근심할 것이다.

639	逆未至而迎之也 億未見而意之也 詐謂人欺己 不信謂人疑己 抑反語辭 言雖不逆不億 而於人之情僞 自然先覺乃爲賢也 ○ 楊氏曰 君子一於誠而已 然未有誠而不明者 故雖不逆詐 不億不信 而常先覺也 若夫不逆不億而卒爲小人所罔焉 斯亦不足觀也已	14-33-1 子曰 不逆詐 不億不信 抑亦先覺者 是賢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방지하지 않고, 신용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을 것이나, 그러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먼저 깨닫는 사람 편이 낫다.
640	微生姓 畝名也 畝名呼夫子而辭甚倨 蓋有齒德而隱者 栖栖依依也 爲佞言其務爲口給以悅人也	14-34-1 微生畝謂孔子曰 丘何爲是栖栖者與 無乃爲佞乎	미생무(微生畝)가 공자께, 구(丘)야, 무엇 하러 여기에 머물렀다 저기에 머물렀다 하는 거냐? 말재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냐?하고 말했다.
641	疾惡也 固執一而不通也 聖人之於達尊 禮恭而言直如此 其警之亦深矣	14-34-2 孔子曰 非敢爲罔也 疾固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감히 말재간 피우기 위해서는 아니옵고, 고집 피우는 것을 미워해서입니다.
642	驥善馬之名 德爲調良也 ○ 尹氏曰 驥雖有力其稱在德 人有才而無德則亦奚足尙哉	14-35-1 子曰 驥不稱其力 稱其德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리마(天里馬)는 그 힘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덕(德)을 일러주는 것이다.
643	或人所稱今見老子書 德謂恩惠也	14-36-1 或曰以德報怨何如	어떤 사람이, 덕(德)을 가지고 원수에게 대해 주라고 한 것은 어떻습니까?하고 말했다.
644	言於其所怨 既以德報之矣 則人之有德於我者 又將何以報之乎	14-36-2 子曰 何以報德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가지고 덕(德)에 대해 줄 것인가?
645	於其所怨者 愛憎取舍 一以至公而無私 所謂直也 於其所德者 則必以德報之 不可忘也 ○ 或人之言 可謂厚矣 然 以聖人之言觀之 則見其出於有意之私 而怨德之報皆不得其平也 必如夫子之言然後 二者之報各得其所 然怨有不讐而德無不報 則又未嘗不厚也 此章之言 明白簡約 而其指意曲折反復 如造化之簡易易知而微妙無窮 學者所宜詳玩也	14-36-3 以直報怨 以德報德	곧은 것을 가지고 원수에게 대해주고, 덕(德)을 가지고 덕(德)에 대해 주라.
646	夫子自歎以發子貢之問也	14-37-1 子曰 莫我知也夫	선생님께서 나를 아는 사람은 없구나.하고 말씀하셨다.
647	不得於天而不怨天不合於人而不尤人 但知下學而自然上達 此但自言其反己自修 循序漸進耳 無以甚異於人而致其知也 然深味其語意則見其中自有人不及知而天獨知之之妙 蓋在孔門唯子貢之智幾足以及此 故特語以發之 惜乎 其猶有所未達也 ○ 程子曰 不怨天 不尤人在理當如此 又曰下學上達意在言表 又曰學者須守下學上達之語 乃學之要 蓋凡下學人事便是上達天理 然習而不察則亦不能以上達矣	14-37-2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자공(子貢)이, 무엇 때문에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배워서 위로 통달하거나와, (이러한) 나를 아는 것은 하늘일 것이다.

648	公伯寮魯人 子服氏 景諡 伯字 魯大夫子服何也 夫子指季孫 言其有疑於寮之言也 肆陳尸也 言欲誅寮	14-38-1 公伯寮愬 子路於季孫 子服景伯 以告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 猶能肆諸市朝	공백료(公伯寮)가 계손씨(季孫氏)에게 자로(子路)를 참소(讒訴)했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그 일을 선생님께 보고하고, 그 분(季孫氏)은 틀림없이 (公伯寮의 말로) 마음이 동요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제 힘은 그래도 (요(寮)를 죽여서) 그 시체를 저자에 내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649	謝氏曰 雖寮之愬行亦命也 其實寮無如之何 愚謂言此以曉景伯 安子路而警伯寮耳 聖人於利害之際 則不待決於命而後泰然也	14-38-2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 其如命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도(正道)가 행하여지려는 것도 운명이고, 정도(正道)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운명인데, 공백료(公伯寮)가 운명을 어찌겠소!
650	天下無道而隱 若伯夷太公是也	14-39-1 子曰 賢者辟世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피하고,
651	去亂國 適治邦	14-39-2 其次辟地	그 다음은 땅을 피하고,
652	禮貌衰而去	14-39-3 其次辟色	그 다음은 안색(顔色)을 피하고,
653	有違言而後去也 ○ 程子曰 四者雖以大小次第言之 然非有優劣也 所遇不同耳	14-39-4 其次辟言	그 다음은 말을 피한다.
654	季氏曰 作起也 言起而隱去者今七人矣 不可知其誰何 必求其人以實之則鑿矣	14-40-1 子曰 作者七人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해낸 인물은 일곱 사람이다.
655	石門地名 晨門掌晨啓門 蓋賢人隱於抱關者也 自從也 問其何所從來也 胡氏曰 晨門知世之不可而不爲 故以是譏孔子 然不知聖人之視天下無不可爲之時也	14-41-1 子路宿於石門 晨門曰奚自 子路曰自孔氏 曰是知其不可而爲之者 與	자로(子路)가 석문(石門)에서 묵었다. 문지기(晨門)가 어디에서 오시는 거요?하고 말했다. 자로(子路)가, 공씨(孔氏) 댁에서 오는 겁니다. 하고 말하자, 그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는 말이지요? 하고 말했다.
656	磬樂器 荷擔也 蕢草器也 此荷蕢者亦隱士也 聖人之心未嘗忘天下 此人聞其磬聲而知之則亦非常人矣	14-42-1 子擊磬於衛 有荷蕢而過孔氏之門者 曰有心哉 擊磬乎	선생님께서 위(衛) 나라에 계실 적에 경(磬)을 치셨는데, 어떤 삼태기를 지고 공씨(孔氏)의 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이 있는 게로구나. 그 경치는 소리는. 하고 말하고,
657	硤硤石聲 亦專確之意 以衣涉水曰厲 攝衣涉水曰揭 此兩句衛風匏有苦葉之詩也 譏孔子人不知己而不止不能適淺深之宜	14-42-2 既而曰鄙哉 硤硤乎 莫己知也 斯已而矣 深則厲 淺則揭	그 소리가 끝나자 그는, 야비하다, 그 땡 땡 하는 소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으로 그쳐버릴 따름이다. 깊으면 가슴까지 벗고 건너가고, 얕으면 옷을 걷어올리고 건너간다.
658	果哉嘆其果於忘世也 未無也 聖人心同天地 視天下猶一家 中國猶一人 不能一日忘也 故聞荷刳之言 而嘆其果於忘世 且言人之出處若但如此 則亦無所難矣	14-42-3 子曰 果哉 未之難矣	선생님께서, 과감하구나. (그렇게 산다면야) 어려울 게 없겠다고 말씀하셨다.
659	高宗商王武丁也 諒陰天子居喪之名 未詳其義	14-43-1 子張曰 書云 高宗諒陰三年 不言 何謂也	자장(子張)이, 《서경(書經)》에 고종(高宗)이 여막(廬幕)에 있을 때 3 년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엿사운데,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660	言君薨則諸侯亦然 總己謂總攝己職 冢宰大宰也 百官聽於冢宰 故君得以三年不言也 ○ 胡氏曰 位有貴賤而生於父母 無以異者 故三年之喪自天子達 子張非疑此也 殆以爲人君三年不言則臣下無所稟令 禍亂或由以起也 孔子告以聽於冢宰則禍亂非所憂矣	14-43-2 子曰 何必高宗 古之人 皆然 君薨 百官 總己 以聽於冢宰三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필 고종(高宗)만이 그러했겠느냐?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러했다.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관원들은 자기의 직책을 말아보고 삼년 동안 몽재(冢宰)의 지휘에 따랐던 것이다.
661	謝氏曰 禮達而分定 故民易使	14-44-1 子曰 上好禮則民易使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국민들은 부리기 쉽게 된다.
662	修己以敬 夫子之言 至矣盡矣 而子路少之 故再以其充積之盛 自然及物者告之 無他道也 人者對己而言 百姓則盡乎人矣 堯舜猶病 言不可以有加如此 以抑子路 使反求諸近也 蓋聖人之心無窮 世雖極治 然豈能必知四海之內果無一物不得其所哉 故堯舜猶以安百姓爲病 若曰吾治己足 則非所以爲聖人矣 ○ 程子曰 君子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唯上一於恭敬 則天地自位 萬物自育 氣無不和而四靈畢至矣 此體信達順之道 聰明睿知皆由是出 以此事天饗帝	14-45-1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已乎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 其猶病諸	자로(子路)가 군자(君子)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수양(修養)을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할 따름입니까? 자기 수양(修養)을 해서 그 힘으로 남을 편안하게 하여 주느니라. 그러할 따름입니까? 자기 수양(修養)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느니라. 자기 수양(修養)을 해서 그 힘으로 백성들은 편안하게 하여 주는 일은 요(堯) 임금이나 순(舜) 임금도 힘들었던 것이다.
663	原壤孔子之故人 母死而歌 蓋老氏之流 自放於禮法之外者 夷蹲踞也 俟待也 言見孔子來而蹲踞以待之也 述猶稱也 賊者害人之名 以其自幼至老 無一善狀而久生於世 徒足以敗常亂俗 則是賊而已矣 脛足骨也 孔子既責之 而因以所曳之杖 微擊其脛 若使物蹲踞然	14-46-1 原壤 夷俟 子曰 幼而不孫弟 長而無述焉 老而不死 是爲賊 以杖叩其脛	원양(原壤)이 꾸그리고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렸다. 선생님께서, 어려서 겸손하게 굴지 않고, 자라서는 일러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늙어가고 죽지 않으면 도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의 정강이를 두드리셨다.
664	闕黨黨名 童子未冠者之稱 將命謂傳賓主之言 或人疑此童子學有進益 故孔子使之傳命 以寵異之也	14-47-1 闕黨童子 將命 或問之曰 益者與	궐당(闕黨)의 동자(童子)가 손님 안내하는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이 그 동자(童子)에 관해서 여쭙어 보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였더니,
665	禮童子當隅坐隨行 孔子言吾見此童子 不循此禮 非能求益 但欲速成爾 故使之給使令之役 觀長少之序 習揖遜之容 蓋所以抑而教之 非寵而異之也	14-47-2 子曰 吾見其居於位也 見其與先生并行也 非求益者也 欲速成者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가 어른들 자리에 끼어 앉고, 손위의 사람들과 나란히 걸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배우기를 바라는 녀석은 아니고, 속히 하나 구실을 해보기를 바라는 녀석이요.
666	15 衛靈公 第十五 凡四十一章	15 衛靈公 第十五	제 15 편. 위 영공(衛靈公) 41 장. ♣ 문구가 짧은 것이 특색이며 수신과 처세에 관한 구절이 많다. 위 영공편(衛靈公篇)은 모두 41 장(章).
667	陳 謂君師行伍之列 俎豆 禮器 尹氏曰 衛靈公 無道之君也 復有志於戰伐之事 故 答以未學而去之	15-01-1 衛靈公 問陳於孔子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위(衛) 영공(靈公)이 공자에게 전진에 관한 일을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조두(俎豆)를 다루는 일은 들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군대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길을 떠나셨다.

		明日遂行	
668	孔子去衛適陳 興 起也	15-01-2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	진(陳) 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수종(隨從)하던 사람들은 병들어 일어서지를 못했다.
669	何氏曰 濫 溢也 言君子固有窮時 不若小人窮則放濫爲非 程子曰 固窮者 固守其窮 亦通 ○ 愚按 聖人 當行而行 無所顧慮 處因而享 無所怨悔 於此可見 學者宜深味之	15-01-3 子路瑤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	자로(子路)가 성이 나서 선생님을 뵈옵고, 군자(君子)도 곤궁(困窮)할 때가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곤궁(困窮)에 굳게 견디어 나가지만, 소인(小人)은 곤궁(困窮)해지면 마구 군다.
670	子貢之學 多而能識矣 夫子欲其知所本也 故 問以發之	15-02-1 子曰 賜也 女以予 爲多學而識之者與	선생님께서,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 가지고 그것들은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671	方信而忽疑 蓋其積學功至而亦將有得也	15-02-2 對曰 然 非與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72	說見第四篇 然 彼以行言 而此以知言也 ○ 謝氏曰 聖人之道大矣 人不能遍觀而盡識 宜其以爲多學而識之也 然 聖人豈務博者哉 如天之於衆形 匪物物刻而雕之也 故 曰予一以貫之 德輶如毛 毛猶有倫 上天之載無聲無臭 至矣 尹氏曰 孔子之於曾子 不待其問而直告之以此 曾子復深喻之曰唯 若子貢則先發其疑而後告之 而子貢終亦不能如曾子之唯也 二子所學之淺深 於此可見 愚按 夫子之於子貢 屢有以發之 而他人不與焉 則顏會以下諸子所學之淺深 又可見矣	15-02-3 曰非也 予一以貫之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로써 관철하고 있다.
673	由 呼子路之名而告之也 德 謂義理之得於己者 非己有之 不能知其意味之實也 ○ 自第一章 至此 疑皆一時之言 此章 蓋爲은見發也	15-03-1 子曰 由知德者 鮮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由)야, 덕(德)을 이해하는 사람은 적구나.
674	無爲而治者 聖人德盛而民化 不待其有所作爲也 獨稱舜者 紹堯之後 而又得人以任衆職 故 尤不見其有爲之迹也 恭己者 聖人敬德之容 既無所爲 則人之所見 如此而已	15-04-1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소 하는 일이 없이 천하를 다스린 사람은 순(舜) 임금이었을 게다. 대체 무엇을 몸소 하였겠는가? 자기 몸을 공손하게 가지고 남면(南面)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는데.
675	猶問達之意也	15-05-1 子張問行	자장(子張)이 사람들 사이에 통할 수 있게 되는 데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676	子張意在得行於外 故 夫子反於身而言之 猶答干祿問達之意也 篤 厚也 蠻 南蠻 貊 北狄 二千五百家爲州	15-05-2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 行乎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 성실하면 신용이 있고, 행동이 진지하고 조심스러우면 미개민족들의 나라에서라 할지라도 통하게 될 것이다. 말이 성실하지 않으면 신용이 없고, 행동이 진지하지 않고 조심스럽지 않다면 제

			고장에서라 한들 통하게 되겠는가?
677	其者 指忠信篤敬而言 參 讀如母往參焉之參 言與我相參也 衡 軛也 言其於忠信篤敬 念念不忘 隨其所在 常若有見 雖欲頃刻離之 而不可得然後 一言一行 自然不離於忠信篤敬 而蠻貊可行也	15-05-3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	서 있을 때는 이 말이 네 앞에 늘어서 있음을 보고, 수레 안에 있을 적에는 이 말이 멍에 채에 기대어 있음을 보라. 그렇게 된 후에야 통하게 될 것이다.
678	紳 大帶之垂者 書之 欲其不忘也 ○ 程子曰 學要鞭辟近裏著己而已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言忠信 行篤敬 立則見其參於前 在輿則見其倚於衡 卽此是學 質美者 明得盡 查滓便渾化 却與天地同體 其次 惟莊敬以持養之 及其至則一也	15-05-4 子張書諸紳	자장(子張)은 이 말씀을 띠 자락에다 썼다.
679	史官名 魚衛大夫 名鱄 如矢 言直也 史魚自以不能進現退不肖 既死 猶以尸諫 故 夫子稱其直 事見家語	15-06-1 子曰 直哉 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도다, 사어(史魚)는.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져도 살대 같이 곧았고,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살대 같이 곧았으니.
680	伯玉出處合於聖人之道 故 曰君子 卷收也 懷 藏也 如於孫林父甯殖弑之謀 不對而出 亦其事也 ○ 楊氏曰 史魚之直 未盡君子之道 若伯玉然後 可免於亂世 若史魚之如矢 則雖欲卷而悔之 有不可得也	15-06-2 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군자(君子)로다, 백거옥(伯蘧玉)은.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면 벼슬살이를 하고, 나라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거두어 감추어둘 수 있으니.
681	#	15-07-1 子曰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不失人 亦不失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말할 만한 사람인 데도 그와 함께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다. 함께 말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와 함께 말하는 것은 말을 잃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고 또 말도 잃지 않는다.
682	志士 有志之士 仁人 則成德之人也 理當死而求生 則於其心 有不安矣 是害其心之德也 當死而死 則心安而德全也 ○ 程子曰 實理 得之於心自別 實理者 實見得是 實見得非也 古人有損軀隕命者 若不實見得 惡能如此 須是實見得生不重於義 生不安於死也 故 有殺身而成仁者 只是成就一箇是而已	15-08-1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而害人 有殺身而成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은 살기를 바라서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 가지고 인(仁)을 이룩하는 일은 있다.
683	現以事言 仁以德言 夫子 嘗謂子貢悅不若己者 故 以是告之 欲其有所嚴憚切磋 以成其德也 ○ 程子曰 子貢問爲仁 非問仁也 故 孔子告之以爲仁之資而已	15-09-1 子貢問爲仁 子曰 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 居是邦也 事其大夫賢者 友其士之仁者	자공(子貢)이 인(仁)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인(工人)이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먼저 그 연장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 한 나라에 사는 데는 그 나라의 대부 중의 현량한 사람을 섬기고, 그 나라의 사중의 인자한 사람을 벗으로 삼아라.
684	顏子 王佐之才 故 問治天下之道 曰爲邦者 謙辭	15-10-1 顏淵問爲邦	안연(顏淵)이 나라 다스리는 일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685	夏時 謂以斗柄 初昏建寅之月 爲歲首也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故 斗柄建此三辰之月 皆可以爲歲首 而三代迭用之 夏以寅 爲人正 商以丑 爲地正 周以子 爲天正也 然 時以作事 則歲月 自當以人爲紀 故 孔子嘗曰 吾得夏時焉 而說者以爲夏小正之屬 蓋取其時之正與其令之善 而於此 又以告顏子也	15-10-2 子曰 行夏之時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夏) 나라의 역법(曆法)을 쓰고,
686	商輅 木輅也 輅者 大車之名 古者 以木爲車而已 至商而有輅之名 蓋始異其制也 周人 飾以金玉 則過侈而易敗 不若商輅之朴素渾堅而等威已辨 爲質而得其中也	15-10-3 乘殷之輅	은(殷) 나라의 큰 수레를 타고,
687	周冕有五 祭服之冠也 冠上有覆 前後有旒 黃帝以來 蓋已有之 而制度儀等 至周始備 然 其爲物小而加於衆體之上 故 雖華而不爲靡 雖費而不及奢 夫子取之 蓋亦以爲文而得其中也	15-10-4 服周之冕	주(周) 나라의 관면(冠冕)을 착용할 것이며,
688	取其盡善盡美	15-10-5 樂則韶舞	음악은 소무(韶舞)로 할 것이다.
689	放 謂禁切之 鄭聲 鄭國之音 佞人卑諂辯給之人 殆危也 ○ 程子曰 問政 多矣 惟顏淵告之以此 蓋三代之制 皆因時損益 及其久也 不能無弊 周衰 聖人不作 故 孔子斟酌先王之禮 立萬世常行之道 發此以爲之兆耳 由是求之 則餘皆可考也 張子曰 禮樂 治之法也 放鄭聲 遠佞人 法外意也 一日不謹 則法壞矣 虞夏君臣 更相戒飭 意蓋如此 又曰 法立而能守 則德可久 業可大 鄭聲佞人 能使人喪其所守 故 放遠之 尹氏曰 此所謂百王不易之大法 孔子之作春秋 蓋此意也 孔顏 雖不得行之於時 然 其爲治之法 可得而見矣	15-10-6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정(鄭) 나라의 음악을 금지하고, 말 잘 둘러대는 사람을 멀리 할 것이다. 정(鄭) 나라의 음악은 음탕하고, 말 잘 둘러대는 사람은 위험하다.
690	蘇氏曰 人之所履者 容足之外 皆爲無用之地 而不可廢也 故 慮不在千里之外 則患在几席之下矣	15-11-1 子曰 人無遠慮 必有近憂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우환이 생긴다.
691	已矣乎 歎其終不得而見之也	15-12-1 子曰 已矣乎 吾未見好德 如好色者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되었나보다. 나는 여태껏 덕(德) 좋아하기를 여색(女色) 좋아하듯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니.
692	竊位 言不稱其位而有愧於心 如盜得而陰據之也 柳下惠 魯大夫展獲 字禽 食邑柳下 諡曰惠 與立 謂與之竝立於朝 范氏曰 臧文仲 爲政於魯 若不知賢 是不明也 知而不舉 是蔽賢也 不明之罪小 蔽賢之罪大 故 孔子以爲不仁 又以爲竊位	15-13-1 子曰 臧文仲 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 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중(臧文仲)은 벼슬자리를 훔친 사람이라고나 할까. 유하혜(柳下惠)가 현명함을 알면서도 함께 조정에 서지 아니하였으니.
693	責己厚故 身益修 責人薄故 人易從 所以人不得而怨之	15-14-1 子曰 躬自厚而薄責於人 則遠怨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많이 책하고 남을 적게 책하면 원한을 사는 일을 멀리 할 것이다.

694	如之何如之何者 熟思而審處之辭也 不如是而妄行 雖聖人 亦無如之何矣	15-15-1 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未如之何也已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봐줄 길이 없다.
695	小慧 私智也 言不及義 則放辟奢侈之心滋 好行小慧 則行險僥倖之機熟 難矣哉者 言其無以入德而將有患害也	15-16-1 子曰 群居終日 言不及義 好行小慧難矣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일토록 여럿이 모여 가지고 하는 말이 의(義)에는 언급되지 않고 잔 지혜를 피우기 좋아한다면 (올바른 사람되기는) 어렵다.
696	義者 制事之本 故 以爲質幹 而行之必有節文 出之必以退遜 成之必在誠實 乃君子之道也 ○ 程子曰 義以爲質 如質幹然 禮行此 遜出此 信成此 此四句 只是一事 以義爲本 又曰 敬以直內 則義以方外 義以爲質 則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15-17-1 子曰 君子 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의(義)를 바탕으로 삼고, 예(禮)에 따라서 그것(義)을 행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남 앞에 내놓고, 신용을 가지고 그것을 성사시킨다. 그래야 군자(君子)인 것이다.
697	#	15-18-1 子曰 君子病無能焉 不病人之不己知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자기가 재능이 없는 것을 고민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고민하지는 않는다.
698	范氏曰 君子學以爲己 不求人知 然 沒世而名不稱焉 則無爲善之實 可知矣	15-19-1 子曰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죽은 후에도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고민한다.
699	謝氏曰 君子無不反求諸己 小人反是 此君子小人所以分也 ○ 楊氏曰 君子雖不病人之不己知 然 亦疾沒世而名不稱也 雖疾沒世而名不稱 然 所以求者 亦反諸己而已 小人求諸人 故 違道干譽 無所不至 三者 文不相蒙 而意實相足 亦記言者之意	15-20-1 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小人)은 남에게 추궁한다.
700	莊以持己曰矜 然 無乖戾之心故 不爭 和以處衆曰群 然 無阿比之意故 不黨	15-21-1 子曰 君子矜而不爭 群而不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긍지(矜持)를 가지나 다투지는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는 하나 편당적(偏黨的)으로 굴지는 않는다.
701	#	15-22-1 子曰 君子 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말(言)을 가지고는 사람을 천거하지 않고, 사람을 가지고는 말을 없애지 않는다.
702	推己及物 其施不窮 故 可以終身行之 ○ 尹氏曰 學貴於知要 子貢之問 可謂知要矣 孔子告以求仁之方也 推而極之 雖聖人之無我 不出乎此 終身行之 不亦宜乎	15-23-1 子貢 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 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공(子貢)이, 한 마디로 평생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恕)일게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703	毀者 稱人之惡而損其眞 譽者 揚人之善而過其實 夫子無是也 然 或有所譽者 則必嘗有以試之 而知其將然矣 聖人善善之速 而無所苟如此 若其惡惡 則已緩矣 以是 雖有以前知其惡 而終無所毀也	15-24-1 子曰 吾之於人也 誰毀誰譽 如有所譽者 其有所試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을 말할 때 누구를 훼방하고 누구를 칭찬하더냐? 칭찬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험한 바가 있어서이다.

704	斯民者 今此之人也 三代 夏商周也 直道 無私曲也 言吾之所以無所毀譽者 蓋以此民 卽三代之時 所以善其善 惡其惡 而無所私曲之民 故 我今亦不得而枉其是非之實也 ○ 尹氏曰 孔子之於人也 豈有意於毀譽之哉 其所以譽之者 蓋試而知其美故也 斯民也 三代所以直道而行 豈得容私於其間哉	15-24-2 斯民也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	지금의 백성들은 삼대(三代)에 곧은길을 따라 걸어온 사람들이다.
705	楊氏曰 史闕文 馬借人此二事 孔子猶及見之 今亡矣夫 悼時之益偷也 愚謂 此必有爲而言 蓋雖細故 而時變之大者 可知矣 ○ 胡氏曰 此章義疑 不可強解	15-25-1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 有馬者 借人乘之 今亡矣夫	공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관의 결문을 대하는 태도는, 말을 가진 이가 말을 남에게 빌려주어 타게 하는 것과 같은데, 지금은 그런 풍속이 없어졌구나. 고 하셨다.
706	巧言 變亂是非 聽之 使人喪其所守 小不忍 如婦人之仁 匹夫之勇 皆是	15-26-1 子曰 巧言亂德 小不忍則亂大謀	악빠른 말은 덕(德)에 혼란을 가져오고, 작은 것을 참지 않으면 큰 계획에 혼란을 가져온다.
707	楊氏曰 惟仁者 能好惡人 衆好惡之而不察 則或蔽於私矣	15-27-1 子曰 衆惡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것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708	弘 廓而大之也 人外無道 道外無人 然 人心有覺 而道體無爲 故 人能大其道 道不能大其人也 ○ 張子曰 心能盡性 人能弘道也 性不知檢其心 非道弘人也	15-28-1 子曰 人能弘道 非道弘人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道)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道)가 사람을 넓혀 주는 것은 아니다.
709	過而能改 則復於無過 唯不改 則其過遂成 而將不及改矣	15-29-1 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오(過誤)를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를 과오(過誤)라 하겠다.
710	此 爲思而不學者言之 蓋勞心二必求 不如遜志而自得也 李氏曰 夫子 非思而不學者 特垂語以教人爾	15-30-1 子曰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以思 無益 不如學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종일 먹지 않고 밤새 자지 않으면서 생각한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쓸데없었고 배우느니만 못했다.
711	耕所以謀食 而未必得食 學所以謀道 而祿在其中 然 其學也 憂不得乎道而已 非爲憂貧之故 而欲爲是以得祿也 ○ 尹氏曰 君子 治其本而不恤其末 豈以自外至者 爲憂樂哉	15-31-1 子曰 君子謀道 不謀食 耕也 餒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不憂貧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도(道)를 위해서 일을 계획하지, 먹는 것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농경(農耕)에는 그 가운데 굶주림이 있을 것이나, 학문은 그 가운데 녹(祿)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군자(君子)는 도(道)를 위해 근심하지 가난을 근심하지는 않는다.
712	知足以知此理 而私欲間之 則無二有之於身矣	15-32-1 子曰 知及之 仁不能守之 雖得之 必失之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력(智力)이 그것에 미쳐도 인자함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비록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713	泣 臨也 謂臨民也 知此理而無私欲以間之 則所知者在我而不失矣 然 猶有不莊者 蓋氣習之偏 或有厚於內而不嚴於外者 是以 民不見其可畏而慢易之	15-32-2 知及之 仁能守之 不莊以泣之則民不敬	지력(智力)이 그것에 미치고 인자함이 그것을 지켜 내어도, 장중(莊重)한 태도로 그것에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는다.

714	動之 動民也 猶曰鼓舞而作興之云爾 禮 謂義理之節文 ○ 愚謂 學至於仁 則善有諸己而大本立矣 泣之不莊 動之不以禮 乃氣其稟學問之小疵 然 亦非盡善之道也 故 夫子歷言之 使知德愈全則責愈備 不可以爲小節而忽之也	15-32-3 知及之 仁能守之 莊以泣之 動之不以禮 未善也	지력(智力)이 그것에 미치고, 인자함이 그것을 지켜내고, 장중(莊重)한 태도로 그것에 임해도 그것을 다루는데 예(禮)로써 하지 않는다면 잘 된 것은 못된다.
715	此 言觀人之法 知 我知之也 受 彼所受也 蓋君子於細事 未必可觀 而材德足以任重 小人 雖器量淺狹 而未必無一長可取	15-33-1 子曰 君子 不可小知而可大受也 小人不可大受而可小知 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에게는 잔 지혜를 기대할 수 없으나, 큰 일을 맡을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 소인(小人)에게는 큰 일을 맡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나 잔 지혜를 기대할 수는 있다.
716	民之於水火 所賴以生 不可一日無 其於仁也亦然 但水火外物 而仁在己 無水火 不過害人之身 而不仁則失其心 是 仁有甚於水火 而尤不可一日無者也 況水火 或有時而殺人 仁則未嘗殺人 亦何憚而不爲哉 李氏曰 此夫子勉人爲仁之語 下章放此	15-34-1 子曰 民之於仁也 甚於水火 水火 吾見蹈而死者矣 未見蹈仁而死者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인(仁)이 물과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는 물과 불을 밟고 죽는 사람은 보았으나, 여태껏 인(仁)을 밟고 죽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
717	當仁 以仁爲己任也 雖師 亦無所遜 言當勇往而必爲也 蓋仁者 人所自有而自爲之 非有爭也 何遜之有 ○ 程子曰 爲仁在己 無所與遜 若善名在外 則不可不遜	15-35-1 子曰 當仁 不讓於師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仁)을 실천하는 마당에서는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않는다.
718	貞 正而固也 諒 則不擇是非而必於信	15-36-1 子曰 君子定而不諒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곧기는 하나 덮어놓고 미쁘게 굴지는 않는다.
719	後 與後獲之後同 食 祿也 君子之仕也 有官守者 修其職 有言責者 盡其忠 皆以敬吾之事而已 不可先有求祿之心也	15-37-1 子曰 事君敬其事而後其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는 자기가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고 녹(祿) 먹는 일은 둘째 문제로 한다.
720	人性皆善 而其類有善惡之殊者 氣習之染郇 故 君子有教 則人皆可以復於善 而不當復論其類之惡矣	15-38-1 子曰 有教無類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데는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의 구별이 없다.
721	不同 如善惡邪正之類	15-39-1 子曰 道不同不相爲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향하는 도(道)가 다르면 같이 일을 계획하지 않을 것이다.
722	辭取達意而上 不以富麗爲工	15-40-1 子曰 辭達而已矣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장이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723	師樂師 瞽者 冕名 再言某在斯 歷舉在坐之人以詔之	15-41-1 師冕見 及階 子曰 階也 及席 子曰 席也 皆坐 子告之曰 某在斯 某在斯	악사(樂師) 면(冕)이 만나 뵈러 왔다. 그가 층계까지 오자, 선생님께서는, 층계요. 하고 말씀하시고, 자리까지 오자, 선생님께서, 자리요. 하고 말씀하시고, 다들 앉자, 선생님께서 그에게, 누구는 여기 있고, 누구는 여기 있소. 하고 알려주셨다.
724	聖門學者於夫子之一言一動 無不存心省察 如此	15-41-2 師冕出 子張問曰 與師言之道與	악사(樂士) 면(冕)이 나가자, 자장이, 그것이 악사(樂士)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다.

725	相助也 古者 瞽必有相 其道如此 蓋聖人於此 非作意而爲之 但盡其道而已 ○ 尹氏曰 聖人處己爲人 其心一致 無不盡其誠故也 有志於學者求聖人之心 於斯亦可見矣 范氏曰 聖人 不侮鰥寡 不虐無告 可見於此 推之天下 無一物不得其所矣	15-41-3 子曰 然固相師之道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다른 아닌 악사(樂士)를 도와주는 방법이다.
726	16 季氏 第十六 洪氏曰 此篇 或以爲齊論 凡十四章	16 季氏 第十六	제 16 편. 계씨(季氏) 14 장. ♣ 이 편은 긴문장이 많으며, 말한 사람의 이름이 없으며 특히 자왈을 공자왈로 적어 놓았다. 계씨편(季氏篇)은 14 장(章).
727	顓臾 國名 魯附庸也	16-01-1 季氏將伐顓臾	계씨(季氏)가 전유(顓臾)를 정벌(征伐)하려고,
736	寡 謂民少 貧 謂財乏 均 謂各得其分 安 謂上下相安 季氏之欲取顓臾 患寡與貧耳 然 是時 季氏據國而魯君無民 則不均矣 君弱臣強 互生嫌隙 則不安矣 均則不患於貧而和 和則不患於寡而安 安則不相疑忌而無傾覆之患	16-01- 10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내가 듣건 대는, 나라나 가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수입이) 고르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불안한 것을 근심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수입이 고르면 가난함이 없을 것이고, 화평(和平)하면 백성이 적은 일이 없을 것이고, 안정하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737	內治修然後 遠人服 有不服 則修德以來之 亦不當勤兵於遠	16-01-11 夫如是故 遠人 不服則修文德以來之 既來之則安支	그렇기 때문에 먼 곳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화의 힘을 발휘하여서 그들을 따라오도록 하고, 그들을 따라오게 하였으면, 그들을 안정시켜주는 것이다.
738	子路雖不與謀 而素不能輔之以義 亦不得爲無罪 故 併責之 遠人 謂顓臾 分崩離析 謂四分公室 家臣屢叛	16-01-12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이제 유(由)하고 구(求)는 그 분을 도와주면서, 먼 곳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져 무너지고 흩어져 쪼개지는데, 지켜내지 못하고,
739	干 楯也 戈 戟也 蕭牆 屏也 言不均不和 內變將作 其後 哀公 果欲以越伐魯而去季氏 ○ 謝氏曰 當是時 三家強 公室弱 冉求又欲伐顓臾以附益之 夫子所以深罪之 爲其瘠魯以肥三家也 洪氏曰 二子仕於季氏 凡 季氏所欲爲 必以告於夫子 則因夫子之言而救止者宜亦多矣 伐顓臾之事 不見於經傳 其以夫子之言而止也與	16-01- 13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而在蕭牆之內 也	나라 안에서 군대를 움직여 싸울 준비를 하니, 내 생각으로는 아마도 계손(季孫)의 근심은, 전유(顓臾)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담장 안에 있는 성심다.
728	按左傳 史記 二子仕季氏不同時 此云爾者 疑子路嘗從孔子 自衛反魯 再仕季氏 不久而復之衛也	16-01-2 冉有季路 見於孔子曰 季氏將有使於顓臾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공자를 뵈고, 계씨(季氏)가 전유(顓臾)와 사단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729	冉求爲季氏聚斂 尤用事 故 夫子獨責之	16-01-3 孔子曰 求無乃爾是過與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求)야, 네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730	東蒙 山名 先王封禪與於此山之下 使主其祭 在魯地七百里之中 社稷 猶云公家 是時 四分魯國 季氏取其二 孟孫叔孫各有其一 獨附庸之國 尚爲公臣 季氏又欲取二自益 故 孔子言顓臾 乃先王封國 則不可伐 在邦域之中 則不必伐 是社稷之臣 則非季氏所當伐也 此 事理之至當 不易之定體 而一言盡其曲折 如此 非聖人 不能也	16-01-4 夫顓臾 昔者先王 以爲東蒙主 且在邦域之中矣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전유(顓臾)로 말하면, 옛날에 선왕(先王)이 그를 동몽산(東蒙山)의 제주(祭主)로 삼으셨고, 또 그의 봉지(封地)가 노(魯) 나라의 역내(域內)에 있다. 그러니 그는 사직지신(社稷之臣)이다. 그러니 그는 사직지신(社稷之臣)이다. 무슨 이유로 그를 정벌하려는 거냐?
731	夫子 指季孫 冉有實與謀 以夫子非之 故 歸咎於季氏	16-01-5 冉有曰夫子欲之 吾二臣者 皆不欲也	염유(冉有)가, 그 분이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지, 저희들 두 가신(家臣)은 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732	周任 古之良史 陳布也 列位也 相 瞽者之相也 言二子不欲 則當諫 諫而不聽 則當去也	16-01-6 孔子曰求周任 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顛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求)야, 주임(周任)이 한 말이 있거니와, 자기 힘을 발휘하게 되면 벼슬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만둔다고 하였다. 위험해졌는데도 잡아주지 않고 엎어지는데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도와주는 사람을 어디다 쓰겠느냐?
733	兕 野牛也 柙 檻也 積 匱也 言在柙而逸 在積而毀 典守者不得辭其過 明二子居其位而不去 則季氏之惡 已不得不任其責也	16-01-7 且爾言過矣 虎兕出於柙 龜玉毀於積中 是誰之過與	그리고 또 네 말은 잘못이다. 범이나 외뿔소가 우리에서 나오고, 귀갑(龜甲)이나 옥(玉)이 껍데기 안에서 깨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734	固 謂城郭完固 費 季氏之私邑 此則冉有之飾辭 然 亦可見其實與季氏之謀矣	16-01-8 冉有曰 今夫顓臾 固而近於費 今不取 後世必爲子孫憂	염유(冉有)가, 전유(顓臾)는 단단한 데다가, 비읍(費邑)에 가까이 있어서, 지금 빼앗아두지 않으면, 후세(後世)에 반드시 자손들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735	欲之 謂貪其利	16-01-9 孔子曰 求君子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求)야, 원한다고 말하기를 거부하면서도, 꼭 그 일을 말하려는 것을 군자(君子)는 미워한다.
740	先王之制 諸侯不得變禮樂 專征伐 陪臣 家臣也 逆理愈甚 則其失之愈速 大約世數不過如此	16-02-1 孔子曰 天下有道則禮樂征伐 自天子出 天下無道則禮樂征伐 自諸侯出 自諸侯出 蓋十世希不失矣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 陪臣執國命 三世希不失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天下)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면,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에 관한 명령은 천자(天子)로부터 나온다. 천하(天下)가 무도(無道)하면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에 관한 명령이 제후(諸侯)로부터 나온다. 제후(諸侯)로부터 나오면 대체로 십대(十代)토록 그 나라가 유지되는 일이 드물다. 대부(大夫)로부터 나오면 오대(五代)토록 그 권세(權勢)가 유지되는 일이 드물다. 가신(家臣)이 국권(國權)을 잡으면 삼대(三代)토록 그 권력이 유지되는 일이 드물다.
741	言不得專政	16-02-2 天下有道則政不在大夫	천하(天下)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면 정권(政權)이 대부(大夫)에 가 있지 않는다.

742	上無失政 則下無私議 非箝其口 使不敢言也 ○ 此章 通論天下之勢	16-02-3 天下有道則庶人不其	천하(天下)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면, 평민(平民)들이 국사(國事)를 의논하지 않는다.
743	魯自文公薨 公子遂殺子赤 立宣公 而君失其政 歷成襄昭定 凡五公 逮 及也 子季武子始專國政 歷悼平桓子 凡四世而爲家臣陽虎所執 三桓 三家皆桓公之後 此 以前章之說 推之而知其當然也 ○ 此章 專論魯事 疑與前章皆定公時語 蘇氏曰 禮樂征伐 自諸侯出 宜諸侯之強也 而魯以失政 政逮於大夫 宜大夫之強也 而三桓以微 何也 強生於安 安生於上下之分定 今諸侯大夫皆陵其上 則無以令其下矣 故 皆不久而失之也	16-03-1 孔子曰祿之去公室 五世矣 政逮於大夫 四世矣 故三桓之子孫微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록(爵祿)을 주는 권한이 공실(公室)에서 떨어져 나간 지 오대(五代)가 되었다. 정권(政權)이 대부(大夫)의 손에 들어간 지 사대(四代)가 되었다. 그래서 삼桓(三桓)의 자손들이 쇠미(衰微)해가는 것이다.
744	友直則聞其過 友諒則進於誠 友多聞則進於明 便習熟也 便辟 謂習於威儀而不直 善柔 謂工於媚悅而不諒 便佞 謂習於口語而無聞見之實 三者損益 正相反也 ○ 尹氏曰 自天子以至於庶人 未有不須友以成者 而其損益 有如是者 可不謹哉	16-04-1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友諒友多聞益矣 友便辟友善柔 友便佞損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벗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벗이 세 가지 있다. 곧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신용 있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건문(見聞)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다. 아첨하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부드럽게 굴기를 잘 하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말 잘 둘러대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롭다.
745	節 謂辨其制度聲容之節 驕樂則侈肆而不知節 佚遊則惰慢而惡聞善 宴樂則淫溺而狎小人 三者損益 亦相反也 ○ 尹氏曰 君子之於好樂 可不謹哉	16-05-1 孔子曰 益者三樂 損者三樂 樂節禮樂 樂道人之善 樂多賢友 益矣 樂驕樂 樂佚遊 樂宴樂 損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즐거움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세 가지 있다. 예악(禮樂)의 절도(節度)를 맞추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좋은 점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벗 많이 갖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교만하게 구는데서 오는 악(樂)을 즐거워하고, 절제 없이 소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고,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해롭다.
746	君子 有德位之通稱 愆 過也 瞽 無目 不能察言觀色 ○ 尹氏曰 時然後言 則無三者之過矣	16-06-1 孔子曰 侍於君子 有三愆 言未及之而言 謂之躁 言及之而不言 謂之隱 未見顏色而言 謂之瞽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를 모시고 있을 때에 저지르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자기한테 말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말하는 것은 바스대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한테 말이 돌아왔는데 말하지 않는 것은 숨기는 것이라고 한다. 얼굴빛을 알아보지 않고서 말하는 것은 눈치 없는 것이라고 한다.
747	血氣 形之所待以生者 血陰而氣陽也 得 貪得也 隨時知戒 以理勝之 則不爲血氣所使也 ○ 范氏曰 聖人同於人者 血氣也 異於人者 志氣也 血氣有時而衰 志氣則無時而衰也 少未定 壯而剛 老而衰者 血氣也 戒於色 戒於鬪 戒於得者 志氣也 君子 養其志氣 故 不爲血氣所動 是以 年彌高而德彌邵也	16-07-1 孔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에게는 경계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젊을 때 혈기(血氣)가 잡히지 않아서 경계할 것은 여색(女色)에 있다. 장년(壯年)이 되어서 혈기(血氣)가 왕성하여지면 경계할 것은 싸움에 있다. 늙게 되어 혈기가 쇠(衰)해버리면 경계할 것은 물욕(物慾)에 있다.

748	畏者 嚴憚之意也 天命者 天所賦之正理也 知其可畏 則其戒謹恐懼 自有不能已者 而付畀之重 可以不失矣 大人聖言 皆天命所當畏 知畏天命 則不得不畏之矣	16-08-1 孔子曰 君子 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큰 인물을 두려워하고, 성인(聖人)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749	侮 戲玩也 不知天命 故 不識義理而無所忌憚 如此 ○ 尹氏曰 三畏者 修己之誠 當然也 小人 不務修身誠己 則何畏之有	16-08-2 小人不知天命而不畏也 狎大人 侮聖人之言	소인(小人)은 천명(天命)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인물에게 가까이 굴며 경시(輕視)하고, 성인(聖人)의 말씀을 조롱한다.
750	困 謂有所不通 言人之氣質不同 大約有此四等 ○ 楊氏曰 生知 學知 以至困學 雖其質不同 然 及其知之 一也 故 君子惟學之爲貴 困而不學然後 爲下	16-09-1 孔子曰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상등(上等)이다.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다. 곤란해져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다. 곤란해져도 배우지 아니하면 그러한 사람이 곧 하등이 된다.
751	視無所蔽 則明無不見 聽無所壅 則聰無不聞 色 見於面者 貌 舉身而言 思問則疑不蓄 思難則忿必慙 思義則得不苟 ○ 程子曰 九思 各專其一 謝氏曰 未至於從容中道 無時而不自省察也 雖有不存焉者 寡矣 此之謂思誠	16-10-1 孔子曰 君子 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에게는 생각하는 일이 아홉 가지가 있다. 보는데는 뚜렷이 보기를 생각하고, 듣는데는 똑똑하게 듣기를 생각하고, 안색(顔色)에는 부드럽기를 생각하고, 용모에는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에는 성실하기를 생각하고, 일에는 조심하기를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에는 문기를 생각하고, 분(忿)이 날 적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이득이 있을 것을 알면 그것이 의(義)로운가를 생각한다.
752	眞如善惡而誠好惡之 顏曾冉閔之徒蓋能之矣 語 蓋古語也	16-11-1 孔子曰 見善如不及 見不善如探湯 吾見其人矣 吾聞其語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善)한 일을 보고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해 하는 것 같이 하고, 선(善)하지 않은 일을 보고서는 끓는 물에 손을 넣었을 때 같이 한다.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았고,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
753	求其志 守其所達之道也 達其道 行其所求之志也 蓋惟伊尹太公之流 可以當之 當時 若顏子亦庶乎此 然 隱而未見 又不幸而蚤死 故 夫子云然	16-11-2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吾聞其語矣 未見其人也	숨어서 살아 가지고 자기의 뜻한 바를 추구(追求)하고, 의(義)를 행해 가지고 자기의 도(道)를 달성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754	駟 四馬也 首陽 山名	16-12-1 齊景公有馬千駟 死之日 民無德而稱焉 伯夷叔齊 餓于首陽之下 民到于今稱之	제(齊) 경공(景公)은 말 4 천필(匹)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죽은 날에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칭송할 만한 덕(德)이 없었다.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수양산(首陽山) 밑에서 굶주리고 살았으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칭송한다고. 한 것은

755	胡氏曰 程子以爲第十二篇錯簡誠不以富亦祇以異當在此章之首 今詳文勢 似當在此句之上 言人之所稱 不在於富而在於異也 愚謂此說近是而章首 當有孔子曰字 蓋闕文耳 大抵此書後十篇 多闕誤	16-12-2 其斯之謂與	이것을 두고 한 말일 게다.
756	亢以私意窺聖人 疑必陰厚其子	16-13-1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진항(陳亢)이 백어(伯魚)에게, 당신은 또 다른 말씀을 들은 게 있는가요?하고 물었다.
757	事理通達而心氣和平 故 能言	16-13-2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學詩乎 對曰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아직 없습니다. 한 번은 혼자 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갔는데 시(詩)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시(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길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 나와 시를 배웠습니다.
758	品節詳明而德性堅定 故 能立	16-13-3 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學禮乎 對曰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다른 날, 또 혼자서 계실 때에,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갔는데, 예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남 앞에 나설 길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나와 예를 배웠습니다.
759	當獨立之時 所聞 不過如此 其無異聞 可知	16-13-4 聞斯二者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760	尹氏曰 孔子之教其子 無異於門人 故 陳亢以爲遠其子	16-13-5 陳亢 退而喜曰 問一得三 問時間禮 又問君子之遠其子也	진항(陳亢)이 물러나와 기뻐서 말하기를, 한 가지를 물었다가 세 가지를 알게 되었다. 시(詩)에 관한 것을 들어서 알았고, 예(禮)에 관한 것을 들어서 알았고, 또 군자(君子)는 아들은 멀리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
761	寡 寡德 謙辭 ○ 吳氏曰 凡語中所載 如此類者 不知何謂 或古有之 或夫子嘗言之 不可考也	16-14-1 邦君之妻 君稱之曰夫人 夫人自稱曰小童 邦人稱之曰君夫人 稱諸異邦曰寡小君 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	국군(國君)의 아내는, 임금이 호칭하면 부인(夫人)이라고 하고, 부인은 소동(小童)이라 자칭한다. 나라 사람들이 호칭하면 군부인(君夫人)이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보고 그를 호칭하면 과소군(寡小君)이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를 호칭하면 역시 군부인(君夫人)이라 한다.
762	17 陽貨 第十七 凡二十六章	17 陽貨 第十七	제 17 편. 양화(陽貨) 26 장. ♣ 세상의 어지러움과 위정자와 제자들에게 경고를 많이하고 있다. 양화편(陽貨篇)은 26 장(章).
763	陽貨 季氏家臣 名虎 嘗因季桓子而專國政 欲令孔子來見己 而孔子不往 貨以禮 大夫有賜於士 不得受於其家 則往拜其門 故 瞰孔子之亡而歸之豚 欲令孔子來拜而見之也	17-01-1 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孔子時其亡而往拜之 遇諸途	양화(陽貨)는 공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공자께서는 그를 만나주지 않으시어, 공자에게 새끼 돼지를 보내주었다. 공자께서는 그가 없는 틈을 타서 그의 집에 가서서 사의(謝意)를 표명하셨는데, 돌아오시는 길에 그를 만났었다.

764	懷寶迷邦 謂懷藏道德 不救國之迷亂 亟 數也 失時謂不及事幾之會 將者 且然而未必之辭 貨語皆譏孔子而諷使速仕 孔子固未嘗如此而亦非不欲仕也 但不仕於貨耳 故直據理答之不復與辯 若不諭其意者 ○ 陽貨之欲見孔子 雖其善意 然 不過欲使助己爲亂耳 故 孔子不見者義也 其往拜者 禮也 必時其亡而往者 欲其稱也 遇諸途而不避者不終絕也 隨問而對者 理之直也 對而不辯者 言之孫而亦無所詘也 楊氏曰 陽雄謂孔子於陽貨也 敬所不敬 爲詘身以信道 非知孔子者 蓋道外無身 身外無道 身詘矣而可以信道 吾未之信也	17-01-2 謂孔子曰來予與爾言 曰懷其寶而迷其邦可謂仁乎 曰不可 好從事而亟失時可謂知乎 曰不可 日月逝矣 歲不我與 孔子曰諾 吾將仕矣	그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하고, 자기의 보배를 품안에다 감춰두고, 자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인자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정치에 종사하기 좋아하면서도 자주 그 기회를 잃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날과 달은 지나가고 세월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어 주지 않는다.고 하자, 공자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예, 나는 장차 벼슬을 살겠소이다.
765	此所謂性 兼氣質而言者也 氣質之性固有美惡之不同矣 然 以其初而言 則皆不甚相遠也 但習於善則善 習於惡則惡 於是 始相遠耳 ○ 程子曰 此 言氣質之性 非言性之本也 若言其本則性卽是理 理無不善 孟子之言性善 是也 何相近之有哉	17-02-1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성(本性)으로는 서로 가까우나, 습관으로 서로 멀어진다.
766	此 承上章而言人之氣質 相近之中 又有美惡一定而非習之所能移者 ○ 程子曰 人性本善 有不可移者 何也 語其性則皆善也 語其才則有下愚之不移 所謂下愚有二焉 自暴自棄也 人苟以善自治 則無不可移雖昏愚之至皆可漸磨而進也 惟自暴者 拒之以不信 自棄者 絕之以不爲 雖聖人與居 不能化而入也 仲尼之所謂下愚也 然 其質 非必昏且愚也 往往強戾而才力有過人者 商辛是也 聖人以其自絕於善 謂之下愚 然 考其歸則誠愚也 或曰 此與上章當合爲一 子曰二字 蓋衍文耳	17-03-1 子曰 唯上知與下愚 不移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이 옮기지 않는다.
767	弦 琴瑟也 時 子游爲武城宰 以豫約爲教 故 邑人皆弦歌也	17-04-1 子之武城 聞弦歌之聲	선생님께서 무성(武城)에 가셨을 때 현악(絃樂)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으셨다.
768	莞爾 小笑貌 蓋喜之也 因言其治小邑 何必用此大道也	17-04-2 夫子莞爾而笑曰 割雞焉用牛刀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769	君子小人 以位言之 子游所稱 蓋夫子之常言 言君子小人 皆不可以不學 故 武城雖小 亦必教以禮樂	17-04-2 子游 對曰 昔者 偃也 聞諸夫子 曰君子學道則愛人 小人 學道則易使也	자유(子游)가 대답하기를, 전에 제가 선생님께서, 군자(君子)가 도(道)를 배우면 사람을 아끼고, 소인(小人)이 도(道)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770	喜子游之篤信 友以解門人之惑也 ○ 治有大小 而其治之必用禮樂 則其爲道一也 但衆人 多不能用 而子游獨行之 故 夫子驟聞而深喜之 因反其言以戲之 而子游以正對 故 得是其言	17-04-3 子曰 二三子 偃之言 是也 前言戲之耳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들아, 언(偃)의 말이 옳다. 내가 먼저 한 말은 농담이다.

	而自實其戲也		
771	弗擾 季氏宰 與陽虎共執桓子 據邑以叛	17-05-1 公山弗擾以費畔召 子欲往	공산불요(公山弗擾)가 비읍(費邑)을 가지고 반기(叛旗)를 들었는데, 그가 부르자 선생님께서는 가시려고 하셨다.
772	未 無也 言道既不行 無所往矣 何必公山氏之往乎	17-05-2 子路不說曰 未之也已 何必公山氏之之也	자로(子路)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가실 곳이 없으시면 그만두실 것이지, 하필 공산씨(公山氏)한테 가십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773	豈徒哉 言必用我也 爲東周 言興周道於東方 ○ 程子曰 聖人 以天下無不可有爲之人 亦無不可改過之人 故欲往 然而終不往者 知其必不能改故也	17-05-3 子曰 夫召我者 而豈徒哉 如有用我者 吾其爲東周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어찌 부질없이 부르겠느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나라를 동쪽의 주(周) 나라로 만들 것이다.
774	行是五者 則心存而理得矣 於天下 言無適而不然 猶所謂雖之夷狄 不可棄者 五者之目 蓋因子張所不足而言耳 任 倚仗也 又言其效如此 ○ 張敬夫曰 能行此五者於天下 則其心公平而周遍 可知矣 然 恭其本與 李氏曰 此章 與六言六蔽五美四惡之類 皆與前後文體 大不相似	17-06-1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子於天下 爲仁矣 請問之 曰恭寬信敏惠 恭則不侮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자장(子張)이 공자에게 인(仁)에 관해서 여쭙어 보았다. 공자께서, 다섯 가지를 천하 어느 곳에서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인(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여쭙어 보아도 좋겠습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공손한 것, 너그러운 것, 미더운 것, 민첩한 것, 자혜로운 것이니, 공손하면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면 무리를 얻고, 미더우면 사람이 의지하고, 민첩하면 공이 있고, 자혜로우면 사람을 부릴 것이다. 고 하셨다.
775	佛肸 晉大夫趙氏之中牟宰	17-07-1 佛肸召 子欲往	불힐(佛肸)이 부르자, 선생님께서는 가시려고 하셨다.
776	子路恐佛肸之浼夫子 故 問此以止夫子之行 親 猶自也 不入 不入其黨也	17-07-2 子路曰 昔者由也 聞諸夫子 曰親於其身 爲不善者 君子不入也 佛肸以中牟畔 子之往也如之何	자로(子路)가, 전에 제가 선생님께서 직접, 그 자신이 악(惡)한 일을 한 사람의 집에는, 군자(君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불힐(佛肸)이 중모읍(中牟邑)을 가지고 반기(叛旗)를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777	磷 薄也 涅 染皂物 言人之不善 不能浼己 楊氏曰 磨不磷 涅不緇而後 無可無不可 堅白不足而欲自試於磨涅 其不磷緇也者幾希	17-07-3 子曰然 有是言也 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 말을 한 일이 있다. 굳다고 하지 않겠느냐? 갈아도 얇어지지 아니한다면. 희다고 하지 않겠느냐? 물들여도 검어지지 아니한다면,

778	匏 瓠也 匏瓜 繫於一處而不能飲食 人則不如是也 ○ 張敬夫曰 子路昔者之所聞 君子守身之常法 夫子今日之所言 聖人體道之大權也 然 夫子於公山佛肸之召 皆欲往者 以天下無不可變之人 無不可爲之事也 其卒不往者 知其人之終不可變而事之終不可爲耳 一則生物之仁 一則知人之智也	17-07-4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	내가 어찌 포과(匏瓜)이겠느냐? 한 곳에 매달려 따먹지도 못하게 하겠느냐? 고 하셨다.
779	蔽 遮掩也	17-08-1 子曰 由也女聞六言六蔽矣乎 對曰未也	선생님께서, 유(由)야, 너는 여섯 가지 말에 따르는 여섯 가지 폐단에 관해서 들은 일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780	禮 君子問更端則起而對 故 夫子諭子路 使還坐而告之	17-08-2 居 吾語女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거라.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마.
781	六言 皆美德 然 徒好之而不學以明其理 則各有所蔽 愚 若可陷可罔之類 蕩 謂窮高極廣而無所止 賊 謂傷害於物 勇者 剛之發 剛者 勇之體 狂 躁率也 ○ 范氏曰 子路勇於爲善 其失之者 未能好學以明之也 故 告之以此 曰勇曰剛曰身曰直 又皆所以救其偏也	17-08-3 好仁不好學 其蔽也愚 好知不好學 其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其蔽也狂	인자하게 굴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폐단은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지혜롭게 굴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폐단은 무절제(無節制)해지는 것이다. 신용 있게 굴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폐단은 의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곧게 굴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폐단을 가혹해지는 것이다. 용맹하게 굴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폐단은 난폭해지는 것이다. 굳세게 굴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폐단은 무모(無謀)해지는 것이다.
782	小子 弟子也	17-09-1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왜 시(詩)를 배우지 않느냐?
783	感發之意	17-09-2 詩可以興	시(詩)는 그것으로 감흥을 자아낼 수 있고,
784	考見得失	17-09-3 可以觀	그것으로 살필 수 있고,
785	和而不流	17-09-4 可以群	그것으로 여럿이 모일 수 있고,
786	怨而不怨	17-09-5 可以怨	그것으로 원망할 수 있으며,
787	人倫之道 詩無不備 二者 舉重而言	17-09-6 邇之事父 邇之事君	가까이는 아버지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고,
788	其緒餘 又足以資多識 ○ 學詩之法 此章盡之 讀是經者 所宜盡心也	17-09-7 多識於鳥獸草木之名	조수(鳥獸)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
789	爲 猶學也 周南 召南 詩首篇名 所言 皆修身齊家之事 正牆面而立 言卽其至近之地 而一物無所見 一步不可行	17-10-1 子謂伯魚曰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物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	선생님께서 백어(伯魚)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공부하였느냐? 사람으로서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담에 맞대고 서 있는 거와 같을 것이다.

790	敬而將之以玉帛則爲禮 和而發之以鍾鼓則爲樂 遺其本而專事其末 則豈禮樂之謂哉 ○ 程子曰 禮 只是一箇序 樂 只是一箇和 只此兩字 含蓄多少義理 天下 無一物無禮樂 且如置此兩椅 一不正 便是無序 無序 便乖 乖 便不和 又如盜賊 至爲不道 然 亦有禮樂 蓋心有總屬 必相聽順 乃能爲盜 不然則叛亂無統 不能一日相聚而爲盜也 禮樂 無處無之 學者要須識得	17-11-1 子曰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樂云樂云 鐘鼓云乎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禮)라 예(禮)라 하지만, 그것이 옥(玉)과 백(帛)을 말하는 것이기야 하겠느냐? 음악이라 하지만,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기야 하겠느냐?
791	厲 威嚴也 荏 柔弱也 小人 細民 穿 穿壁 窬 躐牆 言其無實盜名而常畏人知也	17-12-1 子曰 色厲而內荏 譬諸小人 其猶穿窬之盜也與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굴빛은 위엄이 있으면서 속이 유약(柔弱)한 것은, 그것을 영세민(零細民)들에 비유한다면, 마치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은 것이다.
792	鄉者 鄙俗之意 愿 與愿同 荀子原慤 註 讀作愿 是也 鄉原 鄉人之愿者也 蓋其同流合污 以媚於世 故 在鄉人之中 獨以愿稱 夫子以其似德非德而反亂乎德 故 以爲德之賊而深惡之 詳見孟子末篇	17-13-1 子曰 鄉原德之賊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골에서 후(厚)하고 틀림없는 듯이 구는 것은, 덕(德)을 해치는 짓이다.
793	雖聞善言 不爲己有 是自棄其德也 ○ 王氏曰 君子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 道聽塗說 則棄之矣	17-14-1 子曰 道聽而塗說 德之棄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길에서 듣고 그것을 작은 길에서 말하곤 하는 것은, 덕(德)을 버리는 것이다.
794	鄙夫 庸惡陋劣之稱	17-15-1 子曰 鄙夫 可與事君也與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루(鄙陋)한 사나리와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795	何氏曰 患得之 謂患不能得之	17-15-2 其未得之也 患得之 既得之 患失之	벼슬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얻기를 근심하고, 이미 얻어서는 잃을까 근심하니,
796	小則兪癰疽痔 大則弑父與君 皆生於患失而已 ○ 胡氏曰 許昌己裁之有言曰 士之品 大概有三 志於道德者 功名 不足以累其心 志於功名者 富貴不足以累其心 志於富貴而已者 則亦無所不至矣 志於富貴 卽孔子所謂鄙夫也	17-15-3 苟患失之 無所不至矣	진실로 잃을까 근심하는 자라면, 의에 벗어난 어떤 일이라도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고 하셨다.
797	氣失其平則爲疾 故 氣稟之偏者 亦謂之疾 昔所謂疾 今亦亡之 傷俗之益偷也	17-16-1 子曰 古者 民有三疾 今也或是之亡也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사람들에 세 가지 병폐(病弊)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것 같다.
798	狂者 志願太高 肆 謂不拘小節 蕩 則躐大閑矣 矜者 持守太嚴 廉 謂稜角峭厲 忿戾 則至於爭矣 愚者 暗昧不明 直 謂徑行自遂 詐 則挾私妄作矣 ○ 范氏曰 末世滋僞 豈惟賢者不如古哉 民性之蔽 亦與古人異矣	17-16-2 古之狂也肆 今之狂也蕩 古之矜也廉 今之矜也忿戾 古之愚也直 今之愚也許而已矣	옛날의 성급한 사람은 자자한 예절(禮節)에 구애하지 않았을 뿐인데, 지금의 성급한 사람은 큰 법도(法度)마저 무시한다. 옛날의 뽐내는 사람은 한계가 분명하였는데, 지금의 뽐내는 사람은 분해하고 성낸다. 옛날의 어리석은 사람은 곧았는데,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은 속임수로 그러할 따름이다.
799	重出	17-17-1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빠른 말과 좋은 듯이 꾸미는 얼굴에는 仁이 적다.

800	朱 正色 紫 間色 雅 正也 利口 捷給 覆 傾敗也 ○ 范氏曰 天下之理 正而勝者常少 不正而勝者常多 聖人所以惡之也 利口之人 以是爲非 以非爲是 以賢爲不肖 以不肖爲賢 人君 苟悅而信之 則國家之覆也不難矣	17-18-1 子曰 惡紫之奪朱也 惡鄭聲之亂雅樂也 惡利口之覆邦家者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주빛이 붉은 빛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미워한다. 정(鄭) 나라의 소리가 아악(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한다. 날카로운 입이 나라와 가문(家門)을 뒤집어엎는 것을 미워한다.
801	學者多以言語觀聖人 而不察其天理流行之實 有不待言而著者 是以 徒得其言而不得其所以言 故 夫子發此以警之	17-19-1 子曰 予欲無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802	子貢 正以言語觀聖人者 故 疑而問之	17-19-2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자공(子貢)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803	四時行 百物生 莫非天理發見流行之實 不待言而可見 聖人一動一靜 莫非妙道精義之發 亦天而已 豈待言而顯哉 此亦開示子貢之切 惜乎 其終不喻也 ○ 程子曰 孔子之道 譬如日星之明 猶患門人未能盡曉 故曰予欲無言 若顏子則便默識 其他 則未免疑問 故曰小子何述 又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則可謂至明白矣 愚按 此與前篇無隱之意 相發 學者詳之	17-19-3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도 사계절이 운행(運行)하고 모든 것이 생겨난다. 하늘이 무엇을 말하느냐?
804	孺悲 魯人 嘗學士喪禮於孔子 當是時 必有以得罪者 故 辭以疾 而又使知其非疾 以警教之也 程子曰 此 孟子所謂不屑之教誨 所以深教之也	17-20-1 孺悲欲見孔子 孔子辭以疾 將命者 出戶 取瑟而歌 使之聞之	유비(孺悲)가 공자를 뵈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는 병이 났다고 하여 면회를 거절하셨다. 말을 전해온 사람이 문을 나가자, 슬(瑟)을 집어드시고 노래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노랫소리를 듣게 하셨다.
805	期 周年也	17-21-1 宰我問三年之喪 期已久矣	재아(宰我)가 삼년상(三年喪)에 관해서 여쭙어 보면서, 1 년이면 충분히 깁니다.
806	恐居喪不習而崩壞也	17-21-2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군자가 삼 년을 예를 하지 아니하면 예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군자(君子)가 3 년 동안 음악을 다루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혼란해질 것입니다.
807	沒 盡也 升 登也 燧 取火之木也 改火 春取榆柳之火 夏取棗杏之火 夏季取桑柘之火 秋取柞櫟之火 冬取槐檀之火 亦一年而周也 已 止也 言期年則天運一周 時物皆變 喪至此可止也 尹氏曰 短喪之說 下愚且恥言之 宰我親學聖人之門 而以是爲問者 有所疑於心而不敢強焉爾	17-21-3 舊穀既沒 新穀既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나오고, 불붙이는 나무에 불을 고치게 되는 것이니, 1 년이 되면 상(喪)을 끝낼 만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808	禮 父母之喪 既殯 食粥羶衰 既葬 疏食水飲 受以成布 期而小祥 始食菜果 練冠緇緣 要經不除 無食稻衣錦之理 夫子欲宰我反求諸心 自得其所以不忍者 故 問之以此 而宰我不察也	17-21-4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安	선생님께서,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면 너는 마음이 편하겠느냐? 편합니다.

809	此 夫子之言也 旨 亦甘也 初言女安則爲之 絕之之辭 又發其不忍之端 以警其不察 而再言女安則爲之 以深責之	17-21-5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則爲之	네가 편하다면 그대로 하여라, 군자(君子)는 상중(喪中)에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거처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네가 편하다면 그대로 하여라.
810	宰我既出 夫子懼其眞以爲可安而遂行之 故 深探其本而斥之 言由其不仁故 愛親之薄 如此也 懷 抱也 又言君子所以不忍於親而喪必三年之故 使之聞之 或能反求而終得其本心也 ○ 范氏曰 喪雖止於三年 然 賢者之情則無窮也 特以聖人爲之中制而不敢過 故 必俯而就之 非以三年之喪爲足以報其親也 所謂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 特以責宰我之無恩 欲其有以跂而及之爾	17-21-6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 母乎	재아(宰我)가 나가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予)는 인자하지 않은 것이다. 자식은 나온지 3 년이 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삼년상(三年喪)은 온 천하(天下)에 공통되는 상례(喪禮)다. 여(予)도 자기 부모한테서 3 년 동안의 사랑을 받았었는가?
811	博 局戲也 奕 圍碁也 已 止也 季氏曰 聖人非教人博奕也 所以甚言無所用心之不可爾	17-22-1 子曰 飽食終日 無所用心 難矣哉 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乎已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일 배불리 먹고 마음 쓸 데가 없다는 것은 어려운 노릇이다. 박혁(博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라도 하는게 그래도 나을 것이다.
812	尙 上之也 君子爲亂 小人爲盜 皆以位而言者也 尹氏曰 義以爲尙 則其爲勇也大矣 子路好勇 故 夫子以此救其失也 胡氏曰 疑此子路初見孔子時問答也	17-23-1 子路曰 君子尙勇乎 子曰 君子義以爲上 君子有勇而無義爲亂 小人有勇而無義爲盜	자로(子路)가, 군자(君子)는 용맹한 것을 숭상합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정의(正義)를 숭상한다. 군자(君子)가 용맹하면서 정의(正義)를 무시하면 난동(亂動)을 일으키게 된다. 소인(小人)이 용맹하면서 정의(正義)를 무시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
813	訕 謗毀也 窒 不通也 稱人惡則無仁厚之意 下訕上則無忠敬之心 勇無禮則爲亂 果而窒則妄作 故 夫子惡之	17-24-1 子貢曰 君子亦有惡乎 子曰有惡 惡稱人之惡者 惡居下流而訕上者 惡勇而無禮者 惡果敢而窒者	자공(子貢)이, 군자(君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이 있다. 남의 악(惡)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하류에 거하며 위 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며, 용맹스러우면서 무례한 사람을 미워하고, 과감하면서 막힌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셨다.
814	惡微以下 子貢之言也 微 伺察也 訐 謂攻發人之陰私 ○ 楊氏曰 仁者無不愛 則君子疑若無惡矣 子貢之有是心也 故 問焉以質其是非 侯氏曰 聖賢之所惡如此 所謂惟仁者能惡人也	17-24-2 曰賜也 亦有惡乎 惡微以爲知者 惡不孫以爲勇者 惡訐以爲直者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야, 또한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고 하시니, (子貢이), 저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批判이) 가혹한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고, 불손(不遜)한 것을 가지고 용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남의 비밀을) 파내어 공격하는 것을 가지고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815	此小人 亦謂僕隸下人也 君子之於臣妾 莊以泣之 慈以畜之 則無二者止患矣	17-25-1 子曰 唯女子與小人 爲難養也 近之則不孫 遠之則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소인(小人)만은 다루기가 힘들다. 그들은 가까이 해주면 불손(不遜)하게 굴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816	四十 成德之時 見惡於人 則止於此而已 勉人及時遷善改過也 蘇氏曰 此亦有爲而言 不知其爲誰也	17-26-1 子曰 年四十而見惡焉 其終也已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40 이 되어서도 미움을 받으면 그야말로 마지막이다.
817	18 微子 第十八 此篇 多記聖賢之出處 凡十一章	18 微子 第十八	제 18 편. 미자(微子) 11 장. ♣ 고대 은, 주나라의 현인(미자, 기자, 비간, 백이, 숙제 등)들에 대한 공자님의 생각과 사상을 당시의 사회상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미자편(微子篇)은 11 장(章).
818	微箕 二國名 子 爵也 微子 紂庶兄 箕子 比干 紂諸父 微子 見紂無道 去之以存宗祀 箕子 比干 皆諫 紂殺比干 囚箕子以爲奴 箕子因佯狂而受辱	18-01-1 微子 去之 箕子 爲之奴 比干 諫而死	미자(微子)는 그를 떠나가 버렸고, 기자(箕子)는 그의 종 노릇을 하였고, 비간(比干)은 간(諫)하다가 죽었다.
819	三人行 不同 而同出於至誠惻怛之意 故 不拂乎愛之理而有以全其心之德也 楊氏曰 此三人者 各得其本心 故 同謂之仁	18-01-2 孔子曰 殷有三仁焉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殷) 나라에서는 인자한 사람이 셋 있었다.
820	士師 獄官 黜 退也 柳下惠三黜不去 而其辭氣雍容如此 可謂和矣 然 其不能枉道之意 則有確乎不可拔者 是則所謂必以其道而不自失焉者也 ○ 胡氏曰 此必有孔子斷之之言而亡之矣	18-02-1 柳下惠 爲士師 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유하혜(柳下惠)는 사사(士師)였는데 세 차례나 물러났었다.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없었던가요? 하고 말했다. 그는, 곧은 도리(道理)로 남을 섬기자면 어디에 간들 세 차례는 물러나지 않겠소? 정도를 굽혀서 남을 섬길진대 무엇 하러 부모의 나라를 떠나야 한단 말이요? 하고 말았다.
821	魯三卿 季氏最貴 孟氏爲下卿 孔子去之 事見世家 然 此言 必非面語孔子 蓋自以告其臣而孔子聞之爾 ○ 程子曰 季氏 強臣 君待之之禮極隆 然 非所以待孔子也 以季孟之間待之 則禮亦至矣 然 復曰 吾老矣 不能用也 故 孔子去之 蓋不繫待之輕重 特以不用而去爾	18-03-1 齊景公 待孔子曰 若季氏則吾不能 以季孟之間 待之 曰吾老矣 不能用也 孔子行	제(齊) 경공(景公)이 공자를 만류하고, 계씨(季氏) 같이는 할 수 없고, 계씨(季氏)와 맹씨(孟氏)의 중간 정도로는 대우하겠소이다. 하고 말했다가, 나는 늙어버려서 선생을 쓰지는 못하겠소. 하고 말했다. 그래서 공자는 떠나가셨다.
822	季桓子 魯大夫 名斯 按史記 定公十四年 孔子爲魯司寇 攝行相事 齊人懼 歸女樂以沮之 尹氏曰 受女樂而怠於政事如此 其簡賢棄禮 不足與有爲 可知矣 夫子所以行也 所謂見幾而作 不俟終日者與 ○ 范氏曰 此篇 記仁賢之出處而折中以聖人之行 所以明中庸之道也	18-04-1 齊人歸女樂 季桓子 受之 三日不朝 孔子行	제(齊) 나라 사람들이 여자 악사(樂士)들을 (노(魯) 나라에) 보냈다. 계환자(季桓子)가 그것을 받고 나서는 사흘동안이나 조회(朝會)가 정지되었다. 그래서 공자께서 떠나가셨다.

823	接輿 楚人 佯狂避世 夫子時將適楚 故 接輿歌而過其車前也 鳳 有道則見 無道則隱 接輿以比孔子 而譏其不能隱 爲德衰也 來者可追 言及今尚可隱去 已 止也 而 語助辭 殆 危也 接輿 蓋知尊夫子而趨不同者也	18-05-1 楚狂接輿 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已而 今之從政者 殆而	초(楚) 나라의 미치광이 접여(接輿)가 노래를 부르며 공자 곁을 지나갔다. 봉(鳳)이여, 봉(鳳)이여, 그대의 덕(德)은 어찌나 그리 쇠(衰)하였나요! 지나간 거야 말려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닥쳐올 거야 그래도 따라갈 수 있을 게니, 그만두소, 그만두소, 이마적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태하외다.
824	孔子下車 蓋欲告之以出處之意 接輿自以爲是 故 不欲聞而辟之也	18-05-2 孔子下 欲與之言 趨而辟之 不得與之言	공자께서 내려서서서 그와 말씀하려 하셨으나, 빨리 달아나 피해버려서 말씀하시지 못하셨다.
825	二人 隱者 耦 竝耕也 時 孔子自楚反乎蔡 津 濟渡處	18-06-1 長沮桀溺 耦而耕 孔子過之 使子路 問津焉	장저(長沮)와 걸익(桀溺)이 나란히 서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자로(子路)를 시켜 그들에게 나루터 있는 곳을 물어보게 하였다.
826	接輿 執轡在車也 蓋本子路御而執轡 今下問津 故 夫子代之也 知津 言數周流 自知津處	18-06-2 長沮曰 夫執輿者爲誰 子路曰爲孔丘 曰是魯孔丘與 曰是也 曰是知津矣	장저(長沮)가, 저 수레의 말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하고 말했다. 자로(子路)가, 공구(孔丘)올시다. 하고 말했다. 그가 노(魯) 나라의 공구(孔丘)요? "그렇습니다." 그는 나루터 있는 곳을 알고 있소.
827	滔滔 流而不反之意 以 猶與也 言天下皆亂 將誰與變易之 而 汝也 辟人謂孔子 辟世桀溺自謂 耷 覆種也 亦不告以津處	18-06-3 問於桀溺 桀溺曰子爲誰 曰爲仲由 曰是魯孔丘之徒與 對曰然 曰滔滔者 天下皆是也 而誰以易之 且而與其從辟人之士也 其若從辟世之士哉 耷而不輟	걸익(桀溺)에게 물었더니, 걸익(桀溺)이, 당신은 뉘시오? 하고 말했다. 중유(仲由)올시다. 노(魯) 나라 공구(孔丘)의 제자요? "그렇습니다." 온 천하(天下)가 다 한 물결에 휩쓸려 흘러가는데 누구하고 그 방향을 바꾸겠소? 또 그대는 우리 같은 사람을 피하는 인물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세상을 피해 사는 인물을 따르는 게 어떻소? 하고 말하고, 뿌린 씨를 덮어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828	憮然 猶悵然 惜其不喻己意也 言所當與同群者 斯人而已 豈可絕人逃世 以爲潔哉 天下若已平治 則我無用變易之 正爲天下無道 故 欲以道易之耳 ○ 程子曰 聖人 不敢有忘天下之心 故 其言 如此也 張子曰 聖人之仁 不以無道必天下而棄之也	18-06-4 子路行以告 夫子憮然曰 鳥獸 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	자로(子路)가 가서 이일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서글프게, 새와 짐승들과는 함께 떼지어 살 수 없으니,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 끼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천하에 정도(正道)가 행하여지면야, 나는 방향을 바꾸려 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829	丈人 亦隱者 蓀 竹器 分 辨也 五穀不分 猶言不辨菽麥爾 責其不事農業而從師遠游也 植 立之也 芸 去草也	18-07-1 子路從而後 遇丈人 以杖荷蓀 子路問曰 子見夫子乎 丈人曰四體不動 五穀不分 孰爲夫子 植其杖而芸	자로(子路)가 선생님을 따라가다가 뒤떨어졌다. 한 노인을 만났는데 지팡이로 먹서리를 지고 있었다. 자로(子路)가, 영감님께서서는 우리 선생님을 보셨는지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 노인은, 손발을 근면하게 놀리지 않고, 오곡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아, 누가 그대의 선생인가? 하고 말하고는

			그의 지팡이를 세워 놓더니 잡초를 뽑았다.
830	知其隱者 敬之也	18-07-2 子路拱而立	자로(子路)는 두 손을 마주잡고 서 있었다.
832	子路述夫子之意如此 蓋丈人之接子路甚倨而子路益恭 丈人因見其二子焉 則於長幼之節固知其不可廢矣 故 因其所明以曉之 倫 序也 人之大倫 有五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是也 仕 所以行君臣之義 故雖知道之不幸 而不可廢 然 謂之義 則事之可否 身之去就 亦自有不可苟者 是以 雖不潔身以亂倫 亦非忘義以徇祿也 福州 有國初時 寫本 路下有反子二字 以此爲子路反而夫子言之也 未知是否 ○ 范氏曰 隱者 爲高故 往而不返 仕者 謂通故溺而不止 不與鳥獸同群 則決性命之情以饗富貴 此二者 皆惑也 是以 依乎中庸者爲難 惟聖人不廢君臣之義而必以其正 所以或出或處而終不離於道也	18-07-3 子路曰 不仕無義 長幼之節不可廢也 君臣之義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而亂大倫 君子之仕也 行其義也 道之不行 已知之矣	자로(子路)가 말하기를, 벼슬을 살지 않은 것은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예절(禮節)은 없앨 수 없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의리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깨끗이 하려다가 큰 인륜(人倫)을 어지럽힙니다. 군자(君子)가 벼슬살이를 하는 것은 자기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도(正道)가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831	孔子使子路反見之 蓋欲告之以君臣之義而丈人意子路必將復來 故 先去之 以滅其跡 亦接輿之意也	18-07-3 止子路宿 殺鷄爲黍而食之 見其二子焉 明日子路行以告 子曰隱者也 使子路反見之 至則行矣	자로(子路)를 묵어 가게 하고는, 닭을 잡아 수수밥을 지어서 먹이고, 자기의 두 아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 이튿날 자로(子路)가 가서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은자(隱者)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로(子路)를 시켜 되돌아가서 그를 만나보도록 하였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 노인은 떠나가 버리고 없었다.
833	逸 遺逸 民者 無位之稱 虞仲 卽仲雍 與泰伯同竄荊蠻者 夷逸朱張 不見經傳 少連 東夷人	18-08-1 逸民 伯夷叔齊 虞仲夷逸 朱張柳下惠少連	일민(逸民)은 백이(伯夷)·숙제(叔齊)·우중(虞仲)·이일(夷逸)·주장(朱張)·유하혜(柳下惠) 및 소련(少連)이다.
834	#	18-08-2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것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일 게다.
835	柳下惠 事見上 倫 義理之次第也 慮 思慮也 中慮言有意義合人心 少連 事不可考 然記 稱其善居喪三日不怠 三月不解 晷悲哀 三年憂 則行之中慮亦可見矣	18-08-3 謂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유하혜(柳下惠)와 소련(少連)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하거니와, 그들의 말이 조리에 맞았고,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생각에 맞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죽 살아갔을 따름이다.
836	仲雍居吳 斷髮文身 裸以爲飾 隱居獨善 合乎道之清 放言自廢 合乎道之權	18-08-4 謂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清 廢中權	우중(虞仲)과 이일(夷逸)은 퇴은해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살았다고 하거니와, 그들은 몸을 순결하게 가질 수 있었고, 물러나 사는 것은 시의(時宜)에 합당하였다.

837	孟子曰 孔子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遠則遠 所謂無可無不可也 ○ 謝氏曰 七人隱遯不污則同 其立心造行則異 伯夷叔齊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 蓋已遯世離君矣 下聖人一等 此其最高與 柳下惠少連雖降志而不枉己 雖辱身而不求合 其心有不屑也 故言能中倫 行能中慮 慮仲夷逸 隱居放言 則言不合先王之法者多矣 然 清而不污也 權而適宜也 與方外之士害義傷教而亂大倫者 殊科 是以均謂之逸民 尹氏曰 七人 各守其一節 而孔子則無可無不可 所以常適其可 而異於逸民之徒也 楊雄曰 觀乎聖人 則見賢人 是以 孟子語夷惠 亦必以孔子斷之	18-08-5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나로 말하면 이와는 달라서,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
838	大師 魯樂官之長 摯 其名也	18-09-1 大師摯 適齊	대사(大師) 지(摯)는 채(蔡) 나라로 갔다.
839	亞飯以下 以樂侑食之官 干繚缺 皆名也	18-09-2 亞飯干 適楚 三飯繚 適蔡 四飯缺 適秦	둘째 식사(亞飯)의 음악을 맡은 간(干)은 초(楚) 나라로 갔다. 셋째 식사(三飯)의 음악을 맡은 요(繚)는 채(蔡) 나라로 갔다. 넷째 식사(四飯)의 음악을 맡은 결(缺)은 주(秦) 나라로 갔다.
840	鼓 擊鼓者 方叔名 河河內	18-09-3 鼓方叔 入於河	고수(鼓手) 방숙(方叔)은 황하(黃河) 이북의 지방으로 갔다.
841	播 搖也 鼗 小鼓 兩旁有耳 持其柄而搖之 則旁耳還自擊 武 名也 漢 漢中	18-09-4 播鼗武 入於漢	작은 북을 흔드는 무(武)는 용수(溶水) 지역으로 갔다.
842	少師 樂官之佐 陽 襄 二人名 襄卽孔子所從學琴者 海 海島也 ○ 此 記賢人之隱遁 以附前章 然 未必夫子之言也 末章放此 張子曰 周衰樂廢 夫子自衛反魯 一嘗治之 其後 伶人賤工 識樂之正 及魯益衰 三桓僭妄 自大師以下皆知散之四方 逾河蹈海以去亂 聖人俄頃之助 功化如此 如有用我 期月而可 豈虛語哉	18-09-5 小師陽 擊磬襄 入於海	소사(少師) 양(陽)과 경(馨)을 치는 양(襄)은 바다 섬으로 갔다.
843	施 陸氏本 作弛 福本同 ○ 魯公 周公子伯禽也 弛 遺棄也 以 用也 大臣非其人則去之 在其位則不可不用 大故 謂惡逆 季氏曰 四者皆君子之事 忠厚之至也 ○ 胡氏曰 此伯禽受封之國 周公訓戒之辭 魯人傳誦 久而不忘也 其或夫子嘗與門弟子言之歟	18-10-1 周公謂魯公曰 君子不施其親 不使大臣怨乎不以 故舊無大故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	주공(周公)이 노공(魯公)에 이르기를, 군자(君子)는 자기 친속(親屬)들을 버리지 않으나, 대신(大臣)들이 그들의 의견을 써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도록은 만들지 않는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은 큰 사고가 없으면 버리지 않는다. 한 사람이 모든 재주를 다 갖추어 있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844	或曰 成王時人 或曰 宣王時人 蓋一母四乳而生八子也 然 不可考也 ○ 張子曰 記善人之多也 愚按 此篇 孔子於三仁 逸民 師摯 八士 既皆稱贊而品列之 於接輿 沮溺 丈人 又每有惓惓接引之意 皆衰世之志也 其所感者深矣 在陳之歎 蓋亦如此 三仁則無間然矣 其餘數君子者 亦皆一世之高士 若使得聞聖人之道 以裁其所過而勉其所不及 則其所立 豈止於此而已哉	18-11-1 周有八士 伯達 伯适 仲突 仲忽 叔夜 叔夏 季隨 季騶	주(周)에 여덟 인물이 있었으니, 그들은 백달(伯達)·백괄(伯适)·백돌(伯突)·백홀(伯忽)·숙야(叔夜)·숙수(叔隨)·계왜(季騶)다.
845	19 子張 第十九 此篇 皆記弟子之言而子夏爲多 子貢次之 蓋孔門 自顏子以下 穎悟莫若子貢 自曾子以下 篤實無若子夏 故 特記之詳焉 凡二十五章	19 子張 第十九	제 19 편. 자장(子張) 25 장. ♣ 이 편에는 공자의 제자들인 자하, 자공, 증자 등의 말을 간추려 놓았음. 다 공자의 문인(門人)들의 말로, 그 중에도 자하(子夏)의 말이 가장 많고 자공(子貢)이 말이 그 다음으로 많다. 자장편(子張篇)은 25 장(章).
846	致命 謂委致其命 猶言授命也 四者立身之大節 一有不至 則餘無足觀 故 言士能如此 則庶乎其可矣	19-01-1 子張曰 士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	자장(子張)이 말하기를, 선비로서, 위험한 일에 직면하여서는 목숨을 내놓고, 소득(所得)에 직면하여서는 의를 생각하고, 제사에는 공경스럽기를 생각하고, 상사(喪事)에는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만하면 되었다.
847	有所得而守之太狹 則德孤 有所聞而信之不篤 則道廢 焉能爲有亡 猶言不足爲輕重	19-02-1 子張曰 執德不弘 信道不篤 焉能爲有 焉能爲亡	자장(子張)이 말하기를, 덕(德)을 지니되 그것이 크지 않고, 도(道)를 믿되 성실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야) 어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어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848	子夏之言 迫狹 子張譏之是也 但其所言 亦有所言 亦有過高之弊 蓋大賢 雖無所不容 然 大故 亦所當絕 不賢 固不可以拒人 然損友亦所當遠 學者不可不察	19-03-1 子夏之門人 問交於子張 子張曰 子夏云何 對曰 子夏日 可者與之 其不可者 拒之 子張曰 異乎吾所聞 君子尊賢而容衆 嘉善而矜不能 我之大賢與 於人何所不容 我之不賢與 人將拒我 如之何其拒人也	자하(子夏)의 제자가 자장(子張)에게 교우(交友)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자장(子張)이, 자하(子夏)는 무엇이라 하였는가? 하고 말했다. 대답하기를, 자하가 말하기를, 착한 자를 사귀고, 착하지 아니한 자를 거절하라. 하더니다. 고 하니, 자장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와 다르다. 군자는 어진 이를 존경하고 무리를 용납하며, 착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능치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길 것이니. 내가 대단히 잘났다면야, 사람으로서 용납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못났다면, 남이 나를 멀리 할 것인데, 어떻게 남을 멀리할 것인가?
849	小道 如農圃醫卜之屬 泥 不通也 ○ 楊氏曰 百家衆技 猶耳目口鼻 皆有所明而不能相通 非無可觀也 致遠則泥矣 故 君子不爲也	19-04-1 子夏日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也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소도(小道)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멀리까지 따라간다면 집착할까 무서워서, 군자(君子)는 그런 것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다.

850	亡 無也 爲己之所未有 ○ 尹氏曰 好學者 日新而不失	19-05-1 子夏曰 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 可謂好學也已矣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나날이 자기에게 결여(缺如)된 것을 알아가고, 달이 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잊는 일이 없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851	四者 皆學問思辨之事耳 未及乎力行而爲仁也 然 從事於此 則心不外馳 而所存自熟 故 曰仁在其中矣 ○ 程子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何以言仁在其中矣 學者要思得之 了此 便是徹上徹下之道 又曰 學不博則不能守約 志不篤則不能力行 切問近思在己者 則仁在其中矣 又曰 近思者 以類而推 蘇氏曰 博學而志不篤 則大而無成 泛問遠思 則勞而無功	19-06-1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널리 배우되 (학문하는) 뜻을 독실하게 갖고, 간절하게 묻되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 나간다면, 인(仁)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852	肆謂官府造作之處 致 極也 工不居肆 則遷於異物而業不精 君子不學 則奪於外誘而志不篤 尹氏曰 學所以致其道也 百工居肆 必務成其事 君子之於學 可不知所務哉 愚按 二說相須 其義始備	19-07-1 子夏曰 百工居肆 以成其事 君子學以致其道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모든 기술자들은 일간에 있어 가지고 그들의 일을 이룩하고, 군자(君子)는 배워 가지고서 그의 도(道)를 터득한다.
853	文 飾之也 小人憚於改過 而不憚於自欺 故 必文以重其過	19-08-1 子夏曰 小人之過也 必文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소인(小人)이 허물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럴싸하게 꾸며낸다.
854	儼然者 貌之莊 溫者 色之和 厲者 辭之確 ○ 程子曰 他人 儼然則不溫 溫則不厲 惟孔子全之 謝氏曰 此非有意於變 蓋竝行而不相悖也 如良玉溫潤而栗然	19-09-1 子夏曰 君子有三變 望之儼然 卽之也溫 聽其言也厲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군자(君子)에게는 세 가지 다른 면이 있다. 그를 멀리서 바라보면 의젓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면 부드럽고, 그 말소리를 들으면 엄정하다.
855	信 謂誠意惻怛而人信之也 厲 猶病也 事上使下 皆必誠意交孚而後 可以有爲	19-10-1 子夏曰 君子信而後 勞其民 未信則以爲厲己也 信而後諫 未信則以爲謗己也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자기를 믿어주게 된 후에 자기 사람에게 힘든 일을 시키거나와, 믿어주지 않고서라면, 저를 심하게 다룬다고 생각한다. 자기를 믿어주게 된 후에 간(諫)하거나와, 믿어주지 않고서라면, 저를 헐뜯는다고 생각한다.
856	大德 小德 猶言大節小節 閑 闌也 所以止物之出入 言人能先立乎其大者 則小節 雖或未盡合理 亦無害也 ○ 吳氏曰 此章之言 不能無弊 學者詳之	19-11-1 子夏曰 大德不踰閑 小德 出入可也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큰 절개는 그 한계를 넘지 않지만, 사소한 절개에는 변동이 있어도 괜찮다.
857	子游譏子夏弟子於威儀容節之間則可矣 然 此小學之末耳 推其本 如大學正心誠意之事則無有	19-12-1 子游曰 子夏之門人小子 當灑掃應對進退則可矣 抑末也 本之則無 如之何	자유(子游)가 말하기를, 자하(子夏)의 제자 아이들은, 물 뿌리고 쓸고, 부르는데 응하고 묻는데 대답하고, 나오고 물러나고 할 때는, 제법이지만, 그런 것은 말단적(末端的)인 일이다. 근본(根本)되는 일을 시켜보면 보잘 게 없다.

858	倦 如誨人不倦之倦 區 猶類也 言君子之道非以其末爲先而傳之 非以其本爲後而倦教 但學者所至 自有淺深 如草木之有大小 其類固有別矣 若不量其淺深 不問其生熟 而概以高且遠者 強而語之 則是誣之而已 君子之道豈可如此 若不始終本末一以貫之 則惟聖人爲然 豈可責之門人小子乎 ○ 程子曰 君子教人有序 先傳以小者近者而後 教以大者遠者 非先傳以近小而後不教以遠大也 又曰 灑掃應對 便是形而上者 理無大小故也 故 君子只在謹獨 又曰 聖人之道 更無精粗 從灑掃應對與精義入神 貫通只一理 雖灑掃應對 只看所以然如何 又曰 凡物有本末 不可分本末爲兩段事 灑掃應對是其然 必有所以然 又曰 自灑掃應對上 便可到聖人事 愚按 程子第一條 說此章文意 最爲詳盡 其後四條 皆以明精粗本末 其分雖殊 而理則一 學者當循序而漸進 不可厭末而求本 蓋與第一條之意 實相表裏 非謂末卽是本 但學其末而本便在此也	19-12-2 子夏 聞之曰 噫 言游 過矣 君子之道 孰先傳焉 孰後倦焉 譬諸草木 區以別矣 君子之道 焉可誣也 有始有卒者 其惟聖人乎	자하가 듣고 말하기를, 아야! 유를 말함이 지나치다. 군자의 도가 어느 것을 먼저라 하여 전하고, 어느 것을 뒤라 하여 게을리 하겠는가? 초목에 비유한다면 구별하여 분별이 있다. 군자의 도도 어찌 속이겠느냐? 처음이 있고 끝이 있음이 한결같은 자는, 아마도 오직 성인일 것이다. 고 하였다.
859	優 有餘力也 仕與學 理同而事異 故 當其事者 必先有以盡其事而後 可及其餘 然 仕而學則所以資其仕者益深 學而仕則所以驗其學者益廣	19-13-1 子夏曰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벼슬을 살면서도 여력이 있으면 배울 것이고, 배우면서도 여력이 있으면 벼슬을 살 것이다.
860	致極其哀 不尙文飾也 楊氏曰 喪 與其易也 寧戚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之意 愚按 而止二字 亦微有過於高遠而簡略細微之弊 學者詳之	19-14-1 子游曰 喪致乎哀而止	자유(子游)가 말하기를, 상사(喪事)를 당해서는 슬픔을 다하는 데서 그칠 것이다.
861	子張 行過高而少誠實惻怛之意	19-15-1 子游曰 吾友張也 爲難能也 然而未仁	자유(子游)가 말하기를, 내 벗인 장은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기는 한다. 그렇기는 하나 아직 인자하지는 않다.
862	堂堂 容貌之盛 言其務外自高 不可輔而爲仁 亦不能有以輔人之仁也 ○ 范氏曰 子張 外有餘而內不足 故 門人皆不與其爲仁 子曰 剛毅木訥 近仁 寧外不足而內有餘 庶可以爲仁矣	19-16-1 曾子曰 堂堂乎 張也 難與並爲仁矣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당(堂堂)하도다, 장(張)은. 그와 함께 인(仁)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863	致 盡其極也 蓋人之真情 所不能自己者 ○ 尹氏曰 親喪 固所自盡也 於此 不用其誠 惡乎用其誠	19-17-1 曾子曰 吾聞諸夫子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님한테서 들은 것이지만, 사람은 자기 힘을 다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친상(親喪)을 당해서는 반드시 자기 힘을 다할 것이다.
864	孟莊子 魯大夫 名速 其父 獻子 名蔑 獻子有賢德 而莊子能用其臣 守其政 故 其他孝行 雖有可稱 而皆不若此事之爲難	19-18-1 曾子曰 吾聞諸夫子 孟莊子之孝也 其他可能也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님한테서 들은 것이지만, 맹장자(孟莊子)의 효(孝)는, 다른 것은 다 그대로 해낼 수 있지만, 그가 부친의 가신(家臣)과 부친이 정책을

		其不改父之臣 與父之政 是難能也	바꾸지 않은 것만은, 그대로 해내기가 어렵다.
865	陽膚 曾子弟子 民散 謂情義乖離 不相維繫 謝氏曰 民之散也 以使之無道 教之無素 故 其犯法也 非迫於不得已 則陷於不知也 故 得其情 則哀矜而勿喜	19-19-1 孟氏 使陽膚 爲士師 問於曾子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則哀矜而勿喜	맹씨(孟氏)가 양용(襄庸)에게 사사(士師)를 시켰다. (襄庸가) 증자(曾子)께 그 일을 여쭙어 보았다.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도(正道)를 잃어, 국민들의 단합심(團合心)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된) 실정을 알게 된다면,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겨질 것이지 (그것을 알아냈다고) 기뻐하지는 말것이다.
866	下流 地形卑下之處 衆流之所歸 喻人身有污賤之實 亦惡名之所聚也 子貢言此 欲人常自警省 不可一置其身於不善之地 非謂紂本無罪而虛被惡名也	19-20-1 子貢曰 紂之不善 不如是之甚也 是以君子 惡居下流 天下之惡 皆歸焉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주(周)가 나쁜 것은 그토록 까지 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군자(君子)는 하류(下流)에 처해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온 천하(天下)의 악(惡)이 다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867	#	19-21-1 子貢曰 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焉 過也 人皆見之 更也 人皆仰之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과오(過誤)를 저지르는 것은 일식(一蝕) 같다. 과오(過誤)를 저지르면, 아무나 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면, 아무나 다 그를 우러러본다.
868	公孫朝 衛大夫	19-22-1 衛公孫朝問於子貢曰 仲尼焉學	위(衛) 나라의 공손조(公孫朝)가 자공(子貢)에게, 중니(仲尼)는 어디서 배웠나요? 하고 물었다.
869	文武之道 謂文王武王之謨訓功烈 與凡周之禮樂文章 皆是也 在人 言人有能記之者 識記也	19-22-2 子貢曰 文武之道 未墜於地 在人 賢者 識其大者 不賢者 識其小者 莫不有文武之道焉 夫子 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람들 가운데에는, 잘난 사람은 그 큰 것을 기억하고 있고, 잘나지 못한 사람은 그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도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저의 선생님께서야 어디에서든 배우시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찌 일정한 스승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870	武叔 魯大夫 名州仇	19-23-1 叔孫武叔 語大夫於朝曰 子貢 賢於仲尼	숙손무숙(叔孫武叔)이 조정에서 한 대부(大夫)에게 말하기를, 자공(子貢)이 공자보다 잘났다.고 하였다.
871	牆卑室淺	19-23-2 子服景伯 以告子貢 子貢曰 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이 이야기를 자공(子貢)에게 들려주었더니,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집의 담에다 비유한다면, 저의 담은 어깨까지 닿아서, 집의 좋은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窺見室家之好	
872	七尺曰仞 不入其門 則不見其中之所有 言牆高而宮廣也	19-23-3 夫子之牆 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	우리 선생님의 담은 여러 길이나 되어서, 그 문을 찾아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종묘(宗廟)의 아름다움과, 온갖 관원들의 수효가 많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873	此夫子 指武叔	19-23-4 得其門者 或寡矣 夫子之云 不亦宜乎	그 문을 찾아낸 사람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적습니다. 그러니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럴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874	無以爲 猶言無用爲此 土高曰丘 大阜曰陵 日月 喻其至高 自絕謂以謗毀自絕於孔子 多 與祇同 適也 不知量 謂不自知其分量也	19-24-1 叔孫武叔 毀仲尼 子貢曰 無以爲也 仲尼 不可毀也 他人之賢者 丘陵也 猶可踰也 仲尼 日月也 無得而踰焉 人雖欲自絕 其何傷於日月乎 多見其不知量也	숙손무숙(叔孫武叔)이 중니(仲尼)를 헐뜯어서 말했다.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 보아도 소용이 없다. 중니(仲尼)는 헐뜯어낼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잘난 것은 언덕 같아서,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 중니(仲尼)는 해와 달 같아서, 넘어가 낼 수 없다. 사람이 스스로 그것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해와 달에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단지 자기가 스스로를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875	爲恭 謂恭敬推遜其師也	19-25-1 陳子禽 謂子貢曰 子爲恭也 仲尼 豈賢於子乎	진자금(陳子禽)이 자공(子貢)에게, 선생이 겸손한 것이지요. 중니(仲尼)가 어찌 선생보다 잘났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876	責子禽不謹言	19-25-2 子貢曰 君子一言 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慎也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한 마디로 지혜로워지고, 한 마디로 지혜롭지 않게 되는 것이니, 말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7	階 梯也 大可爲也 化不可爲也 故曰不可階而升也	19-25-3 夫子之不可及也 猶天之不可階而升也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 낼 수 없는 것은, 층계(層階)를 밟고 하늘에 올라가 낼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878	立之 謂植其生也 道引也 謂教之也 行 從也 綏安也 來歸附也 動謂鼓舞之也 和所謂於變時雍 言其感應之妙 神速如此 榮 謂莫不尊親 哀 則如喪考妣 程子曰 此聖人之神化 上下與天地同流者也 ○ 謝氏曰 親子貢稱聖人語 乃知晚年進德 蓋極於高遠也 夫子之得邦家者 其鼓舞群動 捷於桴鼓影響 人雖見變化 而莫窺其所以變化也 蓋不離於聖 而有不可知者存焉 聖而進於不可知之之神矣 此 殆難以思勉及也	19-25-4 夫子之得邦家者 所謂立之斯立 道之斯行 綏之斯來 動之斯和 其生也榮 其死也哀 如之何其可及也	우리 선생님께서 제후국(諸侯國)이나 큰 가문(家門)을 맡아서 다스리셨다면야 그야말로 그것을 세우면 서고, 그것을 이끌면 따라가고, 그것을 안정시키면 따라오고, 그것을 움직이면 조화를 이룬다. 그의 생애는 영광스럽고, 그의 죽음은 슬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분을 따라가 내겠습니까?

879	20 堯曰 第二十 凡三章	20 堯曰 第二十	제 20 편. 요왈(堯曰) 3 장. ♣ 요, 순, 우, 무왕 등의 정치적 성격과 일반 위정자를 위한 훈계가 많이 있다. 이 편은 3 절로 구성 되었으며 논어 20 편 중에서 체제가 가장 다르게 꾸며졌다. 요왈편(堯曰篇)은 3 장(章).
880	此 堯命舜而禪以帝位之辭 咨 嗟歎聲 曆數 帝王相繼之次第 猶歲時氣節之先後也 允 信也 中者無過不及之名 四海之人困窮 則君祿亦永絕矣 戒之也	20-01-1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 在爾躬 允執厥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요(堯) 임금은 말했다. 아아! 너 순(舜)이여!. 하늘의 역수(曆數)가 네 몸에 와 있으니, 진실로 그 중용(中庸)을 잡을지니라. 사해(四海)가 곤궁해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복록(福祿)은 영영 끊어지리라.
881	舜後遜位於禹 亦以此辭命之 今見於虞書大禹謨 比此加詳	20-01-2 舜亦以命禹	순(舜) 임금도 이 말을 우(禹) 임금에게 일러주었다.
882	此 引商書湯誥之辭 蓋湯既放桀而告諸侯也 與書文大同小異 曰上 當有湯字 履 蓋湯名 用玄牡 夏尙黑 未變其禮也 簡 閱也 言桀有罪 己不敢赦 而天下賢人 皆上帝之臣 己不敢蔽 簡在帝心 惟帝所命 此 述其初請命而伐桀之詞也 又言君有罪 非民所致 民有罪 實君所爲 見其厚於責己 薄於責人之意 此其告諸侯之辭也	20-01-3 曰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탕왕(湯王)은 말했다.) 나, 어린 아이 리(履)는 감히 검은 부사리를 희생으로 바치고, 밝히 위대하고 위대한 천제(天帝)께 고하옵나니, 죄 있는 자는 감히 용서하지 못하겠나이다. 천제(天帝)의 신하들은 막지 않을 것이오니, 그것을 가려내는 것은 천제(天帝)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에 만력(萬力)을 맡아 다스리는 일을 맡기지 마사이다. 만방의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나 자신의 부덕(不德)의 탓입니다.
883	此以下 述武王事 賚 予也 武王克商 大賚于四海 見周書武成篇 此 言其所富者皆善人也 詩序云 賚 所以錫予善人 蓋本於此	20-01-4 周有大賚 善人是富	(武王은 말했다.) 주(周) 나라는 하늘의 큰 혜택을 입어 선(善)한 인물이 많다.
884	此 周書泰誓之辭 孔氏曰 周 至也 言紂至親雖多 不如周家之多仁人	20-01-5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자한 인물만은 못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의 부덕(不德)한 탓이다.
885	權 稱錘也 量 斗斛也 法度 禮樂制度皆是也	20-01-6 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四方之政 行焉	도량형을 바로 하며, 법과 제도를 살펴 정비하고, 없어진 관서를 수리하니, 사방의 정치가 잘 시행되었다.
886	興滅 繼絕 謂封黃帝堯舜夏商之後 舉逸民 謂釋箕子之囚 復商容之位 三者 皆人心之所欲也	20-01-7 興滅國 繼絕世 舉逸民 天下之民 歸心焉	없어진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이려주고, 숨은 사람을 들어 쓰니, 천하 백성의 마음이 주나라로 돌아갔다 .
887	武成曰 重民五教 惟食喪祭	20-01-8 所重民食喪祭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민생문제와 상례와 제례였다.
888	此 於武王之事 無所見 恐或泛言帝王之道也 ○ 楊氏曰 論語之書 皆聖人微言 而其徒傳守之以明斯道者也 故 於終篇 具載堯舜咨命之言 湯武誓師之意 與夫施諸政事者 以明聖學之所傳者一於是而已 所以著明二十篇之大旨也 孟子於終篇 亦歷敘堯舜湯文孔子相承之次 皆此意也	20-01-9 寬則得重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너그러우면 무리를 얻을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백성이 신임할 것이요, 민첩하면 공적이 있을 것이요, 공평하면 모두 기뻐할 것이다. 고 하셨다

889	#	20-02-1 子張問於孔子曰 何如 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屏四惡 斯可以從政矣 子張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子張曰 何謂惠而不費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擇可勞而勞之 又誰怨 欲仁而得仁 又焉貪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 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 正其衣冠 尊其瞻視 儼然人望而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	자장(子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정치(政治)에 종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하고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 미덕(美德)을 존중하고 네 가지 악덕(惡德)을 물리친다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장(子張)이, 무엇이 다섯 가지 미덕(美德)입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군자(君子)는 은혜스러우면서 낭비하지는 않고, 힘드는 일을 시키면서도 원망을 사지는 않고, 원하기는 하나 탐내지는 않고, 태연하나 교만하지도 않고, 위엄이 있으나 사납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자장(子張)이, 무엇이 은혜스러우나 낭비하지는 않는것입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에게 이익 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을 이롭게 하여 주면, 이 또한 은혜스러우면서 낭비하지는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힘드는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을 택해서 힘드는 일을 시킨다면 또 누가 원망하겠느냐? 인자함을 원해서 인자함을 얻는다면 또 어찌 탐내겠느냐? 군자(君子)는 사람이 많건 적건 크건 작건, 감히 소홀하게 다루는 일이 없으니, 이 또한 태연하나 교만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 군자(君子)는 자기의 의관을 바로 착용하고, 자기 보는 것을 위엄 있게 하여, 엄연한 것이 남이 바라보면 그를 두려워하게 되니, 이 또한 위엄이 있으나 사납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	
890		虐 謂殘酷不仁 暴 謂卒遽無漸 致期刻期也 賊者 切害之意 緩於前而急於後 以誤其民而必刑之 是賊害之也 猶之猶言均之也 均之以物與人 而於其出納之際 乃或吝而不果 則是有司之事 而非爲政之體 所與雖多 人亦不懷其惠矣 項羽使人 有功當封 刻印刳 忍弗能予 卒以取敗 亦其驗也 ○ 尹氏曰 告問政者多矣 未有如此之備者也 故 記之以繼帝王之治 則夫子之爲政 可知也	20-02-2 子張曰 何謂四惡 子曰 不教而殺 謂之虐 不戒視成 謂之暴 慢令致期 謂之賊 猶之與人也 出納之吝 謂之有司	자장(子張)이, 무엇이 네 가지 악덕(惡德)입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지 않고서 죽이는 것을 잔학(殘虐)하다고 한다. 미리 경계해 놓지 않고서 일의 완성을 재촉하는 것을 난폭하다고 한다. 소홀하게 명령해 놓고 시기를 꼭 대도록 기대하는 것을 괴롭히는 짓이라고 한다. 고루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데 있어, 내고 들이는 것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유사(有司)라고 한다.
891		程子曰 知命者 知有命而信之也 人不知命 則見害必避 見利必趨 何以爲君子	20-03-1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공자에게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뜻을 모르면 군자(君子) 노릇을 할 길이 없다.
892		不知禮 則耳目無所加 手足無所措	20-03-2 不知禮 無以立也	예(禮)를 모르면 남 앞에 나설 길이 없다.

893	言之得失 可以知人之邪正 ○ 尹氏曰 知斯三者 則君子之事備矣 弟子記此以終篇 得無意乎 學者少而讀之 老而不知一言爲可用 不幾於侮聖言者乎 夫子之罪人也 可不念哉	20-03-3 不知言 無以知人也	말을 모르면 남을 알 길이 없다.
-----	---	----------------------	--------------------

896	01 學而 第一 凡十六章	01 學而 第一	제 01 편. 학이(學而) 16 장. ♣ 학이편은 논어의 서편(緒編)으로 학문의 중요성과 공자의 사상이 깃들여 있다. 편목(篇目)을 구별하기 위해 각편(各篇) 첫 장에서 두 글자씩을 따다가 편명(篇名)으로 삼고 있다. 학이편(學而篇)은 16 장(章), 배우는 사람이 먼저 힘써 해야 할 기본 되는 일이 많이 다루어져 있다.
897	02 爲政 第二 凡二十四章	02 爲政 第二	제 02 편. 위정(爲政) 24 장. ♣ 정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수록하였다. 위정편(爲政編)은 24 장.
898	03 八 佞 第三 凡二十六章	03 八 佞 第三	제 03 편. 팔일(八佞) 26 장. ♣ 무악(舞樂)의 이름인 팔일을 편명으로 삼아 예악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았다. 팔일편(八佞編)은 26 장(章).
899	04 里仁 第四 凡二十六章	04 里仁 第四	제 04 편. 이인(里仁) 26 장. ♣ 인덕(仁德)에 대한 말을 많이 수록하였음. 이인편(里仁編)은 26 장(章).
900	05 公冶長 第五 此篇 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蓋格物窮理之一端也 凡二十七章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	05 公冶長 第五	제 05 편. 공야장(公冶長) 27 장. ♣ 제자들과 고금의 인물을 평한 것으로 주로 자공의 언행이 많이 기술 되어 있다. 공야장편(公冶長編)은 27 장(章).
901	06 雍也 第六 凡二十八章 篇內第十四章以前 大意與前篇同	06 雍也 第六	제 06 편. 웅야(雍也) 28 장. ♣ 이 편 앞쪽은 인물평이 많고 뒤쪽은 인(仁)과 지(知)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다. 웅야편(雍也篇)은 28 장(章).
902	07 述而 第七 此篇 多記聖人謙己誨人之辭 及其容貌行事之實 凡三十七章	07 述而 第七	제 07 편. 술이(述而) 36 장. ♣ 공자 자신의 일과 공자의 용모, 태도, 행동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논어 전편중 가장 뛰어난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이 편은 성인이 자기를 겸손하고 사람을 가르친 말 및 그 거동과 일을 행하는 실재를 많이 기록했으니, 무릇 37 장이라. 곧 이 편은 공자의 一動一靜을 기록한 글이다.
903	08 泰伯 第八 凡二十一章	08 泰伯 第八	제 08 편. 태백(泰伯) 21 장. ♣ 고대의 성왕들과 현인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다. 태백편(泰伯編)은 21 장(章).
904	09 子罕 第九 凡三十章	09 子罕 第九	제 09 편. 자한(子罕) 30 장. ♣ 공자의 언행에 대한 기록과 공자의 출처진퇴(出處進退)에 대한 기록이 많음. 자한편(子罕篇)은 30 장(章).

905	10 鄉黨 第十 楊氏曰 聖人之所謂道者 不離乎日用之間也 故夫子之平日 一動一靜門人皆審視而詳記之 尹氏曰甚矣 孔門諸子之嗜學也 於聖人之容色言動 無不謹書而備錄之 以貽後世 今讀其書卽其事宛然如聖人之在目 也 雖然聖人豈拘拘而爲之者哉 蓋盛德之至 動容周旋自中乎禮耳 學者欲潛心於聖人 宜於此求焉 舊說凡一章今分爲十七	10 鄉黨 第十	제 10 편. 향당(鄉黨) 19 장. ♣ 향당은 공자님의 용모, 음성, 의식주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공자님의 생활태도를 기록한 편이다. 향당편(鄉黨篇)은 19 장(章). 공자의 행동거지를 기록한 것인데 기록자(記錄者)의 관찰이 경탄할 만큼 세밀하다.
906	11 先進 第十一 此篇 多評弟子賢否 凡二十五章 胡氏曰 此篇 記閔子騫言行者四而其一 直稱閔子 疑閔氏門人所記也	11 先進 第十一	제 11 편. 선진(先進) 25 장. ♣ 문인들과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한 평이 많고 논어 전권을 선진을 기준으로 상, 하로 나누는 경계로 삼았다. 선진편(先進篇)은 25 장(章).
907	12 顏淵 第十二 凡二十四章	12 顏淵 第十二	제 12 편. 안연(顏淵) 24 장. ♣ 안연편은 공자와 제자, 제후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주로 정치쪽으로 많이 기록이 되었으며 바름(正)과 솔선을 이상형으로 삼았다. 안연편(顏淵篇)은 24 장(章).
908	13 子路 第十三 凡三十章	13 子路 第十三	제 13 편. 자로(子路) 30 장. ♣ 앞쪽은 정치에 대한 기록이 많으며 뒤쪽은 성인 군자에 대한 문답으로 이루어짐. 자로편(子路篇)은 30 장(章).
909	14 憲問 第十四 胡氏曰 此篇 疑原憲所記 凡四十七章	14 憲問 第十四	제 14 편. 헌문(憲問) 47 장. ♣ 이 편은 여러나라의 사대부의 말을 기록하였으며 원헌(原憲)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문편(憲問篇)은 47 장(章).
910	15 衛靈公 第十五 凡四十一章	15 衛靈公 第十五	제 15 편. 위 영공(衛靈公) 41 장. ♣ 문구가 짧은 것이 특색이며 수신과 처세에 관한 구절이 많다. 위 영공편(衛靈公篇)은 모두 41 장(章).
911	16 季氏 第十六 洪氏曰 此篇 或以爲齊論 凡十四章	16 季氏 第十六	제 16 편. 계씨(季氏) 14 장. ♣ 이 편은 긴문장이 많으며, 말한 사람의 이름이 없으며 특히 자왈을 공자왈로 적어 놓았다. 계씨편(季氏篇)은 14 장(章).
912	17 陽貨 第十七 凡二十六章	17 陽貨 第十七	제 17 편. 양화(陽貨) 26 장. ♣ 세상의 어지러움과 위정자와 제자들에게 경고를 많이하고 있다. 양화편(陽貨篇)은 26 장(章).
913	18 微子 第十八 此篇 多記聖賢之出處 凡十一章	18 微子 第十八	제 18 편. 미자(微子) 11 장. ♣ 고대 은, 주나라의 현인(미자, 기자, 비간, 백이 숙제 등)들에 대한 공자님의 생각과 사상을 당시의 사회상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미자편(微子篇)은 11 장(章).
914	19 子張 第十九 此篇 皆記弟子之言而子夏爲多 子貢次之 蓋孔門 自顏子以下 穎悟莫若子貢 自曾子以下 篤實無若子夏 故 特記之詳焉 凡二十五章	19 子張 第十九	제 19 편. 자장(子張) 25 장. ♣ 이 편에는 공자의 제자들인 자하, 자공, 증자 등의 말을 간추려 놓았음. 다 공자의 문인(門人)들의 말로, 그 중에도 자하(子夏)의 말이 가장 많고 자공(子貢)이 말이 그 다음으로 많다. 자장편(子張篇)은 25 장(章).
915	20 堯曰 第二十 凡三章	20 堯曰 第二十	제 20 편. 요왈(堯曰) 3 장. ♣ 요, 순, 우, 무왕 등의 정치적 성격과 일반 위정자를 위한 훈계가 많이 있다. 이 편은 3 절로 구성되었으며 논어 20 편 중에서 체제가 가장 다르게 꾸며졌다. 요왈편(堯曰篇)은 3 장(章).